

제40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14년 7월 18일(금요일)

장소 : 평택대학교 대학원동(제1 발표장: 1층 소강당, 제2 발표장:312호)

주제 : 국어 음운 연구의 동향과 쟁점 탐색

주최 : 한말연구학회

개회식		제1 발표장, 사회 : 김양진(경희대)	
09:30 ~ 10:00	등록 및 접수		
10:00 ~ 10:20	개회사	이근영(한말연구학회 회장)	
제1부	주제 발표	제1 발표장, 사회 : 김양진(경희대)	
10:20 ~ 11:00	국어 분절음 연구의 쟁점 발표: 이진호(전남대)	토론: 박선우(계명대)	
11:00 ~ 11:40	교체의 양상 및 교체형의 해석에 대한 쟁점 발표: 신승용(영남대)	토론: 임석규(원광대)	
11:40 ~ 12:20	운율 연구의 쟁점과 과제-1950년대 이후 표준어 운율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 차재은(경기대)	토론: 박속희(충남대)	
< 점 심 > 12:20~13:30			
특강	제1 발표장, 사회 : 조일규(평택대)		
13:30 ~ 14:20	국어 성조사 연구의 방법	김차균(충남대 명예교수)	
< 휴 식 > 14:20~14:30			
제2부	제1 분과 발표	제1 발표장, 사회: 조용준(건국대)	제2 분과 발표
			제2 발표장, 사회: 이만식(경동대)
14:30 ~ 15:10	체언 말 자음의 발음 실태와 원인 분석 발표: 김연희(대진대)	토론: 한명숙(안양대)	질병 체험 내러티브 DB 구축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발표: 우상수(서울대)
			토론: 전영란(성균관대)
15:10 ~ 15:50	평창방언 성조의 전이적 특징에 대한 연구-곡용 시 실현되는 성조형을 중심으로 발표: 최영미(경동대)	토론: 김주연(건국대)	스피치를 위한 입말의 특성 연구 발표: 한성일(가천대)
			토론: 전정미(상명대)
< 휴 식 > 15:50~16:00			
제3부	제1 분과 발표	제1 발표장, 사회: 허원욱(건국대)	제2 분과 발표
			제2 발표장, 사회: 권경일(경희대)
16:00 ~ 16:40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의 표어 연구 발표: 방운규(평택대)	토론: 김용경(경동대)	품사 통용어 교육 현황 분석 발표: 김한샘(국어원)
			토론: 박동근(건국대)
16:40 ~ 17:20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 변천과의 상관성 발표: 최대희(건국대)	토론: 정수현(건국대)	개편된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지도 방안-텍스트 강화와 개요 쓰기를 중심으로 발표: 고경만·이소영(국한교협)
			토론: 정해권(한국외대)
17:20 ~ 18:00	[계기] 어휘목록의 통사적 제약 및 의미 발표: 김기준(단국대)	토론: 신호철(경기대)	문화 사전 특징 분석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 편찬의 활용 방향-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발표: 김은영(경기대)
			토론: 이화진(홍익대)
< 종 회 >			

한 말 연 구 학 회

차 례

【제1부 주제 발표】

이진호(전남대)	국어 분절음 연구의 쟁점	3
박선우(계명대)	토론	18
신승용(영남대)	교체의 양상 및 교체형의 해석에 대한 쟁점	20
임석규(원광대)	토론	34
차재은(경기대)	운율 연구의 쟁점과 과제-1950년대 이후 표준어 운율 연구를 중심으로	37
박속희(충남대)	토론	60

【특 강】

김차균(충남대)	국어 성조사 연구의 방법	65
----------	---------------------	----

【제2부 제1 분과 발표】

김연희(대진대)	체언 말 자음의 발음 실태와 원인 분석	107
한명숙(안양대)	토론	124
최영미(경동대)	평창방언 성조의 전이적 특징에 대한 연구-곡용 시 실현되는 성조형을 중심으로	126
김주연(건국대)	토론	144

【제2부 제2 분과 발표】

우상우(서울대)	질병 체험 내러티브 DB 구축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147
전영란(성균관대)	토론	152
한성일(가천대)	스피치를 위한 입말의 특성 연구	154
전정미(상명대)	토론	166

【제3부 제1 분과 발표】

방운규(평택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의 표어 연구	171
김용경(경동대)	토론	195
최대희(건국대)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 변천과의 상관성	196
정수현(건국대)	토론	212
김기준(단국대)	[계기] 어휘목록의 통사적 제약 및 의미	213
신호철(경기대)	토론	231

【제3부 제2 분과 발표】

김한샘(국어원)	품사 통용어 교육 현황 분석	237
박동근(건국대)	토론	256
고경민·이소영(국한교협)	개편된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지도 방안-텍스트 강화와 개요 쓰기를 중심으로	257
정해권(한국외대)	토론	277
김은영(경기대)	문화 사전 특징 분석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 편찬의 활용 방향-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279
이화진(홍익대)	토론	299

제1부 주제 발표

국어 분절음 연구의 쟁점

이진호(전남대)

< 차례 >

1. 머리말
 2. 분절음과 관련된 용어의 문제
 3. 자음 체계의 문제
 4. 모음 체계의 문제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국어 음운론의 여러 주제 중 분절음과 관련된 연구사적 쟁점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현대 국어의 음소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국어 음운론 분야는 일찍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러한 성과는 주로 음운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음운들 사이의 대립 관계에 기반하여 음소 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해석하면서 수준 높은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던 것이다.

반면 현대 국어 음운론은 기본적으로 통시 음운론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음운사와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20세기 전반기의 경우 음성학 이론의 도입으로 인해 문자의 환영에 빠지는 음운론 연구를 극복하게 해 주었다.¹⁾ 또한 20세기 후반기에는 생성 문법을 받아들여 공시적 기술 방법들을 세밀하게 다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²⁾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현대 국어의 음운론 연구 중 음소 체계와 관련하여 부각되었던 여러 이견들이다. 통시 음운론에서는 주로 음소 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한 연구사적 쟁점이 되었던 반면 현대 국어의 공시 음운론에서는 음운 현상이나 공시적 기술 방법 등 음소 체계 외적인 내용들이 연구사적으로 더 쟁점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음소 체계와 관련해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이견들이 없지는 않다.

이 글에서 검토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장에서는 음소 체계와 관련된 용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문법 용어는 문법 연구에서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지만 지금까지 그리 깊이 있게 다루어진 적은 없다. 음운론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세 부류를 선택하여 그 속에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3장과 4장은 각각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와 관련된 쟁점을 살핀다. 3장에서는 자음

1) 문자에 기대어 잘못된 음운 분석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 국어의 ‘ㅉ, ㅊ’ 등을 단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으로 분석한 것을 들 수 있다.

2) 가령 불규칙적 교체의 기술 방안 또는 형태소의 기저형 설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 등은 생성 문법에 힘입은 바가 크다.

체계 중에서도 자음의 조음 위치 분류 및 ‘ㅎ’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4장은 이중 모음의 범위, 이중 모음 ‘ㄴ’의 해석, 반모음 목록 등 주로 이중 모음에 대한 내용들을 살핀다.

2. 분절음과 관련된 용어의 문제

2.1. ‘파열음’의 경우

자음 중에서 ‘폐쇄-지속-파열’의 단계를 거쳐 발음되는 장애음의 부류를 일반적으로 ‘파열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파열음’ 이외에 다른 용어들도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용어들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³⁾

(1)

- ㄱ. 다막음소리, 단음소리, 정지음(停止音), 폐쇄음(閉鎖音), 밀폐음(密閉音), 차단음(遮斷音), 폐쇄구음(閉鎖口音), 색음(塞音), 폐색자음(閉塞子音), 폐음(閉音), 폐지음(閉止音), 막힘소리, 막음소리 등
- ㄴ. 폐쇄 지속음 등
- ㄷ. 헤치소리, 파열음(破裂音), 파장음(破障音), 충돌음(衝撞音), 터짐소리, 터지소리, 터침소리, 헤침소리, 파열음운(破裂音韻), 터지는 소리, 터뜨림소리, 파음(破音), 폭발음(爆發音), 구강 파열음, 터짐당소리 등
- ㄹ. 순간음(瞬間音), 단음(斷音), 비계속음(非繼續音), 비지속음(非持續音) 등

(1ㄱ~ㄷ)은 파열음의 조음 단계 중 특정한 단계에 초점을 둔 것이고 (1ㄹ)은 파열음의 전체적인 음성적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1ㄱ)은 파열음의 첫 번째 조음 단계인 ‘폐쇄’, (1ㄴ)은 두 번째 조음 단계인 ‘지속’, (1ㄷ)은 세 번째 조음 단계인 ‘파열’을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내는 (1ㄱ)과 세 번째 단계를 나타내는 (1ㄷ)이 우세하다. (1ㄹ)은 파열음이 지속음과 달리 공기의 흐름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다지 널리 쓰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음에 반대되는 자음에는 파열음 이외에 파찰음과 비음도 있어서 파열음만을 지칭하기에는 그리 정확한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1)에 나온 여러 용어 중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1ㄱ)을 대표하는 ‘폐쇄음’과 (1ㄷ)을 대표하는 ‘파열음’이다. 음운론과 관련된 각종 논저에서도 이 두 용어는 거의 대등하게 쓰이고 있다. ‘파열음’보다 ‘폐쇄음’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측의 중요한 근거는 파열음의 변이음 중에는 파열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ㄴ, ㄷ, ㄱ’의 경우 음절 종성에서는 파열이 되지 않는 미파음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미파음까지 포괄하는 용어로는 ‘파열음’보다 ‘폐쇄음’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파열음의 변이음 중에 파열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지만 이것이 ‘폐쇄음’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후음인 ‘ㅎ’의 변이음은 모두 후두에서 조음되어야 하고 치조음인 ‘ㄴ, ㄹ, ㅅ’의 변이음은 모

3) 여기에 제시된 용어들은 필자가 현재 집필 중인 『국어 음운론 용어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편의를 위해 용어의 출처 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두 치조에서만 조음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파열음 ‘ㅂ, ㄷ, ㄱ’의 변이음 중에는 유성 마찰음도 있는데 이것은 ‘폐쇄음’이라는 용어도 쓸 수 없게끔 할 수 있다.⁴⁾

‘폐쇄음’이라는 용어는 ‘파열음’과는 달리 여러 가지 상이한 용법을 지니고 있다.

(2)

ㄱ. 파열음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

ㄴ. ‘지속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 : ‘파열음, 파찰음, 비음’이 여기에 속함

ㄷ. ‘폐쇄-지속-파열’의 단계를 거치는 모든 부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 :

‘파열음(plosive), 내파음(implosive), 방출음(ejective), 흡착음(click)’이 여기에 속함

ㄹ. 종성에 나타나는 미파음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

(2)는 ‘폐쇄음’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쓰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용어를 ‘파열음’ 대신 사용한다면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파열음’ 대신 ‘폐쇄음’을 사용한다면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파찰음’도 ‘폐찰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폐쇄음’과 ‘마찰음’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용어는 ‘파찰음’이 아닌 ‘폐찰음’이 될 수밖에 없다.⁵⁾ 그렇지만 ‘폐쇄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파찰음’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폐쇄음’보다는 ‘파열음’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폐쇄’와 ‘파열’ 중 이 부류의 음이 지닌 특징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은 ‘파열’이다. 강한 터뜨림을 동반하여 조음될 때 파열음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폐쇄’는 파찰음에서도 나타나서 파열음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실은 폐에서 나오는 날숨을 이용하여 ‘폐쇄-지속-파열’의 단계를 거치는 자음에 대해서 ‘폐쇄음’보다는 ‘파열음’이라는 부르는 것이 좀 더 적절함을 말해 준다. 즉 (2ㄱ)의 부류에 대해서는 ‘파열음’이라고 부르고 ‘폐쇄음’은 (2ㄷ)에 국한하여 영어의 ‘stop’에 대응하는 용법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2ㄴ)의 용법으로는 ‘순간음, 비지속음’ 등의 용어가, (2ㄹ)의 용법으로는 ‘미파음, 불파음’ 등의 용어가 있다.⁶⁾

2.2. ‘삼지적 상관속’의 경우

국어의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세 가지 서로 세 부류가 구별된다. 이 세 부류를 묶어서 흔히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부른다.⁷⁾ 그런데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

4) 이 때문에 어떤 음소의 부류를 지칭하는 용어를 결정하거나 또는 그 음소를 음소 체계 내에서 분류할 때에는, 그 음소의 모든 변이음을 고려하기보다 대표 변이음(또는 주-변이음)만을 고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파열음의 대표 변이음은 외파되는 음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파열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조음 음성학적으로 보아도 ‘파찰음’보다는 ‘폐찰음’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폐찰음’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간간히 쓰이고 있다.

6) (2ㄹ)을 지칭하는 데 널리 쓰여 온 ‘내파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내파음’은 원래 의미로는 후두를 발동부로 하며 들숨을 사용하여 내는 폐쇄음(stop)의 일종이라서 국어의 음절말에서 발음되는 미파음을 가리키는 데에는 부적당하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공유되면서 ‘내파음’보다 ‘미파음’이나 ‘불파음’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7) 장애음 계열에서 성대의 울림이 아닌 다른 음성적 자질을 통해 세 가지 부류가 구분된다는 것은

는 세 부류의 명칭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 ㄱ. 평음 : 평음(平音), 예사소리, 살뫼달이, 이사소리, 평청음(平淸音), 본자음(本子音), 보통소리, 순음(順音), 순한 소리, 연음(軟音), 단순음(單純音), 여린 소리, 여린 달소리, 평자음, 경기음(輕氣音), 무기 연음(無氣軟音), 약한 소리 등
- ㄴ. 경음 : 중성(重聲), 쌍음(雙音), 경음(勁音), 된시옷, 중탁음(重濁音), 쌍자음(雙子音), 격음(激音), 병음(並音), 강음(強音), 힐음(詰音), 중부음(重父音), 짝소리, 농음(濃音), 지음(支音), 쌍초성(雙初聲), 경음(硬音), 된음(-音), 중자음(重子音), 된소리, 꼭달이, 강자음(強子音), 복자음(複子音), 성문폐쇄음(聲門閉鎖音), 딱딱한 소리, 성문화음(聲門化音), 후두화음(喉頭化音), 센소리 등
- ㄷ. 격음 : 격음(激音), 기음(氣音), 유기음(有氣音), 대기음(帶氣音), 목같이소리, 센소리, 꼭달이, 격자음(激子音), 격청음(激淸音), 거센맑은소리, 출기음(出氣音), 강음(強音), 숨뚱소리, 거센자음, 기식음(氣息音), 송기음(送氣音), 거친 소리, 격음소 등

(3ㄱ)의 용어들은 대체로 경음이나 격음과 비교해 소리가 약하거나 또는 더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3ㄴ)의 용어들은 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반영하거나 또는 표기법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⁸⁾ (3ㄷ)은 소리의 강렬한 특징을 용어에 반영하고 있다.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자음들의 명칭은 세 가지의 조합을 고려하여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반화된 몇몇 조합은 다음과 같다.

(4)

- ㄱ.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
- ㄴ. 평음 : 경음 : 격음
- ㄷ. 평음 : 경음 : 유기음

(4ㄱ, ㄴ)은 주로 학교 문법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4ㄷ)은 기술 문법에서 많이 쓰인다. (4ㄱ)과 (4ㄴ)은 고유어와 한자어라는 차이를 지닌다.⁹⁾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각 부류의 명칭은 서로가 대등하면서 동질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4)에 제시된 용어들은 그런 점에서 모두 문제점을 지닌다. (4ㄱ)은 각주 9)에서 지적했듯이 ‘예사소리’가 순수 고유어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소리의 구체적인 음성적 세기나 느낌을 나타내는 ‘된소리, 거센소리’와 달리 ‘예사소리’는 그러한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4ㄴ)의 경우 역시 ‘경음’이나 ‘격음’에 비해 ‘평음’은 구체적인 음성학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약점을 지닌다. (4ㄷ)은 ‘유기음’이 문제이다. 다른 용어에 비해 ‘유기음’은 음성적 특성이 너무 구체적으로 두드러져서 ‘평음’이나 ‘경음’과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3ㄱ~ㄷ)에 제시된 용어들을 대등성과 동질성에 근거하여 조합해 보면 다음의 두 가지

국어 자음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8) 경음은 ‘ㄱ, ㄷ, ㅃ, ㅆ, ㅉ’과 같이 표기되거나 또는 예전에는 ㅅ-계 합용 병서로 표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 중성(重聲), 쌍음(雙音), 된시옷, 쌍자음, 병음(並音) 등이다. 경음의 표기적 특징을 반영한 용어는 주로 20세기 전반기에 많이 쓰였다.

9) 물론 (4ㄱ) ‘예사소리’의 ‘예사’는 한자어 ‘例事’이므로 순수한 고유어는 아니다.

후보가 가능하다.

(5)

ㄱ. 여린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

ㄴ. 연음[軟音](또는 약음[弱音]) : 경음(硬音) : 격음(激音)

(5ㄱ)은 고유어, (5ㄴ)은 한자어로 짝을 지은 것이다. (5ㄱ, ㄴ)은 짝 지어진 용어들이 고유어와 한자어 여부, 대등성과 동질성 측면에서 (4)의 조합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화된 관례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¹⁰⁾

2.3. ‘반모음’의 경우

발음할 때 구강 안의 장애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모음과 비슷하지만 홀로 음절의 중성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한 음소 부류로 반모음이 있다. 반모음을 지칭하는 용어는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묶을 수 있다.

(6)

ㄱ. 반자음(半子音), 반모음(半母音), 반모운(半母韻), 반모반즈(半母半子), 반홀소리, 반음(半音), 반닿소리 등

ㄴ. 부모음(副母音), 버금홀소리, 비성절 모음(非成節 母音) 등

ㄷ. 섭음(涉音), 과도음(過渡音), 추이음(推移音), 미끄럼소리, 이동자음(移動子音), 경과음(經過音), 활음(滑音), 전이음(轉移音), 이동음(移動音), 활주음(滑走音), 활달음(豁達音), 이음(移音), 짧은 모음, 순간 모음 등

ㄹ. 접근음, 순간 접근음, 비성절적 접근음 등

(6ㄱ)은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때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반자음’이 되기도 하고 ‘반모음’이 되기도 한다.¹¹⁾ (6ㄴ)은 반모음이 혼자서는 음절의 중성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데 중점을 둔 용어들이다. (6ㄷ)은 반모음이 음성학적으로 전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6ㄹ)은 협착의 정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음성학적 특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6ㄷ)과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6)에 제시된 용어 중에서는 (6ㄱ)을 반영한 ‘반모음’과 (6ㄷ)을 반영한 ‘활음’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¹²⁾ 이 글에서는 ‘반모음’과 ‘활음’ 중 ‘반모음’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고자

10)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하위 부류의 용어 선택 문제는 음운 현상의 용어 선택 문제로 이어진다. 가령 ‘평음’ 대신 다른 용어를 쓰면 음절말에서 일어나는 평파열음화도 다른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 경음화나 유기음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11) ‘반자음’과 ‘반모음’ 중에서는 ‘반모음’이 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자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보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훨씬 더 일반적이라는 점,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음절의 중성을 이룬다는 점, 구개음화나 이-역행 동화 등에서 반모음이 단모음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점 등은 반모음이 단모음과 더 가까움을 말해 주므로 용어 역시 ‘반자음’보다는 ‘반모음’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12) (6ㄴ)의 용어들은 음절의 쓰임새만을 반영하고 있어서 너무 지엽적이라는 문제점을 지니며 (6ㄹ)의 ‘접근음’에는 반모음 이외에도 유음을 비롯한 다른 자음들이 포함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다.¹³⁾ 우선, 반모음과 함께 분절음을 이루는 요소를 지칭하는 ‘자음, 모음’이 음성적인 속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활음’보다는 ‘반모음’이 더 낫다. ‘활음’은 미끄러지듯 발음한다는 음성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자음’이나 ‘모음’과는 용어상 대등하지가 않다. 다음으로 ‘활음’에는 ‘y, w’와 같은 음 이외에 후음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음도 활음이라고 부르고 있다.¹⁴⁾ 따라서 ‘y, w’만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기에는 ‘활음’보다 ‘반모음’이 더 적절하다.¹⁵⁾

3. 자음 체계의 문제

3.1. 조음 위치의 분류

현대 국어의 조음 위치는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분류 방식도 존재한다. 특히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류로 묶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자음의 조음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게 된다.

(7) 양순음 : 전설음 : 후설음 : 후음¹⁶⁾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는 이유에 대해 배주채(1996 : 47)에서는 치조음과 경구개음이 순수하게 조음 위치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¹⁷⁾ 즉 조음 방식이 동일하면서 오로지 ‘치조 : 경구개’라는 조음 위치만 다르므로써 구별되는 음소의 대립쌍이 국어에는 없다는 것이다. 경구개음에 속하는 ‘ㄷ, ㅌ, ㅈ’은 국어의 유일한 파찰음이기 때문에 경구개음과 다른 자음들의 대립은 조음 위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음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게 된다.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하나의 부류로 묶으면 국어 음운론 기술에서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음절말에서 일어나는 평파열음화의 기술이 좀 더 단순해진다. 평파열음화는 대체로 조음 위치의 변동 없이 조음 방식만 평파열음으로 바뀌는데, 경구개음과 후음은 예외적으로 평파열음화가 적용될 때 조음 위치까지 변하게 된다. 그런데 경구개음과 치조음을 묶으면 ‘ㄷ, ㅌ’이 ‘ㄷ’으로 바뀌는 평파열음화 역시 조음 위치의 변동이 없으므로 그만큼 평파열음화를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다. 이-역행동화를 설명할 때 개재

13) 김종규(2010 : 50~51)에서는 ‘접근음, 활음, 반모음’의 세 용어를 검토한 결과 이중 모음의 부음을 가리키는 데에는 모두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선보이고 있다. 김종규(2010)에서는 반모음에 대해 단모음과는 본질적인 음성적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모음’과 그 성격이 완전히 구분되는 ‘접근음, 활음, 반모음’과 같은 용어들을 호의적으로 보기 어렵다. 김종규(2010)에서는 반모음을 ‘비성절적 모음’이라고 기술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14) 이러한 일시적인 음은 독립된 음소로 처리하지 않고 두 음소 사이의 전이 과정 중 일부로 볼 뿐이다.

15) 이혁화(2010 : 16)에서는 음절 구성의 측면에서 반모음은 홀로 중성이 되지는 못하지만 단모음과 결합하여 중성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속성을 잘 반영하는 ‘반모음’이 다른 용어들보다 더 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16) 구체적인 조음 위치의 명칭은 논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어 자음의 조음 위치를 (7)과 같이 구분하는 방식은 북한의 국어 음운론 연구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17) 이러한 사고는 허 웅(1965 : 191~192)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자음의 부류를 단일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역행동화가 일어나는 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자음들은 치조음과 경구개음들인데, 이것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는다면 이-역행동화의 개재 자음 조건을 더 간략히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경구개음을 따로 독립시키지 않는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구개음화의 설명에서 나타난다. 공시적 관점에서의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와 같은 음소적 구개음화와 치조음의 경구개 변이음화와 같은 음성적 구개음화를 포괄한다. 경구개음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ㄷ-구개음화의 경우 변동의 원인을 조음 위치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조음 위치의 동화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ㄴ, ㄹ’과 같은 설정성 공명음이 ‘ㅈ, ㅊ, ㅍ’과 같은 자음 앞에서 음성적으로 구개음화를 겪는 원인도 설명하기 어렵다. 통시적 관점에서의 구개음화는 ‘ㅈ, ㅊ, ㅍ’이 치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변화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변화 역시 경구개음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7)과 같은 방식에서는 중세 국어나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가 목록 이외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치음 ‘ㅈ, ㅊ, ㅍ’이 경구개음으로 재음운화되는 변화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외에 경구개음을 설정하지 않으면 반모음 ‘y’가 ‘ㅈ, ㅊ, ㅍ’ 뒤에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을 포착하는 데에도 불리하다. ‘ㅈ, ㅊ, ㅍ’과 ‘y’ 사이의 배열 제약은 두 음소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여 그 성격이 중복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경구개음이라는 부류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ㅈ, ㅊ, ㅍ’이 관여하는 현상들을 조음 위치가 아닌 조음 방식에 기대어 설명해야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즉, 지금까지 경구개음이라는 조음 위치와 결부 지어 논의되어 왔던 모든 음운론적 사실들은 (7)과 같은 방식에서는 조음 위치가 아닌 ‘파찰음’이라는 조음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경구개음’이라는 특성을 통해서는 잘 이해되는 것들이 ‘파찰음’이라는 특성을 통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비록 경구개음에 속하는 자음들이 조음 위치에 의해서만 다른 자음과 변별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구개음을 별도로 설정해 주는 것이 공시 음운론적 기술이나 통시 음운론적 설명을 위해서 더 낫다고 하겠다.

3.2. ‘ㅎ’의 분류

후두 마찰음 ‘h’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그 성격 파악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국어의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여 대부류 설정에서부터 하위 부류 설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8)

- ㄱ. ‘ㅎ’은 자음인가? → ‘ㅎ’을 자음으로 보기도 하고 활음으로 보기도 함
- ㄴ. ‘ㅎ’은 장애음인가? → ‘ㅎ’을 장애음으로 보기도 하고 접근음으로 보기도 함
- ㄷ. ‘ㅎ’은 평음인가? → ‘ㅎ’을 평음으로 보기도 하고 유기음으로 보기도 함

여기서는 (8)의 세 가지 쟁점 중 (8ㄷ)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8ㄷ)과 관련하여 현재는 두 가지 관점이 맞서고 있다. ‘ㅎ’을 평음으로 보는 것과 유기음으로 보는

것이다.¹⁸⁾ ‘ㅎ’을 평음으로 보는 근거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9)

- ㄱ. ‘ㅎ’의 변이음들(φ, ç, x, h)은 유기성이 약하다.
- ㄴ. ‘ㅎ’은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를 겪는다.
- ㄷ. ‘ㅎ’ 뒤에서는 무성모음화가 잘 안 일어난다.¹⁹⁾
- ㄹ. 유기음보다는 평음이 더 보편적인 음이다.

(9ㄱ)은 ‘ㅎ’의 음성학적 특징, (9ㄴ, ㄷ)은 변이음 실현 과정에서 ‘ㅎ’의 기능, (9ㄹ)은 언어 보편적인 경향성의 차원에서 ‘ㅎ’이 다른 유기음과는 구분되는 측면이다. ‘ㅋ, ㅌ, ㅍ, ㅊ’과 같은 유기음들은 (9ㄱ~ㄷ)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므로 (9)에 따르면 ‘ㅎ’을 유기음이라고 보기보다는 평음으로 보는 것이 낫다.

반면 ‘ㅎ’을 유기음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도 존재한다.

(10)

- ㄱ. ‘ㅎ’과 평장애음이 결합하면 유기음으로 축약된다.
- ㄴ. 전통적으로 ‘ㅎ’은 차청(유기음)으로 분류해 왔다.

(10ㄱ)은 ‘ㅎ’을 유기음으로 분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축약이 일어나면 축약되기 전의 두 음소가 지닌 음성적 특성이 합쳐지기 마련이므로 평장애음이 유기음으로 바뀌는 데 주된 역할은 ‘ㅎ’이 하게 된다. 즉 ‘ㅎ’을 유기음으로 볼 때 축약의 결과가 유기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쉬운 것이다. (10ㄴ)은 전통적인 성운학에서 ‘ㅎ’이 다른 유기음과 동일한 차청으로 분류되었음을 말해 준다.

표면적으로 보면 평음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유기음설을 지지하는 근거보다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면밀하게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9)에 제시된 네 가지 근거 중 (9ㄴ, ㄷ)은 (9ㄱ)에 제시된 ‘ㅎ’의 유기성 부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어서 실제로 (9ㄱ~ㄷ)은 하나의 근거로 묶을 수 있다. 더욱이 (9ㄹ)은 언어 보편적인 경향에 불과해서 ‘ㅎ’이 평음을 지지하는 직접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자음 체계 내에서 ‘ㅎ’의 분류 방식은, ‘ㅎ’의 유기성이 낮다는 사실을 중시할 것인지 ‘ㅎ’이 음운 현상에서 유기음처럼 기능한다는 사실을 중시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 글에서는 ‘ㅎ’의 음운론적 기능을 더 우선시하여 유기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낫다는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사실 ‘ㅎ’의 유기성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ㅎ’의 유기음적 속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기음의 ‘기(aspiration)’와 ‘ㅎ’의 음성적 특성을 비교한 양순임(1998)에 따

18) (9)에 제시된 두 가지 이견 외에 이진호(2014)에서 ‘분류 불가설’이라고 명명한 제삼의 견해도 있다. 후음이면서 마찰음은 ‘ㅎ’ 하나밖에 없으므로 굳이 평음이나 유기음 어느 한쪽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서 ‘ㅎ’이 어디에 속하는지 구체화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평음’과 ‘유기음’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과 ‘평음’이나 ‘유기음’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어의 공명 자음에 ‘평음 : 경음 : 유기음’의 구별이 없다고 해서 공명음들을 이 세 부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19) 신지영(2000 : 244)에 따르면 무성 모음의 출현 빈도는 선행 자음에 따라 ‘ㄱ(52%), ㅍ(21%), ㅋ(11%), ㅌ(8%), ㅊ(3%), ㅋ(2%), ㅎ(1%), ㄱ(1%), ㅈ(1%)’의 순서를 보인다. 무성모음화가 유기음이 아닌 다른 자음, 특히 치조 마찰음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르면 둘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지만 발성 작용이나 조음 작용에 공통점도 적지 않다. 더구나 ‘ㅎ’은 다른 유기음과 달리 구강 내의 폐쇄 과정을 갖지 않는 후두 마찰음임을 감안해야 한다. ‘ㅎ’의 유기성이 약하다면 이러한 후두 마찰음적인 속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유기성의 정도를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한다면 ‘ㅎ’이 다른 유기음보다 떨어지지만 ‘ㅎ’이 후두 마찰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보다는 작을 수 있다. 그러므로 ‘ㅎ’의 유기성보다는 ‘ㅎ’의 음운론적 기능을 좀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4. 모음 체계의 문제

4.1. 이중 모음의 범위

최근 들어 이중 모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1)

- ㄱ. 이중 모음의 범위에는 단모음 연쇄만이 포함된다.
- ㄴ. 이중 모음의 범위에는 단모음과 반모음의 연쇄만이 포함된다.
- ㄷ. 이중 모음의 범위는 단모음 연쇄나 단모음과 반모음의 연쇄 모두가 포함된다.

이 문제는 이미 1950년대 이전에 한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쟁점화되지 못했다.²⁰⁾ 그러다가 요즘 들어 다시 논의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11ㄱ~ㄷ) 중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이중 모음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직결된다. 이중 모음을 문자 그대로 모음이 이중으로 된 것이라고 보면 (11ㄱ), 이중 모음을 이루는 두 요소 중 하나는 반모음이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면 (11ㄴ), 이중 모음은 단모음 또는 단모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요소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적인 단위라고 보면 (11ㄷ)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다.

현대 국어 연구에서는 대체로 (11ㄴ)과 같은 입장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11ㄱ)에 해당하는 이중 모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ㄱ’을 제외하면 단모음 연쇄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은 존재하지 않는다.²¹⁾ 또 한 가지는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등과 같은 중성자의 존재이다. 문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초창기 연구에서는 ‘ㅑ, ㅓ, ㅕ, ㅗ, ㅛ, ㅜ, ㅠ’와 같이 ‘반모음+단모음’이 하나의 모음자로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이들을 이중 모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1ㄴ)과 같은 방

20) 가령 김두봉, 최현배 등은 대체로 이중 모음 속에 반모음이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이극로의 경우에는 단모음 연쇄만 이중 모음으로 보았다. 이 두 가지 견해를 절충하여 심의린은 이중 모음을 중모음(重母音)과 합모음(合母音)으로 나누고 중모음에는 단모음의 연쇄, 합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을 두어 모두를 이중 모음 속에 포함시켰다. 자세한 것은 이진호(2009)를 참고할 수 있다.

21) 중세 국어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ㅑ, ㅓ, ㅕ, ㅛ’ 등을 ‘ay’와 ‘ai’ 중 어느 쪽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11ㄱ)에 속하는 이중 모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현대 국어에 단모음의 연쇄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국어의 유형론적 특징 중 하나로 거론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식이 이중 모음의 원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1ㄱ)과 같은 입장이 부각되었다. 이중 모음이 두 모음의 결합이어야 한다면 반모음이 포함된 연쇄는 이중 모음의 정의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²²⁾

현대 국어 음운론의 기술에는 (11ㄱ)이나 (11ㄴ)보다는 (11ㄷ)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좀 더 나을 듯하다. (11ㄱ)의 경우 명백하게 중성 역할을 하고 있는 ‘ㅑ, ㅋ, ㅠ, ㅠ, ㅓ, ㄱ’ 등과 같은 연쇄를 이중 모음에서 제외하고 나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합당한 대안 마련이 어렵다.²³⁾ (11ㄴ)의 경우는 이중 모음 중 하나를 반드시 반모음으로 해석하게끔 하여 인위적 분석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단모음의 연쇄든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든 모두 모음적 성격의 음소들이 한 음절의 중성에서 실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11ㄷ)과 같이 이들 모두를 이중 모음에 포함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11ㄷ)과 같은 입장을 취하더라도 순수한 단모음의 연쇄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과 ‘반모음 + 단모음’ 또는 ‘단모음 + 반모음’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을 구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²⁴⁾

4.2. ‘ㄴ’의 분석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 ‘ㄴ’은 이전부터 그 분석 방법에 이견이 있어 왔다. 현재 대립하고 있는 세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⁵⁾

(12)

- ㄱ. ‘ㄴ’은 단모음 ‘ㄴ’와 반모음 ‘y’의 결합이다.
- ㄴ. ‘ㄴ’은 반모음 ‘ㅑ’와 단모음 ‘ㅣ’의 결합이다.
- ㄷ. ‘ㄴ’은 단모음 ‘ㄴ’와 단모음 ‘ㅣ’의 결합이다.²⁶⁾

(12ㄱ~ㄷ) 중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ㄴ’와 관련된 음운 변화의 해석도 완전히 달라진다.

(13)

- ㄱ. ㄴ + ㅣ > ㄴ [예] ㅑ이- > ㅑ이-, ㅑ이- > ㅑ이-
- ㄴ. ㄴ > ㅣ [예] ㅑ > ㅑ, ㅑ > ㅑ

22) 이러한 문제점은 (11ㄴ)과 같은 입장을 취한 논의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가령 최현배(1937 : 41)에서는 이중 모음을 이루는 반모음은 모음의 자격을 갖지 않지만 원래는 모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반모음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23) ‘ㅑ, ㅋ, ㅠ, ㅠ, ㅓ, ㄱ’ 등을 두 개의 단모음 연쇄로 분석하여 (11ㄱ)의 이중 모음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혁화(2012 : 21)에서 지적했듯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24) 각주 20)에서 언급한 심의런처럼 이중 모음 속에 두 개의 하위 부류를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5) (12)에 제시된 세 가지 방식은 북한의 국어 연구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김성근(1995)를 참고할 수 있다.

26) (12ㄷ)의 경우 ‘ㄴ’에서 음절 주음과 부음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상향 이중 모음이나 하향 이중 모음과 구별되는 제삼의 부류를 설정하게 된다. 이 부류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정인호(2004)에서 언급한 ‘부동(浮動) 이중 모음’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외에도 ‘중간적(中間的)/횡진적(橫進的)/평판(平板)/평중(平重)/평(平)/수평(水平)/평행적(平行的) 이중 모음’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가 제안되었다. ‘상향 이중 모음’이나 ‘하향 이중 모음’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높이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평행 이중 모음’ 또는 ‘수평 이중 모음’이 좀 더 나은 용어가 아닌가 한다.

(13ㄱ)과 같이 ‘- + ㅣ’의 두 음절이 이중 모음 ‘-ㅣ’로 줄어드는 변화는 (12ㄱ~ㄷ)에 따라 각각 후행 모음의 반모음화, 선행 모음의 반모음화, 단순한 음절 수의 축소로 달리 해석된다.²⁷⁾ 또한 (13ㄴ)과 같이 자음 뒤의 ‘-ㅣ’가 ‘ㅣ’로 바뀌는 변화는 이중 모음의 축약, 반모음 ‘ㅟ’의 탈락, 단모음 ‘-’의 탈락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ㅣ’의 해석 문제는 ‘-ㅣ’와 관련된 변화의 설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2)에 제시된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하든 ‘-ㅣ’는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 체계에서 유일무이한 특이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 (12ㄱ)의 경우 유일한 하향 이중 모음, (12ㄴ)의 경우에는 반모음 ‘ㅟ’를 지닌 유일한 이중 모음, (12ㄷ)의 경우 단모음의 연쇄로 이루어진 유일한 이중 모음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ㅣ’ 자체가 다른 이중 모음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인 이상 그 분석 방식은 전체 음운 체계에 부담을 덜 주면서 역사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나올 듯하다.

이혁화(2012 : 25~27)에서는 (12ㄴ)의 중요 근거로 내세운 이중 모음 체계의 통일 및 음성학적 근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12ㄷ)은 음절 구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들어 (12ㄱ)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명시적인 입장을 유보하고자 한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12ㄴ)과 같은 방식은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12ㄴ)은 반모음 ‘ㅟ’의 설정으로 초래되는 부담이 적지 않다. 반모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며, ‘ㅟ’는 오로지 ‘ㅣ’와만 결합한다는 극도의 분포상 제약을 지닐 뿐만 아니라 언어 보편적으로도 흔치 않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더욱이 (12ㄴ)은 중세 국어 ‘-ㅣ’로부터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중세 국어의 ‘-ㅣ’는 ‘iy’ 또는 ‘ii’일 수는 있어도 ‘ui’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iy’ 또는 ‘ii’로부터 ‘ui’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시기나 동기,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의 존재 등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3. 반모음의 종류

음소 체계의 차원에서 국어의 반모음은 전설 평순의 ‘y’와 후설 원순의 ‘w’, 두 개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서는 몇 개의 반모음이 추가되기도 한다. 가령 4.2.에서 보았듯이 ‘-ㅣ’의 분석 방법에 따라 ‘ㅟ’를 추가하기도 하며 다음과 같은 최소 대립군(minimal set)을 근거로 전설 원순의 반모음 ‘u’를 추가하기도 한다.

(14) 꺾:[k'yə:](끼 + 어) ↔ 꺾:[k'wə:](꾸 + 어) ↔ 꺾:[k'ʉə:](끼 + 어)

(14)에서 세 용언 어간의 활용형을 구별해 주는 것은 반모음의 종류이다. 음소의 어휘 변별성을 중시하면 ‘u’는 ‘w’나 ‘y’와 구별되는 음소로 분석하게 된다.²⁸⁾ 이처럼 분석 방법에 따라 국어의 반모음은 최대 4개까지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조규태(2000 : 200)의 지적처럼 국어의 반모음은 체계상의 빈틈을 가지지 않는 최대한의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27) 이 중 흥미로운 것은 (12ㄷ)으로 해석할 때이다. 이때에는 분절음 차원에서는 ‘-’와 ‘ㅣ’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만 두 음절이었던 것이 한 음절로 줄어든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 유형은 일찍이 논의된 적이 별로 없다.

28) 음소로 설정된 반모음 ‘/u/’는 ‘w’와 ‘y’의 변이음으로 실현되는 ‘[u]’와는 구분되는 존재이다. 자세한 것은 이혁화(2002)를 참고할 수 있다.

된다.

(15)

	전설	후설
원순	ɥ	w
평순	y	ɥ

(15)를 보면 반모음 체계의 대립 관계는 혀의 전후 위치와 입술 모양에서 표면상으로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추가된 반모음들은 분포상 극도의 편재성을 드러낸다. ‘ɥ’는 오로지 ‘ㅣ’에만 선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포상의 제한 이외에 ‘ɥ’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음소로 설정했을 때 짊어져야 할 부담이 몇 가지 더 존재한다. ‘ɥ’는 주로 ‘ㄱ’ 앞에서만 나타나며 형태소 내부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²⁹⁾ 이것은 음소로서의 ‘ɥ’가 ‘ㄱ, ㄱ’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반모음화가 적용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ɥ’와 ‘ɥ’는 현대 국어의 반모음 체계에 포함시키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을 안고 있다. ‘ɥ’의 경우에는 이중 모음 ‘ㄱ’을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므로 반모음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ɥ’는 (14)와 같은 최소 대립군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ɥ’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음소 분석의 문제나 공시적 기술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초래된다.³⁰⁾ ‘ɥ’의 음소 인정 여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³¹⁾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대 국어의 음운 체계와 관련된 쟁점을 크게 용어, 자음 체계, 모음 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용어 측면에서는 ‘파열음, 삼지적 상관속의 하위 부류, 반모음’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검토하면서 음성학적 특징, 다른 용어들과의 대등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합당한 용어를 제안하였다. 자음 체계 측면에서는 치조음과 경구개음의 구분 문제, ‘ㅎ’의 분류 문제를 다루었다. 모음 체계 측면에서는 주로 이중 모음과 관련된 문제를 고찰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났듯이 현대 국어 음운 체계와 관련된 쟁점들은 대체로 음성학과 관련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용어 사용의 문제도 그렇지만 자음 체계나 모음 체계 역시 음성학적 관찰 결과를 음운 체계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가 관여하고 있다. 음운 체계는 음성학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성학적 차이를 전부 음운 체계에 반영할 수는 없다. 결국 음운론적으로 유의미한 음성적 차이를 선별하여

29) 방언에 따라서는 ‘ㄱ’ 앞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가령 ‘말류+아’나 ‘되+아’의 활용형으로 ‘말ㅍㅏ, ㅍㅏ:’가 나타나는 방언에서는 ‘ɥ’가 ‘ㄱ’ 앞에도 나타난다.

30) 음소 분석의 문제는 이혁화(2002)를, 공시적 기술의 문제는 이진호(2008)를 참고할 수 있다.

31) 다만 ‘ɥ’의 어휘 변별력이 미약해서 (14)와 같은 최소 대립군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 (14)의 ‘ㅍㅏ:’와 같은 활용형은 그 존재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ɥ’ 역시 음소로서 인정한다고 해도 여타의 다른 음소에 비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Goldsmith(1995 : 12)에 제시된 대립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ɥ’는 매우 낮은 등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음운론적인 처리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음운론적 처리에서 좀 더 타당하고 세련된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 참고 문헌

- 강창석(1989), 현대국어 음운론의 허와 실, 『국어학』 19, 국어학회, 3~40.
- 고영근 외(1979), 국어학연구의 방향정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 국문과, 307~399.
- 김무식(1999), 20세기 국어음운론의 연구 동향과 방향, 『어문론총』 33, 경북어문학회, 66~100.
- 김성규(1987), 어휘소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 서울대 국어연구회.
- 김성근(1995), 『조선어어음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김영선(1997), 『우리말 음절 구조의 선호성에 따른 음운 현상에 대한 역사적 연구』, 세종출판사.
- 김완진(1972), 음운론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국문학』 58~60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351~354.
- 김정태(1996), 『국어 과도음 연구』, 박이정.
- 김종규(2010),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하여, 『어문연구』 3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5~66.
- 김차균 외(2005), 『허웅 선생의 우리말 연구』, 태학사.
- 남기탁(2006), 음성학 및 음운론 연구의 최신 동향과 전망, 『우리말 음운 연구의 실제』, 경진문화사, 27~92.
- 박선우(2008), 현대국어의 /의/는 이중모음인가?-/의/의 음향적·지각적 특성에 대한 검토-, 『우리말연구』 23, 우리말학회, 59~86.
- 박창원(2002), 음운론 연구 50년, 『국어학 연구 50년』, 혜안, 47~127.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배주채(2002), 국어음운론 반세기, 『국어국문학회50년』, 태학사, 289~316.
- 서강대 국문과 엮음(2005),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향후 10년의 지형도-』, 태학사.
-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송철의(1982), 음운현상의 기술을 정밀화시킨 국어음운론연구에 대하여, 『한국학보』 27, 일지사, 2~19.
- 송철의(1992), 국어 음운론연구 1세기,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399~425.
- 신승용(2010), 이중모음의 정의와 이중모음에서의 분절음 탈락-‘wi→i~u’, ‘iy→i~i’를 중심으로-, 『배달말』 50, 배달말학회, 37~59.
- 신지영(2000), 한국어 무성모음화 현상의 실현 환경과 그 양상-낭독체 발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14, 235~259.
- 양순임(1998), 유기음의 ‘기’와 /ㅎ/에 대한 비교 고찰, 『우리말연구』 8, 우리말학회, 63~83.
- 이문규(2004),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이병근(1985), 음운론의 연구, 『국어학연구사-흐름과 동향-』, 학연사, 45~65.
- 이상신(2002), 반모음 y의 음절 구조적 지위와 음절화에 의한 방언분화,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문과, 385~407.
- 이진호(2008),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 이진호(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박이정.

-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 이진호(2014), 『(개정)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혁화(2002), 국어 반모음 ‘ㅂ’의 음성학과 음운론, 『어학연구』 38-1, 서울대 언어교육원, 339~364.
- 이혁화(2012), 국어 음운론의 용어 ‘반모음, 이중모음, 중성’에 대한 검토, 『한글』 296, 한글학회, 5~39.
-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정승철(2001), 음운론 연구, 『한국의 학술연구-국어국문학-』, 대한민국학술원, 10~27.
- 정승철·정인호 편(2010), 『이중모음』, 태학사.
- 정인호(2004), 하강 이중모음과 부동 이중모음의 음변화, 『어문연구』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9~143.
- 조규태(2000), 우리말 ‘ㄱ+ ㅈ’의 준말에 대하여, 『한글』 249, 한글학회, 197~207.
- 차재은(1992), 음운론 연구사 1, 『현대의 국어연구사-1945~1992-』, 서광학술자료사, 11~47.
- 최명옥(1989), 구미 언어학이론의 수용과 국어음운론 연구-구조언어학이론과 생성음운론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구미이론』, 지식산업사, 121~144.
- 최명옥(2003), 구미 음운이론의 수용과 한국어음운론,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 국문과, 91~159.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허 응(1965), 『(개고신판) 국어 음운학』, 정음사.
- Cho, Y.-M. Yu & G. K. Iverson(1997), Korean Phonology in th Late Twentieth Century, 『어학연구』 33-4, 서울대 어학연구소, 687~735.
- Fischer-Jørgensen, E.(1975), *Trends in phonological theory-a historical introduction-*, Akademisk Forlag.
- Goldsmith, J.(1995), Phonological Theory, in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Blackwell, 1~23.

■ 토론

“국어 분절음 연구의 쟁점”에 대한 토론문

박선우(계명대)

1. ‘폐쇄음’과 ‘파열음’의 용어 구분

폐쇄음은 ‘stop’, 파열음은 ‘plosive’ 번역어로서 두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음성학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엄밀히 보자면 ‘폐쇄음 ≧ 파열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 파열음(plosive)은 부아 날숨에 의해 형성되는 폐쇄음만을 의미하므로 한국어의 [k], [t], [p]를 지칭하기에 적절하지만 한국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후두나 연구개 발동에 의한 폐쇄음이 사용되는 일은 없으므로 ‘폐쇄음=파열음’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어느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용도에 따라 적절한 용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파열음 ‘ㅂ, ㄷ, ㄱ’의 변이음 중에는 유성 마찰음도 있다는 주장은 통시적 변화를 고려한 근거로 생각되지만 폐쇄음이 유성 마찰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변이음이 아니라 음운현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2. ‘삼지적 상관속’의 용어 선택

토론자의 관점에서는 논리와 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습과 실용의 문제로 보고 싶다. (5)와 같은 제안에 타당성이 있으나 (5ㄱ) ‘여린소리’는 ‘강세’와 관련된 용어, 즉 ‘unstressed’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5ㄴ) ‘연음’의 경우, ‘연음 : 경음’은 ‘lenis : fortis’의 번역어로 적절하므로 일리가 있는 제안이다. 토론자의 관점으로는 한국어의 삼지적 상관속이 폐쇄음, 파찰음, 마찰음과 같은 장애음 체계 안에서 관찰되므로 ‘평폐쇄음 : 경폐쇄음 : 유기폐쇄음’, ‘평파찰음 : 경파찰음 : 유기파찰음’, ‘평마찰음 : 경마찰음’의 계열관계를 고려하고 싶다. 따라서 (4ㄷ) ‘평음 : 경음 : 유기음’의 체계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3. ‘반모음’과 ‘활음’의 용어 문제

반모음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각주 13번에서 언급된 김종규(2010)의 견해(비성절적 모음)는 음운론적으로 가장 적절하지만, 음운론적 용어라기보다는 반모음의 운율론적 기술과 설

명에 가까운 표현이다. ‘폐쇄음ㄷ파열음’과 마찬가지로 ‘반모음’도 ‘접근음·활음’의 부분집합이므로 한국어의 운율론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모음’, 음성학적 관점의 넓은 범주로 본다면 ‘활음’이나 ‘접근음’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4. ‘이중모음’의 범위

한국어에서는 단모음의 연쇄 [ia](이아)나 [ua](우아)가 분명히 이중모음 [ja](야)와 [wa](와)와 음향음성학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1ㄷ)과 같은 방식으로 이중모음의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음운체계나 현상의 분석에 어떠한 장점을 갖게 될지 의문스럽다. 또한 이중모음은 발표자의 지적대로 하나의 음절을 형성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한국어에서 ‘아이’([ai])나 ‘오이’([oi])와 같은 단모음의 연쇄를 두 개의 음절도 분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모음의 연쇄까지 이중모음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5. ‘의’의 분석

다른 이중모음들과 달리 ‘의’의 단모음화는 [으], [이], [에]로 실현되며, 방언별, 어휘별 차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음운론적으로는 (12ㄱ), (12ㄴ) 가운데 어떠한 해석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음향음성학적 관점에서 ‘의’가 (12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의 구간에 비하여 ‘으’의 구간이 훨씬 짧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의 길이가 ‘야’([ja])나 ‘와’([wa])와 같은 한국어의 일반적인 상향 이중모음보다 훨씬 긴 편이므로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12ㄷ)의 가설을 지지하고 싶다. 다만 ‘의’를 단모음의 연쇄로 이해할 경우 초성이나 종성에 자음의 분포가 제한되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알다시피 ‘닉, 락, 씩, 희’처럼 초성을 갖는 ‘의’는 모두 단모음화를 겪으며 ‘인, 익’과 같이 ‘의’가 종성을 갖는 경우도 없는데 ‘의’가 단모음의 연쇄라면 이러한 제약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의’가 어떠한 유형의 이중모음인가도 중요하지만 현대국어에서 ‘의’가 분포가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약 23시간 분량의 음성코퍼스를 분석한 신지영(2008)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쉬어’ 등에서 관찰되는 특수한 삼중모음(/꺄꺄꺄/)을 제외한다면 이중모음 ‘의’가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통틀어 가장 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¹⁾ 문어코퍼스에서 ‘의’의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는 극도로 제한적인 환경에서 실현된다는 볼 수 있다. 일례로 실제의 발화에서 대부분의 관형격 조사 ‘-의’는 대부분 단모음 ‘-에’로 실현되므로 음성코퍼스를 고려한다면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가 아니라 ‘-에’이다. 문어에서는 이중모음을 표기했던 ‘의’의 빈도가 아직도 높은 편이지만 음성언어에서는 사라지는 과정을 밝고 있다.

1) 신지영. 2008. “성인 자유 발화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의 음소 및 음절 관련 빈도” 『언어청각장애연구』 13(2), 193-215.

교체의 정의와 교체의 해석 그리고 기저형

신승용(영남대)

< 차례 >

1. 서론
 2. 교체의 정의와 규칙
 3. 교체 내용 및 공시성·통시성의 해석과 기저형
 4.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생성음운론에서 표면형은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때 표면형은 기저형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기저형과 표면형이 같지 않을 때 교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 규칙이다. 즉 규칙은 교체를 형식화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어떤 교체는 규칙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교체는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규칙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교체를 형식화한 규칙은 규칙적인 규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표면형을 두고 우리는 교체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교체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교체를 공시적으로 해석하느냐, 통시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 판단은 기저형을 결정하는 일과도 직결된다. 한 시기의 언어에는 서로 다른 시간적 단층을 가진 언어 자료가 공존한다는 사실에서 공시대에 존재하는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은 공시대의 언어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두 표면형 [x]와 [y]의 관계가 교체의 관계이냐, 변화의 선후형의 관계이냐는 결국 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이 어떠하든 즉, [x]와 [y]에 적용된 음운 현상을 교체로 해석하든 변화로 해석하든 [x]와 [y]의 사이에 어떠한 음운 현상이 적용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단지 해당 음운 현상을 공시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체를 다루는 대상의 범위를 정할 때 필연적으로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판단은 필연적으로 기저형을 결정하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본고는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첫째, 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체와 규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교체의 내용 및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해석과 기저형 설정의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교체의 정의와 규칙

하나의 형태소가 항상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둘 이상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하나의 형태소가 둘 이상의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교체(alternation)라고 한다. 교체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이 적용된 결과라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 통시적인 변화와 구분된다. 따라서 교체 또는 교체형이라는 말은 이미 공시적이라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다. 그런데 교체에 관여한 음운 현상이 공시적이냐 통시적이냐는 그 자체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운론적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교체에 관여한 음운 현상이 공시적이라면 교체형들의 관계는 공시적인 관계로 해석될 것이고, 반면 해당 음운 현상이 통시적이라면 교체형들의 관계는 통시적 변화의 선후형으로 해석될 것이다. 김경아(2001:53)의 지적처럼 공시적인 교체이든 통시적인 변화이든 입력부의 동기화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질적이 속성을 갖고 있지만,¹⁾ 단지 그것이 공시적이냐 통시적이냐는 결국 해석의 문제이다.

(1)

- ㄱ. 암탉[암탁](<암ㅎ+닭)
- ㄴ. 놓고[노코]
- ㄷ. 축협[추첩]

(1ㄱ~ㄷ) 모두 /ㅎ/ 축약이라는 교체가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기왕의 구분을 따른다면 (1ㄱ)에서의 /ㅎ/ 축약은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1ㄱ)에 적용된 /ㅎ/ 축약은 변화이고, (1ㄴ)에서의 /ㅎ/ 축약은 공시적인 교체이다. (1ㄷ)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통시적인 교체라고 하기도 한다.²⁾ (1ㄱ)의 경우에도 ‘암ㅎ’이 /ㅎ/ 종성체언으로 존재하던 시기에는 [암탁]에 적용된 /ㅎ/ 축약 역시 공시적인 교체였던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교체이냐 변화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적용된 음운 현상에 대한 해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교체’와 ‘변화’ 대신 ‘공시적 교체’, ‘통시적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³⁾

그러면 교체가 무엇인지 즉, 교체의 정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교체를 정의한 몇 논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

- 가. 어떤 형태소가 둘 이상의 음소적 형상(phonemic shape)으로 실현될 때, 그 형상들은 서로 교체의 관계에 있으면, 그 형태소는 교체를 보인다. 각 표상

1) 김경아(2001:53)에서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들은 교체, 통시적인 음운 현상들은 대응, 그리고 변이 현상들은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대체라는 관점을 통해 논의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2) 최명옥(2007)처럼 단어는 형성되는 그 순간 통시적이고 해당 단어에 적용된 음운 현상도 통시적이라고 보게 되면 (1ㄷ)의 /ㅎ/ 축약은 통시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단어에 형성되는 그 순간에 적용된 /ㅎ/ 축약은 공시적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신승용(2013a)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3) ‘공시적 교체’, ‘통시적 교체’가 본고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에 대해 다룬 최명옥(1988)에서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representaion)은 형태이고, 주어진 형태소를 표상하는 모든 형태는 이형태라고 부른다(Hockett 1958:272).⁴⁾

- 나. 하나의 단어가 그 위치하는 음운론적 환경 때문에 발음이 바뀌는데, 이러한 상황을 교체라 하고, 두 발음을 교체형이라고 한다(Spencer 1996:49~50).
- 다. 어휘 형식의 표면에서의 다양한 실현형이 교체형이다. 어휘 표상(lexical representation)이 규칙의 적용에 의해 음성 표상(phonetic representation)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도출(derivation), 어휘 표상과 차이가 나는 현상을 교체라고 하고, 그렇게 실현된 음성형을 교체형이라고 한다(Roca & Johnson 1999:52~53).

교체를 설명하는 대상의 단위가 (2가)에서는 형태소, (2나)에서는 단어, (2다)에서는 어휘 형식으로 차이가 있다. 대상의 단위가 형태소, 단어, 어휘 형식 등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론적 배경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교체를 설명하는 분야가 음운론이나 형태론이냐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⁵⁾ 어쨌든 (2가 ~ 다)의 교체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교체의 대상이 되는 단위가 무엇이든지간에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은 교체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의 형태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체가 방향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김현(2012:60)은 (2가), 즉 Hockett(1958)의 교체의 정의에서 어떤 이형태(또는 분절음)가 다른 이형태(또는 분절음)로 바뀐다는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그리고 Dressler(1985:16)의 ‘교체는 이형태들이 대응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개념으로서 무방향적 또는 양방향적 성격을 띤다.’는 진술을 들어 교체가 무방향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하지만 (2가)의 정의에서 ‘형태소 → 이형태’의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가)는 구조주의언어학에서의 교체의 정의인데, 이보다 앞선 Bloomfield(1933)의 교체의 정의에서도 교체의 방향성은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Bloomfield(1933:213)는 기본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이형태(basic form)가 있고, 다른 형태들은 그것으로부터 규칙에 의해 도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⁷⁾ 이는 ‘기본형 → 이형태’라는 방향성을 전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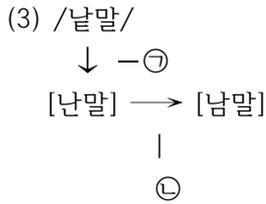
생성음운론에서의 교체의 정의를 잘 보여주는 것이 (2다)인데, (2다)에서 보듯이 생성음운론에서의 교체의 정의에는 ‘기저형 → 표면형’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기저형과 표면형의 관계가 아닌, 표면형과 표면형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체 역시 방향성은 존재한다.

4) Hockett(1958:272)에서 교체의 예로 든 것은 ‘sell’과 ‘sold’이다. 그러나 현재 ‘sell’과 ‘sold’를 교체 관계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5) 이론적 배경에 따라 용어에 차이가 있고, 음운론과 형태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외연이 다르지는 않다. ‘형태소 = 어휘 표상 = 기저형’이 평행한 개념이고, ‘이형태 = 변이형 = 도출형 = 교체형’ 역시 평행한 개념이다. ‘표면형(=음성형=음성 표상)’은 ‘기저형’에 교체가 적용된 것도 표면형이지만, 기저형이 교체 없이 실현된 경우에도 ‘표면형’이라고 하므로, ‘교체형’과 ‘표면형’은 구분된다.

6) Dressler는 언어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로 정통 음운론자는 아니며, 굳이 음운론과 형태론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냐고 한다면 형태론자에 더 가깝다. 그렇기에 음운론에서 교체의 정의를 고찰하면서 Dressler의 교체의 정의는 비판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7) 그 예로 ‘knife[naɪf]’의 복수형 ‘knives[naɪvz]’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단수형의 발음 [f]가 복수접미사 앞에서 [v]로 대체된다고 말하는 데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3㉓)은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의 교체이지만, (3㉔)은 표면형 [난말]이 입력이 되어 또 다른 표면형 [남말]이 실현된 과정이다.⁸⁾ 이는 표면형이 또 다른 교체의 입력이 되기도 함을 보여준다. 이때 입력과 출력이라는 방향성은 여전히 존재해야만 한다. [남말]이 [난말]로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조건 환경의 성격에 따라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로 대별해 왔다.⁹⁾ 생성음운론에서는 교체 자체보다는 규칙을 하위 분류하였는데, 규칙이라는 것이 교체를 공식화해서 표현한 것(정국 1994:196)으로 조건 환경에 따른 규칙의 분류는 조건 환경에 따른 교체의 분류와 평행하게 된다. 생성음운론에서의 규칙의 분류는 Hooper(1976)를 참조할 수 있는데, 여기서 6가지로 분류한 규칙의 유형 중에서 교체의 유형과 평행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음성적으로 조건된 규칙(P-rule), 형태음소규칙(MP-rule), 의거규칙(via-rule)이다(Hooper 1976:14~18).¹⁰⁾

이와는 달리 교체의 양상에 따라 교체를 분류하기도 하였다. Hockett(1958:273~274)은 교체를 정상적인(nomal)인 교체와 산발적인(sporadic) 교체로 구분하였다. 규칙적인 교체와 불규칙적인 교체, 수의적인 교체¹¹⁾와 필수적인 교체 등의 분류 역시 교체의 양상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Hockett(1958)의 분류에서 산발적인 교체는 불규칙적이며 수의적인 양상의 교체에 해당할 것이다.

본고가 교체를 분류하고 각각의 교체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럼에도 교체의 유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어떤 교체가 비록 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교체라는 사실, 또한 어떤 교체가 불규칙적이거나 수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교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국어음운론에서 주로 다루었던 현상들은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산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교체는 교체가 아닌 것처럼 오해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물론 이들 산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교체는 현재의 방법론으로 타당한 설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

8) 표면형 [남말]을 최종 도출형이라고 할 경우에는 [난말]은 중간 도출형이라고 할 수도 있다.
 9) Bubenik(1999:20~21)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와 어휘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로 구분하고, 어휘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는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10) 나머지 3개는 syllabification rules, morphological spell-out rules, word-formation rules이다. 음성적으로 조건된 규칙은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와 평행한 개념으로 음운 규칙이라고도 한다. 조건 환경이 순수히 음운 자질과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음운 경계(음절 경계, 후지)로 이루어진 규칙이다. 형태음소규칙은 조건 환경이 통사·의미론적인 정보(단어 경계와 형태소 경계, 형태론적 범주나 통사론적 범주, 의미론적 집합)이 수반되는 규칙이다. 그리고 의거규칙은 음성적으로도 조건되어 있고, 형태론적으로도 조건되어 있는 규칙으로서 어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정 어휘에서 특정 음운론적 조건 하에서 교체가 일어날 때 이를 공식화한다면 일종의 의거규칙이 된다.
 11) 수의적인 교체는 다시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동일한 조건 환경임에도 어휘에 따라 교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교체가 적용된 형과 적용되지 않는 형이 공존하는 경우이다.

이 이들 교체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두어 다루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체의 정의나 교체의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교체 역시 교체의 하위어라는 사실에서 교체임에는 분명하다. 현 시점에서 타당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규명되어야 하는 현상이라는 것도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재하는 음운 현상 가운데는 현재의 이론적 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인 것들이 있다.

(4)

ㄱ. /저기/ → [찌기]

ㄴ. /비행기/ → [비앵기] → [뱅기]

ㄷ. /달+ 면/ → [다으면] → [다:면] ~ [다면]

(4)에서 진하게 밑줄 친 형태들은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이어서 생성음운론에서 말하는 타당한 규칙으로는 형식화하기 어려운 예들이다.¹²⁾ (4ㄱ)의 [찌기]는 어두경음화가, (4ㄴ)의 [뱅기]는 /ㅎ/ 탈락 후 축약어, (4ㄷ)의 [다:면]은 /-/ 탈락에 이은 장모음화, [다면]은 /-/ 탈락이 적용된 것으로 기술할 수는 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 환경에서 이러한 교체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된 교체를 타당하게 기술하는 것은 어렵다.¹³⁾

그러나 (4)의 [찌기], [뱅기], [다:면 ~ 다면]에 나타난 음운 현상이 교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현재로는 교체의 조건 환경이나 교체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찌기], [뱅기], [다:면 ~ 다면]에 적용된 교체가 공식적인 교체이나 통시적인 교체이냐는 논란이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 한, 이들에 적용된 교체를 통시적인 교체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4)는 김경아(2001), 김현(2012)에서 말한 자유변이의 성격에 해당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¹⁴⁾ 만일 (4)가 자유변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휘부에 저장되어 암기 처리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체의 정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최명옥(1988)의 교체의 정의이다. 이는 구체음운론을 국어 음운론에 도입하면서 국어의 관점에서 교체를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동일 형태음소 또는 형태소에 둘 이상의 이음 또는 이형태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어에서 공식적인 교체는 곡용과 활용으로 한정된다(최명옥 1988:66).

최명옥(1988)의 교체의 정의는 공식적인 교체를 곡용과 활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

12)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이긴 하지만, 일정한 조건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13) /달+으면/ → [다으면]에서 일어난 /ㅎ/ 탈락은 활용의 경계에서 일어난 규칙적인 교체이지만, [다으면]에서 [다:면], [다면]이 도출되는 과정은 입력형이 활용형 [다으면]이라는 사실에서 활용의 경계에서 일어난 교체라고 할 수 없다.

14) 김경아(2001)에서는 (4ㄷ)을 자유변이로 설명하고 있다. 자유변이에 대해 김경아(2001:59)는 두 개 이상의 음성 혹은 음운이 동일한 환경에서 교체를 보이면서 전혀 의미상의 분화를 보이지 않는 임의적이고 수의적인 변이형으로, 김현(2012:53)은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조건 환경에서 둘 이상의 어형이 실현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에서 (5)에 따르면, 형태소 내부나 단어 내부에서는 더 이상 공시적인 교체가 있을 수 없고 통시적인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2)의 교체의 정의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2)에서의 교체의 대상이 되는 언어 형식의 단위는 형태소, 단어, 어휘 형식 등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론적으로 교체의 대상이 되는 단위가 활용과 곡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⁵⁾ 최명옥(1988)에서도 활용과 곡용이 아닌, 단어 내부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 왜 공시적일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고 않고 있다.

(5)의 교체의 정의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배경은 Kiparsky(1968)의 교체조건,¹⁶⁾ 그리고 Vennemann(1971)의 강력자연성조건이다.¹⁷⁾ 하지만 교체조건이나 강력자연성조건에서 공시적인 교체를 곡용과 활용으로 제한한다는 어떠한 기술도 없다. 특히 강력자연성조건의 두 번째 조건을 보면, 교체의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가 형태소이다. 교체조건이나 강력자연성조건은 추상적 기저형의 설정을 막기 위한 조건이지, 형태소나 단어 내부 교체의 공시성·통시성과는 무관하다. 이 문제는 3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그러면 규칙은 무엇인가? 교체가 실재하는 음운 현상이라면, 이러한 음운 현상을 기술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규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교체에 앞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생성음운론에서의 규칙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어떤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규칙은 명료성과 정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 언어적 사실들을 표현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는 Chomsky&Halle(1968:60)의 기술, ‘규칙은 성격상 예측성(prediction)을 가져야 한다’는 정국(1994:199)의 기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재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실재하는 것은 교체(음운 현상)이지 규칙은 아니며, ‘규칙은 주어진 언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운 현상을 공식화한 것(전상범 2004:124)’에 지나지 않는다. 규칙이 교체 이전에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어떤 것일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교체를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공식화한다고 할 때, 그 규칙의 성격은 해당 교체의 성격과 일치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체에는 산발적인 것도 있고, 불규칙적인 것도 있다. 만일 이러한 교체를 규칙으로 형식화한다면 생성음운론에서 말하는 타당한 규칙 즉, 예외가 없는 규칙으로 형식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규칙이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정의에 충실한다면, 규칙이 명료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또한 예측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전제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실재하는 모든 교체가 명료하고 정확하고, 예측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교체를 명료하고 정확한, 그리고 예측적인 규칙으로 형식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을 규칙의 형식으로 기술할 수는 있다. 물론 이렇게 기술된 규칙은 생성음운론의 규칙 평가의 잣대로 보았을 때 타당한 규칙일 수는 없다. 그러면 이러한 규칙은 규칙이 아닌가? 김현(2012:64)은 규칙의 구조기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규칙의 개념을 폭넓게 잡아 일단 규칙이라고 한다는 신승용(2004:64)의 기술에 대해, ‘어떤

15) 소신애(2009:66)에서도 교체를 ‘형태소의 기저형이 표면형을 도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체계 음운(systematic phonem) 혹은 기저 분절음(underlying segment)의 변동’으로 정의함으로써 공시적 교체의 대상을 곡용과 활용으로 제한하는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16) 음성적으로 항상 동일한 형태소의 기저형은 표면형이 곧 기저형이다. 음성적으로 구별되는 즉, 교체가 있는 형태소는 교체형 중의 하나가 기저형이다(Kiparsky 1968b/1982:130~131).

17) 강력자연성조건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a) 교체형이 없는 형태소의 기저형은 음성형과 동일하고,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형태가 있는 경우, 이형태 중의 하나가 그 음성형으로 어휘부에 등록되고 다른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도출된다(Vennemann 1971/Hooper(1976:116~117)에서 재인용).

이론적 도구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넓게 잡는 것은 연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규칙이 명료하고 정확하며, 예측적이어야 한다는 생성음운론의 규칙의 설명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명료하고, 정확하고, 예측적이라고 할 수 없는 교체에 대해서도 규칙의 형식을 빌어서 기술해 오고 있다. 당장 수의적인 규칙은 동일한 조건 환경 Z에서 동일한 X가 Y로 교체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수의적인 교체를 형식화한 규칙은 당연히 명료성이나 정확성, 예측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체를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규칙을 수의적 규칙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생성음운론에서 말하는 명료하고, 정확하고 예측적인 교체를 형식화한 것만 규칙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교체를 형식화한 것은 규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규칙을 하위 분류하는 것과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다. 규칙이 교체를 기술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명료하고 정확하며, 예측적인 규칙만 규칙이라고 제한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명료하고 정확하며 예측적인 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체도 있으므로, 이를 공식화한 규칙 역시 명료하고 정확하며 예측적인 규칙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규칙도 있는 것이다.

3. 교체의 내용 및 공시성·통시성의 해석과 기저형

어떠한 교체가 공시적인 교체이나 통시적인 교체이나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기저형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교체가 공시적인 교체이나 통시적인 교체이나는 결국 해석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두고 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기도 하고,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기도 하는 논쟁이 있어 왔다. 표면형에 적용된 교체를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느냐 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저형이 달리 설정된다는 점에서 공시성·통시성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기저형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곧 화자의 공시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¹⁸⁾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판단은 2장에서 살펴본 교체의 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6)

ㄱ. 잡히다 → 재피다

ㄴ. 굳이 → 구지

(6)에서 [재피다]가 '잡히다'에서 음라우트 규칙의 적용을, [구지]가 '굳이'로부터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은 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잡히다/ → [재피다]에 음라우트가 적용된 교체, /굳이/ → [구지]에 구개음화가 적용된 교체가 통시적이냐 공시적이냐는 논란이 된다.¹⁹⁾ 전자의 경우 그 기저형은 표면형 [재피다], [구지]와 같은 /

18) 생성언어학에서 언어능력은 이상적 화자의 언어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화자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의 화자가 아니며 언어능력 또한 한 개인의 언어능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화자의 언어능력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랑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19) 여기서 '→'는 공시적인 교체와 통시적인 교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즉 여기서 '→'는 방향

재피다/, /구지/가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그 기저형은 규칙이 적용되기 전의 /잡히다 /, /굳이/가 될 것이다.

최명옥(1988)의 교체의 정의인 (5)를 따른다면, (6ㄱ), (6ㄴ)은 활용과 곡용의 형태소 경계가 아니므로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게 되고, 따라서 그 기저형도 표면형 [재피다], [구지]와 똑같은 /재피다/, /구지/가 된다. 그리고 [재피다]와 [구지]에 적용된 움라우트와 구개음화 규칙도 통시적인 규칙이 된다.²⁰⁾

반면 박창원(1991:316)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고, 어근과 파생접미사가 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음운 현상은 공시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즉 ‘잡히다’가 ‘잡-’에 피동접사 ‘-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분석 가능하고, 어간 ‘잡-’과 피동접사 ‘-히-’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피다]에 적용된 움라우트는 공시적인 교체라는 것이다. ‘굳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굳-’과 ‘-이’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지]에 적용된 구개음화 역시 공시적이다. 김경아(2000:48)에서도 파생과 합성의 경우도 형태음운론적 교체에 포함해야 함을 제기하였는데, 이때 형태음운론적 교체는 물론 공시적 교체를 말하는 것이다.

분석 가능성을 공시성의 판단에서 고려한다는 관점은 송철의(2006)에서도 제기되었다. 송철의(2006:130)는 인간의 언어 능력에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형성된 단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분석 능력에는 단어의 내구 구조에 대한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음운 현상에 대한 분석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국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밤만]을 듣고 ‘밥+만’으로 분석해 낼 수 있다. [밤만]을 듣고 ‘밥+만’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밤만]에 비음동화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분석해 낼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물론 분석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공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²¹⁾ 하지만 언중들의 직관적 분석 능력이 공시적인 언어능력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언중들은 활용형과 곡용형의 경계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 역시 분석해 낼 수 있다. 전자의 분석 능력과 후자의 분석 능력이 다르다고 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분석 능력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단어 내부에서의 분석 능력은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규명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²²⁾ 분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면은 활용형에서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7) 더불어, 가로되, 다오

성만 가리키는 중립적인 의미이다.

20) 이진호(2002:16~17)에서는 공시성의 조건으로 첫째, 교체가 있어야 하고, 둘째, 형태소 경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들었다. 그리고 공시적 음운 규칙의 조건으로 첫째,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적용되어야 하고, 둘째, 음운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그런데 형태소 경계에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6)의 교체는 통시적인 교체이고 (6)에 적용된 규칙은 통시적인 규칙이 된다.

21) 예컨대 ‘꽃날’은 ‘코’와 ‘날’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꽃날’의 ‘스’이 공시적으로 첨가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22) Milroy(1992:21)가 언어 변화에서 촉발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촉발을 연구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든 일기예보의 비유가 여기에도 적용될 듯하다. 즉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낮다고 해서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공시적 분석능력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규명하는 작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7)은 소위 불구동사로 불리는 용언의 활용인데, 이들 용언어간은 결합하는 어미가 극히 제약되어 있다. 그래서 (7)의 활용형으로부터 어간 ‘더불-’, ‘가로-’, ‘달-’을 분석해 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활용형이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이동석 2002:60, 신승용 2007:93 등).

활용과 곡용에서의 분석 능력만 공시적인 언어능력이고 단어 내부에서의 분석 능력은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논리상의 편의적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형태소와 단어는 어휘부에 저장되고 활용형과 곡용형은 어휘부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편의적으로 적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송철의(2006), 신승용(2013a)에서 지적하였듯이 단어 형성의 공시성·통시성과 단어 형성 과정에서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에 적용되는 음운 현상의 공시성·통시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앞서 공시적인 교체를 활용과 곡용으로 한정해야 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신승용(2013a, 2013b)에서 지적되었듯이 공시적인 교체를 곡용과 활용으로 한정하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일종의 선형적 전제이다. 공시적인 교체를 활용과 곡용으로 한정하게 되면, 형태소 내부는 당연하고,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에서 일어나는 교체도 모두 통시적인 교체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통시적인 교체임이 증명되어서 통시적인 교체가 아니라, 공시적인 교체를 활용과 곡용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통시적인 교체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생성음운론의 어떠한 설명에서도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에서의 교체를 통시적인 교체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생성음운론에서 도출 환경은 전형적인 교체의 환경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교체는 당연히 공시음운론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Kiparsky(1973:65)의 정의에 따르면, 도출 환경은 형태소 결합에 의해서 또는 음운론적 과정의 적용에 의해서 유발된 환경이다. 분석 가능한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계가 전형적인 도출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에서의 교체를 통시적인 교체라고 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공시적인 교체를 (5)처럼 활용과 곡용으로 한정하게 되면, 신승용(2013b)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교체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체가 활용이나 곡용에서 일어나느냐, 파생어와 합성어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별개의 교체라고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8)

ㄱ. 낱말[난말]

ㄴ. 앞만[임만]

즉 (8ㄱ), (8ㄴ)의 경우 동일하게 중화와 비음동화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5)의 관점에서 전자에서 적용된 중화와 비음동화는 복합어 내부에서의 교체이므로 통시적인 교체이고, 후자에 적용된 중화와 비음동화는 곡용에서의 교체이므로 공시적인 교체가 된다. 따라서 (8ㄱ)에서 중화와 비음동화는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므로 그 기저형이 /낱말/이 아닌 /난말/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임만]을 듣고 ‘임’과 ‘-만’을 분석해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말]을 들으면 ‘낱개’의 ‘낱’과 ‘말’이 결합하였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분석해 낸다. (8ㄱ)의 기저형을 /난말/이라는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직관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9)

- ㄱ. [국뺨], [궁물]
- ㄴ. [밥꼭], [물국]
- ㄷ. *[뺨국], *[물궁]

(9)는 신승용(2013a:157~158)에서 (9ㄱ)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적 실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9ㄱ)을 거꾸로 말해 보라고 했을 때 (9ㄴ)처럼 대답하였고, (9ㄷ)처럼 대답한 피실험자는 없었다. 이는 교체형 [국뺨]에 적용된 불파화에 이은 경음화, [궁물]에 적용된 비음동화를 언중들이 분석하여 그 기저형을 /국밥/, /국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9ㄱ)에 적용된 불파화에 이은 경음화, 비음동화가 공시적인 교체임을 말해준다. 만일 (9ㄱ)에 적용된 교체가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라면, 언중들이 해당 교체를 분석하여 그 기저형을 /국밥/, /국물/로 인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단 파생어나 복합어 경계만이 아니라 단일어나 형태소 내부의 경우에도 공시적인 교체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10)은 단일어 내부에서 일어난 교체이다.

(10) [새끼] ~ [새이] ~ [쉐이] ~ [시끼] ~ [스끼] ~ [시키]

(10)은 일종의 심리적인 어감의 약화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상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양상조차 기술하기가 쉽지 않는 현상이다. (10)의 각 표면형들 사이의 관계는 입력형과 출력형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지만,²³⁾ (10)의 기저형이 /새끼/임에는 분명하다. 이들 표면형들이 모두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고, 암기 처리 방식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 한, (10)의 표면형에 적용된 교체는 비록 현재의 이론적 방법론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시적인 교체이다. (10)의 표면형들에 적용된 교체를 통시적인 교체라고 보고, (10)의 표면형들이 모두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직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다.

기저형은 표면형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기저형이 정확히 표면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을 구분한 생성음운론의 관점에서 기저형은 언어능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저형은 표면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정된 즉, 해석된 실재이다. 주지하다시피 Kiparsky(1968)와 Hyman(1970)의 추상성 논쟁 이후 기저형은 교체형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저형이 표면형 중의 하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Kiparsky(1968)의 교체조건, Vennemann(1971)의 강력자연성조건도 절대중화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설정된 것이지, 그것이 기저형은 표면형 중의 하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구체음운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Hooper(1976) 역시 표면형 중에 어느 것도 기저형이 아닌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11) palauan language²⁴⁾

23) 일정 정도 추정할 수는 있다. 예컨대 [새이], [시끼]는 기저형 /새끼/로부터, [쉐이]는 표면형 [새이]로부터, [스끼], [시키]는 역시 표면형 [시끼]로부터 교체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단언하기는 어렵다.

24) Shane(1974:300)에서 인용.

[ma-téʔəb](present middle verb), [təʔib-l](future past), [təʔəb-áll] : pull out

이 언어에서 강세를 받지 못하는 모음은 ə로 약화되는 생산적인 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저형은 /teʔib/로 분석되어야 한다(Hooper 1976:117~119). 하지만 [teʔib]라는 표면형은 실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기저형이 반드시 표면형 중의 하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기저형이 반드시 물리적 실재로서의 표면형 중의 하나가 아니라 표면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정된 해석된 실재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12)

- ㄱ. [노타, 노코, 노오니, 노오면, 노아라]
- ㄴ. [결:꾸, 결:뜨나, 결:째, 거르문, 거르니]

(12ㄱ)은 ‘-ㅎ’ 말음 어간 /놓-/의 활용인데, 어느 표면형에서도 [놓]이라는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12ㄴ)은 이익섭(1972:102)에서 제시한 강릉방언의 예로 그 기저형을 /꺄-/로 설정한 경우인데, 역시 표면형에서 어간 [꺄]이라는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놓-/의 /ㅎ/과 /꺄-/의 /ㅎ/(ʔ/)은 그 자체로 표면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²⁵⁾ 따라서 [놓]과 [꺄]이라는 형태를 표면형에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다. 이진호(2007:149~151)에서는 기저형 설정 조건과 관련하여 기저형에 포함된 분절음들은 표면형에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²⁶⁾ 그런데 (12ㄱ)의 기저형 /놓-/에서 [ㅎ], (12ㄴ)의 기저형 /꺄-/의 /ㅎ/은 그 자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표면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서 분절음 실현에 대한 조건에도 위배된다. 그럼에도 기저형 /놓-/ /꺄-/을 설정하는 것은 활용형에 적용된 교체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및 해석을 통해서이다. 즉 기저형 /놓-/ /꺄-/은 물리적 실재로서의 표면형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해석된 실재이다.

기저형이 해석된 실재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비모음(鼻母音)을 기저형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된 논란을 들 수 있다.

(13) 아니다[a~i~da], 토깡이[t^hok'ε~i~]

이진호(2001:68~76)에서는 비모음(鼻母音)이 비록 음소는 아니지만, 이들 비모음들을 그대로 기저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13)의 예들이 단어 내부이고 또한 항상 (13)의 형태로 표면형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들었다.²⁷⁾ 이에 반해 최명옥(2006:214), 정인호(2007:157~158)에서는 비모음은 변이음이라는 사실에서 비모음을 기저

25) /ʔ/을 기저형에 설정한 논의들은 많다. 최명옥(1982:101~102)에서는 표준어 ‘줍다’의 경북방언 [주:꼬, 주떠라, 주모]의 기저형으로 /cooʔ-/를, 그리고 최명옥(1985:168)에서는 ‘ㅅ’ 불규칙 용언 어간의 기저 말자음으로 /ʔ/을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광충구(1994:555)에서는 역시 경북방언의 [흐리, 흘뜨]의 곡용을 설명하면서 그 기저형을 /hilʔ/로 설정하였다.

26) 기저형 설정 조건은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분절음 성격에 대한 조건이고, 둘째는 분절음 실현에 대한 조건이다. 첫째는 기저형에 포함되는 분절음은 국어에서 음운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저형에 포함된 분절음들은 표면형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음운론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 이를 위해 예측되지 않는 분절음은 음소가 아니어도 기저형에 포함할 수 있다는 특수한 조건을 세우기도 하였다(이진호 2007:149).

형에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비모음화되는 /-Vni-/ → [-V̄ī], /-VnV-/ → [V̄V] 변이음 규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록 음소적 교체가 아닌 변이음 교체이긴 하지만 이를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모음의 기저형 설정 유무 자체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교체에 대한 해석의 차이이고,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기저형 설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체에 대한 해석은 결국 기저형 설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기저형이 반드시 표면형 중의 하나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중들의 공시적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석된 실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4. 결론

음운론은 기본적으로 교체의 유무를 찾아 내고, 교체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분야이다. 교체가 있다는 것은 교체 전의 형태와 교체 후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교체 전의 형태를 기저형, 교체가 일어난 형태를 표면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 규칙이다. 동일한 언어 자료를 두고 우리는 교체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교체가 없다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기저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기저형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다시 교체의 공시성·통시성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대신한다.

2장에서는 교체의 정의 및 교체와 규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체에는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교체도 있지만,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교체도 있다. 규칙은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므로 전자를 형식화한 규칙인 규칙적인 규칙이 될 것이고, 후자를 형식화한 규칙은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규칙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전자의 규칙만 규칙이라고 하고, 후자는 규칙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전자를 타당한 규칙이라고 하고 후자를 타당하지 않은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칙이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정의에 입각한다면,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교체 역시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다만 그 규칙은 타당한 즉, 명료하고 정확하며 예측적인 규칙은 아니다.

3장에서는 공시적인 교체의 유무에 대한 해석은 결국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해석에 기반하며,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해석은 기저형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공시적인 교체를 활용과 곡용으로 제한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단어 내부에는 공시적인 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공시적인 교체를 곡용과 활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논증된 사실이 아니라 논증 이전의 선형적 결론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기저형은 표면형 중의 하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석된 실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의 유무에 대한 해석, 교체의 공시성·통시성에 대한 해석과 기저형을 설정하는 작업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단어 내부에서의 교체를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느냐 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설정되는 기저형의 형태는 서로 달라지게 된다.

■ 참고 문헌

- 곽충구(1994), 「系습 內에서의 單一化에 의한 語幹 再構造化」, 『南川 朴甲洙 先生 華甲紀念論文集』, 태학사.
- 김 현(2012), 「자유 변이의 공시론과 통시론」, 『형태론』 14-1, 형태론학회, 53-7.
- 김 현(2013), 「어휘부와 국어음운론」, 『국어학』 66, 국어학회, 335-360.
- 김경아(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태학사.
- 김경아(2001), 「‘음운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태릉어문연구』 9,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51-70.
- 김성규(2000), 「불규칙활용에 대한 몇 가지 논의」, 『형태론』 2-1, 121-128, 형태론학회.
- 박창원(1991), 「음운 규칙의 변화와 공시성 — 음라우트 현상을 중심으로」,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민음사, 297-322.
- 소신애(2009), 「음운론적 변이와 변화의 상관성 — 함북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 태학사.
- 송원용(2002), 「형태론과 공시대·통시대」,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165-189.
- 송철의(2006), 「국어 형태론 연구의 문제점」,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117-141.
- 신승용(2004), 「교체의 유무와 규칙의 공시성·통시성」, 『어문연구』 124, 63-90.
- 신승용(2013a), 「단어 형성의 공시성·통시성과 음운 현상의 공시성·통시성」.
- 신승용(2013b), 「이론 내적인 형식적 타당성과 음운 현상의 실재」, 『우리말연구』 35, 우리말학회, 5-29.
- 이동석(2002), 「국어 음운 현상의 소멸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고려대).
- 이익섭(1972), 「강릉 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진단학회, 97-119.
- 이진호(2001), 「국어 비모음화와 관련된 이론적 문제」, 『국어학』 37, 국어학회, 61-84.
- 이진호(2002),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이진호(2006), 「음운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 『국어학』 47, 국어학회, 39-64.
- 이진호(2007), 「국어의 기저형 설정 조건」,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139-160.
- 전상범(2004), 『음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 국(1994), 『생성음운론의 이해』, 한신문화사.
- 정인호(2007), 「소위 ‘비모음화’ 현상의 지리적 분포와 그 성격」,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135-162.
- 최명옥(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學校出版部.
- 최명옥(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p-, s-, t- 變則動詞를 중심으로」, 『국어학』 14, 국어학회, 149-188.
- 최명옥(1988), 「國語 UMLAUT의 研究史的 檢討」, 『震檀學報』 65, 진단학회, 63-80.
- 최명옥(2006), 「경북 상주지역어의 공시음운론」, 『방언학』 4, 한국방언학회, 193-231.
- 최명옥(2007), 「한국어 형태론의 문제점과 그 대안」, 『西江人文論叢』 22,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52.

-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 Bubenik, V.(1999), *An Introduction to study of morphology*, München: Lincom Europa.
- Chomsky, N. & Halle, M.(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Crystal, D.(1985),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2nd)*, Blackwell.
- Dressler, W.U.(1985), *Morphonology : the dynamics of derivation*, Karoma Publishers. Inc.
- Hockett, Charles 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Hooper, J.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 Fujimura, O. ed.(1973), *Three Dimensions of Linguistic Theory*, Tokyo: TEC.
- Hyman, L.M.(1970), How concrete is phonology?, *Language* 46, 58-76.
- Kenstowicz, Michael J. & Charles W. Kisseberth(1979), *Generative Phonology – Description and Theory*, Academic Press.
- Kiparsky, P.(1968), How abstract is Phonology?, Distributed by Indiana Universkiy Linguistics Club. Reprinted in Kiparsky(1982), 119-164.
- Kiparsky, P.(1973), Abstractness, opacity, and global rules, In *Three dimentsions of linguistic theory*, ed. by o. Fujimura, Tokyo: TEC, 57-86.
- Kiparsky, P.(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Dordrecht: Foris.
- Milroy, J.(1992),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Blackwell, [『언어변이와 변화』, 정영인 외 6인 옮김, 태학사].
- Roca, I. & Wyn Johnson(1999), *A course in Phonology*, Blackwell Publishers.
- Saussure, F.de.(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옮김, 1990, 민음사.
- Shane, S.A.(1974), How abstract is abstract? *Natural Phonology Parasession*, Chicago Linguistic Society, 297-317.
- Spencer, A.(1996), *Phonology*, Blackwell.
- Vennemann, T.(1971),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Paper read at annual meeting of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St. Louis, Missouri.

▣ 토론

“교체의 정의와 교체의 해석 그리고 기저형”에 대한 토론문

임석규(원광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관련 주제에 대해 여러 번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토론문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1. 일단 공시/통시와 관련해서 언급할 성과가 있습니다. 1970년대 특정 지역어를 걸고 쓴 논의를 보면 단어 내부 경계, 형태소 경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 경계를 인식하게 된 논의는 제가 알기로는 이병근(1970)이었던 듯합니다.¹⁾ 그 이후 김완진(1972), 이익섭(1972), 이병근(1973) 등이 경계를 본격적으로 인식한 논의였습니다. 이때부터 곡용과 활용이 공시적 연구의 대상임이 어느 정도 굳어진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명옥(1988)에서 공시론/통시론의 대상에 대한 구체화가 보입니다. 그런데 강창석(1989)가 등장합니다. 오래 전 ‘강창석(1989), 국어음운론의 허와 실’을 읽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시, 통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활용형은 더 이상 공시적인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즉 활용형은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단어마다 역사가 있는 것처럼 활용형마다 역사가 있다. 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15세기: 프고, 프니, 퍼

현 대: 푸고, 푸니, 퍼

활용형이 모두 등재된다면 어휘부가 복잡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잡한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언어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활용형이 모두 등재된다면 과연 ‘폄다, 폄으니, 폄고, 폄어, 폄었어’ 유형, ‘폄겠다, 폄겠으나, 폄겠지, 폄겠더니, 폄겠는데, 폄겠사옵고, 폄겠사오니’ 유형 등도 다 등재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복수기저형(‘푸-’/‘퍼-’)으로 인간의 언어능력을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인간의 언어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곡용형과 활용형을 동일한 자격으로 파악하기 어

1) 이병근(1970), “Phonological and Morphological Studies in a Keonggi Subdialect”, 국어연구 20.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11.

이익섭(1972), “강릉 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이병근(1973), “동해안 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강창석(1989), “국어음운론의 허와 실”, 국어학 19.

려운 점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²⁾ 이런 식으로 학문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논의도 이런 맥락으로 관련 주제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2.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시적이냐 통시적이냐는 해석의 문제라고들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해석’은 상당히 모호한 말입니다. 연구자의 해석이 다 맞는 경우라면 그 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만, 연구자 나름의 해석일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의 해석을 연구자의 성향?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정 현상을 공시적이라 혹은 통시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연구자의 성향과 관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진실?은 따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파헤칠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면 일단 서로의 견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발표문의 일부분입니다.

최명옥(1988)의 교체의 정의는 공시적인 교체를 곡용과 활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5)에 따르면, 형태소 내부나 단어 내부에서는 더 이상 공시적인 교체가 있을 수 없고 통시적인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2)의 교체의 정의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2)에서의 교체의 대상이 되는 언어 형식의 단위는 형태소, 단어, 어휘 형식 등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론적으로 교체의 대상이 되는 단위가 활용과 곡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명옥(1988)에서도 활용과 곡용이 아닌, 단어 내부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 왜 공시적일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고 않고 있다.

마지막에 다른 연구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명옥(1988)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제시된 것으로 압니다. ‘애기’의 기저형은 ‘애기’, ‘해돋이’의 기저형은 ‘해도지’, ‘굳이’의 기저형은 ‘구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체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돋이’는 항상 ‘해도지’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해도지가, 해도지를, 해도지도, 해도지부터). ‘애기’와 ‘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들면, 굴절어에서의 교체의 개념을 수용하고, 그것도 기본서에 제시된 개념을 수용한 발표자의 논의도 입장에 따라서는 논거라고 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3. 발표자께서는 최명옥(2007)의 견해를 비판하기 위해 ‘국물’, ‘국밥’ 등을 거꾸로 하여 답변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국물’, ‘국밥’ 등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전주대사슴놀이’, ‘천방독’, ‘신록사’ 등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라면 꽤 오래 전까지 ‘이눌습사대주전(비음화 관련)’, ‘뚝방침(연구개음화 관련)’, ‘사룩쌀(유음화 관련)’이라 답했을 것입니다. ‘신록사’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찰 이름을 써보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쉬워 보이는 ‘연락’에 대해 ‘열락’, ‘열낙’, ‘연락’, ‘연낙’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 조사를 60-70대 이상으로 하는 이유와도 관련되어 보입니다. 서울말을 쓰는 사람도 인간이고,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도 인간이고, 거기에서 20대 대학생도 인간, 80대 할머니도 인간이니까 그 나름의 언어능

2) 경북방언의 ‘가:라’, ‘갈:래’, ‘가:마/‘싸라’, ‘쌀래’, ‘짜마’ 등을 보면 중세국어의 의도법과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또한 공시적으로 이해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언어학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80대 이상의 제보자라면 ‘날말’의 기저형이 ‘난말’ 내지 ‘남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찰나’의 기저형이 ‘찰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까지 큰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4. 지엽적인 것 몇 가지 적어봅니다.

4.1. ‘달+으면→다으면→다:면→다면’로 불 여지는 없는지요? 장음이 유지되는 화자는 마지막 도출형이 없게 되고 장음이 유지되지 않는 화자는 마지막 도출형이 있게 됩니다. 한 화자에게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나면 장음이 운소로서 불안정하다고 하면 될 텐데요. ‘다:면~다면’ 이것이 교체형인지요? 즉 두 가지를 모두 세 번째 도출과정으로 파악해야만 하는지요? 하나는 으 탈락 관련 장음화에 의한 교체형, 다른 하나는 으 탈락에 의한 교체형. 일련의 도출과정으로 생각할 수는 생각할 수는 없는지요? 이것은 ‘아버지~아부지’와도 또 다른 문제일 듯합니다. 저는 ‘아부지’라는 말만 사용하고 살다가 ‘아버지’라는 말을 나중에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찌기’와 ‘저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그 화자에게 ‘저기→찌기’를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현상을 관련 일부 단어에 적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넓게 보면 유추와 관련된 언어능력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사실, 이와 관련된 답변은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2. ‘굳이’는 ‘굳-’과 관련시키고 불안전동사 ‘더불어’ 유형은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일된 관점이 아닌 듯합니다만. ‘굳이’를 ‘굳-’과 관련시키는 화자가 일반인 중에 얼마나 될까요?

4.3. ‘달+으면→다으면→다:면(탈락에 의한 장음화?-다른 환경에서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탈락에 의한 장음화라는 용어가 몇몇 논자에게서 확인됩니다. 어떤 음소가 탈락될 때 장음화가 되고 어떤 음소가 탈락될 때 장음화 되지 않는지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율 연구의 쟁점과 과제

-1950년대 이후 표준어 운율 연구를 중심으로-

차재은(경기대)

< 차례 >

1. 서론
 2. 용어 정리
 3. 연구사 개관
 4. 쟁점과 과제
 5. 맺음
- 참고문헌

1. 서론

발화된 음성 언어에는 언제나 운율이 실린다는 점에서 운율은 분절음과 더불어 언어의 중요한 음성적 형식이 된다. 한국어 화자라면 /여러분 안녕하세요/의 음 높이, 길이, 세기 등에 적절한 변화를 주어 장면(context)에 맞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운율에 관한 지식은 음소나 음운 규칙처럼 한국어 화자들의 머릿속에 내재된 추상적 언어 정보라 할 수 있다. 음 높이, 길이, 세기 등의 운율 요소가 제거된 분절음의 연쇄가 자연 발화로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시니피에로서의 운율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말의 운율에 관한 지식이 우리말 화자들이 가진 추상적 언어 지식이라는 점에서 운율은 음운 체계나 음운 규칙과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질 법하다. 그러나 한국어 음운론 연구 주제로서의 운율은 음소, 규칙, 제약 등과 동등한 비중으로 탐구되지는 못했다. 전광용(1992)에서 “音長, 抑揚, 악센트에 대한 연구는 音韻論의 다른 분야에 비해 그 範圍나 深度에 있어 다소 뒤져 있다”고 진단했듯이, 1990년대 초까지도 악센트, 억양, 음장 등을 하위 주제로 하는 운율 연구의 결과물이 양적으로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표준 운율 문법에 대한 요구는 음성 인식 및 합성과 관련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하게 하는 일(음성 인식)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말소리를 기계적으로 합성하는 일(음성 합성)을 위해서는 자연 언어의 운율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으나 당시 운율 연구의 성과가 이를 충족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다만 이 외부 자극이 운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90년대 중반 이후 운율 연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다. 통제된 음성 실험 자료를 음성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계량적,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어 운율의 물리적 실체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새로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단어 대상

의 음장, 악센트 중심의 운율 연구에서 벗어나 2000년대 이후는 각 운율 단위의 운율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법의 다른 부문인 통사부, 의미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논의도 이어지는 등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50년대 이후 표준어 운율 연구를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조망하고 쟁점을 정리한 후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해 보려 한다. 연구 자료는 주요 학위논문, 운율 단독 주제 단행본,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운율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본다. 학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므로 용어를 중심으로 개념 지도를 그리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3장에서는 195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세부 주제별 운율 연구 결과를 개관하고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 운율 연구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고 향후 운율 연구의 과제를 제안한다.

2. 용어 정리

운율은 언어의 음성적 형식의 하나로 높이(고저), 길이(장단), 세기(강약) 및 쉼(휴지)을 통해 실현된다. 음의 높이, 길이, 세기, 쉼 등은 운율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운율 요소라고 부른다. 음의 높이는 물리적으로 기본주파수(F0)에, 음의 길이는 지속 시간에, 음의 세기는 크기(음압)에 대응한다. 쉼은 물리적으로 묵음 구간의 길이에 대응한다. 각 운율 요소에 대응하는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만 운율은 화자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추상적 언어 정보이다. 음소 목록이 방언에 따라 다르고 음절 구조가 언어에 따라 다르듯, 운율도 방언이나 개별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발화에서 운율의 기능은 대체로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운율은 단어의 뜻을 변별해 준다. ‘:말(語)’과 ‘말(馬)’은 음의 길이에서만 차이가 나는데 바로 이 ‘길이’ 때문에 두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이처럼 단어 뜻에 차이를 가져오는 운율 요소를 운소(韻素), 혹은 초분절음소(超分節音素)라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변별적인 음 길이를 음장(音長), 음 높이를 성조(聲調), 변별적인 음 크기를 강세(強勢)라고¹⁾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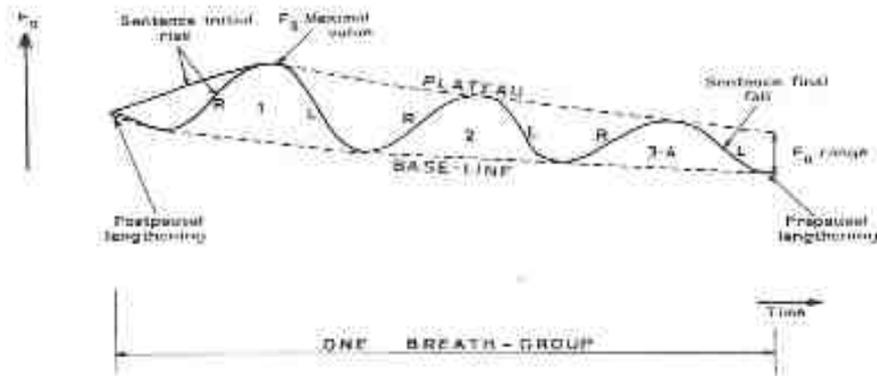
둘째, 운율은 발화의 문법적 의미를 결정한다. /미나가 학교에 가요/는 평서문으로 발화할 때와 의문문으로 발화할 때 문장에 얹히는 음높이 변화인 문장 억양 곡선의 모양이 다르다. 평서문일 때는 발화 마지막 음절의 음 높이인 경계 성조(핵 억양, 문미 억양, 문말 억양)가 저조(L%)로, 의문문일 때는 고조(H%)로 실현된다.

세 번째 운율은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드러내 준다. /미나가 학교에 가요/를 음운론적으로 고조(H%)로 실현하더라도 음성적 차이에 의해 단순한 정보 요구부터 기쁨, 놀람, 분노 등의 정서까지 운율을 통해 표출할 수 있다.²⁾

발화는 호흡이라는 물리적 조건 안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발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억양 곡선의 정점과 저점의 음높이가 점차로 낮아지는 점진하강(declination)이 관찰된다. 어떤 발화에서든 음높이 곡선에서 저조끼리 연결한 선인 저점 연결선과 고조끼리 연결한 고점 연결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많은 언어에서 무표적인 문장을 발화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F0 곡선의 도식을 보인 것이다.

1) 편의상 강세로 일반화했지만 강세는 높이, 길이, 세기의 복합 개념이다.

2) 운율은 화용적 의미를 결정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 발화의 F0 곡선 도식(Vaissière, 1983: 55)

문어의 문법 단위들이 ‘형태소-단어-어절-구-절-문장’의 위계를 가지듯이, 구어의 운율 단위들도 ‘음절-음운단어-강세구(음운구, 중간구, 말토막)-억양구(말마디)-발화’의³⁾ 위계를 이룬다. 음절(syllable)은 음절핵과 주변음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운율 단위, 음운단어(phonological word)는 내적 휴지를 갖지 않는 추상적 운율 단위, 강세구(accentual phrase)는 성조+고저고(THLH)의⁴⁾ 음높이 패턴을 갖는 추상적 운율 단위, 억양구(intonational phrase)는 경계 성조, 장음화, 쉼을 동반하는 추상적 운율 단위로 정의된다. 발화는 말차례 바뀔, 발화 종결 억양, 휴지를 외적 표지로, 종결 어미, 휴지, 통사, 의미 요소를 내적 구성 요소로 갖는 운율 단위이다.⁵⁾

다음 <표 1>은 신지영·차재은(2003)의 운율 위계를 기준으로 한 실제 발화 분석의 예를 표로 보인 것이다.

<표 1> 운율 위계와 발화 분석

운율 위계	발화 분석				
발화	발화	이○○이구요 스물여섯이구 학생입니다			
억양구 ... (억양구)	억양구	이○○이구요	스물여섯이구	학생입니다	
강세구 ... (강세구)	강세구	이	○○이구요	스물	여섯이구 학생입니다
음운단어 ... (음운단어)	음운단어	이	○○이구요	스물	여섯이구 학생입니다
음절 ... (음절)	음절	이.○.○.이.구.요.스.물.려.서.시.구.학.생.임.니.다			

3) 본고에서는 Jun sun-Ah(2000), 신지영·차재은(2003)의 운율 위계에 따랐다.
 4) 여기서의 성조란 단어 의미를 변별하지 않는 비어휘적 성조인 음성적 성조를 뜻하는 것으로, T가 경음, 격음, 마찰음으로 시작하면 고조(H), 그 외의 자음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면 저조(L)로 실현된다.
 5) 발화에 대한 정의는 김수진·차재은·오재혁(2011)을 참조하였다.

이와는 달리 이호영(1996)에서는 한국어의 운율 단위를 ‘문장 → 말마디 → 말토막(→날말 →음절)’으로 나누고 있다. **문장**이란 가장 큰 운율 단위로 문장 억양이 부가된다. **말마디**는 말마디 억양이 부가되는 정보 단위이며 말마디의 끝음절에는 **핵억양**이 온다. 핵억양에는 ‘낮은 수평조, 가운데수평조, 높은수평조, 낮내림조, 높내림조, 온오름조, 낮오름조, 내리오름조, 오르내림조’의 9가지가 있다. **말토막**은 ‘하나의 강세 음절 + 영 개 이상의 비강세 음절로 구성된 정보 단위’로서 말토막 억양이 얹히는 억양 단위이다.⁷⁾ **말토막 억양**에는 오름조(친근한 발화), 수평조(사무적인 발화), 내림조, 오르내림조가 있다.

리듬은 운율 요소의 반복적 패턴으로 정의되며 **반복성**과 **등시성(等時性)**을 그 특징으로 가진다. 가령 강세가 일정한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강세가 기본적인 시간 단위가 되는 언어는 **강세 박자 언어**, 음절이 기본적인 시간 단위가 되는 언어는 **음절 박자 언어**가 된다. 강세 위치가 예측 가능하면 **고정 강세어**로, 그렇지 않으면 **자유 강세어**로 범주화된다. 고정 강세어의 강세는 단어 의미를 변별하지 않는 반면, 자유 강세어의 강세는 의미 변별에 관계한다. 강조되는 신정보인 **초점**에는 강세, 길이, 높이의 증가를 통한 음성적 강화가 동반된다.

3. 연구사 개관

다음 <표 2>는 195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세부 연구 주제별로 운율 연구를 개관한 것이다. 연구 주제의 분류는 제목에 있는 핵심어와 논문 내용을 토대로 음장, 악센트, 리듬, 억양, 운율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음장과 악센트는 단어 중심, 리듬은 단어와 말토막의 박자 중심, 억양은 강세구 이상의 음 높이 연쇄, 운율은 높이, 길이, 쉼 등의 운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사료 논문 중 기존 연구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된 경우, 운율의 음성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보다 음운 규칙의 기술에 중점이 놓인 연구는 1차 사료에서 제외하였다.

<표 2> 운율 연구 개관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합계
음장	2	2		2	1	6	13
악센트	3	2	1	3	1		10
리듬			1	1	4	2	8
억양			1	4	11	19	35
운율					6	13	19
합계	5	4	3	10	23	40	85

위 표에서 보이듯이, 1950, 60년대의 운율 연구는 단어 중심의 음장과 악센트 연구 위

6) 이호영(1996)에서는 말토막보다 작은 음운 단위인 날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7) 이호영(1996)의 문장은 대체로 전선아(Jun 1993, 2000)의 발화에 해당되며, 말마디는 억양구에, 그리고 말토막은 음운구, 혹은 강세구에, 날말은 음운단어에 해당된다.

주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리듬과 억양에 대한 관심이 태동하였고 이러한 관심은 1980년대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시기에 억양 관련 연구도 시작되었다. 반면 1990년대의 운율 연구는 수적으로도 증가하고 연구 주제도 다양해진다. 이 시기에는 억양과 운율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0대 이후의 연구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요약하면 운율 연구는 단어 단위의 음장, 악센트 연구에서 운율구(강세구, 억양구)나 발화 단위의 억양, 운율 연구로 확장되어 왔다.

이제 세부 주제별로 운율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음장, 악센트, 리듬, 억양, 운율 등의 주제 별로 주요 연구를 소개한다. 개별 연구는 연구 방법론과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사적 의의를 밝히도록 한다.

3.1 음장

이 절에서는 규칙 중심의 음장 연구(단모음화, 보상적 장음화)와 관련된 논의는 제외하고 음장의 본질에 관한 기술적, 실험적 연구를 대상으로 연대순으로 연구 내용을 정리하였다.

南廣祐(1954)에서는 우리말의 한자어, 고유어는 장단 대립을 가지고 있으며 장음은 역사적으로 상성에서 왔고 음절 축약으로도 장음이 형성(:뱀)됨을 밝히고 있다. 또 일부 용언은 활용에서 단음화(:뚫고~도우니)된다는 사실도 기술하고 있다. 南廣祐(1955)는 앞 연구의 내용을 더 상술하고 어두 장음이 비어두에서 단음화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 두 연구는 우리말 장단의 변별적 속성, 장음의 기원, 활용에 나타나는 단음화 등 음장과 관련된 언어 현상을 기술한 것으로 음장에 관한 최초의 논의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張泰鎮(1960)에서는 음장의 음성적 실현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보이며 장단 대립의 분포 위치가 통사론적 단위(예 ∥:새들이 ∥:멀리 |:놀며 |:짓다. ∥)라고 하였다. 張泰鎮(1963)은 장단 대립을 모라(mora)를 이용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국어의 음장은 장모음 2, 단모음 1 모라를 고정적 체계로 하고 반장모음에 1.5, 특장모음에 3모라를 변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장단이라는 음운 현상을 모라 단위를 도입하여 설명한 점이 새로우나 음성적 층위까지 모라를 도입하려 설명한 것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박주경(1985)는 부모 중 한 사람이 3대 이상 서울에서 출생하여 거주 중인 10대에서 60대까지 6개 연령 층, 각 5명씩 30명을 대상으로 고빈도 낱말 400개, 문장 277개를 통해 문맥에서의 장단 차이를 청각 판단과 스펙트로그램으로 검증하고 별도의 설문지를 통해 장단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설문지 조사와 실험 결과 자라나는 세대(10, 20)대는 발화 속도가 빠르면 장단을 의식하지도 발음하지도 못하고 모음 장단 측정 결과도 변별력이 없는 반면 안정된 세대(30대 이상)는 발화 속도가 늦고 장단을 의식하며 실제 사용에서도 개인별, 세대별로 일관성이 있음을 밝힌 논문이다. 이 논문은 세대별로 장단의 인식과 발음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한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이병근(1986)은 형태소 단위의 음장이 변별력을 가지나 실제로 기식군의 첫 음절에서만 장음이 유지된다는 내용이며 지민제(1993)은 표준어의 장단이 변별적이며 낱소리는 앞뒤 소리, 악센트, 위치, 속도 등의 영향으로 고유의 리듬을 이룬다는 내용으로 두 논문 모두 장년층 이상 세대의 음장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정명숙, 황국정(2000)은 2음절 한자어의 장단을 실험음성학적으로 고찰하여 노년층 화자가 장단음을 더 잘 구별하며 장단의 소멸은 장단이 중화되는 어휘의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수형(2001)은 현대국어에서 음장은 더 이상 변별력이 없음을

광범위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고 김선철 외(2004)에서도 60대와 20대가 기저 장음 유지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였다. 이 연구들은 현대 국어의 음장 소멸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차재은(2005)에서는 1930년대의 음성 자료를 고찰하여 음장이 주로 강세구의 첫 음절에서 실현되지만 첫 음절이 아닌 위치에서도 실현 가능하다고 하였다. 차재은(2010)은 20세기 초의 음장 대립을 살펴보기 위해 <큰사전>을 분석한 것으로, 고유어 단어 중 첫음절이 장음인 경우가 90.8%이며 고유어 단어간 최소 대립쌍 수가 매우 적어 동사 53, 명사 112쌍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다. 차재은(2011)은 <큰사전>의 고유어 복합어의 음장을 분석한 결과, X:-Y, X-Y:, X:-Y:로 유형화하고 합성어 2음절의 음장은 현실 음장을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차재은(2005, 2010, 2011)은 음장이 유지되던 시기의 장단 대립 양상을 문어와 구어 자료를 통해 실증하려는 시도이다.

3.2 악센트

李崇寧(1955a)에서는 악센트의 개념을 소개하고 중앙어는 선강 후약 악센트임을 주장하였다. 또 국어의 ‘ㄱ, ㅌ, ㅍ, ㅈ+ 모음 음절’에 악센트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평음과 격음 뒤에서 F0가 상승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한 것이다. 李崇寧(1955b)는 어휘 악센트와 비어휘 악센트의 존재를 소개하며 중세국어는 어휘 악센트를 가진다고 하였다. 李崇寧(1955c)는 신정보나 심리적 강조를 위해 악센트를 사용하며⁸⁾ “‘한벌, 꿀'벌, '두눈, 흰'눈, '간밤, 군'밤’처럼 국어에서 악센트는 장모음에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이송녕(1960)에서는 앞 논의를 종합하여 서울말은 강약 악센트이며 장모음이 악센트를 가진다는 이론을 세웠다.

반면 정인섭(1965)에서는 아나운서의 발화를 소노그래프로 분석한 결과 서울말을 고저 악센트로 규정하고 낱말 악센트가 변별적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상직(1987)은 우리말은 성조 언어가 아니므로 고저 악센트는 변별적일 수 없다고 비판하였고 유재원(1988)에서는 정인섭(1965)의 실험이 모음에 내재된 음향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고 청취 실험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현복(1973)은 청취 실험을 통해 서울말의 악센트는 강세와 음절의 길이가 결합된 복합체로서 악센트의 위치는 모음의 장단과 음절 구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송녕의 강약 악센트설과 장모음 악센트를 결합한 복합 악센트설이 등장한 것이다.

이호영(1987)에서는 Visi-Pitch를 이용한 악센트 분석과 11인의 청취 실험을 통해 한국어의 악센트 위치는 모음의 장단과 음절의 구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첫 음절이 무거운 음절이면 그 음절에 악센트가 오고 가벼운 음절이면 다음 음절에 악센트가 온다는 것이다. 이호영(1987)은 이현복(1973)의 논의를 실험을 통해 증명한 것이지만 성철재(1991)에서는 Visi-Pitch가 ‘길이’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도구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직(1987)은 이호영(1987)의 논의에 운율 음운론을 적용하여 운모(Rhyme)가 가지를 치는 첫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온다고 하였다.

8) “개가 누구겠니? 바로 갑순이야. 그 갑순이가 또 누구겠니? 개가 그이 딸이지 뭐야. 그 딸이 애빈 줄 몰랐거든.”은 강조 초점, “아니, 백 '월'이야. 백 '환'이라는데 그래...”는 심리적 고려에 의한 악센트 사용의 예이다.

유재원(1988)에서는 현대국어 악센트는 고정 악센트이고 음절 전체 구조에 따라 악센트 위치가 결정되는 강약 악센트라고 보았다. 한 말토막 안에서 맨 왼쪽에 오는 무거운 음절에 악센트가 놓이며 말토막 안에 무거운 음절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가벼운 음절에 악센트가 놓인다(예: 개구리, 개구리'가)고 보았으나 이에 대해 이호영(1990)에서는 조사는 악센트를 받지 못하는 요소이므로 '개구리가'는 적절한 논증 자료가 아니라고 하였다.

성철재(1991)에서는 중음절(heavy syllable)과 경음절(light syllable)을 조합한 무의미 낱말(예: 말말, 말마, 마말, 마마 등) 28가지를 '여기에 ___만 있다'는 틀 문장에 넣어 서울 출신 4인의 음성 녹음 자료를 만든 후 역시 서울 출신 29명의 20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무의미 낱말 중 흔들리는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청취 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청취 실험 외에 첫 두 음절의 길이, 세기, F0를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도 함께 검증하였다. 청취 실험 결과 한국어 낱말 악센트는 HH, LL, HL 음절 유형은 첫음절이, LH 음절 유형은 둘째 음절이 흔들리며 이 실험 결과를 음성 실험과 연동하여 흔들림에서 가장 중요한 운율 변수는 길이이고 세기는 부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낱말의 흔들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음절 유형(중음절:경음절)과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F0값의 분포가 고정된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실증한 것이다. 2음절 낱말의 F0는 오름형, 3음절 낱말은 오르-내림형, 4음절 낱말은 오르-내리-오름의 유형을⁹⁾ 가지며 첫음절과 둘째 음절의 F0 차이가 길이나 세기 변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음향 분석 결과보다는 청취 실험 결과에 더 비중을 두어 낱말 리듬에서 가장 중요한 운율 변수는 길이라고 결론 내렸다.

3.3 리듬

이현복(1974)에서는 서울말의 입말 리듬 단위로 말토막을 설정하고 말토막이 모여 억양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말토막은 하나 이상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가 반드시 강세를 가져야 하는데 장음이거나 폐음절이면 강세 음절이 된다고 한다. “언제라도+’ 좋으실 때+가’뵙지요’에서 +가 말토막의 경계이며 ’는 강세 표지이다. 말토막은 발화 속도와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빠른 발화일수록 말토막이 길어지며 30대는 장단 구별이 없어 2음절에 강세를 부과한 결과 리듬 패턴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입말의 리듬 단위를 설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연구자 1인의 내성적 관찰에 의존한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은 한계점이다.

이현복(1982)에서는 이현복(1974)에 근거하여 말토막을 ($w^1, w^2, w^3...w^n$) 'S ($w^1, w^2, w^3...w^n$)로 표기하고 말토막은 끝음절이 길어지는 음성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 래링 고그래프를 이용하여 길이 실험을 하였으나 연구자가 피시험자라는 점에서 연구 방법의 객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현복(1993)은 20대, 50대 남 5인, 여 3인을 대상으로 음절 길이를 늘이는 실험을 통해 젊은 층은 음절 시간 언어, 장년층은 강세 시간 언어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피실험자에게 실험 대상어인 ‘말’과 ‘땀-’에 악센트를 부과하도록 한 점은 실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박진희(1990)는 한국어 낱말 리듬을 길이를 중심으로 실험 음성학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9) Jun(2000)에서 강세구의 기저 억양을 LHa로 기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음절 구조와 길이, 강세 여부와 길이, 음절 수와 길이, 음절 위치와 길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음절 수에 따른 길이의 증가 비율이 영어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어를 강세 박자 언어로 보았다. 정명숙·신지영(2000)에서는 박진희(1990)의 실험 결과 강세 음절과 비 강세 음절의 길이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한국어를 강세 언어로 본 것을 비판하였다.

성철재(1994)에서는 한국어 리듬의 단위를 운율구(Prosodic phrase)로 보고 ‘바람과 햇님’의 낭독체 발화에 보이는 운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어말장음화 비율은 어두음절에 비해 대략 1.7:1로 나타나고, 낱말 길이와 구의 길이 효과에서¹⁰⁾ 순행(L-R) 및 역행(R-L) 단음화 효과가 모두 있으나 순행효과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 어절이 독립적인 리듬 단위로 작용함을 밝히고 한국어는 강세 박자 언어와 음절 박자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철재(1996)은 낭독체 발화 실험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무의미 단어 실험을 추가하여 어말 장음화와 구 길이 효과를 확인한 후 한국어는 강세-기반 언어로 볼 수 있으나 영어와 같은 정도의 강세 박자 언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김선주(2000)은 20대 3인, 60대 3인을 대상으로 2음절 낱말의 리듬 패턴의 변화를 연구한 것으로 장단음 소실로 액센트 패턴이 ‘땅디’에서 ‘디땅’ 유형으로 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30대는 장단 구별이 없어 2음절에 강세를 부과한 결과 리듬 패턴이 달라진다는’ 이현복(1974)의 관찰을 실증한 것이다.

정명숙·신지영(2000)에서는 20, 30대 서울 방언 화자 남녀 각 5인에게 음절 수, 음절 유형, 분절음의 종류를 고려한 91개 어절(예: 다, 다리, 다리도, 다리라도, 다리라고도...)을 ‘내가 ___ 다시 말한다’라는 틀 문장에 넣어 녹음한 후, 강세와 강세 사이의 거리, 모라수의 증가에 따른 어절 길이 증가, 음절 수의 증가에 따른 어절 길이 증가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는 강세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며 강세를 받은 음절과 그렇지 않은 음절에 사이에 길이 차이가 없으며 모라수와 어절 길이에 양의 비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음절수와 어절 길이 사이에 비례 관계가 관찰되므로 한국어는 음절 박자 언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3.4 억양

억양은 운율구(강세구, 억양구) 이상의 단위에 얹히는 음 높이의 변화를 뜻한다. 이러한 억양 연구는 음 높이의 어떤 국면을 다루었느냐에 따라 경계 억양 연구, 점진하강 연구, 통사-의미 구조와 억양 관련성 연구, 기타 억양의 성격 및 표기방법, 억양의 화용적 변이 연구로 나눌 수 있다.

3.4.1 경계 억양

이현복(1976)은 단음절어 ‘네, 말, 가’ 등의 억양을 기술하면서 서울말에 20가지 억양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사실상 한 음절 발화의 억양을 다룬 것이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태도적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고 있다.

이숙향(1984)는 한국어의 문미 억양에 관한 연구로 라디오와 드라마와 대답의 억양을 영

10) 구 안에서 단어의 수가 늘어날 때 목표 단어의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뜻한다.

국식 억양 분석법으로 기술한 결과 문미 억양의 형태는 내림, 오름이 있고 이 억양은 통사적, 언표내적, 태도 표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음운론적 중요성을 가지는 문미 억양의 목록을 확인하고 억양의 기능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인정된다.

이호영(1991)에서는 한국어의 억양 체계를 논의하면서 말토막과 막마디를 운율 단위로 설정하였다. 말토막은 ‘하나의 강세 음절 + 영 개 이상의 비강세 음절로 구성된 정보 단위’로 말토막 억양이 없는데, 말토막 억양에는 오름조(친근한 발화), 수평조(사무적인 발화), 내림조, 오르내림조가 있다고 하였다. 말토막들로 이루어진 말마디는 말마디 억양이 부가되는 정보 단위이며 끝음절에는 핵억양이 오는데 핵억양에는 ‘낮은 수평조, 가운데수평조, 높은수평조, 낮내림조, 높내림조, 온오름조, 낮오름조, 내리오름조, 오르내림조’의 9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윤일승(1992)에서는 20대 남성 3인의 낭독체 발화를 대상으로 소노그래프를 이용하여 말토막 끝 두 음절의 억양을 관찰한 결과 말토막의 끝 음절이 앞 음절에 비해 11%정도의 오름 억양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한국어는 구의 마지막 끝음절이 강세(높이)를 받는다는 관찰을¹¹⁾ 실증한 연구이다.

김선철(1999)는 서울 지역 20, 30대 남성 화자들의 억양을 억양음운론의 틀로 분석한 것으로 억양구(IP)와 중간구(ip)¹²⁾를 운율 단위로 삼아 단문인 서술문, 의문문(판정, 설명, 확인, 수사, 반문, 선택), 명령문, 청유문과 복문인 접속문(대등, 종속), 내포문의 억양을 실험 음성학적인 방법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50개의 발화를 관찰한 결과 서울말은 어휘적으로 명세되지 않은 H*, L*, H*+L 유형의 강세악센트를 가지며 억양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고저악센트와 경계음조를 이용하는 언어라고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억양 기술의 일반성과 규칙성의 포착에 적합한 억양 음운론의 틀을 이용하여 서법에 따른 한국어 억양의 음성, 음운론적 특징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인정된다.

한선희·오미라(1999)에서는 낭독체와 자연발화 자료의 억양구말 위치의 경계톤을 문장 말과 문장 중간 위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계톤 9가지(HL% LH% L% H% L-%, LHL%, HLH%, H-% LHLH%)를 도출한 연구이다. 단, 낭독체와 자연발화, 표준말 화자와 방언 화자를 섞어 놓은 점은 실험 설계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선희(2000)에서는 자발화 자료의 억양구말 경계 성조를 문장 말과 문장 중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요’의 경우 문장 끝에서 하강조와 상승조 비율이 2:1, 문장 중간에서는 하강조와 상승조의 비율이 1.4:1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송민규·이영배(2003)에서는 한국어 강세구 첫 음절의 운율 패턴을 관찰한 결과, THLH 유형에서 벗어나 평음이 강세구 초 위치 고조를 가지는 경우가 각 분절음 별로 약 10-15% 정도라고 하였다. 특히 L%나 HL% 등 특정한 억양구 경계성조가 나타나는 강세구에서 평음이 고조로 실현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는데, 분절음의 특성보다는 억양구 경계 성조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는 강세구의 억양을 정밀하게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승미(2007)은 라디오 방송 음성 말뭉치를 구축하여 남녀 2인씩 4명이 발화한 총 400개 문장에 보이는 어말어미 ‘-아/어, -지요, -습니다’의 선행 핵억양과¹³⁾ 핵억양을 고찰한

11) Polivanov(1936)에서는 문중에서는 단어의 끝음절이, 단독형에서는 첫 음절이 악센트를 가진다고 하였다.

12) 중간구는 Jun(2000)의 강세구에 대응한다.

결과 오름, 오르내림, 낮내림, 낮오름, 낮은수평, 내리오름조를 관찰하였다. 이 중 ‘-아요’형은 친근하고 다정한 느낌의 억양 모형, ‘-니다’는 공손한 억양 모형을 사용한다고 보았으나 피험자의 수가 적은 것은 문제로 보인다.

이호영·손남호(2007)에서는 강세구의 억양 목록을 찾기 위해 4음절어(나주에서, 파주에서)에 얹히는 억양 패턴을 35개 선정한 후 서울말 화자 30인을 피험자로 하여 어느 패턴이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판단하게 하는 청취 실험을 실시한 결과, Jun(2000)에 제시된 14개의 강세구 억양보다 더 많은 패턴이 요구되며 약자음으로 시작하는 강세구는 L, 강자음으로¹⁴⁾ 시작하는 강세구는 H가 자연스럽게지만 L로 시작하는 억양 패턴도 자연스럽게 인지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자연성 실험과 구별 실험 결과를 토대로 서울말의 강세구 억양 패턴으로 HH, LL, LH, HL, LHL, HLH, H+LH, LHLH를 추출하되 기저 층위에서는 L, H만으로도 기술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음성 실험을 통해 강세구 억양 목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재혁(2011)은 국어 종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해 표준어 화자 107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지각 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20대 표준어 여성 화자가 발화한 평서형 자료를 대상으로 발화 끝 음절의 음높이와 음길이를 조절하고 강세구 시작 음높이 유형을 고려한 총 114개의 자극으로 자극-반응 실험을 실시한 결과, 상승 억양은 의문법, 하강 억양은 평서법으로 지각되나 감탄법은 지각 비율이 매우 낮아 평탄 억양의 기능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낮은 상승-하강은 기본적으로 평서법(명령법)의 기능을 갖는 억양이나 이 억양에서 평서법과 명령법은 변별적이지 않았고 중간 굴곡 지점의 음높이가 높아지면 의문법(감탄법)으로 지각되는 비율이 높아짐을 밝혔다. 높은 상승-하강 억양은 기본적으로 의문법(감탄법)의 기능을 갖지만 높은 상승-하강 억양에서도 의문법과 감탄법은 변별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조민하(2011)는 자유 발화의 억양과 맥락적 사용을 분석한 결과 비종결어미의 종결기능은 억양이 결정하고 맥락적 기능에 의해 화자의 의도가 구체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연결 어미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억양이나 화맥적 기능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경계 성조 목록은 의미 변별에 참여하는 L%, H%, LH%, HL%, LHL%에 한정되는데, H%는 청자 반응과 관련되고 장음화된 L%은 간접적 행동 요구의 기능을 하며 LHL%은 주장, 강조, 설득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연결어미의 종결기능은 담화적 사용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문법화나 종결어미화로 규정될 수 없고 발화 말 경계 성조의 기능으로 한정된다고 하였다.

3.4.2 점진하강

점진하강은 억양 현상의 하나로 발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억양 곡선의 마루(peak)와 골짜기(valley) 음높이가 점차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인지영·성철재(2008)에서는 방송 뉴스를 라디오와 티비로 나누고 남성과 여성을 독립 변수로 하여 각 집단에서 관찰되는 꼭대기선과 바탕선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라디오가 티비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억양 곡선 기울기가 완만함을 밝혔다. 또 바탕선은 전반적 하강을 보여주고 꼭대기선은 주제의 전환, 강조 등 화자의 심리적 양상이 불규칙적으로 반영되었

13) ‘정말 좋겠네요’중 음절 ‘네’가 선행 핵억양 위치이다.

14) 평음, 격음, 마찰음(ㅎ, ㅅ)이 여기에 속한다. 그 외의 자음은 모두 약자음이다.

다고 보았다.

곽숙영·신지영(2009)은 점진하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중립 발화와 초점 발화를 구분하지 않은 점, 강세구 경계 성조를 상위선, 억양구 경계 성조를 하위선에 포함시킨 점을 비판하며 중립 발화(나영이가 영만이를 미워해요)와 초점 발화(나영이가 미영이를 너무너무 미워해요)로 나눈 실험 문장을 서울, 경기 방언 남녀 피험자 8명의 낭독하게 한 후 '저고저고'의 강세구에서 첫 번째 성조에서 최저 음높이를 연결하여 하위선을 삼고, 두 번째 성조에서 최고 음높이를 연결하여 상위선을 삼는 방법을 제안하고 상위선이 화자의 발화 계획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점진하강의 기준선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곽숙영(2010)은 남녀 10인의 고립 문장 낭독 발화를 분석한 결과, 발화의 길이와 상관없이 시작 음 높기와 마지막 음 높기가 일정하여 점진하강의 총량은 불변하며 절 경계에서 발생하는 점진하강의 재조정은 통사적 단위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초점에 의한 억양적 흔들림은 하나의 점진하강선에 부가적으로 얹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곽숙영·신지영(2012)은 남녀 30명씩 6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접속문, 내포문, 도치문의 낭독 발화를 분석한 결과, 대등 접속문은 절 경계에서 점진하강 재조정이 일어나고 종속 접속문은 각 절의 길이가 음운구 3개 이상일 때 점진하강 재조정이 일어나며 내포문은 절 경계 외에 문장 성분 경계에서 점진하강 재조정이 일어나되 어느 경우나 길이가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도치문은 후행구의 길이가 강세구 2개 이상으로 길어지면 점진하강 재조정 발생한다고 하였다. 점진하강의 발생 영역은 1차적으로 통사적 단위이고 의미적으로 긴밀하지 않은 단위일수록 점진 하강 재조정이 잘 일어나며 점진하강이 발생하는 영역과 억양구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곽숙영(2012)는 한국어 발화의 점진하강 현상을 종합한 것으로 곽숙영(2009, 2010, 2012)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점진하강 재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위계 관계를 '의미적 긴밀성 > 길이 > 통사적 경계 > 억양구 경계 > 휴지 길이'로 정리하였다.

3.4.3 통사, 의미 구조와 억양의 관련성

최혜원(1995)는 문장성분의 생략에 따른 억양 곡선의 변화를 살핀 것으로 '주어+목적어+서술어'구문에서 목적어를 생략했을 경우와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에서 목적어와 부사어를 생략했을 경우 생략 요소 앞뒤 음절의 길이, F0, 크기를 측정한 결과 생략 요소 앞 음절의 음높이가 생략 없는 문장에서보다 더 낮고 음 길이는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등접속문 S1+S2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생략했을 경우 F0를 측정한 결과 S2의 P1(문장의 첫 말토막에서 가장 마지막 음절) 값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호영(1999)는 서법이 다른 10개의 실험 문장을 5명의 서울말 여성 화자에게 읽힌 후 핵억양의 시작점, 최고점, 최저점의 기본 주파수를 측정한 결과, 핵억양과 문장 유형에는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평서문, 명령문은 주로 낮은 수평조, 낮내림조, 오르내림조를 사용하고 예-아니오 의문과 되물음 의문에는 높내림조와 높은수평조가 사용되며 의문사 의문에는 대부분의 핵억양이 두루 사용됨을 밝혔다. 핵억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장의 종류이며 화자의 태도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김미란 외(2000)에서는 의문사 의문문에 보이는 H%와 HL%는 '누구, 뭘, 언제, 어디'에 정보초점이 실현된 결과 경계성조가 낮아지는 H%의 음성적 변이이고 선택의문문에 나타나는 HL%경계 성조는 초점의 차이와 관련되며 반복의문문의 경계성조는 정보초점이 아닌

강조초점임을 밝히고 있다. 김미란(2001)에서는 한국어의 대등적 연결 어미 ‘-고’의 함축 의미가 일반 함축과 억양에 의해 실현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박미영·안병섭(2003)에서는 의문사가 초점으로서 작용하는 운율적 흔들림을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부정사와 의문사 모두 성조형은 LH이나 부정사의 f0가 30~70Hz인 반면, 의문사는 70~100Hz로 차이를 보이며 의문사 뒤에 보이는 강세구 해지 현상은(언제/옆집 아주머니/만났니?) 의문사와 무관하며 부정사 의문문에서는 문장 전체의 음높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후행 언어 단위의 억양이 뚜렷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초점 받은 의문사 ‘누가’를 더 흔들리게 한다고 해석하였다.

남길임(2007)에서는 세종 계획 구어 말뭉치 5만여 어절을 자료로 하여 국어의 억양 단위와 통사 단위와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억양 단위의 통사적 층위는 절 이상이 82.5%로 절의 수는 하나 또는 두 개를 포함한 경우가 가장 많고 한국어의 억양 단위 경계는 종결어미 또는 연결어미의 일부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형절이나 명사절을 형성하는 전성어미는 억양 단위 경계에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이다.

3.4.4 기타: 억양의 성격과 표기 방법 등

이영길(1987)에서는 억양의 표시 방법으로 억양 배형곡선(configurational contour)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억양은 초음절적이므로 오름, 내림, 수평과 같은 배형으로 운동의 방향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오름조는 +R(Rise), -F(Fall), 내림조는 -R, +F, 수평조는 -R, -F와 같이 표시된다. 이영길(1988)은 억양군과 경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억양군의 관계가 종속이면 통합 구조, 등위이면 연쇄 구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억양 곡선을 의미와 연계하되 국어의 억양 의미는 화맥 의존적이어서 생성음운론식 억양 어휘부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임흥빈(1993)에서는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을 논하면서 우리말의 강세는 높은 음조에 놓이는 경향을 보이므로 우리말의 악센트를 세기에 의한 강세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하강 억양은 완결적이고 상승 억양은 미완결적이며 높은 억양이나 음조는 반응의 정도가 큰 것, 낮은 억양이나 음조는 반응의 정도가 낮은 것이며 길게 끄는 억양은 확인이나 요구의 시간적인 지체가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는 문법을 위한 억양과 태도 표현을 위한 억양을 분리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호영(1994)는 화자의 억양 선택 과정을 말마디 경계 위치, 말토막 경계 위치, 말토막 억양, 핵 억양 선택으로 나누고 말마디 경계 선택 과정에는 초점 영역, 문장 의미 구조, 문장 길이, 문장 문법 구조, 발화 속도와 스타일이 영향을 주며, 말토막 경계 선택에는 문장 의미, 문장 길이, 초점 영역, 운율 구조, 속도와 스타일이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말토막 억양 선택에는 화자의 태도와 스타일, 음조 조화 등이 고려되며 핵 억양 선택에는 문장 유형, 어미, 언표 내적 행위, 화자의 태도 및 감정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선철(1998)에서는 서울말 억양의 음운론적 기술을 위해 말토막에 대응하는 중간구를 설정하고 중간구의 우측 경계와 억양구의 우측 경계를 이용하여 국어 억양을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영길(1998)에서는 억양 모형의 구조와 의미를 다루면서 하나의 발화체가 두 개 이상의 억양군으로 구성될 때 그들 사이에는 종속과 등위 관계가 존재하는데 종속은 자립/의존으로 양분되며 등위는 자립성만을 가진다고 보았다. 억양상의 종속과 등위는 문법 관계와는

구별되며 억양상 종속 구조는 통합 개념, 등위는 연쇄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각 억양군의 말미 경계 어조가 H와 L이라고 할 때 억양군 연속체는 H+L, H+H, L+H, L+L이 되고 이 억양군에서 종속과 등위 관계를 찾을 수 있다.

곽동기(2000)에서는 한국어의 비변별적 강세는 모음 길이, 음절 무게 등으로 결정되며 악센트는 높기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중간구 끝음절의 오름조는 친근한 태도, 발화 미완료 등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태경·장경희(2006)에서는 드라마를 분석한 결과, 부하 직원과의 대화에서는 문중 억양구 경계 성조로 하강조를 사용하고 상사-부하간 진술이나 대답 화행에서도 하강조를 사용하며 발화 속도는 상사와의 대화에서는 빨라지고 부하와는 느려지며 음높이는 친구와 대화에서 폭이 커짐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대화 참여자의 지위 관계에 따른 운율 특성을 규명한 것으로 억양의 화용적 변이를 다룬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3.5 운율

이 절에는 운율구 이상의 단위를 대상으로 음높이, 휴지 등의 운율 요소가 포괄적으로 기술된 연구를 포함하였다. 단, 운율 범주 연구들은 관점에 따라 억양 범주의 연구들과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3.5.1 운율 일반

Jun Sun-Ah(2000)은 영어 ToBI를 이용하여 우리말 운율 전사 체계를 구축한 결과물이다. 우리말의 운율 단위로 음절-음운단어-강세구(AP)-억양구(IP)를 설정하고 강세구의 성조 패턴과 억양구의 음성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강세구(accentual phrase)는 성조+고저고(THLH, 14개 유형)의 음높이 패턴과 짧은 침을 갖는 LHa로 추상화되는 운율 단위, 억양구(intonational phrase)는 9개의 경계 성조(H, L, HL, LH, HLH, LHL, HLHL, LHLH/LHLHL), 끝음절 장음화, 침을 동반하는 운율 단위로 보았다. 이 연구는 운율 전사의 표준적 규약으로 수용되면서 이후의 우리말 운율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숙향(2002)에서는 서울방언 화자 7명을 대상으로 3가지 발화 속도로 문장 읽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강세구의 억양 패턴은 강세구의 음절 수, 첫 음절 시작 자음, 발화 속도의 영향을 받았고 강세구말 장음화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K-ToBI에 대한 검증의 성격을 가진다.

안병섭(2010)은 한국어 운율 음운론에 대한 종합적 고찰로 우리말의 운율 단위로 ‘음절-강세구-억양구-발화’를 설정하였다. 이 중 음절과 강세구는 리듬 구조 단위이며 음절, 강세구, 억양구, 발화는 억양 구조 단위로 파악하였다. 또 음절의 시간 구조, 강세구 형성과 관련된 형태, 통사적 기제, 억양구의 위계와 비종결 경계 성조의 기능을 밝히고, 발화 단위의 설정 방법을 논하였으며, 억양구의 크기, 발화 종결 경계 성조의 담화 기능, 화제·논평의 운율 구조, 정보 초점의 운율 표시 등 국어 운율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3.5.2 발화 속도와 운율 단위

김경화(1999)에서는 명사구를 대상으로 말토막 형성을 고찰한 결과, 음절수가 적고 발화

속도가 빠른 경우는 하나의 말토막을 형성하고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높거나 문법적으로 친밀한 두 어절도 하나의 말토막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박미영(2002)에서는 세 가지 발화 속도(빠르다, 보통이다, 느리다)에 따른 운율구 형성 양상을 실험한 결과, 20대 화자들의 속도별 음절 길이는 빠른 발화는 117.6ms/syl, 보통 발화는 168.2ms/syl, 느린 발화는 207.2ms/syl로 차이를 보였으며 발화 속도가 빠른 경우는 한 개의 억양구에 포함되는 강세구의 수가 적은 반면 느린 발화에서는 더 많은 강세구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선철(2009)에서는 발화 속도에 따른 운율 단위의 빈도 변이를 살펴보기 위해 4개의 실험 문장을 선정한 후 성별을 변수로 하여 남녀 각각 30명씩 총 60명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 발화 속도와 운율구의 생성 빈도 사이에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강세구와 억양구의 생성에는 발화 속도 외에 통사, 의미 구조와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5.3 문제와 운율

박지혜(2002)에서는 20대 남녀 5명씩 10명의 대화체와 낭독체 음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낭독체의 강세구는 1~5음절, 대화체의 강세구는 1~8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낭독체의 강세구는 2, 3음절이 70%이나 대화체는 1~8음절까지 다양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억양구 내 첫번째 강세구의 성조패턴은 낭독체는 LLH만 보인 반면 대화체는 LLH와 LHH가 나타났고 음높이의 폭이 낭독체보다 대화체에서 더 크다고 하였다. 또 대화체의 운율은 낭독체의 운율보다 인접 강세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이는 대화체의 운율이 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이 연구는 통제된 실험을 통해 대화체와 낭독체의 운율적 특성을 정치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5.4 조사의 운율 패턴

성철재·송윤경(1997)에서는 주어 자리 조사의 운율 패턴을 실험한 결과, 조사의 평균 길이는 ‘이/가’보다 ‘은/는’이 긴데 이는 보통 ‘은/는’ 뒤에 끊어 읽기 때문이고 ‘이/은/는’은 문장의 음절수가 늘어날수록 F0 값이 낮아지나 ‘가’는 반대로 F0 값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끊어 읽기는 절, 독립어 뒤, 부사어, 관형어, 목적어 뒤에서 빈번하다고 하였다.

송윤경(1998)에서도 주어 자리에 오는 ‘이/가’, ‘은/는’, 목적격 조사 ‘을/를’의 운율 패턴을 조사 어절의 위치, 앞뒤 문장 성분, 끊어 읽기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주제어 ‘은/는>이/가>을/를’의 순서로 운율 경계가 생기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전은·이숙향(1999)에서는 남녀 각 1인, 1000개씩의 낭독체 문장을 중심으로 한국어 조사의 운율적 특성을 관찰한 결과, 조사의 길이는 억양구, 강세구 말 > 억양구, 강세구 중간 순으로 길고 조사에 구 억양(LH)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길이가 짧음을 밝히고 조사는 운율적으로 약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3.5.5 경계 표지

성철재·김상훈(1996)에서는 리듬 단위로 운율구를 제안하고 경계 신호의 자동 검출을 위

해 6가지 자질을 설정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경계 앞 뒤 음절의 길이와 높이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히고 있다.

이숙향(1998)에서는 한국어 운율구조와 관련한 모음 및 음절 길이, 각 운율 단위 말 모음 및 음절 길이와 강세구 초 고성조 음절의 모음 및 음절 길이를 비교한 결과 상위 운율 단위 끝의 모음 및 음절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유정(2003)에서는 한국어 문장에 나타난 초점의 운율적 특징을 살핀 것으로, 좁은 초점(질문과 대답이 하나씩인 경우)에서는 초점과 강세에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고 길이는 초점이 아닌 경우에 비해 1:1.1의 비율로 늘어났으며 초점 전 강세구의 길이는 초점 전 강세구가 아닌 경우에 비해 1:1.5의 비율로 늘어났으며 75%가 억양구로 실현되었다고 하였다. 초점에 강세가 실현되지 않는 대신 초점 앞을 끊어 읽음으로써 초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안병섭(2007)은 남녀 아나운서 각 100발화씩 200개의 낭독체 발화를 검토한 결과 강세구 경계에서의 휴지 실현은 0.25%(남)와 0.40%(여)에 불과한 반면 억양구 경계에서는 96.2%(남), 89.3%(여)로 휴지가 실현됨을 밝혔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행 연구들에서 운율구 경계 표지, 형태소 경계 표지, 합성어 내부 경계 표지 등으로 거론한 휴지의 많은 역할들이 실제 언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음운단어를 운율 단위에서 제외하였다.

오재혁(2011)은 종결법을 결정하는 운율적 단서에 대한 지각적 연구로 평서형 발화의 끝 음절의 음 높이, 길이, 세기를 조정하여 126개의 자극으로 지각 실험을 수행한 결과 종결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음 높이이고 음의 세기는 영향이 없음을 밝혔다.

정미현(2013)에서는 억양구 끝과 발화 끝의 운율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 화자 10인을 대상으로 산출과 지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산출 실험은 발화의 종결 여부만 달라지고 나머지 통사, 의미적 특징이 유지되는 후보중 구문(재미있게 놀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놀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으로 평서형과 의문형 낭독 실험 결과, 평서형 억양구 경계 성조는 L%, HL%, LHL%이, 의문형 경계 성조는 H%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지각 실험은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여기가 중요해요, 이 책 전체에서' 중 '요'의 음절 길이와 후행 휴지 길이를 조작한 자극을 들려준 결과, 발화 종결과 비종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계 성조는 L%, H%, HL%이고 경계 성조를 통제 변인으로 한 지각 실험에서 말음절의 길이는 L%에서는 양의 관계, H%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였고 HL%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한 발화로 지각되기 위한 휴지 길이는 L%(600ms)>HL%(400ms)>H%(200ms)의 순서라고 하였다.

3.5.6 발화와 운율

김태경 외(2005)에서는 발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발화 수반력과 발화 종결을 알리는 운율 요소라고 보고 K-ToBI의 운율 전사에 기반하여 둘 이상의 통사 의미 단위가 하나의 운율 단위 안에서 실현되는 예를 보이고 있으나 발화의 운율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안병섭(2007)에서는 화자의 발화 의지가 운율적으로 완료된 의사소통의 자립 단위로 발화를 정의하고 완료성의 표지를 점진하강의 완료로 보았다. 단, 하나의 발화 안에 두 개의 점진 하강이 관찰되는 예도 보이므로 운율 외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것을 '화

자의 발화 의지'라고 보았다. 발화는 점진하강이 완료된 지점이며 발화 끝은 억양구 경계 성조, 장음화, 휴지를 동반하되 발화 끝 휴지는 억양구 경계 휴지보다 길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발화의 운율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였으나 '화자의 발화' 의지를 발화의 판정 요소로 설정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수진 외(2011)에서는 발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발화 판정 요소와 발화 구성 요소로 구분한 후 발화 판정 요소는 말차례, 종결 억양, 휴지이고 발화 구성 요소는 통사적 총족성, 종결 어미, 휴지로 설정한 후 실제 구어 자료 판정에 응용한 결과 발화를 종결 어미 발화, 연결 어미 발화, 조각 발화, 미완결 발화로 구분하였다.

4. 쟁점과 과제

4.1 음장의 실현

이미 이승녕(1960), 이현복(1974)에서 젊은이들이 음장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관찰을 한 바 있고 박주경(1985), 김수형(2001), 김선철 외(2004)에서도 현대 국어에서 음장이 소멸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지민제(1993), 정명숙(2002), 정명숙·황국정(2004)에서는 음장이 여전히 변별적이라고 보았으나 이러한 결론은 관찰 대상의 특수성(아나운서 발화, 한자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음장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많았지만 음장이 존재하던 시기 우리말의 운율 패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다. 따라서 향후 음장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음장이 확실하게 존재했던 20세기 초의 음성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단어(음운단어, 강세구)의 첫 음절에서만 음장이 유지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거나 차재은(2005)에 따르면 음성 자료 <조선어독본>의 장음 418개 중 373개는 강세구의 첫 음절에, 나머지는 2음절 이하 위치에서 실현된다고 한다. 특히 한자 단어인 ':세종:대왕, 용비:어천가, :훈민:정음'과 같은 형태 단어 내부에서도 장음이 실현되며 이들 단어는 내부에 물리적 휴지 없이 실현되므로 운율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중 (:세종):(:대왕)은 두 개의 음운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용비:어천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음장이 어떤 운율 단위에서 실현되는지, 혹은 음장을 기준으로 운율 단위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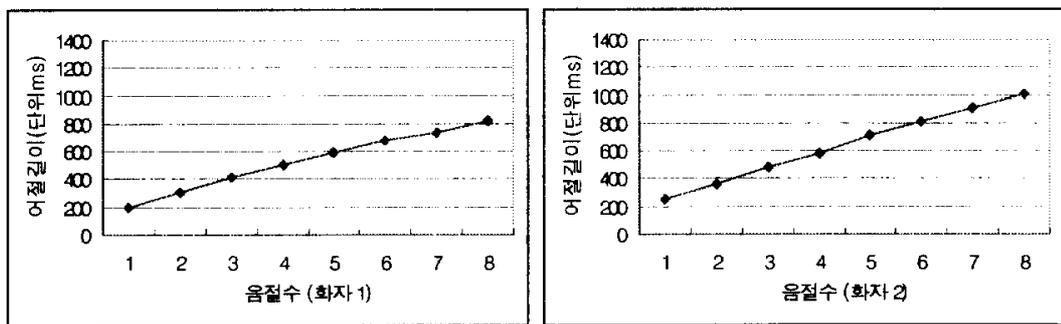
20세기 초의 음성 언어 자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음장이 강세 악센트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李崇寧(1955c)에서 국어의 장모음에 강세 악센트가 얹힌다고 하였고 이현복(1973)에서도 서울말은 강세와 길이가 결합된 복합 악센트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20세기 초의 음성 언어 자료를 통해 음장과 악센트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4.2 리듬 단위의 본질

李崇寧(1955a)에서는 중양어가 선강 후약 악센트를 가졌다고 하였고, 이현복(1973)에서는 중양어가 강세와 길이가 결합된 복합 악센트를 가졌다고 하였으며 이호영(1987), 이상직(1987), 유재원(1988), 성철재(1991)도 우리말의 낱말 악센트를 복합 악센트로 보고 있다¹⁵⁾. 강세 악센트를 가진 낱말이 말토크 안으로 들어가면 '강세 음절+비강세음절의 연쇄

(●·····)’를 가진 강세 박자 언어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강세 악센트 이론에 따르면 우리말은 강세 박자 언어가 되어야 한다. 반면 낱말 단위의 강세 악센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말 리듬 단위는 음절이 된다.

정명숙·신지영(2000)의 음성 실험 결과는 우리말이 음절 박자 언어임을 보여주고 있다. 강세 박자 언어라면 강세와 강세 사이의 거리가 ‘(●·····)(●·····)(●·····)’와 같은 패턴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한국어는 강세(를 가졌다고 하는 음절)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며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 사이에 길이 차이도 없고 다음 그림 2와 같이 음절수와 어절 길이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국어를 강세 박자 언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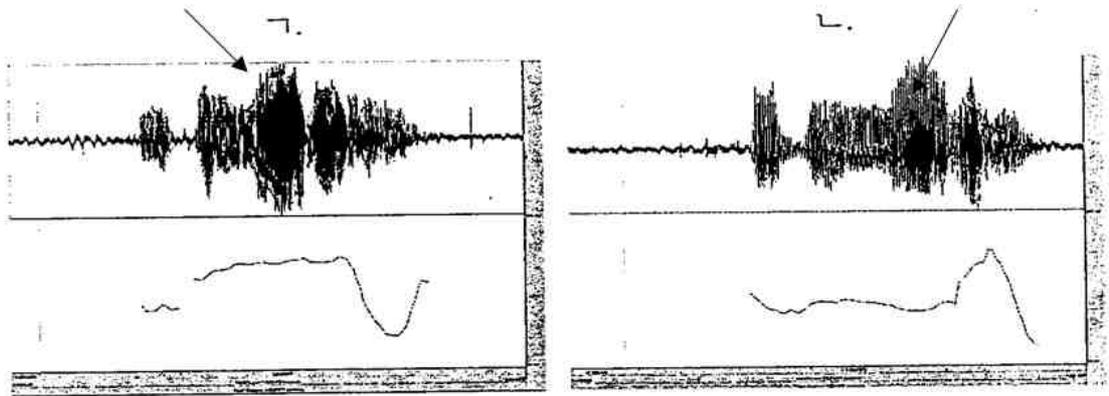


<그림 2> 음절 수에 따른 길이의 변화(정명숙·신지영, 2000: 275에서 부분 인용)

그럼 李崇寧(1955a), 이현복(1973)의 관찰은 잘못된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현복(1973)의 논의가 연구자 개인의 직관에 의존한 한계는 있지만 그 당시 장년층 이전 세대의 리듬 단위를 음절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가령 ‘조선말에는’과 ‘표준말을’을 낭독체 발화로 각각 하나의 IP로 실현할 경우, 음장이 없는 현대국어에서 ‘조선말에는’은 음성적으로 ‘LHLLHL’, ‘표준말을’은 ‘HHLHL’ 정도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음장이 존재했던 20세기 초의 음성 자료에 실현된 운율 패턴은 현재와 상당히 다르다. 다음 그림 3은 동일한 화자가 발화한 ‘조선말에는’과 ‘표준말을’의 파형과 음 높이 곡선이다. (3ㄱ)에서 화살표 부분이 ‘조선말에는’의 장음 ‘:말’이고 (3ㄴ)의 화살표가 ‘표준말을’의 단음 ‘말’인데 파형을 볼 때 (3ㄱ)의 세기가 더 크고 음 높이가 곡선에서도 장음 ‘:말’은 고조인데 비해 단음 ‘말’은 저조로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의 운율적 단서를 통해 ‘조선말에는’은 [조선말에는||]으로 ‘표준말을’은 [표준말을||]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15) 물론 낱말 악센트는 모두 비변별적이다.



<그림 3> '조선크말에는'과 '표준말에는'의 파형과 음높이 곡선(차재은, 2005: 114에서 인용)

이로 미루어 보면 음상을 가진 말의 리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 음성 자료의 강세 및 길이에 대한 음성학적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4.3 경계 성조의 목록과 기능

강세구와 억양구는 운율 요소로 그 특징이 포착되고 기술된다는 점에서 운율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이호영(1991)에서 말토크 억양, Jun(1993, 2000)에서 강세구의 운율적 특징과 억양 목록이 소개되었고 이호영·손남호(2007)에서도 강세구의 억양 패턴이 제시되었다. 또 송민규·이영배(2007)에서는 THLH의 예외에 대한 관찰과 예외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앞으로 강세구에 대한 연구는 문체(낭독/자유발화)와 성별, 화용을 구분하여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문체에 따른 강세구 억양의 특징, 핵심적 억양 목록, 강세구 경계 성조의 기능, 통사·의미 요소와의 관련을 고려한 정치한 연구들이 모였을 때 종합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호영(1991)에서 9개의 말마디 핵 억양이 제시되었고 Jun(1993, 2000)에서는 억양구의 운율적 특징을 기술하고 8개의 경계성조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한선희·오미라(1999)에서도 9개의 억양구 경계성조를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억양구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억양구 경계 성조의 목록, 경계 성조의 기능 해석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연구할 과제들이 많아 보인다.

특히 억양구 연구는 문체, 통사 구조, 의미 구조, 화용적 변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문장의 종류별로 억양을 고찰한 김선철(1999), 종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을 고찰한 오재혁(2011), 경계 성조의 의미를 화행과 연결하여 해석한 조민하(2011), 억양의 화용적 변이를 다룬 김태경·장경희(2006)의 연구가 주목된다. 특히 오재혁(2011)의 연구는 경계 성조의 핵심적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피험자를 이용한 통제 실험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반면 억양과 화행, 억양의 화용적 변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문체별로 대규모의 음성 말뭉치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4 운율 단위의 설정

이호영(1991, 1996)에서는 한국어의 운율 단위로 '말토크 → 말마디 → 문장'을 설정하였

다. 반면 Jun(2000), 신지영·차재은(2003)에서는 ‘음절→음운단어→강세구→억양구→발화’의 운율 위계를 제시하였고 안병섭(2010)에서는 ‘운율은 운율 내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음절→강세구→억양구→발화’만을 운율 단위로 인정하고 있다.

말토막은 대체로 ‘강세구’에 ‘말마디’는 ‘억양구’에 대응하지만 강세구와 억양구가 운율 요소의 특징에 기반한 용어인 데 비해 말토막은 리듬 단위를 기술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었다. 이에 대해 안병섭(2010:67)에서는 “억양을 기준으로 설정된 운율 단위들은 시간적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데 비하여 리듬 중심의 운율 단위는 운율의 중요한 요소인 음높이 특성을 음 연쇄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운율 연구에서는 Jun(2000)에서 제안된 ‘강세구, 억양구’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Jun(2000), 신지영·차재은(2003)에서는 음운 단어를 운율 단위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안병섭(2010)에서는 운율 단위는 운율적 특성으로 정의되어야 하는데, 음운 단어는 형태·통사적 기준이 있어야 정의될 수 있고 강세구 경계에서 휴지가 실현되는 비율이 1% 미만으로 극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음운 단어를 운율 위계 구조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음운단어를 운율 단위에서 제외하기 전에 더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음운 단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음운단어 뒤에 휴지가 없다는 음성적 특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휴지’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은 IP 경계뿐이고 AP는 THLH라는 성조 패턴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강세구나 억양구도 음소나 음절과 같은 추상적 언어 단위이고 따라서 음성적 표지가 없더라도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럴 수)와 (고)(성조군)을 설명하기 위해 음운단어보다 더 적절한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면 음운단어의 폐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또 안병섭(2010:78)에서는 ‘하위 운율 단위들이 상위 운율 단위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최혜원(1995), 박지혜(2002), 남길임(2007)의 연구들을 보면 형태·통사에 대한 정보 없이 운율 단위가 형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음성적 특징으로 기술되는 운율 단위는 발화의 결과에서 도출된 것이고 발화의 설계에는 형태, 통사, 의미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5. 발화 속도와 운율 단위 형성

박미영(2002)의 통제 실험에 의하면 발화 속도는 운율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발화 속도가 빠른 경우는 한 개의 억양구에 포함되는 강세구의 수가 적은 반면 느린 발화에서는 한 억양구 내 강세구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반면, 김선철(200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화 속도와 운율구의 생성 사이에는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명사구를 대상으로 말토막 형성을 고찰한 김경화(1999)에 의하면 발화 속도와 통사, 의미적 요인 두 가지가 모두 강세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발화 속도, 통사 구조, 의미 구조를 통제한 후, 어떤 요인들이 운율구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밝혀서 해당 요인의 위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5. 맺음

지금까지 1950년대 이후의 운율 연구를 개관하고 쟁점을 정리한 후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운율 연구는 억양과 운율 요소를 중심으로, 통제 실험과 음성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 방법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운율과 통사, 의미, 화용 요소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한국어 교육, 음성공학, 언어병리학 등 주변 학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참고 문헌

- 곽동기, 2000, 한국어 중간구 으뜸조 현상에 대하여, 말소리 40, 14-27.
- 곽숙영, 2009, 한국어의 발화 길이 및 절 경계와 초점에 의한 점진하강(declination)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2권 제3호, 11-22.
- 곽숙영, 2012, 한국어 발화의 점진하강 현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곽숙영·신지영, 2009, 한국어의 점진하강(declination) 연구를 위한 음높이 측정 위치와 기준선 고찰,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1권 제2호, 75-84.
- 곽숙영·신지영, 2012, 문장 유형에 따른 점진하강 실현 양상 연구, 한국어학 55, 64-102.
- 구희산, 1993, 음성합성의 운율처리를 위한 악센트 연구,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21-34.
- 김경화, 1999, 문법 구조와 리듬 단위 형성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뉴스 문장의 명사구의 말토크 형성 관계에 대하여, 언어학(한국언어학회) 25, 29~53.
- 김미란 외, 2000, 초점과 관련된 의문문 억양 패턴 실험, 음성과학(한국음성과학회) 7-4.
- 김미란, 2000,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나타난 초점과 문미 억양의 관계, 고려대 석사논문.
- 김미란, 2001, 한국어 대등적 연결 어미 -고의 함축 의미와 운율, 음성과학(한국음성과학회)8-4, 289-305.
- 김선주, 2000, 한국어 리듬 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2음절 낱말을 중심으로-, 말소리39호, 1-14.
- 김선철·권미영·황연신, 2004, 서울말 장단의 연령별 변이, 말소리(대한음성학회) 50, 1-22.
- 김선철, 1995, 국어의 억양음운론적 연구를 위한 시고, 언어연구10-12.
- 김선철, 1998, 서울말 억양의 음운론적 기술을 위한 시고, 한글(한글학회) 239, 53-73.
- 김선철, 1999, 국어 억양의 음성학, 음운론적 연구-서울말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 김선철, 2009, 발화 속도에 따른 운율 단위의 빈도 변이에 대한 시험적 연구, 언어학(한국언어학회) 53, 225-253.
- 김수진·차재은·오재혁, 2011, 발화 요소와 발화 유형, 한국어 의미학(한국어 의미학회) 36, 91-118.
- 김수형, 2001, 현대국어의 음장, 역락.
- 김태경·김정선·최용석, 2005, 구어 주석 코퍼스 구축을 위한 발화 단위 연구, 한국언어문화(한국언어문화학회) 28, 5-25.
- 김태경·장경희, 2006, 대화 참여자의 지위 관계에 따른 운율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한국사회언어학회) 13-2, 69-89.
- 南廣祐, 1954, 長短音考 (上), 國語國文學 12, 225-229.
- 南廣祐, 1955, 長短音考 (下), 國語國文學 13, 203-216.
- 남길임, 2007, 국어 억양 단위의 통사적 상관성 연구, 어문학 96집, 21-50.
- 박미영, 2002, 발화속도에 따른 국어 음운의 변화 연구: 운율구 형성과 관련하여, 고려대 석사논문.
- 박미영·안병섭, 2003, 한국어 의문사 의문문의 초점 실현에 대한 운율 특징 연구, 음성언어자료와 국어 연구, 215-243.
- 박주경, 1985, 현대 한국어의 장단음에 관한 연구, 말소리(대한음성학회) 11-14, 121-131.
- 박지혜, 2002, 대화체와 낭독체의 운율에 관한 연구, 말소리 43, 11-23.
- 박진희, 1990, 한국어 낱말 리듬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길이(duration)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4호.
- 성철재, 1991, 표준한국어 악센트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성철재, 1994, 한국어 리듬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성철재·김상훈, 1996, 경계 신호의 지각적/음향적 분석-운율구 단위 설정과 관련하여, 한글 232, 35-58.
- 성철재·송윤경, 1997, 주어자리조사의 운율 패턴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대한음성학회) 33-34호.

- 송민규·이영배, 2003, 한국어 강세구 첫 음절의 운율에 대한 연구, 음성언어자료와 국어 연구, 245-264.
- 송윤경, 1998, 한국어 조사의 운율 패턴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 1-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18, 27-40.
- 신지영·차재은, 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안병섭, 2007, 언어 분석 단위로서의 발화 설정 방법론 연구, 한국학연구(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6, 233-259.
- 안병섭, 2007, 휴지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 검토, 우리어문연구(우리어문학회) 28, 67-87.
- 안병섭, 2010, 한국어 운율과 음운론, 월인.
- 오재혁, 2011a, 종결법을 결정하는 운율적 단서에 대한 지각적 연구, 「한국어학」(한국어학회) 51, 117-140.
- 오재혁, 2011b, 국어 종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한 지각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유승미, 2007, 현대 서울말 평서문에 나타나는 억양 연구,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17-21합본, 133-134.
- 유재원, 1988, 현대국어의 악센트 규칙에 대한 연구, 성곡논총 19, 293-322.
- 유정, 2003, 한국어 문장에 나타난 초점의 운율적 특징, 연세대 석사논문.
- 윤일승, 1992, 끊임 앞에서 보이는 서울말의 억양 특징, 말소리와 음성과학 21-24호, 90-110.
- 이병근, 1986, 발화에 있어서의 음장, 국어학 15, 11-39.
- 이상직, 1987, 한국어 악센트에 대한 재검토, 말소리 11-14(대한음성학회), 133-148.
- 이숙향, 1984, 한국어 문미억양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이숙향, 1998, 한국어 운율구조와 관련한 모음 및 음절 길이, 말소리(대한음성학회) 35-36, 43-55.
- 이숙향, 2002, 한국어 운율구조의 기술 체계에 대한 연구: K-ToBI 기술 체계를 중심으로, 언어학(대한언어학회) 10-2, 1-18.
- 李崇寧, 1955a, 악센트論(1), 한글(한글학회) 112, 3-11.
- 李崇寧, 1955b, 악센트論(2), 한글(한글학회) 113, 22-28.
- 李崇寧, 1955c, 악센트論(3), 한글(한글학회) 114, 30-36.
- 이승녕, 1960, 현대 서울말의 악센트 고찰, 국어학논고(동양출판사), 177-227.
- 이영근, 1989, 한국어 억양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 과학 15-18, 37-56.
- 이영길, 1986,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 의미, 한글(한글학회) 191, 15-38.
- 이영길, 1987, 억양 배형 곡선 모형, 말소리 11-14(대한음성학회), 73-89.
- 이영길, 1988, 억양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이영길, 1992, 억양구의 비교 연구-국어와영어를중심으로, 한글 215, 29-50.
- 이영길, 1998, 억양 모형의 구조와 의미 연구, 한글 199, 3-23.
- 이현복, 1973, 현대 한국어의 accent, 문리대 학보(서울대학교) 19, 113-128.
- 이현복, 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서울대 어학연구소) 10-2, 15-25.
- 이현복, 1976,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한국언어학회) 1호, 167-184.
- 이현복, 1982, 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대한음성학회) 4, 31-48.
- 이현복, 1993, 한국어 리듬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25, 52-64.
- 이호영, 1987,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이호영, 1991, 한국어의 억양 체계, 언어학(한국언어학회) 13, 129-151.
- 이호영, 1994, 한국어 문장억양의 선택 과정, 한글(한글학회) 225, 7-33.
- 이호영, 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이호영, 1999, 국어 핵억양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말소리(대한음성학회) 38, 25-39.
- 이호영·손남호, 2007, 한국어 말토막 억양 패턴의 인지, 한글 277, 5-44.
- 인지영·성철재, 2008, 한국어 방송 뉴스 발화의 억양 기율기 특성 연구, 말소리, 21-39.
- 임흥빈, 1993,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 3-1, 58-90.

- 張泰鎮, 1960, 母音 長短의 對立에 대하여-標準語를 中心으로-, 國語國文學 22, 75-80.
- 張泰鎮, 1963, 國語의 音長과 mora, 語文學 9, 112-133.
- 전선아, 2006, 문장 처리에서 억양이 하는 역할, 인문학 연구 33-1, 195-211.
- 전은·이숙향, 1999, 한국어 조사의 운율적 특성-낭독체 문장을 중심으로-, 말소리 37, 73-85.
- 정명숙, 2002, 방송언어에 나타난 말소리의 사적 변천, 국어학(국어학회) 39, 221-249.
- 정명숙·신지영, 2000, 한국어의 시간 단위에 관하여, 한국어학(한국어학회) 12, 261-278.
- 정명숙·황국정, 2000, 국어 한자어의 장단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어문연구(민족어문학회) 42, 285-299.
- 정미현, 2013, 국어 발화 종결의 음성적 단서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정인섭, 1965, 우리말 악센트는 고저악센트다, 중앙대 논문집 10, 9-50.
- 조민하, 2011, 연결 어미의 종결 기능과 억양의 역할, 고려대 박사논문.
- 지민제, 1993, 소리의 길이, 새국어생활 3-1, 39-57.
- 차재은, 2005, 1930년대의 한국어 음장에 대한 연구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음성 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43, 105-128.
- 차재은, 2010, 큰사전 고유어 단어의 음장 분석, 우리어문연구(우리어문학회) 37, 163-189.
- 차재은, 2011, 큰사전 고유어 복합어의 음장, 한국어학(한국어학회) 50, 203-229.
- 최혜원, 1995, 문장성분의 생략에 따른 억양 곡선의 변화, 서울대 석사논문.
- 한선희, 2000, 대화체 억양구말 형태소의 경계성조 연구, 음성과학(한국 음성과학회) 5-2, 219-234.
- 한선희·오미라, 1999, 한국어 억양구의 경계톤, 음성과학(한국음성과학회) 7-4, 109-129.
- 황손문, 2002, 한국어 화제 구문의 운율적 고찰, 음성과학 9-2, 59-68.
- Jun Sun-Ah, 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Jun Sun-Ah, 2000, *K-ToBllabelingconventions:versions3.1*, UCLA Working Papers in Phonetics 99.

▣ 토론

“운율 연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박속희(충남대)

이 논문은 표준어 운율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연구사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매우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논문의 내용이 그러하므로 논쟁보다는 논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질문>

- 1) 아래 기술에서 ‘화용’의 개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가?
2쪽: 각주 2번에서 ‘운율의 화용적 의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나 감정’과 구별하고 있다.
17쪽 중간: 강세구에 대한 연구가 ‘문제, 성별, 화용’을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표현
17쪽 아래: ‘억양과 화행, 억양의 화용적 변이’라는 표현
- 2) 6쪽 각주 8번의 “개가 누구겠니? … 몰랐거든.”이라는 발화에서 ‘강조 초점’을 받은 부분이 어디인지 나타나 있지 않은데, 혹시 편집상의 오류인가?
- 3) 15쪽 “:세종:대왕, 용비:어천가, :훈민:정음’과 같은 형태 단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형태 단어’란 무엇인가?
- 4) 16쪽 4.2. 항목에 의하면, 이승녕 등의 견해는 ‘리듬의 단위가 음절이고 리듬의 속성은 선강 후약 악센트이다.’로 규정된다. 그런데 정명숙 등의 견해에서는 리듬의 단위가 무엇이고 리듬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아, 독자 입장에서는 두 견해의 쟁점을 분명히 알 수 없다.
- 5) 16쪽 4.2. 항목은 리듬의 단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리듬의 속성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듯한데, 항 제목을 ‘리듬 단위의 본질’이라고 다는 것은 모호하지 않은가?
- 6) 논문의 제목이 ‘운율 연구의 쟁점과 과제’로 달려있으나, ‘연구사 개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쟁점’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소략하여 그것이 왜 쟁점이 되는지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견>

음장이 단어(음운단어, 강세구)의 첫 음절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면서, ‘:세종:대왕’은 두 운율 단위가 될 수 있는 반면 ‘용비:어천가’는 운율적으로 명백히 하나의 단위인데 어중에 음장이 나타남을 근거로 들었다. 발표자의 논의에서 ‘강세구’는 내적 휴지

를 갖지 않는 단위이다. 그런데 18쪽 “강세구나 억양구도 음소나 음절과 같은 추상적 언어 단위이고 따라서 음성적 표지(이 말은 ‘휴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없더라도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은 비어두에 음장이 나타난다는 주장을 흔들고 있다. 아래 발화는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의 한 강의에서 실현된 발화이다. ‘동궐도인데요’가 휴지 없이 실현되었다고 해서 표준어 운율 유형에 LHLLHL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휴지(#)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을 경계로 두 운율 단위가 연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그림이 동궐도#인데요 동궐 창 덕궁과 창 경궁 을 함께그린 그림 이구요
 H HHH LHL#LHL LH H LLH H LH H HLLL HH LHL

물리적 휴지로 드러나지 않은 인식적 휴지를 토론자는 ‘개방연접(#)’이라고 불러왔는데 ‘용비#:어천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어(御)는 장음을 지니는 한자어이다.

특 강

국어 성조사 연구의 방법

김차균(충남대 명예교수)

< 차례 >

1. 머리말
 2. 《소학언해(범례)》의 성조 이론
 3. 중고한음과 《소학언해》 및 창원 방언 한자음 성조의 정리
 4. 중고한음 4성과 《소학언해》 한자음 성조의 관계에 대한 계량적 분석
 5. 중고한음 4성과 창원 방언 한자음 성조의 관계에 대한 계량적 분석
 6. 중세 국어와 창원 방언 한자음 성조의 대응 관계 분석
 7. 맺음말
- 참고 문헌

1. 머리말

현대 구조주의 음운론에서 국어 성조론 연구의 1기의 학자들(코노, 허웅) 및 2기의 학자들(문효근, 김완진, 이기문)은 문헌에서 방점 표시가 사라진 때(1690년경)를 중심으로 앞뒤 3,40년을 우리말의 중부방언에서 성조 체계가 사라진 시기로 보았다. 2기의 학자인 정연찬(1977)에서는 성조 체계의 소멸보다는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다른 체계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¹⁾ 문헌에서 방점 사라지는 것과 16세기 말의 국어에서 성조의 소멸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가? 김완진(1977)은 최세진을 의고(擬古)의 명수로 보았으니, 실제의 방점 체계의 붕괴는 더 이른 시기로 보는 것이고, 이기문은 《소학언해》의 방점 표기는 자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²⁾

국어 성조사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좋은 자료가 있을 때에는 짧게는 600년, 길게는 1,000년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좋은 자료라는 것은 중세의 문헌 자료와 현대의 방언 자료를 가리킨다. 현대의 방언 자료에는 성조 방언의 자료가 1차적인 중요

1) 불정심경언해(佛頂心經諺解)(3권)과 《영험약초(靈驗略抄)(1권)》은 1485년(성종 16년)에 간행된 것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마지막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이기문(1972/1994 : 108). 《육조 범보단경언해(六祖法寶壇經諺解)(3권)》과 《시식권공언해(施食勸供諺解)》는 1496(연산군 2년)에 간행된 것으로 현실음 위주의 획기적인 한자음 표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다(이기문(1972/1994 : 109). 이후 1590년에 간행된 《사서언해(四書諺解)》까지 94여 년 동안의 한자의 음운표기는 우리의 현실한자음을 표기한 것이었다.

임진왜란(1592~1598)¹⁾ 이후에는 문헌에서 방점이 사라진다. 방점이 문헌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국어 성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말에서 성조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설은 허웅(1963), 문효근(1974), 이기문(1972/1994), 김완진(1977)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일본 학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코노(下野六郎)(1948)에서부터 이토 지유키(2007)/이진호 역(2011)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 이기문(1972/1994 : 108).

성을 가지며, 전라 방언과 같은 준성조 방언의 자료가 2차적이며, 서울말과 같은 장단 체계도 자료로서 배제할 수는 없다.

필자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간행된 문헌은 개인적인 작업보다 대체로 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조선 선조 때의 《소학언해》는 그 분량으로 보나, 자료의 정확성으로 보나, 중세 국어의 방점 연구를 위한 가장 좋은 자료로 보지 않을 수 없다.³⁾

이 연구에서는 《소학언해》의 방점으로 표시된 한자어 성조를 통해서 16세기 말이 성조론적인 연구와 그 결실의 절정이었음을 보여주고, 그 효력은 현대 창원 방언에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려고 한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소학언해(범례)》의 방점조의 소개를 통하여 그것이 《훈민정음 언해(사성주)》, 《사성통해(방점조)》와 《훈몽자회(4성설명)》의 종합을 통한 중세 국어시대 성조론의 최고 이론일 뿐만 아니라, 현대의 생성음운론 수준에 견줄 만한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3장에서는 《소학언해》에 나오는 한자어 방대한 자료 중에서 극히 제한된 부분을 보기로 하여 문헌에 나와 있는 방점을 그대로 적고, 그 보기들의 왼쪽에는 중고한음 권발(圈發), 오른쪽에는 창원 방언의 성조를 방점법 이론으로 표기하여 자료를 정리해 보인다.

4장에서는 3장에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중고한음 4성이 《소학언해》에 방점으로 적힌 중세 국어 현실 한자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보여 준다. 여기에서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소학언해》의 한자어의 90% 정도의 방대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보인다.⁴⁾ 그 통계는 미묘하여 필자는 ‘균형 불균형 역설(imbalance of balance paradox)’이라 부르며, 이것을 《동국정운(서)》의 상거무별(上去無別)이나 《소학언해(범례)》의 상거상혼(上去相混)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불균형의 균형 역설’에 대한 원인이 한문학, 그 중에서도 특히 한시(漢詩) 짓기를 위한 평측(平仄)의 몰입 교육에 있었음을 논증하다.

5장에서는 4장에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중고한음 4성과 현대 창원 방언의 성조를 비교하여 그 결과가 4장에서 얻은 결과와 계량적으로 비슷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5% 정도 낮음을 보여 준다.

6장에서는 중고한음에 관한 정보를 지우고, 《소학언해》성조 자료를 창원 방언의 그것과 직접 비교하여 《소학언해》평성에서 창원 방언 평성으로, 상성에서 상성으로, 거성에서 거성으로의 반영 비율이 각각 85% 안팎이라는 것과 입성자 거성은 그 대응 비율이 100%에 가까움을 보인다.

7장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맺음말로 한다.

2. 《소학언해(범례)》의 성조 이론

(1) 《소학언해(범례)》 소학범 2a,b

ㄱ. (본문) 凡 범 字 · ㅈ 音 음 高 低 點 를 皆 以 以: 傍 傍 點: 點 爲 爲 準: 準 이니 無 無 點: 點 은 平 平 而 이 低 低 點 高 二:

3) 《소학언해》의 모든 내용은 (1)ㄱ,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문 부분과 새김(뜻풀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앞으로 나올 책 《나라말의 성조》에서 사용할 한자 자료는 《소학언해》에서 뽑은 것으로 평성(平) 531자, 상성(上) 256자, 거성(去) 267자, 입성(入) 265자, 복수성조 116자를 합쳐서 1435자이다.

이點:뎡은 厲:러而이學:거^ㅎ고 一·일點:뎡은 直·딕而이高고^ㅎ니라 訓:훈蒙蒙字·즈會:회에 平聲聲성은 無무
 點:뎡이오 上:상聲성은 二:이點:뎡이오 去:거聲성入·입聲성은 一·일點:뎡而이近:근世:세| 時時俗·속之지
 音음이 上:상去:거相상混:혼^ㅎ야 亂亂以:이卒·졸變:변이라 若·약盡:진用:용本·본音음이면 有:유駭:히俗·속
 聽:딩故·고로 戊:무寅寅本·본에 上:상去:거二:이聲성을 從從俗·속爲爲點:뎡일시 今今依依此·츠例:례^ㅎ야
 以:이便편讀·독者·자^ㅎ니라

ㄴ. (새김) ㅁ읏 字·즈^ㅎ音음·의 ㅁ읏가·이·를 ㄷ 거·뵓 點뎡·으·로·뵓·뵓·을 삼·을·디니
 點뎡:업·슨이·는 편히 ㅁ읏가·이 ㅎ·고 :두 點뎡·은 기·리·히 들·고 ㅎ 點뎡·은 바르 노·
 피 ㅎ거·시니·라 訓:훈蒙蒙字·즈會:회에 平聲聲성·은 點뎡이 :업·고 上:상聲성·은 :두 點뎡
 이·오 去:거聲성入·입聲성·은 ㅎ 點뎡이로·뵓·요스이 時時俗·속애 音·음이 上:상去:거성이
 서르 섯기·여·뵓 과글·리 고·티·기 어·려온·디·라 ㅁ읏·일 ㄷ 本:본音음·을·쓰·면 시·속
 들·기·예 :히:괴:흙·이 이실 故·고로 戊:무寅寅년 ㅁ읏·에 上:상去:거:두 聲성·을 시·속·을
 조·차 點뎡·을·ㅎ·야실·시·이·제·이·뵓·네·를 의지·ㅎ야·뵓 ㄴ·그리·를 便편·케
 ㅎ·니라5)

(2) (1)ㄴ의 중요 내용6)

- ㄱ. 이 내용은 16세기말 당시의 우리 현실 한자음 성조와 그 표기법의 설명이다.
- ㄴ. 성조(표시법) 음조적인 특징과 느낌 대응하는 중고한음

평성(□)	편히 낮음	평성
상성(□)	길게 끌어 뒤끝을 들어 올림	상성
거성(·□)	바로 높음	거성
(입성(·□))	바로 높음	입성)
- ㄷ. 우리 현실 한자음(=시속음)에는 중고한음의 상성과 거성이 섞여 있다.
- ㄹ. 상성과 거성의 표시와 발음은 우리 현실 한자음(=시속음)을 따르며, 중고한음의 표
 시법(圈發)을 따르지 아니한다.
- ㅁ. 우리 현실 한자음(=시속음)의 상성과 거성이 본음(=중고한음)의 4성과 일치하지 않
 을 경우라도 본음을 따라 고치지 아니한다. 본음을 따라 고쳐서 발음하면 우리말 토
 박이의 귀에는 해괴하게(ill-formed) 들리기 때문이다.
- ㅂ. 이 이론은 훈몽자회의 성조론을 계승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학자들의 학
 설을 존중하는 학술적인 태도가 보이며, 무인년 책(= 《번역소학》)의 범례를 따른
 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사대주의를 벗어나서 우리의 독자적인 학설을 확립한 것이다.
- ㅅ. 거성과 입성을 같은 표시인 1점(·□)으로 한다는 말 이외에 입성의 조치(調值)에 대

5) 《소학언해》의 표기에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사서언해(四書諺解)》에도 그 대로 적용
 된다. 이들은 나라의 공공기관인 교정청에서 간행했다는 점에 공통성이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는 가로쓰기와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나, 이것은 저자가 읽는 분들의 편이를 위한 방편일 뿐, 다
 음과 같은 확고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①띄어쓰기는 하지 않는다. ②글자의 크기는 큰 글
 자, 중간 글자, 작은 글자의 세 가지로 한다. ③주(註)를 제외한 한문 본문과 언해문(새김) 속에
 나오는 모든 한자(漢字)는 큰 글자로 표시한다. ④각각의 한자의 아래에 붙인 정음글자(한글)로
 적은 음은 그 반 정도의 크기 곧 중간 크기의 글자로 적는다. ⑤본문에 나오는 구결(보기; 은,
 는, 이, 이니, ㅎ고, ㅎ니라, ...)은 한자음 표기보다 작은 글자로 적되 방점 표시는 생략한다. ⑥
 우리말 새김 속의 주(註)는 한자와 그것의 음과 구결을 모두 중간 크기의 글자로 적되 구결에
 도 방점 표시를 한다. ⑦우리말 새김 속의 한자어라도 한자 없이 음만 적을 때는 큰 글자로 표
 시한다.

6) 이 내용에는 《소학언해》 범례에 대한 번역과 발표자의 평을 포함한다.

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 이는 당시의 토박이들의 음운론적인 직관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다.⁷⁾

《훈민정음(예의)》, 《훈민정음(해례)》, 《훈민정음(언해)》, 《노걸대박통사(범례)》, 《훈몽자회》에는 거성과 입성을 구별해 보려는 노력이 보였는데, 이는 중국의 성운학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일 뿐, 당시의 우리말 토박이들의 직관으로는 이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노력은 변이음조 차원의 음성학적인 특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1)ㄴ은 (2)ㄴ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성과 입성을 음운론적인 차원에서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말의 성조 체계에 부합하는 이론을 확립한 것이다. 그리고 (2)ㄴ은 1960년대의 생성음운론에 와서야 비로소 가능한 태도이다.

20세기 우리의 선배 학자들은 국어에서 성조 체계의 붕괴시기를 임진란 전후 또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인 16세기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1)ㄴ,ㄴ과 같은 생생한 증언을 허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해 버렸으며, 따라서 《소학언해》등의 마지막 방점 문헌들의 성조 표시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돌려버렸다.⁸⁾

3. 중고한음과 《소학언해》 및 창원 방언 한자음 성조의 정리

이 논문에서 사용할 자료를 《소학언해》에서 뽑아 (3)으로 제시하되, 한자어나 한자형태소의 오른쪽 괄호 안에 권발(圈發)을 표시하고,⁹⁾ 창원 방언의 방점 자료를 옆에 붙이면 다음과 같다.¹⁰⁾

(3) 한자어 기본 자료¹¹⁾

중고한자	소학언해	창원 방언	회수	
한자(권발)	{음운}	[음운]	<>	
可(ㄷ)	{:가·히}	[:가·히]	<1>	소학3 : 3a1;
可(ㄷ)	{:가·히}	[:가·히]	<1>	소학3 : 4b8;
可(ㄷ)	{:가·히}	[:가·히]	<3>	소학3 : 2b9; 2b10; 2b10;
敢(ㄷ)	{:감·히}	[:감·히]	<1>	소학3 : 1b6;
居(ㄷ)	{거}	[:거]	<1>	소학3 : 4b6;
居處(ㄷ{ㄷ,ㄷ})	{거:처:흙}	[:거:처:함]	<1>	소학3 : 4b6;
曲禮(ㄷㄷ)	{·곡·례}	[·곡·례]	<1>	소학3 : 2b4;
曲禮(ㄷㄷ)	{·곡·례}	[·곡·례]	<1>	소학3 : 6b4;

7) 《훈민정음(해례)》《훈민정음(언해)》《노걸대박통사(범례)》《훈몽자회》에서는 입성 한자의 방점 표시를 거성처럼 1점(· □)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성이 다른 세 성조 특히 거성과는 조치(調值)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현대 경상도 방언에서 한자 입성자의 95% 이상이 음운론적으로는 거성(· □)으로 나타난다.

8) 이기문(1972/1994)에서는 《소학언해》는 성조 체계 붕괴 이후에 간행된 것이기 때문에 성조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9) 권발은 평성(ㄷ), 상성(ㄷ), 거성(ㄷ), 입성(ㄷ)으로 표시한다.

10) 《소학언해》자료는 무작위로 1a쪽 첫 줄에서 7a쪽 넷째 줄까지로 제한했고, 창원 방언의 자료 제보자는 필자 자신이다.

11) 이 자료에서 두 가지 괄호 { }와 []는 《소학언해》와 창원방언의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恭敬(ㄱㄱ)	{공:경}	[공·경]	<2>	소학3 : 2a8; 2a9;
恭敬(ㄱㄱ)	{공:경:흠}	[공·경·함]	<1>	소학3 : 1a4;
恭敬(ㄱㄱ)	{공:경:흠}	[공·경·함]	<1>	소학3 : 1b5;
恭敬(ㄱㄱ)	{공:경:티}	[공·경·하·지]	<1>	소학3 : 5a6;
恭敬(ㄱㄱ)	{공:경:티}	[공·경·하·지]	<3>	소학3 : 1b4; 1b6; 1b7;
恭敬(ㄱㄱ)	{공:경티}	[공·경·치]	<1>	소학3 : 2b4;
恭敬(ㄱㄱ)	{공:경ㅎ·고}	[공·경·하·고]	<1>	소학3 : 3a7;
恭敬(ㄱㄱ)	{공:경ㅎ·면}	[공·경·하·몬]	<1>	소학3 : 5a4;
孔子(ㄱㄱ)	{·공·즈}	[·공·자]	<1>	소학3 : 1b4;
孔子(ㄱㄱ)	{·공·즈}	[·공·자]	<1>	소학3 : 4a4;
求(ㄱ)	{구·티}	[구하·지]	<2>	소학3 : 3b6; 3b6;
苟且(ㄱㄱ)	{:구:차·히}	[·구·차·히]	<1>	소학3 : 3b4;
君子(ㄱㄱ)	{군·즈}	[군·자]	<1>	소학3 : 1b4;
君子(ㄱㄱ)	{군·즈}	[군·자]	<1>	소학3 : 5b3;
君子(ㄱㄱ)	{군·즈}	[군·자]	<1>	소학3 : 6a5;
貴(ㄱ)	{:귀·히}	[:귀·히]	<1>	소학3 : 6a5;
規模(ㄱㄱ)	{규모}	[규·모]	<1>	소학3 : 2a1
極(ㄱ)	{·극·히}	[·극·히]	<1>	소학3 : 3a1;
氣運(ㄱㄱ)	{·기·운내·움}	[·기·운#·냄]	<1>	소학3 : 6a8;
吉(ㄱ)	{·길·고}	[·길·하·고]	<1>	소학3 : 2a8;
怒(ㄱ)	{:로·호·움·애}	[:노·함·애]	<1>	소학3 : 5b7;
怒號(ㄱ{ㄱ,ㄱ})	{:로·호}	[:노·호]	<1>	소학3 : 5b7;
能(ㄱ)	{능·히}	[능·히]	<1>	소학3 : 1b7;
能(ㄱ)	{능·히}	[능·히]	<2>	소학3 : 3a9; 3a10;
丹書(ㄱㄱ)	{단서}	[단서]	<1>	소학3 : 2a7;
道(ㄱ)	{:도}	[:도]	<1>	소학3 : 6a5;
禮(ㄱ)	{·례}	[·예]	<1>	소학3 : 6b4;
亡滅(ㄱㄱ)	{망·멸·하·며}	[망·멸·하·며]	<1>	소학3 : 2a9;
免(ㄱ)	{:면·티}	[:면·하·지]	<1>	소학3 : 3b5;
模樣(ㄱ{ㄱ,ㄱ})	{모:양}	[모·양]	<1>	소학3 : 5b5;
武王(ㄱㄱ)	{:무왕}	[:무·왕]	<1>	소학3 : 2a7;
門(ㄱ)	{문}	[문]	<1>	소학3 : 4a10;
放縱(ㄱㄱ)	{:방:종·히}	[방·종·히]	<1>	소학3 : 2b10;
百姓(ㄱㄱ)	{·백·성}	[·백·성]	<1>	소학3 : 4a10;
百姓(ㄱㄱ)	{·백·성}	[·백·성]	<1>	소학3 : 2b6;
法(ㄱ)	{·법}	[·법]	<1>	소학3 : 2a1
傷(ㄱ)	{상:흠}	[상함]	<2>	소학3 : 1b8; 1b9;
傷(ㄱ)	{상·면}	[상하·몬]	<1>	소학3 : 1b10;
聖人(ㄱㄱ)	{:성인}	[:성·인]	<1>	소학3 : 2a1
順(ㄱ)	{:순·고}	[:순·하·고]	<1>	소학3 : 2a10;
樂記(ㄱㄱ)	{·악기}	[·악·기]	<1>	소학3 : 7a4;

野俗(ㄱㄱ)	{:야·속·하·며}	[:야·속·하·며]	<1>	소학3 : 6a9;
嚴恭(ㄱㄱ)	{엄공·하·며}	[엄공·하·며]	<1>	소학3 : 4b6;
嚴恭(ㄱㄱ)	{엄공·함}	[엄공함]	<1>	소학3 : 5b5;
儼然(ㄱㄱ)	{:엄연·히}	[엄연·히]	<1>	소학3 : 2b4;
禮(ㄱ)	{·례}	[·예]	<3>	소학3 : 4a4; 4a5; 4a6;
傲慢(ㄱㄱ)	{:오·만·함}	[:오·만·함]	<1>	소학3 : 2b9;
溫和(ㄱ{ㄱ,ㄱ})	{온화·함}	[온화함]	<1>	소학3 : 5b5;
慾心(ㄱㄱ)	{·욕심}	[·욕·심]	<1>	소학3 : 2b9;
慾心(ㄱㄱ)	{·욕심}	[·욕·심]	<2>	소학3 : 2a10; 2a10;
依倣(ㄱㄱ)	{의·방·하·여}	[의·방·하·여]	<1>	소학3 : 2a2
疑心(ㄱㄱ)	{의심·된}	[의심·된]	<1>	소학3 : 3b9;
疑心(ㄱㄱ)	{의심·된·데}	[의심·된·데]	<1>	소학3 : 5b7;
一定(ㄱㄱ)	{·일·정·하·문}	[·일·정·하·문]	<1>	소학3 : 2b5;
暫間(ㄱ{ㄱ,ㄱ})	{·잠·깐}	[:잠·깐]	<1>	소학3 : 4b6;
財物(ㄱㄱ)	{재·물}	[재·물]	<1>	소학3 : 3b4;
節次(ㄱㄱ)	{·절·차}	[·절·차]	<1>	소학3 : 6b4;
定(ㄱ)	{:정·하·여}	[:정·하·여]	<1>	소학3 : 4b6;
正(ㄱ{ㄱ,ㄱ})	{:정·히}	[:정·히]	<1>	소학3 : 6a7;
祭(ㄱ)	{:제}	[:제]	<1>	소학3 : 4b1;
操心(ㄱㄱ)	{:조심·함}	[:조·심·함]	<1>	소학3 : 5b6;
操心(ㄱㄱ)	{:조심·하·며}	[:조·심·하·며]	<1>	소학3 : 4b7;
曾子(ㄱㄱ)	{증·자}	[증·자]	<1>	소학3 : 6a5;
次例(ㄱㄱ)	{·차·례}	[·차·례]	<1>	소학3 : 1a4;
處(ㄱ{ㄱ,ㄱ})	{:처}	[:처]	<1>	소학3 : 4b6;
聰(ㄱ)	{충·함}	[:충·함]	<1>	소학3 : 5b4;
忠厚(ㄱㄱ)	{충·후·함}	[충·후·함]	<1>	소학3 : 5b6;
忠厚(ㄱㄱ)	{충·후·하·고}	[충·후·하·고]	<2>	소학3 : 5a4; 5a5;
太公(ㄱㄱ)	{·태·공}	[·태·공]	<1>	소학3 : 2a7;
篇(ㄱ)	{편}	[·편]	<1>	소학3 : 2a2;
便安(ㄱ{ㄱ,ㄱ}ㄱ)	{편안·하·게}	[편안·하·게]	<1>	소학3 : 2b6;
便安(ㄱ{ㄱ,ㄱ}ㄱ)	{편안·히}	[편안·히]	<1>	소학3 : 3a10;
便安(ㄱ{ㄱ,ㄱ}ㄱ)	{편안·하·고}	[편안·하·고]	<1>	소학3 : 2b5;
行實(ㄱ{ㄱ,ㄱ}ㄱ)	{:행·실}	[:행·실]	<2>	소학3 : 5a4; 5a6;
行實(ㄱ{ㄱ,ㄱ}ㄱ)	{·행·실}	[:행·실]	<1>	소학3 : 6b7;
賢人(ㄱㄱ)	{현·인}	[:현·인]	<1>	소학3 : 2a1
患亂(ㄱㄱ)	{:환·란}	[:환·란]	<1>	소학3 : 5b8;
患亂(ㄱㄱ)	{:환·란}	[:환·란]	<1>	소학3 : 3b4;
凶(ㄱ)	{흉·하·니·라}	[흉·하·니·라]	<1>	소학3 : 2b1;

한자어의 분절음과 성조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한자어에 붙은 접사나 토씨, 씨끝 등은 불필요하다.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고, 또한 계량

적인 처리에 불필요한 출전(出典) 및 쪽수와 줄 수 표시를 지우고, 어절 안에서 둘째 음절 이하에 나타나는 한자는 권발 뒤에 ‘ㄷ’ 표시를 하며, 같은 표상은 하나로 통합 압축하면 (5)와 같다.

(5) 한자 형태소 기본 자료

중고한자	소학언해	창원 방언①	번수
한자(권발)	{방점 자료}	[방점 자료]	< >
可(㐓)	{:가}	[:가]	<5>
間({㐓,㐓}ㄷ)	{:잠·깐}	[:잠·깐]	<1>
敢(㐓)	{:감}	[:감]	<1>
居(㐓)	{거:쳐}	[:거:쳐]	<1>
居(㐓)	{거}	[:거]	<1>
敬(㐓ㄷ)	{공:경}	[공·경]	<11>
曲(㐓)	{:곡·례}	[·곡·례]	<2>
孔(㐓)	{:공·즈}	[·공·자]	<2>
恭(㐓)	{공:경}	[공·경]	<11>
恭(㐓ㄷ)	{엄공}	[엄공]	<2>
公(㐓ㄷ)	{:태공}	[·태·공]	<1>
苟(㐓)	{:구:차}	[·구·차]	<1>
求(㐓)	{구}	[구]	<2>
君(㐓)	{군:즈}	[군·자]	<3>
貴(㐓)	{:귀}	[:귀]	<1>
規(㐓)	{규모}	[규·모]	<1>
極(㐓)	{:극}	[·극]	<1>
氣(㐓)	{:기·운}	[·기·운]	<1>
記(㐓ㄷ)	{:악기}	[·악·기]	<1>
吉(㐓)	{:길}	[·길]	<1>
怒(㐓)	{:로·호}	[:노·호]	<1>
怒(㐓)	{:로}	[:노]	<1>
能(㐓)	{능}	[능]	<3>
丹(㐓)	{단서}	[단서]	<1>
道(㐓)	{:도}	[:도]	<1>
亂(㐓ㄷ)	{:환·란}	[:환·란]	<1>
亂(㐓ㄷ)	{:환·란}	[:환·란]	<1>
禮(㐓)	{:례}	[·예]	<4>
禮(㐓ㄷ)	{:곡·례}	[·곡·례]	<2>
例(㐓ㄷ)	{:츠·례}	[·차·례]	<1>
慢(㐓ㄷ)	{:오·만}	[:오·만]	<1>
亡(㐓)	{망·멸}	[망·멸]	<1>
免(㐓)	{:면}	[:면]	<1>
滅(㐓ㄷ)	{망·멸}	[망·멸]	<1>

模(ㄷ)	{모:양}	[모·양]	<1>
模(ㄷㄷ)	{규모}	[규·모]	<1>
武(ㅍ)	{:무왕}	[:무·왕]	<1>
門(ㄷ)	{문}	[문]	<1>
物(ㄷㄷ)	{지·물}	[재·물]	<1>
放(ㅍ)	{:방:중}	[방중]	<1>
傲(ㄷㄷ)	{의:방}	[의·방]	<1>
百(ㄷ)	{·백:성}	[·백·성]	<1>
百(ㄷ)	{·백:성}	[·백·성]	<1>
法(ㄷ)	{·법}	[·법]	<1>
傷(ㄷ)	{상}	[상]	<3>
書(ㄷㄷ)	{단서}	[단서]	<1>
聖(ㅍ)	{:성인}	[:성·인]	<1>
姓(ㅍㄷ)	{·백:성}	[·백·성]	<1>
姓(ㅍㄷ)	{·백:성}	[·백·성]	<1>
俗(ㄷㄷ)	{:야:속}	[:야·속]	<1>
順(ㅍ)	{:순}	[:순]	<1>
實(ㄷㄷ)	{:형·실}	[:형·실]	<3>
心(ㄷㄷ)	{:조심}	[:조·심]	<2>
心(ㄷㄷ)	{·욕심}	[·욕·심]	<3>
心(ㄷㄷ)	{의심}	[의심]	<2>
樂(ㄷ)	{·악기}	[·악·기]	<1>
安(ㄷㄷ)	{편안}	[편안]	<3>
野(ㅍ)	{:야:속}	[:야·속]	<1>
樣({ㅍ,ㅍ}ㄷ)	{모:양}	[모·양]	<1>
儼(ㅍ)	{:엄연}	[엄연]	<1>
嚴(ㄷ)	{엄공}	[엄공]	<2>
然(ㄷㄷ)	{:엄연}	[엄연]	<1>
傲(ㅍ)	{:오:만}	[:오·만]	<1>
溫(ㄷ)	{온화}	[온화]	<1>
王(ㄷㄷ)	{:무왕}	[:무·왕]	<1>
慾(ㄷ)	{·욕심}	[·욕·심]	<3>
運(ㅍㄷ)	{·기·운}	[·기·운]	<1>
依(ㄷ)	{의:방}	[의·방]	<1>
疑(ㄷ)	{의심}	[의심]	<2>
人(ㄷㄷ)	{:성인}	[:성·인]	<1>
人(ㄷㄷ)	{현인}	[:현·인]	<1>
一(ㄷ)	{·일:정}	[·일·정]	<1>
子(ㅍㄷ)	{·공·자}	[·공·자]	<2>
子(ㅍㄷ)	{·군·자}	[·군·자]	<3>
子(ㅍㄷ)	{·중·자}	[·중·자]	<1>

暫(ㄱ)	{·잠·깐}	[:잠·깐]	<1>
財(ㄷ)	{치·물}	[재·물]	<1>
節(ㄷ)	{·절·츠}	[·절·차]	<1>
正({ㄷ,ㄱ})	{:정}	[:정]	<1>
定(ㄱ)	{:뎡}	[:정]	<1>
定(ㄱㄷ)	{·일:뎡}	[·일·정]	<1>
祭(ㄱ)	{:제}	[:제]	<1>
操(ㄷ)	{:조심}	[:조·심]	<2>
縱(ㄷㄷ)	{:방:중}	[방중]	<1>
曾(ㄷ)	{중·즈}	[중·자]	<1>
次(ㄱ)	{·츠:례}	[·차·례]	<1>
次(ㄱㄷ)	{·절·츠}	[·절·차]	<1>
且(ㄱㄷ)	{:구:차}	[·구·차]	<1>
處({ㄱ,ㄱ})	{:처}	[:처]	<1>
處({ㄱ,ㄱ)ㄷ)	{거:처}	[:거·처]	<1>
聰(ㄷ)	{충}	[:충]	<1>
忠(ㄷ)	{툭:후}	[충·후]	<3>
太(ㄱ)	{·태공}	[·태·공]	<1>
便({ㄷ,ㄱ})	{편안}	[편안]	<3>
篇(ㄷ)	{편}	[·편]	<1>
行({ㄷ,ㄱ})	{:형·실}	[:행·실]	<3>
賢(ㄷ)	{현인}	[:현·인]	<1>
號({ㄷ,ㄱ)ㄷ)	{:로·호}	[:노·호]	<1>
和({ㄷ,ㄱ)ㄷ)	{온화}	[온화]	<1>
患(ㄱ)	{:환:란}	[:환·란]	<1>
患(ㄱ)	{:환·란}	[:환·란]	<1>
厚(ㄱㄷ)	{툭:후}	[충·후]	<3>
凶(ㄷ)	{흉}	[흉]	<1>

4. 중고한음 4성과 《소학언해》 한자음 성조의 관계에 대한 계량적 분석

중고한음 4성과 《소학언해》 방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창원 방언의 음운 표상은 불필요하므로 지우고, 각각의 한자의 음운 표상과 그 한자가 낱말 안에서 나타나는 환경으로 바꿔 적되, 그 환경을 4가지(①어두는 무표로, 평성 뒤는 □—, 상성 뒤는 :□—으로, 거성 뒤는 ·□—으로 환경을 표시하면 (7)과 같다.

(7) 한자어 자료 86자

㊦ 중고한음 평성(ㄷ) 32자

한중고한음	소학언해	빈도
한자(권말)	{환경 및 방점}	<항(번수)>

①居(居)	{거}	<2항(2번)>	
恭(恭)	{공}12)	<1항(11번)>	
恭(恭ㄷ)	{□공}	<1항(2번)>	
公(公ㄷ)	{·□공}	<1항(1번)>	
求(求)	{구}	<1항(2번)>	
君(君)	{군}	<1항(3번)>	
規(規)	{규}	<1항(1번)>	
能(能)	{능}	<1항(3번)>	
丹(丹)	{단}	<1항(1번)>	
亡(亡)	{망}	<1항(1번)>	
模(模)	{모}	<1항(1번)>	
模(模ㄷ)	{□모}	<1항(1번)>	
門(門)	{문}	<1항(1번)>	
傷(傷)	{상}	<항(3번)>	
書(書ㄷ)	{□셔}	<1항(1번)>	
心(心ㄷ)	{□심}	<1항(2번)>	
心(心ㄷ)	{·□심}	<2항(5번)>	
安(安ㄷ)	{□안}	<1항(3번)>	
嚴(嚴)	{엄}	<1항(2번)>	
然(然ㄷ)	{:□연}	<1항(1번)>	
濫(濫)	{온}	<1항(1번)>	
王(王ㄷ)	{:□왕}	<1항(1번)>	
依(依)	{의}	<1항(1번)>	
疑(疑)	{의}	<1항(2번)>	
人(人ㄷ)	{□인}	<1항(1번)>	
人(人ㄷ)	{:□인}	<1항(1번)>	
財(財)	{지}	<1항(1번)>	
曾(曾)	{중}	<1항(1번)>	
聰(聰)	{총}	<1항(1번)>	
忠(忠)	{통}	<1항(3번)>	
篇(篇)	{편}	<1항(1번)>	
賢(賢)	{현}	<1항(1번)>	
凶(凶) 29	{흉}	<1항(1번)>	90.625%
②倣(倣ㄷ)	{□:방}	<1항(1번)>	
操(操)	{:조}	<1항(2번)>	
縱(縱ㄷ)	{:□:중}	<1항(1번)>	9.375%

㉞ 중고한음 상성(ㅁ); 14자

12) ‘恭(居) {공}’ 은 중고한음 평성(居)인 恭{공}이 어두(#-)에 나타남을 가리키고, ‘恭(恭ㄷ) {□공}’ 은 중고한음 평성(居)인 恭{공}이 평성 뒤(□-)에 나타남을 가리키며, ‘公(公ㄷ) {·□공}’ 은 중고한음 평성(居)인 公{공}이 거성 뒤(·□-)에 나타남을 가리킨다. 그리고 ‘然(然ㄷ) {:□연}’ 은 중고한음 평성(居)인 然{연}이 상성 뒤(:□-)에 나타남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慢(慢ㄷ) {:□:만}’ 은 중고한음 상성(居)인 慢{:만}이 상성 뒤(:□-)에 나타남을 가리킨다.

한자(권발)	{방점}	<항(번수)>	
①可(ㄱ)	{:가}	<1항(5번)>	
敢(ㄱ)	{:감}	<1항(1번)>	
怒(ㄱ)	{:로}	<2항(2번)>	
道(ㄱ)	{:도}	<1항(1번)>	
免(ㄱ)	{:면}	<1항(1번)>	
苟(ㄱ)	{:구}	<1항(1번)>	
武(ㄱ)	{:무}	<1항(1번)>	
野(ㄱ)	{:야}	<1항(1번)>	
儼(ㄱ)	{:엄}	<1항(1번)>	
且(ㄱㄷ)	{:□:차}	<1항(1번)>	
厚(ㄱㄷ) 11	{:□:후}	<1항(3번)>	78.57%
②孔(ㄱ)	{·공}	<1항(2번)>	
禮(ㄱ)	{·례}	<1항(4번)>	
禮(ㄱㄷ)	{·□:례}	<1항(2번)>	
子(ㄱㄷ)	{□:즈}	<2항(4번)>	
子(ㄱㄷ) 3	{·□:즈}	<1항(2번)>	21.43%
㉔ 중고한음 거성(ㄱ); 19자			
한자(권발)	{방점}	<항(번수)>	
①記(ㄱㄷ) 1	{·□:기}	<1항(1번)>	5.26%
②敬(ㄱㄷ)	{□:경}	<1항(11번)>	
貴(ㄱ)	{:귀}	<1항(1번)>	
例(ㄱㄷ)	{·□:례}	<1항(1번)>	
慢(ㄱㄷ)	{:□:만}	<1항(1번)>	
放(ㄱ)	{:방}	<1항(1번)>	
聖(ㄱ)	{:성}	<1항(1번)>	
順(ㄱ)	{:순}	<1항(1번)>	
傲(ㄱ)	{:오}	<1항(1번)>	
定(ㄱ)	{:뎡}	<1항(1번)>	
定(ㄱㄷ)	{·□:뎡}	<1항(1번)>	
祭(ㄱ)	{:계}	<1항(1번)>	
患(ㄱ) 11	{:환}	<2항(2번)>	57.89%
③氣(ㄱ)	{·기}	<1항(1번)>	
運(ㄱㄷ)	{·□:운}	<1항(1번)>	
暫(ㄱ)	{·잠}	<1항(1번)>	
次(ㄱ)	{·츠}	<1항(1번)>	
次(ㄱㄷ)	{·□:츠}	<1항(1번)>	
太(ㄱ) 5	{·태}	<1항(1번)>	26.32%
④亂(ㄱㄷ)	{:□:란}	<1항(1번)>	
亂(ㄱㄷ)	{:□:란}	<1항(1번)>	
姓(ㄱㄷ)	{·□:성}	<1항(1번)>	

姓(ㄹㄷ) 2 {·□·성} <1항(1번)> 10.53%

㉔ 중고한음 입성(ㄹ); 13자

한자(권발)	{방점}	<항(번수)>	
① 曲(ㄹ)	{·곡}	<1항(2번)>	
極(ㄹ)	{·극}	<1항(1번)>	
百(ㄹ)	{·백}	<2항(2번)>	
俗(ㄹㄷ)	{:□·속}	<1항(1번)>	
樂(ㄹ)	{·악}	<1항(1번)>	
慾(ㄹ)	{·욕}	<1항(3번)>	
吉(ㄹ)	{·길}	<1항(1번)>	
滅(ㄹㄷ)	{□·멸}	<1항(1번)>	
物(ㄹㄷ)	{□·물}	<1항(1번)>	
實(ㄹㄷ)	{:□·실}	<1항(3번)>	
一(ㄹ)	{·일}	<1항(1번)>	
節(ㄹ)	{·절}	<1항(1번)>	
法(ㄹ) 13	{·법}	<1항(1번)>	100%

㉕ 중고한음 평성과 거성(ㄹ,ㄹ); 6자 (100%)

한자(권발)	{방점}	<항(번수)>	
① 便({ㄹ,ㄹ})	{편}	<1항(3번)>	
和({ㄹ,ㄹ}ㄷ)	{□화}	<1항(1번)>	2자 (33.33%)
② 正({ㄹ,ㄹ})	{:정}	<1항(1번)>	
行({ㄹ,ㄹ})	{:형}	<1항(3번)>	2자 (33.33%)
③ 間({ㄹ,ㄹ}ㄷ)	{·□·칸}	<1항(1번)>	
號({ㄹ,ㄹ}ㄷ)	{:□·호}	<1항(1번)>	2자 (33.33%)

㉖ 중고한음 상성과 거성(ㄹ,ㄹ); 2자 (100%)

한자(권발)	{방점}	<항(번수)>	
樣({ㄹ,ㄹ}ㄷ)	{□:양}	<1항(1번)>	
處({ㄹ,ㄹ})	{:처}	<1항(1번)>	
處({ㄹ,ㄹ}ㄷ)	{□:처}	<1항(1번)>	

(7)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8)㉗ 중고한음 평성(ㄹ)과 소학언해 성조

§① ㄹ ⇒ □ (중고한음 평성이 소학언해 평성으로) 29자 (90.625%)

② ㄹ ⇒ :□ (중고한음 평성이 소학언해 상성으로) 3자 (9.375%)

합계 32자 (100.00%)

㉘ 중고한음 상성(ㄹ)과 소학언해 성조

§① ㄹ ⇒ :□ (중고한음 상성과 소학언해 상성), 11자(78.57%)

② ㄹ ⇒ ·□ (중고한음 상성과 소학언해 거성), 3자(21.43%)

합계 14자 (100.00%)

㉙ 중고한음 거성(ㄹ)과 소학언해 성조

① ㄱ ⇒ ㄴ (중고한음 상성과 소학언해 평성),	1자(5.26%)
소계①	1자 (5.26%)
② ㄱ ⇒ :ㄴ (중고한음 상성과 소학언해 상성),	11자(57.89%)
④ ㄱ ⇒ :ㄴ (중고한음 상성과 소학언해 상성),	2/2자(5.26%) ¹³⁾
소계②	12자 (63.15%)
③ ㄱ ⇒ ·ㄴ (중고한음 상성과 소학언해 상성),	5자(26.32%)
④' ㄱ ⇒ ·ㄴ (중고한음 상성과 소학언해 거성),	2/2자(5.26%)
§소계③	6자 (31.58%)
부분합계①(=②+③)	18자 (94.73%)
합계⑤(=①+④+①+②+③)	19자 (100.00%)

㉑ 중고한음 입성과 소학언해 성조

§① ㄱ ⇒ ·ㄴ (중고한음 입성과 소학언해 거성), 13자(100.00%)

㉒ 중고한음 평성 및 거성{ㄱ, ㄴ}과 소학언해 성조

① {ㄱ, ㄴ} ⇒ ㄴ (중고한음 평성 및 상성과 소학언해 평성),	2자(33.33%)
② {ㄱ, ㄴ} ⇒ :ㄴ (중고한음 평성 및 상성과 소학언해 상성),	2자(33.33%)
③ {ㄱ, ㄴ} ⇒ ·ㄴ (중고한음 평성 및 상성과 소학언해 거성),	2자(33.33%)
합계	6자 (100.00%)

㉓ 중고한음 상성 및 거성{ㄴ, ㄴ}과 소학언해 성조

① {ㄴ, ㄴ} ⇒ :ㄴ (중고한음 상성 및 거성과 소학언해 거성),	2자(100.00%)
합계	2자 (100.00%)

평성(ㄱ)⇒평성(ㄴ)이 90.625%이고, 상성(ㄴ)⇒상성(:ㄴ)이 78.57%이며, 거성(ㄴ)⇒거성(·ㄴ)이 31.58%이며, 입성(ㄱ)⇒거성(·ㄴ)이 100.00%로 나타난다는 것, 곧 이 엄청난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중세 현실 한자음 성조를 위한 모든 방점 표기는 허구 또는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은 《동국정운(서)》에 나오는 말이다.

(9) 《동국정운(서)》

語音則四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

(우리나라 어음은 사성이 매우 분명한데 한자음에 있어서는 상성과 거성의 구별이 없다.)

(10) 《소학언해(범례)》 소학범 2a,b

((1ㄱ)에서) 時時俗·속之지音음이 上:상去:거相상混:혼호야

((1ㄴ)에서) 時時俗·속에 音·음이 上:상去:거성이 서르 셋기·여·뵈

(9)는 필자의 생각으로는 약간 부정확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 토박이말의 성조로는 4성(따라서 상성과 거성의 구별)이 매우 분명한데, (중국 성운학 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현실한자음에서는 거성과 상성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고, (10)은 (중국 성운학 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한자음은 상성과 거성이 서로 섞여 있다는 것이다.

(9)는 세종 때 《동국정운》의 저술을 주도한 신숙주 선생의 말이라고 생각되며, (10)은 선조 때 교정청에서 《소학언해》의 저술에 관여했던 학자들의 말이다. 우리는 당시의 세

13) (7)㉑(:ㄱ/·ㄱ)③ 2자(11.11%)를 반영 개수와 비율에 따라 ㉑(:ㄱ)③ 1자(5.56%)+㉑(·ㄱ)③' 1자(5.56%)로 쪼개었다.

계 음운학사상 최고의 경지에 있었던 이러한 우리의 선조 학자들이 할 일없이 허언을 하고, 거짓으로 방점을 찍어냈다고 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고한음과 《소학언해》의 현실한자음 방점 자료 (7)과 그 반영 비율 (8)과 선조 학자들의 증언만으로는 우리현실한자음의 성조 표시를 믿을 수 없다고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8)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역사상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8)을 보아 적어도 중고한음 평성만은 몇 백 년 또는 1일이천 년 동안의 차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화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는 고려 말의 유학의 하위 학문인 성리학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의 정치, 언어, 외교, 그리고 문화 전반을 주도해 갔던 우리의 선비들과 사대부들은 사대모화사상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자연히 한자와 한문을 숭상하게 되었고, 우리의 글자가 없었던 당시에 모든 교육과 학문은 한자와 한문에 의존하게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에 과거 제도가 가장 비중이 높았고, 개인의 신분향상에 한문학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졌다. 과거시험을 떠나서도 가문의 명예와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서오경 등의 교육은 기본적인 과목이었고, 선비로서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한시(漢詩)를 짓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한시를 짓기 위해서는 중고한음에서부터 내려오는 4성을 다 익힐 필요는 없다. 한자의 성조를 평성과 평성 축성(=평성 아닌 것, 곧 상성, 거성, 입성)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익히는 것이 필요했다. 옥편이나 자전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과거시험장에 나가서 5언 또는 7언 율시를 짓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적어도 수백자의 평성자를 암기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도 선비들이 향교 같은 곳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시를 짓는 상황에서도 평성자를 수백 자 알고 있어야 했다. 시를 잘 지으면 개인의 신분향상은 물론이고, 가문이나 명예나 자손들의 부귀를 위해서도 필요했다. 오늘날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영어의 몰입 교육을 하듯이 조선 시대에는 한자의 성조를 외우는 일에 몰입 교육을 했다.

한시(漢詩)에는 두 구(句)가 상대(相對)되거나 상응(相應)되는 구(句)로 구성하는 대구법(對句法)이 많이 쓰인다. 절구(絶句)에서는 기구(起句)와 승구(承句)가 대(對)를 이루거나, 전구(轉句)와 결구(結句)가 대(對)를 이루고, 율시(律詩)에서는 3구(句)와 4구(句)가 대(對)를 이루거나, 5구(句)와 6구(句)가 대(對)를 이룬다. 그리고 시를 읽을 때 오언시는 2/3 자료, 칠언시는 4/3 자료 읽는다.

한시에는 대체적으로 규칙이 엄격한 현대시(現代詩)와 규칙을 중히 여기지 않는 고시(古詩)로 나누어진다. 현대시는 글자 수에 따라 5자씩 4줄로 되어 있는 오언절구(五言絶句)와, 5자씩 4줄 여덟 줄로 되어 있는 오언율시(五言律詩)와, 7자씩 4줄로 되어 있는 칠언절구(七言絶句)와, 7자씩 4줄 여덟 줄로 되어 있는 칠언율시(七言律詩)로 나눌 수 있다. 오언절구(五言絶句)는 5자×4줄=20자의 시요, 칠언율시(七言律詩)는 7자×8줄=56자의 시이다. 현대시는 평성으로 시작하는 평기식(平起式)과 축성(仄聲)으로 시작하는 축기식(仄起式)이 있다.¹⁴⁾

압운법에는 ①축기식(仄起式) 평성운, ②평기식 평성운, ③축기식 축성운, ④평기식 축성운이 있다. 평기(平起)는 기구(起句)의 두 번째 글자를 평자(平字)로 짓는 것이고, 축기(仄起)는 기구(起句)의 두 번째 글자를 축자(仄字)로 짓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5언절구 축기식 평성운과 평기식 평성운의 평축의 배열과 압운을 도표로 보이기로 한다.¹⁵⁾

14) 김 홍광. 2012. 『영인이 있는 한국한시진보』. 이화문화사.

(11) 한시의 평측과 압운법의 보기 김홍광(2012 : 284)

	5언절구 평기식 평성운					5언절구 측기식 평성운				
기구(起句)	●	○	○	●	●	●	●	○	○	●
승구(承句)	●	●	●	○	◎	○	○	●	●	◎
전구(轉句)	●	●	○	○	●	●	○	○	●	●
결구(結句)	○	○	●	●	◎	●	●	●	○	◎

○ : 평성, ● : 측성, ○ : 측성 원칙(평성 허용), ● : 평성 원칙(측성 허용)
◎ : 압운, 평성운은 평성으로 압운한다. 5언절구는 2·4구(또는 2·3·4구의 끝자에 압운한다).

한시는 평측과 압운법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뜻이 심오하고 고결하며, 대구가 적절하더라도, 압운과 평측의 규칙이 어긋나면 시로서의 품격을 갖출 수가 없다. 조선시대에 언어의 변화를 주도해 갔던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아울러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한문으로 된 사서오경 등을 익힘은 물론이고 거기에다가 한시를 짓는 것은 선비의 기본이었다. 한시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한자음의 성조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옥편이나 자전에 표시된 전통적인 4성을 공부해야 되었고, 전통적인 4성은 중국의 권위 있는 운서인 광운의 4성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시를 짓기 위한 4성의 공부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4가지로 따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략(stratagem)을 써서, 평성과 측성을 구분하는 것이었다.¹⁶⁾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수많은 한자들 가운데서 평성을 모두 가려내서 철저하게 암기하면 나머지는 모두 측성인 것이다. 평성자의 암기는 우리 고유어의 /집/, /콩/, /밭/, /술/, /배/(梨), /말/(馬), ... 등과 같은 조치로 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어서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8)ㄱ에서 보는 것처럼, 평성(平)이 평성(平)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90.35%인 것은 일러도 고려 말 이후의 몰입 교육의 결과였다.¹⁷⁾ 그러면 (8)ㄱ에서 보는 것처럼 입성(入)이 거성(·)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저렇게도 높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형태소의 음운 표상은 분절음을 습득하는 것이 먼저이고, 다음에 운소를 익히게 된다. 입성은 중국어에서는 [p-, t-, k-]로 끝나며, 우리말에서는 [ㄷ > ㄹ]의 변화를 거쳐서¹⁸⁾ [ㅂ,

15) 절구 [絶句]

오언절구의 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측기식 평성운 정식(仄起式平聲韻定式)

(仄) 仄平平仄 平平(仄)仄平(韻)

(平) 平平仄仄 (仄)仄仄平平(叶)

② 평기식 평성운 정식(平起式平聲韻定式)

(平) 平平仄仄 (仄)仄仄平平(韻)

(仄) 仄平平仄 平平(仄)仄平(叶)

16) 여기에서 측성은 평성이 아닌 것 곧, 상성, 거성, 입성을 하나로 하는 상위 범주의 이름이다.

17) 아무리 몰입 교육으로 평성자(平)를 암기하더라도, 그 평성자(平)가 일반 토박이들의 머리속의 어휘부(lexicon)에 상성(·)이나 거성(·)으로 확립되어 굳게 뿌리박고 있는 한자는 한시를 지을 때는 평성(平)으로 치더라도 일상의 언어생활 속에서는 상성(·)이나 거성(·)으로 간주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성(平)은 우리의 방점 표시 문헌 속에서 평성(平)이 아닌 상성(·)이나 거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8) [ㄷ > ㄹ]의 변화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① 중국어의 어느 방언에서

ㄹ, ㄱ]으로 끝나는 형태소이다. 우리말의 성조는 평성, 상성, 거성의 3성조 체계이고, 입성은 잉여적인 자질이기는 하지만 음절의 길이가 짧아서(/축급해서)19) 평성 아닌 것으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장음의 자질을 가진 상성(◻)보다는 거성(·◻)으로 발음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었다. [ㄴ, ㄹ, ㄱ]으로 끝나는 한자는 입성(◻)이었으므로 평성(◻)처럼 윗필요가 없이, 거의 100%까지 자동적으로 그 성조를 거성(·◻)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20)

이제 ‘상성(◻)⇒상성(·◻)’ 과 ‘거성(◻)⇒거성(·◻)’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시를 짓기 위해서는 상성(◻)과 거성(◻)이 축성이란 것을 알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둘을 구분하는 것이 과거시험에서도 한시 짓기 경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문의 명예나 번영을 위해서도 또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도적인 노력으로 기억한 평성(◻)과 기억할 필요가 없이 분절음의 구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억한 입성(◻)을 제외한 것, 곧 비입성축성의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 상성(◻)과 거성(◻)이다.

(9)와 (10)에서는 각각 ‘상거무별’ 과 ‘상거상훈’ 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1)ㄱ,ㄴ에서 ‘亂란以:이쑤·줄變:변이라(과글·리 고·티·기 어·려운·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현실 한자음에서 상성(◻)과 거성(·◻)은 본음(=중국 전통적인 4성)과의 관계를 따져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쳐서 일치시키려 하지 말고, 굳어진 그대로 발음해야 된다는 것이다. 중국말 토박이들의 처지에서 보면, 조선어에서 ‘상성(◻)⇒상성(·◻)과 거성(◻)⇒거성(·◻)’ 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고, ‘상성(◻)⇒{상성(·◻) 78.57% 초과, 거성(·◻) 21.43%}와 거성(◻)⇒{상성(·◻) 63.15%, 거성(·◻) 31.58% 초과’ 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성(◻)과 거성(◻)의 차별성이 매우 약하다.

앞에서 ‘평성(◻)⇒평성’ 이 90.625%이고, ‘상성(◻)⇒상성(·◻)’ 이 78.57%이며, ‘거성(◻)⇒거성(·◻)’ 이 31.58%이며, ‘입성(◻)⇒거성(·◻)’ 이 100.00%로 나타난다는 것을 불균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불균형이다. 그러나 (8)◻,◻를 구분하지 말고 합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균형이 성립한다.

(12) 중고한음 비입성축성(◻,◻)과 소학언해 성조 (35자)

◻① ((◻,◻) ⇒ ◻ (중고한음 비입성축성 소학언해 평성),	1자(2.86%)
소계①	1자 (2.86%)
◻①+◻②④ (◻,◻) ⇒ :◻ (중고한음 비입성축성이 소학언해 상성으로),	23자(65.71%)
◻②+◻③④(◻,◻) ⇒ ·◻ (중고한음 비입성축성이 소학언해 거성으로),	11자(31.42%)
소계②	34자 (97.13%)
합계(=①+②)	35자 (100.00%)

일어났고, 이것을 우리말에서 차용한 것인지, 또는 ②우리말에 [◻]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말 안에서 [◻ > ◻]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불확실하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

19) 다만 [ㄹ]로 끝나는 형태소는 축급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성운학자들이 입성에 대한 음가의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빌어서 우리 현실 한자음에서 [ㄹ]로 끝나는 형태소까지도 축급이라는 용어를 우리쪽의 학자들은 그대로 사용해 왔다.

20) 우리의 현실 한자음에는 평성(◻)으로 발음되는 입성자가 있으며(보기; 穀食(곡·석)에서 ‘穀(곡)’은 중세 국어에서도, 현대 창원 방언에서도 평성으로 나타난다.), 상성(·◻)으로 발음되는 입성도 있다(보기; 蜜(:밀)). 蜜은 《소학언해》에서도 창원 방언에서도 상성으로 나타난다. 자료(7)은 극히 제한된 수의 보기이기 때문에, ‘穀(곡), 蜜(:밀)’과 같은 예외가 빠져서 13자(100%)가 모두 거성(·◻)으로 나타난다.

이제 (8)㉔,㉕와 (12)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13) 중고한음 4성과 소학언해 성조²¹⁾

㉔ 중고한음 평성과 소학언해 성조 (32자)

§① ㉔ ⇒ □ (중고한음 평성이 소학언해 평성으로) 29자 (90.625%)

② ㉔ ⇒ :□ (중고한음 평성이 소학언해 상성으로) 3자 (9.375%)

합계 32자 (100.00%)

㉕ 중고한음 비입성측성과 소학언해 성조 (35자)

③ {㉕,㉕} ⇒ □ (중고한음 비입성측성 소학언해 평성), 1자(2.86%)

소계① 1자 (2.86%)

④ {㉕,㉕} ⇒ :□ (중고한음 비입성측성이 소학언해 상성으로), 23자(65.71%)

⑤ {㉕,㉕} ⇒ ·□ (중고한음 비입성측성이 소학언해 거성으로), 11자(31.42%)

§소계② {㉕,㉕} ⇒ {:□+·□} 34자 (97.13%)

합계(=②+③) 35자 (100.00%)

㉖ 중고한음 입성과 소학언해 성조 (13자)

§⑥ ㉖ ⇒ ·□ (중고한음 입성이 소학언해 거성으로), 13자(100.00%)

합계 13자 (100.00%)

㉗ 중고한음 복수성조(평성 및 거성{㉗,㉗})과 소학언해 성조 (6자)

⑦ {㉗,㉗} ⇒ □ (중고한음 평성 및 상성과 소학언해 평성), 2자(33.33%)

⑧ {㉗,㉗} ⇒ :□ (중고한음 평성 및 상성과 소학언해 상성), 2자(33.33%)

⑨ {㉗,㉗} ⇒ ·□ (중고한음 평성 및 상성과 소학언해 거성), 2자(33.33%)

합계 6자 (100.00%)

㉘ 중고한음 복수성조(상성 및 거성{㉘,㉘})과 소학언해 성조 (3자)

⑩ {㉘,㉘} ⇒ :□ (중고한음 상성 및 거성과 소학언해 거성), 2자(100.00%)

합계 2자 (100.00%)

앞에서 ‘평성(㉔)⇒평성(□)’이 90.625%이고, ‘상성(㉕)⇒상성(:□)’이 78.57%이며, ‘거성(㉖)⇒거성(·□)’이 31.58%이며, ‘입성(㉗)⇒거성(·□)’이 100.00%로 나타난다는 것을 불균형이라고 했다. 이제 (13)에서 §으로 표시된 부분에 주목하면, ‘평성(㉔)⇒평성’이 90.625%이고, ‘비입성측성{㉕,㉕}⇒{(상성(:□)+거성(·□))’이 97.13%이며, ‘입성(㉗)⇒거성(·□)’이 100.00%로 나타난다. 앞에서 말한 《90.625%, 78.57%, 31.58%, 100.00%》에 비하면 《90.625%, 97.13%, 100.00%》는 매우 균형이 잡힌 것이며, 안정감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면의 제약과 구두 발표라는 한계 때문에,《소학언해》3권1쪽a1~6쪽b10 및 7쪽a4의 범위에 있는 한자 형태소 86자(=평성 32자, 상성 14자, 거성 19자, 입성 13자, {평성, 거성} 6자, {상성, 거성} 2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000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제한된 자료에서 ‘비입성측성{㉕,㉕}⇒{:□+·□)’의 비율이 97.13%와, ‘입성(㉗)⇒거성(·□)’이 100.00%이 너무 높게 나왔다.²²⁾

필자가 《소학언해》 전체에서 1435개의 한자 형태소를 대상으로 중고한음 4성과《소학언해》방점 표시의 반영 관계를 계량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²³⁾

21) §표가 앞에 붙은 줄을 주의해서 살펴보기 바란다.

22) 김차균(2012)에서는 《소학언해》 한자 816자이고, 김세진(2013)에서는 《번역소학》 한자 619자이다. 김세진(2013)에서는 ‘평성(㉔)⇒평성(□) (91.46%)’, ‘비입성측성{㉕,㉕}⇒(90.19%)’, ‘입성(㉗)⇒거성(·□)(94.20%)’로 나타났고, 김차균(2012)에서도 이와 거의 같았다.

- (14) 중고한음 4성과 《소학언해》 방점 대응에서 ‘대칭성 속의 비대칭성’
- ㄱ. 중고한음 평성(ㄱ) 531자 중 503.5자(94.82%)가 《소학언해》에서 평성(□)으로 반영되었다.
 - ㄴ. 중고한음 입성(ㄴ) 265자 중 253.5자(95.66%)가 《소학언해》에서 거성(·□)으로 반영되었다.
 - ㄷ. 중고한음 비입성측성(ㄷ, ㅌ) 564자 중에서 《소학언해》에서 비입성측성(:□+·□)으로 반영된 것은 531.5(92.02%)이다.
 - a. 중고한음 비입성측성(ㄷ, ㅌ) 564자 중에서 《소학언해》에서 상성(:□)으로 반영된 것은 384.5자(68.08%)이다.
 - b. 중고한음 비입성측성(ㄷ, ㅌ) 564자 중에서 《소학언해》에서 거성(·□)으로 반영된 것은 134.5자(23.85%)이다.

(14)를 다시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15) 중고한음 4성과 그것의 《소학언해》 방점 표상의 반영

중고한음 4성	권발	우리 현실 한자음에 반영 실태		
평성	ㄱ	※평성(□)<94.82%>	상성(:□)<1.98%>	거성(·□)<3.20%>
측성 (1)비입성측성		(평성(□)<7.98%>)	(※비입성측성(:□+·□)<92.02%>)	
① 상성	ㄷ	평성(□)<7.98%>	상성(:□)<68.08%>	거성(·□)<23.85%>
② 거성	ㄴ			
(2)입성	ㄹ	평성(□)<3.58%>	상성(:□)<0.75%>	※거성(·□)<95.66%>

5. 중고한음 4성과 창원 방언 한자음 성조의 관계에 대한 계량적 분석

《소학언해》 한자어 방점 표시의 분석이 완벽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서기 1700년 이후의 방점 문헌이 전무하고, 현대 중부 방언이 비성조 언어인 상황에서는 국어 성조사 연구는 방언 성조가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동부 지역인 영남, 영동, 함경 방언과 국경을 넘어서 연변 및 개원 지역의 방언이 성조 방언으로 남아 있어서 이들을 잘 연구하면 성조사 연구는 훌륭하게 이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전라 방언과 같은 준성조 방언에서도 보조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다.

창원 방언이 3성조 체계의 성조 언어라는 점은 중세 국어와 같으나, 중세 국어에서는 없었던 강력한 중화 규칙이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 널리 높은 빈도로 사용되던 낱말이라도, 창원 방언의 토박이의 어휘부(lexicon)에 존재하지 않는 낱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성과 측성의 2개만 허용되는 중화 위치가 있고, 3개 성조가 다 중화 되는 위치가 있어서, 후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한자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먼저 중화 규칙부터 소개한다.

23) 김차균(2014). 앞으로 ‘나라말의 성조’ 라는 제목으로 나올 예정인데, 이 책에서는 1435자를 자료로 하며, 이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과 정리는 이미 끝났다.

(16) 성조의 중화 규칙(현대 국어의 모든 성조 방언에 적용)

- ㄱ. 《□ — 》의 환경에서 □(평성) 이외의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 ㄴ. 《{·□, :□, ·回, :回} — 》의 환경에서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²⁴⁾
(단, 중화 규칙의 적용은 현대 국어의 모든 성조 방언에서 필수적이다.)

창원 방언만을 위해서는 중화 규칙은 (16)으로 충분하다.

(17) 성조의 중화 규칙(현대 국어의 모든 성조 방언에 적용)

- ㄱ. 《□ — 》의 환경에서 □(평성) 이외의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 ㄴ. 《{·□, :□} — 》의 환경에서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단, 중화 규칙의 적용은 현대 국어의 모든 성조 방언에서 필수적이다.)

이제 자료 (5)는 창원 방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²⁵⁾

(18) 중고한음 4성과 창원 방언의 한자 형태소 성조 자료

중고한자	창원 방언①	소학언해
한자(권발)	[방점] /성조/[음조]	{방점 자료}
求(ㄷ)	[구] /H/[MH]	{구}
能(ㄷ)	[능] /H/[MH]	{능}
門(ㄷ)	[문] /H/[MH]	{문}
傷(ㄷ)	[상] /H/[MH]	{상}
凶(ㄷ)	[흉] /H/[MH]	{흉}
敬(ㄷㄷ)	[공·경] /HM/[HM]	{공:경}
恭(ㄷ)	[공·경] /HM/[HM]	{공:경}
君(ㄷ)	[군·자] /HM/[HM]	{군·즈}
規(ㄷ)	[규·모] /HM/[HM]	{규모}
亡(ㄷ)	[망·멸] /HM/[HM]	{망·멸}
滅(ㄷㄷ)	[망·멸] /HM/[HM]	{망·멸}
模(ㄷ)	[모·양] /HM/[HM]	{모:양}
模(ㄷㄷ)	[규·모] /HM/[HM]	{규모}
物(ㄷㄷ)	[재·물] /HM/[HM]	{직·물}
倣(ㄷㄷ)	[의·방] /HM/[HM]	{의:방}
樣({ㄷ, ㄷㄷ})	[모·양] /HM/[HM]	{모:양}
依(ㄷ)	[의·방] /HM/[HM]	{의:방}
子(ㄷㄷ)	[군·자] /HM/[HM]	{군·즈}
子(ㄷㄷ)	[중·자] /HM/[HM]	{중·즈}
財(ㄷ)	[재·물] /HM/[HM]	{직·물}
曾(ㄷ)	[중·자] /HM/[HM]	{중·즈}

24) 이 규칙에서 ·回과 :回은 둘 다 나타나는 방언도 있고, 둘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는 방언도 있고, 둘 다 나타나지 않는 방언도 있다. ·回이나 :回이 나타나는 방언과 그 자료와 체계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김 차균(2003), 김 차균(2006)을 참조.

25) 성조 표상과 음조 표상은 읽을 분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더 보탤다.

忠(㉔)	[충·후]	/HM/[HM]	{통:후}
厚(㉔ㄷ)	[충·후]	/HM/[HM]	{통:후}
恭(㉔ㄷ)	[엄공]	/H ² /[MH]	{엄공}
丹(㉔)	[단서]	/H ² /[MH]	{단서}
放(㉔)	[방중]	/H ² /[MH]	{:방:중}
書(㉔ㄷ)	[단서]	/H ² /[MH]	{단서}
心(㉔ㄷ)	[의심]	/H ² /[MH]	{의심}
安(㉔ㄷ)	[편안]	/H ² /[MH]	{편안}
嚴(㉔)	[엄공]	/H ² /[MH]	{엄공}
儼(㉔)	[엄연]	/H ² /[MH]	{:엄연}
然(㉔ㄷ)	[엄연]	/H ² /[MH]	{:엄연}
溫(㉔)	[온화]	/H ² /[MH]	{온화}
疑(㉔)	[의심]	/H ² /[MH]	{의심}
縱(㉔ㄷ)	[방중]	/H ² /[MH]	{:방:중}
便({㉔,㉔})	[편안]	/H ² /[MH]	{편안}
和({㉔,㉔)ㄷ)	[온화]	/H ² /[MH]	{온화}
可(㉔)	[:가]	/L/[LM]	{:가}
敢(㉔)	[:감]	/L/[LM]	{:감}
居(㉔)	[:거]	/L/[LM]	{거}
貴(㉔)	[:귀]	/L/[LM]	{:귀}
怒(㉔)	[:노]	/L/[LM]	{:로}
道(㉔)	[:도]	/L/[LM]	{:도}
免(㉔)	[:면]	/L/[LM]	{:면}
順(㉔)	[:순]	/L/[LM]	{:순}
定(㉔)	[:정]	/L/[LM]	{:덩}
正({㉔,㉔})	[:정]	/L/[LM]	{:정}
祭(㉔)	[:제]	/L/[LM]	{:제}
處({㉔,㉔})	[:처]	/L/[LM]	{:처}
聰(㉔)	[:충]	/L/[LM]	{충}
間({㉔,㉔)ㄷ)	[:잠·간]	/L ² /[LM]	{·잠·간}
居(㉔)	[:거·처]	/L ² /[LM]	{거:처}
怒(㉔)	[:노·호]	/L ² /[LM]	{:로·호}
亂(㉔ㄷ)	[:환·란]	/L ² /[LM]	{:환·란}
亂(㉔ㄷ)	[:환·란]	/L ² /[LM]	{:환·란}
慢(㉔ㄷ)	[:오·만]	/L ² /[LM]	{:오:만}
武(㉔)	[:무·왕]	/L ² /[LM]	{:무왕}
聖(㉔)	[:성·인]	/L ² /[LM]	{:성인}
俗(㉔ㄷ)	[:야·속]	/L ² /[LM]	{:야·속}
實(㉔ㄷ)	[:행·실]	/L ² /[LM]	{:행·실}
心(㉔ㄷ)	[:조·심]	/L ² /[LM]	{:조심}
野(㉔)	[:야·속]	/L ² /[LM]	{:야·속}

傲(ㄱ)	[:오·만]	/L ² /[LM]	{:오:만}
王(ㄱ)	[:무·왕]	/L ² /[LM]	{:무왕}
人(ㄱ)	[:성·인]	/L ² /[LM]	{:성인}
人(ㄱ)	[:현·인]	/L ² /[LM]	{현인}
暫(ㄱ)	[:잠·깐]	/L ² /[LM]	{·잠·깐}
操(ㄱ)	[:조·심]	/L ² /[LM]	{:조심}
處({ㄱ,ㄱ})	[:거·처]	/L ² /[LM]	{거:처}
行({ㄱ,ㄱ})	[:행·실]	/L ² /[LM]	{:행·실}
賢(ㄱ)	[:현·인]	/L ² /[LM]	{현인}
號({ㄱ,ㄱ})	[:노·호]	/L ² /[LM]	{:로·호}
患(ㄱ)	[:환·란]	/L ² /[LM]	{:환·란}
患(ㄱ)	[:환·란]	/L ² /[LM]	{:환·란}
極(ㄱ)	[·극]	/M/[ṁ/MM]	{·극}
吉(ㄱ)	[·길]	/M/[ṁ/MM]	{·길}
禮(ㄱ)	[·예]	/M/[ṁ/MM]	{·례}
法(ㄱ)	[·법]	/M/[ṁ/MM]	{·법}
篇(ㄱ)	[·편]	/M/[ṁ/MM]	{편}
曲(ㄱ)	[·곡·례]	/M ² /[HH/MM]	{·곡·례}
孔(ㄱ)	[·공·차]	/M ² /[HH/MM]	{·공·츠}
公(ㄱ)	[·태·공]	/M ² /[HH/MM]	{·태공}
苟(ㄱ)	[·구·차]	/M ² /[HH/MM]	{:구·차}
氣(ㄱ)	[·기·운]	/M ² /[HH/MM]	{·기·운}
記(ㄱ)	[·악·기]	/M ² /[HH/MM]	{·악기}
禮(ㄱ)	[·곡·례]	/M ² /[HH/MM]	{·곡·례}
例(ㄱ)	[·차·례]	/M ² /[HH/MM]	{·츠·례}
百(ㄱ)	[·백·성]	/M ² /[HH/MM]	{·빅·성}
百(ㄱ)	[·백·성]	/M ² /[HH/MM]	{·빅·성}
姓(ㄱ)	[·백·성]	/M ² /[HH/MM]	{·빅·성}
姓(ㄱ)	[·백·성]	/M ² /[HH/MM]	{·빅·성}
心(ㄱ)	[·욕·심]	/M ² /[HH/MM]	{·욕심}
樂(ㄱ)	[·악·기]	/M ² /[HH/MM]	{·악기}
慾(ㄱ)	[·욕·심]	/M ² /[HH/MM]	{·욕심}
運(ㄱ)	[·기·운]	/M ² /[HH/MM]	{·기·운}
一(ㄱ)	[·일·정]	/M ² /[HH/MM]	{·일:덩}
子(ㄱ)	[·공·차]	/M ² /[HH/MM]	{·공·츠}
節(ㄱ)	[·절·차]	/M ² /[HH/MM]	{·절·츠}
定(ㄱ)	[·일·정]	/M ² /[HH/MM]	{·일:덩}
次(ㄱ)	[·차·례]	/M ² /[HH/MM]	{·츠·례}
且(ㄱ)	[·구·차]	/M ² /[HH/MM]	{:구·차}
次(ㄱ)	[·절·차]	/M ² /[HH/MM]	{·절·츠}

太(□) [·태·공] /M²/[HH/MM] {·태공}

창원 방언을 비롯한 경남 동남부 방언에는 1음절 운율적인 낱말은 #—#의 환경에서 2음절 운율적인 낱말로 도출된다.

(19) 경남 동남부 방언 1음절 운율적 낱말 성조 중복 규칙

- ㄱ. H → H² /# — #
- ㄴ. L → L² /# — #
- ㄷ. M → M² /# — #

규칙 (19)의 결과로 1음절 운율적인 낱말은 2음절 운율적인 낱말로 도출된 다음에 다음의 음조형 도출 규칙의 적용을 받아 음조형이 도출되기 때문에 2모라로 발음되지만, 평성과 거성의 음조는 때로는 1.6모라 정도로 짧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이음조형 [Ṁ]과 [Ṃ]이 가끔 나타나기도 한다.

(20) 경남 동남부 방언의 1음절 어절의 음조

방점형	/성조/[음조]
/공, 발/	/H/{[\widehat{MH}], [Ṁ]}
/소, ·논/	/M/{[\widehat{HH}], [\widehat{MM}], [Ḧ], [Ṃ]}
/:개, :돈/	/L/[\widehat{LM}]

2음절 이상의 운율적인 낱말에 적용되는 음조형 실현 규칙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21) 경남 동남부 방언의 음조형 실현 규칙

- ㄱ. 평측형 H₂Mⁿ → [M_H₀HMⁿ]/# — #
- ㄴ. 상성형 L₃ → [LMM₀]/# — #
(단, L² 는 [LM])
- ㄷ. 거성형 M₂ → [HHM₀]/# — #
(단, 정보초점이 아니면 M² 는 [MM]으로 발음된다. 중복 규칙을 통해 도출된 M² 는 초점 강세를 받으면 [Ḧ]로, 받지 않으면 [Ṃ]으로 각각 임의변동한다.)
- ㄹ. 음상형 Ṁ₂ → [ḦHM₀]/# — #²⁶⁾
(단, 전달초점이 아니면 Ṁ² 는 [ṂM])

(22) 최종 방점형에서 대립과 중화

- ㄱ. 어두에서는 평성, 상성, 거성이 대립한다.
- ㄴ. 평성과 측성이 섞여 있는 경우 평성은 반드시 측성을 앞선다.
- ㄷ. 평성 뒤에서 상성, 거성은 측성(1점, ·□)으로 중화된다.
- ㄹ. 두 번째 이하의 측성 위치는 중화의 위치이다.

26) 경남 동남부 방언에서 음상형은 창원 방언②에만 나타난다.

이제 대립과 중화의 기능을 첫째 기준으로 하고, 다음에는 조치의 복잡성에 기준을 둔 2분법적 성조의 정의를 제시하기로 한다.

(23) 중화와 대립에 따른 방점의 분류²⁷⁾

- ㄱ. 성조가 둘인 방언에서는 중화력이 없는 성조를 평성, 있는 성조를 측성이라 부른다. 평성은 □으로, 측성은 ·□으로 표시한다.
- ㄴ. 성조가 셋인 방언에서는 중화력이 약한 성조를 평성, 중화력이 강한 성조를 측성이라 부르되, 조치가 단순 수평인 것을 거성, 조치가 복잡한 것(곧 길거나, 뒤끝이 올라가거나, 길고 뒤끝이 올라가는 것)은 상성이라 부른다. 평성은 □으로, 거성은 ·□으로, 상성은 :□으로 표시한다.
- ㄷ. 성조가 넷인 방언에서는 중화력이 약한 성조를 평성, 중화력이 강한 성조를 측성이라 부르되, 조치가 단순 수평인 것을 거성, 조치가 복잡한 것(곧 길거나, 뒤끝이 올라가거나, 길고 뒤끝이 올라가는 것)은 상성이라 부른다. 또 거성이 둘일 때는 그 빈도나 분포로 보아 일반적인 것은 거성(또는 양거성), 빈도가 낮고 분포가 제한된 것은 음거성이라 부른다. 상성이 둘일 때는 그 빈도나 분포로 보아 일반적인 것은 상성(또는 양상성), 빈도가 낮고 분포가 제한된 것은 음상성이라 부른다. 평성은 □으로, 거성은 ·□으로, 상성은 :□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음거성과 음상성은 각각 ·㉠과 :㉠으로 표시한다.

자료 (18)에서 창원 방언의 성조(/방점) 자료에서 중화 규칙 (17)이 적용되는 위치 ({:□, ·□—})에 있는 한자 형태소 자료는 기저 성조(/기저 방점)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지우고, 남는 것을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복수성조({㉥, ㉦}; {㉧, ㉨})의 순서로, 또 중고한음 성조가 같을 때는 어두에 나타나는 것과 평성 뒤에 나타나는 것의 순서로 정리하면 (24)와 같다.

(24) 중고한음과 창원 방언 한자 형태소 성조 분석을 위한 자료, 72자

㉡ 중고한음 평성(㉡)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세면) 30자

중고한음	창원 방언①	소학언해
한자(권발)	[방점] /성조/[음조]	{방점 자료}
①求(㉡)	[구] /H/[MH]	{구}
能(㉡)	[능] /H/[MH]	{능}
門(㉡)	[문] /H/[MH]	{문}
傷(㉡)	[상] /H/[MH]	{상}
凶(㉡)	[흉] /H/[MH]	{흉}
恭(㉡)	[공·경] /HM/[HM]	{공:경}
恭(㉡ㄷ)	[엄공] /H ² /[MH]	{엄공}
君(㉡)	[군·자] /HM/[HM]	{군:즈}
規(㉡)	[규·모] /HM/[HM]	{규:모}
亡(㉡)	[망·멸] /HM/[HM]	{망:멸}
模(㉡)	[모·양] /HM/[HM]	{모:양}

27) 김 차균(2006)을 참조.

模(ㄷ)	[규·모]	/HM/[HM]	{규모}
依(ㄷ)	[의·방]	/HM/[HM]	{의·방}
財(ㄷ)	[재·물]	/HM/[HM]	{직·물}
曾(ㄷ)	[증·자]	/HM/[HM]	{증·즈}
忠(ㄷ)	[충·후]	/HM/[HM]	{통·후}
丹(ㄷ)	[단서]	/H ² /[MH]	{단서}
嚴(ㄷ)	[엄공]	/H ² /[MH]	{엄공}
濫(ㄷ)	[온화]	/H ² /[MH]	{온화}
疑(ㄷ)	[의심]	/H ² /[MH]	{의심}
敬(ㄷ)	[공·경]	/HM/[HM]	{공·경}
傲(ㄷ)	[의·방]	/HM/[HM]	{의·방}
書(ㄷ)	[단서]	/H ² /[MH]	{단서}
心(ㄷ)	[의심]	/H ² /[MH]	{의심}
安(ㄷ)	[편안]	/H ² /[MH]	{편안}
然(ㄷ)	[엄연]	/H ² /[MH]	{:엄연}
縱(ㄷ)	[방종]	/H ² /[MH]	{:방·종}
②聰(ㄷ)	[:충]	/L/[LM]	{충}
居(ㄷ)	[:거]	/L/[LM]	{거}
居(ㄷ)	[:거·처]	/L ² /[LM]	{거·처}
操(ㄷ)	[:조·심]	/L ² /[LM]	{:조심}
賢(ㄷ)	[:현·인]	/L ² /[LM]	{현인}
③篇(ㄷ)	[·편]	/M/[M̈/MM]	{편}
ㄷ 중고한음 상성(ㄷ)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세면) 13자			
①嚴(ㄷ)	[엄연]	/H ² /[MH]	{:엄연}
②可(ㄷ)	[:가]	/L/[LM]	{:가}
敢(ㄷ)	[:감]	/L/[LM]	{:감}
道(ㄷ)	[:도]	/L/[LM]	{:도}
免(ㄷ)	[:면]	/L/[LM]	{:면}
怒(ㄷ)	[:노]	/L/[LM]	{:로}
怒(ㄷ)	[:노·호]	/L ² /[LM]	{:로·호}
武(ㄷ)	[:무·왕]	/L ² /[LM]	{:무왕}
野(ㄷ)	[:야·속]	/L ² /[LM]	{:야·속}
③禮(ㄷ)	[·예]	/M/[M̈/MM]	{·례}
孔(ㄷ)	[·공·자]	/M ² /[HH/MM]	{·공·즈}
苟(ㄷ)	[·구·차]	/M ² /[HH/MM]	{:구·차}
子(ㄷ)	[군·자]	/HM/[HM]	{군·즈}
子(ㄷ)	[증·자]	/HM/[HM]	{증·즈}
厚(ㄷ)	[충·후]	/HM/[HM]	{통·후}
ㄷ 중고한음 거성(ㄷ)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세면) 12자			
①放(ㄷ)	[방종]	/H ² /[MH]	{:방·종}
②貴(ㄷ)	[:귀]	/L/[LM]	{:귀}

順(ㄱ)	[:순]	/L/[LM]	{:순}
定(ㄱ)	[:정]	/L/[LM]	{:덩}
祭(ㄱ)	[:제]	/L/[LM]	{:제}
聖(ㄱ)	[:성·인]	/L²/[LM]	{:성인}
傲(ㄱ)	[:오·만]	/L²/[LM]	{:오·만}
暫(ㄱ)	[:잠·깐]	/L²/[LM]	{:잠·깐}
患(ㄱ)	[:환·란]	/L²/[LM]	{:환·란}
患(ㄱ)	[:환·란]	/L²/[LM]	{:환·란}
③氣(ㄱ)	[·기·운]	/M²/[HH/MM]	{·기·운}
次(ㄱ)	[·차·례]	/M²/[HH/MM]	{·츠·례}
太(ㄱ)	[·태·공]	/M²/[HH/MM]	{·태공}

㉔ 중고한음 입성(ㄱ)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세면) 11자

①極(ㄱ)	[·극]	/M/[M̈/MM]	{·극}
吉(ㄱ)	[·길]	/M/[M̈/MM]	{·길}
法(ㄱ)	[·법]	/M/[M̈/MM]	{·법}
曲(ㄱ)	[·곡·례]	/M²/[HH/MM]	{·곡·례}
百(ㄱ)	[·백·성]	/M²/[HH/MM]	{·빅·성}
百(ㄱ)	[·백·성]	/M²/[HH/MM]	{·빅·성}
樂(ㄱ)	[·악·기]	/M²/[HH/MM]	{·악기}
慾(ㄱ)	[·욕·심]	/M²/[HH/MM]	{·욕심}
一(ㄱ)	[·일·정]	/M²/[HH/MM]	{·일·덩}
節(ㄱ)	[·절·차]	/M²/[HH/MM]	{·절·츠}
②減(ㄱㄷ)	[망·멸]	/HM/[HM]	{망·멸}
物(ㄱㄷ)	[재·물]	/HM/[HM]	{지·물}

㉕ 중고한음 복수 성조{ㄱ,ㄱ} 4자; {ㄱ,ㄱ} 2자 (합쳐서) 6자

便({ㄱ,ㄱ})	[편안]	/H²/[MH]	{편안}
和({ㄱ,ㄱ}ㄷ)	[온화]	/H²/[MH]	{온화}
正({ㄱ,ㄱ})	[:정]	/L/[LM]	{:정}
行({ㄱ,ㄱ})	[:행·실]	/L²/[LM]	{:행·실}
處({ㄱ,ㄱ})	[:처]	/L/[LM]	{:처}
樣({ㄱ,ㄱ}ㄷ)	[모·양]	/HM/[HM]	{모·양}

(24)에서 중고한음과 창원 방언의 기저 성조 분석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지우고 다시 정리하면 (25)와 같다. 다만, 《소학언해》의 방점 표상은 다음에 사용할 대조를 위해서 지우지 않고 남겨두었다.

(25) 한자어 기본 자료 72자

㉖ 중고한음 평성(ㄱ)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세면) 30자

중고한자	창원 방언	《소학언해》
한자(권발)	[방점]	{방점}

①恭(ㄱ)	[공]	{공}
求(ㄱ)	[구]	{구}
君(ㄱ)	[군]	{군}
規(ㄱ)	[규]	{규}
能(ㄱ)	[능]	{능}
丹(ㄱ)	[단]	{단}
亡(ㄱ)	[망]	{망}
模(ㄱ)	[모]	{모}
門(ㄱ)	[문]	{문}
傷(ㄱ)	[상]	{상}
嚴(ㄱ)	[엄]	{엄}
溫(ㄱ)	[온]	{온}
依(ㄱ)	[의]	{의}
疑(ㄱ)	[의]	{의}
財(ㄱ)	[재]	{적}
曾(ㄱ)	[증]	{중}
忠(ㄱ)	[충]	{통}
凶(ㄱ)	[흉]	{흉}
書(ㄱㄷ)	[서]	{셔}
心(ㄱㄷ)	[심]	{심}
安(ㄱㄷ)	[안]	{안}
然(ㄱㄷ)	[연]	{연}
恭(ㄱㄷ)	[공]	{공}
縱(ㄱㄷ)	[중]	{:중}
敬(ㄱㄷ)	[·경]	{공}
模(ㄱㄷ)	[·모]	{모}
倣(ㄱㄷ)	[·방]	{:방}
②操(ㄱ)	[:조]	{:조}
居(ㄱ)	[:거]	{거}
聰(ㄱ)	[:총]	{총}
賢(ㄱ)	[:현]	{현}
③篇(ㄱ)	[·편]	{편}

㉔ 중고한음 상성(ㄷ) 13자

①儼(ㄷ)	[엄]	{:엄}
②可(ㄷ)	[:가]	{:가}
敢(ㄷ)	[:감]	{:감}
怒(ㄷ)	[:노]	{:로}
道(ㄷ)	[:도]	{:도}
免(ㄷ)	[:면]	{:면}
武(ㄷ)	[:무]	{:무}
野(ㄷ)	[:야]	{:야}

③孔(巴)	[·공]	{·공}
禮(巴)	[·예]	{·례}
子(巴ㄷ)	[·자]	{·즈}
苟(巴)	[·구]	{·구}
厚(巴ㄷ)	[·후]	{·후}

㉔ 중고한음 거성(巴) 12자

①放(巴)	[방]	{·방}
②貴(巴)	[·귀]	{·귀}
聖(巴)	[·성]	{·성}
順(巴)	[·순]	{·순}
傲(巴)	[·오]	{·오}
暫(巴)	[·잠]	{·잠}
定(巴)	[·정]	{·정}
祭(巴)	[·제]	{·제}
患(巴)	[·환]	{·환}
③氣(巴)	[·기]	{·기}
次(巴)	[·차]	{·츠}
太(巴)	[·태]	{·태}

㉕ 중고한음 입성(巴) 11자

①曲(巴)	[·곡]	{·곡}
極(巴)	[·극]	{·극}
吉(巴)	[·길]	{·길}
百(巴)	[·백]	{·빅}
法(巴)	[·법]	{·법}
樂(巴)	[·악]	{·악}
慾(巴)	[·욕]	{·욕}
一(巴)	[·일]	{·일}
節(巴)	[·절]	{·절}
滅(巴ㄷ)	[·멸]	{·멸}
物(巴ㄷ)	[·물]	{·물}

㉖ 중고한음 복수 성조(巴,巴) 4자; (巴,巴) 2자 (합쳐서) 6자

便(巴,巴)	[편]	{편}
和(巴,巴ㄷ)	[화]	{화}
正(巴,巴)	[·정]	{·정}
行(巴,巴)	[·행]	{·행}
處(巴,巴)	[·처]	{·처}
樣(巴,巴ㄷ)	[·양]	{·양}

(25)를 어두(#—) 위치와 평성 뒤(□—)의 위치로 나누고, (25)에서 중출된 한자라도 어두와 평성 뒤로 나뉘어 나타나는 것은 따로 세면, (26)과 (28)이 된다.

(26) (어두에서) 중고한음 4성이 창원 방언 방점으로 반영되는 자료, 59자

㉞ 중고한음 평성(平聲) 23자

중고한자	창원 방언	《소학언해》
한자(권발)	[방점]	{방점}
①恭(平)	[공]	{공}
求(平)	[구]	{구}
君(平)	[군]	{군}
規(平)	[규]	{규}
能(平)	[능]	{능}
丹(平)	[단]	{단}
亡(平)	[망]	{망}
模(平)	[모]	{모}
門(平)	[문]	{문}
傷(平)	[상]	{상}
嚴(平)	[엄]	{엄}
濫(平)	[온]	{온}
依(平)	[의]	{의}
疑(平)	[의]	{의}
財(平)	[재]	{지}
曾(平)	[증]	{증}
忠(平)	[충]	{퉁}
凶(平) 18	[흉]	{흉}
②操(平)	[:조]	{:조}
居(平)	[:거]	{거}
聰(平)	[:총]	{총}
賢(平) 4	[:현]	{현}
③篇(平) 1	[·편]	{편}

㉞ 중고한음 상성(上聲) 11자

①儼(上)	1 [엄]	{:엄}
②可(上)	[:가]	{:가}
敢(上)	[:감]	{:감}
怒(上)	[:노]	{:로}
道(上)	[:도]	{:도}
免(上)	[:면]	{:면}
武(上)	[:무]	{:무}
野(上) 7	[:야]	{:야}
③孔(上)	[·공]	{·공}
禮(上)	[·례]	{·례}
苟(上) 3	[·구]	{:구}

㉞ 중고한음 거성(去聲)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세면) 12자

①放(去) 1	[방]	{:방}
---------	-----	------

합계(=①+②) 23자 (100.00%)

㉑ 중고한음 입성과 창원 방언 성조

§⑦ ㉑ ⇒ ·□ (중고한음 입성과 창원 방언 거성), 9자(100.00%)

합계 9자 (100.00%)

㉒ 중고한음 복수성조(평성 및 거성{㉑,㉒})과 창원 방언 성조

⑧ {㉑,㉒} ⇒ □ (중고한음 평성 및 상성과 창원 방언 평성), 1자(33.33%)

⑨ {㉑,㉒} ⇒ :□ (중고한음 평성 및 상성과 창원 방언 상성), 2자(66.67%)

합계 3자 (100.00%)

㉓ 중고한음 복수성조(상성 및 거성{㉑,㉒})과 창원 방언 성조

⑩ {㉑,㉒} ⇒ :□ (중고한음 평성 및 상성과 창원 방언 상성), 1자(100.00%)

합계 1자 (100.00%)

(25)는 72자인데, (7)의 86자보다 15자 줄었다. 이것은 중화 위치인 측성 뒤({:□, ·□}—)에 나타나는 한자 형태소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27)에서 앞에 § 표 붙은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먼저 (27)①을 보면, ㉑⇒□(중고한음 평성이 창원 방언에 평성으로 반영)의 78.26%로 나타나는데, (13)에서 본 바와 같이 《소학언해》에서 90.625%보다 12.365%나 떨어진다. 1588년 당시에는 중부 방언과 경남(창원) 방언의 방점의 방언적인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벌어진 차이가 12.365% 정도 된다고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27)②에서는 {㉑,㉒}⇒{:□,+ ·□}(중고한음 비입성측성이 창원 방언에서 상성과 거성으로 반영)이 91.30%로 나타남을 본다. 이것은 (13)③{㉑,㉒}⇒{:□,+ ·□}(중고한음 비입성측성이 《소학언해》에서 상성과 거성으로 반영인 97.13%보다 5.83% 떨어진다. 《소학언해》에서 (13)④{㉑,㉒}⇒:□ (65.71%), ⑤{㉑,㉒}⇒·□(31.42%)를 창원 방언에서 (27)⑤{㉑,㉒}⇒:□ (65.22%), ⑥ {㉑,㉒}⇒·□(26.09%)를 비교하면, 상성(:□)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나, 거성(·□)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5.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7)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고한음 평성(㉑)의 다수가 창원 방언에서 평성(□)으로 반영되고, 중고한음 비입성측성({㉑,㉒})의 다수가 창원 방언에서 비입성측성(:□+ ·□)으로 반영되되 이것을 둘로 나누어보면 상성(:□)이 거성(·□)의 2배 이상 높으며, 중고한음 입성(㉒)의 압도적인 다수가 거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13)에서 중고한음 4성이 소학언해의 방점으로 반영되는 특성과 큰 차이가 없다.

다음은 평성 뒤의 위치에 나타나는 한자 형태소를 창원 방언의 그것과 비교한 결과이다.

(28) (평성 뒤에서) 중고한음 4성이 창원 방언에 방점 표상으로 반영되는 자료, 15자

㉔ 중고한음 평성(㉑) 9자

중고한자	창원 방언	《소학언해》
한자(권발)	[방점]	{방점}
書(㉑ㄷ)	[서]	{셔}
心(㉑ㄷ)	[심]	{심}
安(㉑ㄷ)	[안]	{안}
然(㉑ㄷ)	[연]	{연}

恭(ㄱㅇ)	[공]	{공}
縱(ㄱㅇ)	[중]	{:중}
敬(ㄱㅇ)	[·경]	{공}
模(ㄱㅇ)	[·모]	{모}
傲(ㄱㅇ)	[·방]	{:방}
ㄱ 중고한음 상성(ㄱ) 2자		
子(ㄱㅇ)	[·자]	{·즈}
厚(ㄱㅇ)	[·후]	{:후}
ㄱ 중고한음 거성(ㄱ)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세면) 0자		
ㄱ 중고한음 입성(ㄱ)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세면) 2자		
滅(ㄱㅇ)	[·멸]	{·멸}
物(ㄱㅇ)	[·물]	{·물}
ㄱ 중고한음 복수 성조{ㄱ,ㄱ} 1자		
和({ㄱ,ㄱ}ㅇ)	[화]	{화}
ㄱ 중고한음 복수 성조{ㄱ,ㄱ} 1자		
樣({ㄱ,ㄱ}ㅇ)	[·양]	{:양}

(28)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면 (29)와 같다. 15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결론에서 일반적인 특성을 지적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살피는 데에는 참고가 될 것이다.

(29) (평성 뒤에서) 중고한음 4성과 창원 방언 성조 15자

ㄱ 중고한음 평성과 창원 방언 성조

① ㄱ ⇒ ㄱ (중고한음 평성이 창원 방언 평성으로) 6자 (66.67%)

② ㄱ ⇒ ·ㄱ (중고한음 평성이 창원 방언 측성으로) 3자 (33.33%)

합계 9자 (100.00%)

ㄱ ㄱ 중고한음 비입성측성과 창원 방언 성조

③ {ㄱ,ㄱ} ⇒ ·ㄱ (중고한음 비입성측성 창원 방언 거성), 2+0자(100.00%)

합계 2자 (100.00%)

ㄱ 중고한음 입성과 창원 방언 성조

⑦ ㄱ ⇒ ·ㄱ (중고한음 입성과 창원 방언 측성), 2자(100.00%)

합계 2자 (100.00%)

ㄱ 중고한음 복수성조(평성 및 거성{ㄱ,ㄱ})과 창원 방언 성조

⑧ {ㄱ,ㄱ} ⇒ ·ㄱ (중고한음 평성 및 상성과 창원 방언 평성), 1자(100.00%)

합계 1자 (100.00%)

ㄱ 중고한음 복수성조(상성 및 거성{ㄱ,ㄱ})과 창원 방언 성조

⑩ {ㄱ,ㄱ} ⇒ :ㄱ (중고한음 평성 및 상성과 창원 방언 측성), 1자(100.00%)

합계 1자 (100.00%)

창원 방언 (29)⑦ ㄱ ⇒ ·ㄱ(입성이 거성으로)를, 《소학언해》(13)⑥ ㄱ ⇒ ·ㄱ(입성이 거성으로)를 비교하면, 100%에서 100%로 그대로 남아있다. 제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김차균(2012), 김세진(2013) 등에서는 둘 다 중세 국어 95% 이하에서 창원 방언

96% 이상으로 더 높아졌다. 이것은 입성 [ㄱ, ㅂ, ㄷ] 종성의 특성에 유추되어 그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소학언해》에 나오는 한자 형태소 전체에서 창원 방언 방점 분석에 유효한 한자 형태소를 모두 모아서 어두와 평성 뒤의 두 가지 위치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그것을 중고한음 4성과 비교하고, 그 중에서 이 논문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만 제시하면 다음의 (30) 및 (31)과 같다.

- (30) 중고한음 4성과 창원 방언 방점 대응에서 ‘대칭성 속의 비대칭성’ 835자
- ㄱ. 중고한음 평성(平聲) 349자 중 298자(85.39%)가 창원 방언에서 평성(平聲)으로 반영되었다.
 - ㄴ. 중고한음 입성(入聲) 142자 중 138자(97.18%)가 창원 방언에서 거성(·)으로 반영되었다.
 - ㄷ. 중고한음 비입성측성(非入聲側聲) 344자 중에서 창원 방언에서 비입성측성(·)으로 반영된 것은 295(85.76%)이다.
 - a. 중고한음 비입성측성(非入聲側聲) 344자 중에서 창원 방언 상성(上聲)으로 반영된 것은 233자(67.73%)이다.
 - b. 중고한음 비입성측성(非入聲側聲) 344자 중에서 창원 방언에서 거성(·)으로 반영된 것은 62자(18.02%)이다.

(30)①을 (27)①과, (30)②를 (27)②과, (30)③을 (27)⑦과 각각 대조하면, ±5% 안팎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극히 제한된 자료를 사용했느냐, 일반화할 만큼 넉넉한 자료를 사용했느냐에서 오는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1) (평성 뒤에서) 중고한음 4성과 창원 방언 성조 (380자)
- ① □⇒□(88.30%); 중고한음 평성 141자 중에서 창원 방언 평성으로 124.5자
 - ② {□,□}⇒·□(77.95%); (중고한음 비입성측성 161자 중에서 창원 방언 비입성측성으로 125.5자
 - ③ □⇒·□(96.15%); 중고한음 입성 78자 중에서 창원 방언 측성으로 75자

(31)은 380자의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량적인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기에 충분하지만, (29)는 15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은 못된다.

그러나 (14), (30), (31)의 계량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서, 중세 국어(여기에서는 《소학언해》)의 성조 체계가 현대 창원 방언에 얼마나 충실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종래에 16세기 후반의 방점 문헌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던 견해는 이상 더 유지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6. 중세 국어와 창원 방언 한자음 성조의 대응 관계 분석

《소학언해》와 창원 방언의 성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26)과 (28)에서 중고한음에 관한 정보인 권발을 지운 다음 (26)은 평성, 상성, 거성의 순서로, (28)은 평성과 측성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32) (어두에서) 중고한음 4성과 창원 방언 성조 자료, 59자

㉑ 중세 국어 평성(□)과 창원 방언 성조, 23자

한자(어두) 《소학언해》 창원 방언

①恭	{공}	[공]	19자
求	{구}	[구]	
君	{군}	[군]	
規	{규}	[규]	
能	{능}	[능]	
丹	{단}	[단]	
亡	{망}	[망]	
模	{모}	[모]	
門	{문}	[문]	
傷	{상}	[상]	
嚴	{엄}	[엄]	
溫	{온}	[온]	
依	{의}	[의]	
疑	{의}	[의]	
財	{직}	[재]	
曾	{중}	[중]	
忠	{통}	[충]	
便	{편}	[편]	
凶	{흉}	[흉]	
②居	{거}	[:거]	3자
聰	{총}	[:총]	
賢	{현}	[:현]	
③篇	{편}	[·편]	1자

㉒ 중세 국어 상성(:□)과 창원 방언 성조, 21자

①放	{:방}	[방]	2자
儼	{:엄}	[엄]	
②可	{:가}	[:가]	18자
敢	{:감}	[:감]	
貴	{:귀}	[:귀]	
怒	{:로}	[:노]	
道	{:도}	[:도]	
免	{:면}	[:면]	
武	{:무}	[:무]	
聖	{:성}	[:성]	
順	{:순}	[:순]	
野	{:야}	[:야]	
傲	{:오}	[:오]	
正	{:정}	[:정]	

定	{:뎡}	[:정]
祭	{:제}	[:제]
操	{:조}	[:조]
處	{:처}	[:처]
行	{:형}	[:형]
患	{:환}	[:환]
③苟	{:구}	[·구] 1자
㉔ 중세 국어 거성(·□)과 창원 방언 성조, 15자		
①孔	{·공}	[·공] 5자
氣	{·기}	[·기]
禮	{·례}	[·예]
次	{·츠}	[·차]
太 5	{·태}	[·태]
②暫 1	{·잠}	[:잠] 1자
③曲	{·곡}	[·곡] 9자
極	{·극}	[·극]
吉	{·길}	[·길]
百	{·백}	[·백]
法	{·법}	[·법]
樂	{·악}	[·악]
慾	{·욕}	[·욕]
一	{·일}	[·일]
節 9	{·절}	[·절]

(33) (어두에서) 《소학언해》와 창원 방언 성조 (59자)

- ㉔ 평성 23자
 - §① □⇒□; 19자 (82.61%)
 - ② □⇒:□; 3자 (13.04%)
 - ② □⇒:□; 1자 (4.35%)
- ㉔ 상성 21자
 - ① :□⇒□; 2자 (9.52%)
 - §② :□⇒:□; 18자 (85.71%)
 - ② :□⇒:□; 1자 (4.76%)
- ㉔ 거성(비입성) 6자
 - §① ·□⇒·□; 5자 (83.33%)
 - ② ·□⇒:□; 1자 (16.67%)
- ㉔ 거성(입성) 9자
 - §·□⇒:□; 9자 (100.00%)

《소학언해》 성조가 창원 방언의 성조에 반영되는 비율을 보면, 평성(□)⇒평성(□) 82.61%, 상성(:□)⇒상성(:□) 85.71%, 거성(비입성)(·□)⇒거성(·□)이 83.33%로 모두 83% 안팎이고, 거성(입성자)(·□)⇒거성(·□)은 100%이다.

(34) (평성 뒤에서) 중세 국어 성조와 창원 방언 성조, 15자

㉠ 중세 국어 평성(□)과 창원 방언 성조, 8자

한자(평성 뒤) 《소학언해》 창원 방언

① 恭(ㄱ)	{공}	[공]	6자
書(ㄷ)	{서}	[서]	
心(ㄷ)	{심}	[심]	
安(ㄷ)	{안}	[안]	
然(ㄷ)	{연}	[연]	
和(ㄷ)	{화}	[화]	
② 敬(ㄷ)	{공}	[·경]	2자
模(ㄷ)	{모}	[·모]	

㉡ 중세 국어 상성(:□)과 창원 방언 성조, 4자

① 縱(ㄷ)	{:중}	[중]	
② 傲(ㄷ)	{:방}	[·방]	
厚(ㄷ)	{:후}	[·후]	
樣(ㄷ)	{:양}	[·양]	

㉢ 중세 국어 거성(·□)과 창원 방언 축성, 3자

子(ㄷ)	{·즈}	[·자]	
滅(ㄷ)	{·멸}	[·멸]	
物(ㄷ)	{·물}	[·물]	

(35) (평성 뒤에서) 《소학언해》와 창원 방언 성조 (15자)

㉠ 평성(□) 8자

- ① □⇒□(평성); 6자 (75.00%)
- ② □⇒·□(축성); 2자 (25.00%)

㉡ 상성(:□) 4자

- ① :□⇒□(평성); 1자 (25.00%)
- ② :□⇒·□(축성); 3자 (75.00%)

㉢ 거성(·□) 3자

- ⇒·□(축성); 3자 (100.00%)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성 뒤에서 평성(□)⇒평성(□), 상성(:□)⇒축성(:□)은 둘 다 75.00%로 나타난다. (33)에서 본 바와 같이 어두에서 83% 안팎의 대응 관계에 비하면, 평성 뒤에서는 10% 정도 떨어지지만 이정도면 높은 비율이다.

(33)과 (35)는 너무 빈약한 자료에 바탕을 둔 결론이기 때문에, 계량적인 분석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는 참고가 되겠지만, 대응 관계에 확신을 주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최근에 소학언해 전체에서 뽑은 1,435자의 한자 형태소의 성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간추려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6) (어두에서) 소학언해 방점과 창원 방언 방점의 대응 관계

- ① 소학언해 평성(□)⇒창원 방언 평성(□) 317자 (91.09%)

- ② 소학언해 상성(□)⇒창원 방언 상성(□) 226자 (87.94%)
- ③ 소학언해 거성(□)⇒창원 방언 거성(□) 53자 (80.30%)
- ④ 소학언해 입성자⇒창원 방언 거성(□) 135자 (98.54%)

(37) (평성 뒤에서) 소학언해 방점과 창원 방언 방점의 대응 관계

- ① 소학언해 평성(□)⇒창원 방언 평성(□) 149자 (90.85%)
- ② 소학언해 상성(□)⇒창원 방언 축성(□) 78자 (84.78%)
- ③ 소학언해 거성(□)⇒창원 방언 축성(□) 40자 (88.89%)
- ④ 소학언해 입성자 ⇒ 창원 방언 축성(□) 79자 (98.75%)

(36) 및 (37)은 왕래가 심하지 않고, 방송 매체가 없었던 조선 시대와 같은 언어 사회에서는 성조 체계와 같은 운소 체계는 분절음 체계보다 안정감이 높았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7. 맺음말

성조론이라면, 우리의 학자들에게는 몇 가지 가지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어 왔다. 첫째로는 운율이란 무시해버려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너무 어려워서 노력한 것만큼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성조론이 어렵지도 않고, 성과를 바랄 수 없는 학문도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학문이 현대성을 띤다는 것은 어떤 특이한 부류의 사람(예를 들면, 경상도 방언 화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의 학식이 객관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후학들에게 전수할 수가 있어야 한다. 종래의 우리 선배들의 성조론은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스승의 성조론도 제자에게 전수되어 계승 발전된 것이 없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최영미 교수의 저서²⁸⁾ 이 두 가지에 대한 선입관을 해소해 주었다. 지각심리학적인 이론으로 개발한 사분음자(Quarter-tone scale)를 이용하여 성조를 분석한 최초의 저서이다. 이것은 특정 방언 화자가 아니라도 측정에 의해서 성조론 연구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강흥구 교수의 저서²⁹⁾ 사분음자(Quarter-tone scale)를 이용하여 방언 성조와 현대 가사의 낭송 음조를 현지에서 녹음하고 측정하는데 기여했다.

이 연구에서는 전반부는 중고한음의 4성과 중세 국어의 현실 한자음 성조(여기에서는 《소학언해》의 한자어 방점)을 비교하여 그 대응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한자음이 우리말에 차용되기 시작한 것은 짧아도 1,000년을 넘지만, 그 4성의 체계가 우리 현실 한자음의 3성조로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고려 말 이후에 한시를 짓기 위한 평측 구분의 필요에서 집중 교육을 한 효력임을 증명했다. 평성은 몰입해

28) 최영미(2010)에서는 정선 방언의 음조 자료를 측정하여 성조 체계를 분석했다.

29) 강흥구(2012)를 참조.

서 암기했고, 입성(음절 종성이 /ㄱ, ㄴ, ㅂ/은 전혀 암기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거성에 대응시켰다. 평성도 입성도 아닌 것, 곧 상성과 거성은 이 둘을 구분하는 데에 노력을 아니 해도 한시 짓는 일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1,000년 이상 내려오는 그대로 받음하게 방치했다.

결과적으로 중고한음 4성(권발로 표시)과 중세 국어 3성조(방점으로 표시) 사이에는 90%가 넘는 높은 대응 관계가 이루어지면서도, 상성자와 거성자의 구별은 매우 저조하고 불균형했다. 그리고 이 둘은 우리말에 들어올 때는 하나의 동아리인 비입성측성으로 작용했고, 이 하나의 동아리 중에서 60% 정도는 상성(:□)으로, 30% 정도는 거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입성측성으로 묶어서 보면 역시 중고한음과의 대응 관계가 90% 정도 된다. 이것을 필자는 ‘불균형의 균형 역설’ 이라고 부르며, 이 현상을 가 《동국정운(서)》에서는 상거무별, 《소학언해(범례)》에서는 상거상혼이라 했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중고한음 4성과 현대 창원 방언 3성조를 비교 그 대응 관계가 85%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또한 후반부 끝에서는 《소학언해》 한자어 방점과 창원 방언 성조(방점표시)를 직접 비교하여 어두 위치에서는 3개 성조의 대응 관계가 85% 앞뒤에 달하며, 특히 입성자로 된 거성은 거의 100%에 가까운 대응 관계가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평성 뒤의 위치에서는 중세 국어 3성조는 창원 방언에서는 평성과 측성의 둘로 나타나는데, 대응 비율은 75%에이고, 입성자는 역시 100%의 대응 관계를 보였다.

■ 참고 문헌

- 강 홍구. 2012. 「방언 성조와 현대가사 운율 연구」, 공주대학교 출판부.
- 곽 충구. 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20세기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에 의한—」, 국어학총서 20. 국어학회. 태학사.
- 구 현옥. 2003. 「국어 성조 기술 방법 비교 연구」, 한글 260. 한글학회.
- 김 봉국. 1999. 「삼척 지역어의 성조 연구」, 국어연구 150. 국어연구회.
- 김 세진. 2013. 「중고한음 성조와 『번역소학』에 나타난 우리말 한자 형태소 성조의 비교」, 한글 302. 한글학회. 5~124쪽.
- 김 영만. 1994. 「16세기 한자어의 초분절음소 연구—번역소학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16-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 완진. 1977. 「중세국어 성조의 연구」, 국어학 총서 4. 국어학회. 탑출판사.
- 김 주원. 1991.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방법—표기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시론—」, 어학연구 27-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85~608쪽.
- 김 주원. 2000. 「영남방언 성조의 특성과 그 발달」, 어문학 69. 한국어문학회.
- 김 차균. 1990. 「국어 한자어의 방점법과 성조의 대응 관계」, 어문연구 20. 어문연구학회. 207~266쪽.
- 김 차균. 1993ㄱ. 『우리말의 음운』. 태학사.
- 김 차균. 1993ㄴ. 『우리말의 성조』. 태학사.
- 김 차균. 1999. 『우리말 방언 성조의 비교』. 도서출판 역락.
- 김 차균. 2002. 『국어 방언 성조론』. 도서출판 역락.
- 김 차균. 2003. 『영남 방언 성조 비교』. 도서출판 역락.
- 김 차균. 2006. 『중부 동해안 방언 성조의 비교』. 도서출판 글누리.
- 김 차균. 2010. 「중세국어와 창원 방언의 성조 비교—『훈민정음』(해례)와 『소학언해(범례)』의 방점 자료에 바탕을 두고—」, 한글 290. 한글학회.
- 김 차균. 2012. 「중고한음 성조와 『소학언해』에 나타난 우리말 한자 형태소 성조의 비교」, 한글 297. 한글학회. 5~132쪽.
- 김 홍광. 2012. 『영인이 있는 한국한시진보』. 이화문화사.
- 문 효근. 1974. 『한국어 성조의 분석적 연구』. 세종출판공사.
- 박 숙희. 2008.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도서출판 역락.
- 박 숙희. 2013. 『한국어 발음 교육론』. 도서출판 역락.
- 성 철재·권 오욱·이 지향·김 차균. 2008. 「Q-tone 청취 등급을 이용한 경남 동남부 방언 성조 분석」, 한글 279. 한글학회. 5~33쪽.
- 손 종섭. 1999. 『우리말의 고저장단』. 정신세계사.
- 안 병희. 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 이 기문. 1972/1994. 『국어사 개설(개정판)』. 탑출판사.
- 이 돈주. 1985. 『중국어 음운학』. 태학사. (“B. Karlgren, 1954,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Th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Vol. XXII. Stockholm.*”의 번역서.)
- 이 문규. 1997. 「대구 방언의 성조 중화 현상」, 문학과 언어 18. 21~44쪽.
- 이 문규. 2002. 「대구 방언과 안동 방언의 성조 비교 연구」, 어문학 77. 한국어문학회. 101~149쪽.
- 이 호영. 1993. 「서울말과 경상도 방언의 운율 유형론」, 언어학 15. 한국언어학회. 353~382쪽.

- 임 석규. 2003. 「동남 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37~69쪽.
- 전 학석. 1993.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회령, 경성, 함주 지방말의 음조를 중심으로-』. 태학사.
- 정 연찬. 1977. 「경상도 방언 성조연구」, 국어학 총서 5. 국어학회. 탑출판사.
- 정 원수. 1994. 「경북 방언의 복합 동사 형성에 나타나는 성조 변동 연구」, 한글 224. 한글학회. 73~94쪽.
- 최 명옥. 1998. 「현대국어의 성조소 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 최 세진. 1517. 「번역노걸대박통사 범례」, 사성통해(四聲通解). / 대제각 영인본(1974).
- 최 세진. 1527. 『훈몽자회』. / 대제각 영인본(1973).
- 최 영미. 2010. 『정선 방언의 성조 체계와 그 역사적 변천』. 도서출판 역락.
- 최 희수. 1986. 『조선한자음 연구』.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 허 응. 1963/1972. 『중세국어 연구』. 정음사.
- 허 응. 1970. 『국어음운학(개고신판)』. 정음사.
- 陳彭年 外. 1008. 『廣韻』. 中華民國 59年 臺灣中華書局 印行.
- 福井玲. 2000. 「韓國語諸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について」, 韓國語アクセント叢論.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 附屬文化交流研究施設 東洋諸民族言語文化部門.
- 福井玲. 1998. 「전남 광양시 방언의 액센트 체계와 그 지리적 분포에 대하여」, 國語學 31. 271~287쪽.
- 野間秀樹. 2012. 『한글의 탄생』(김 진아·김 기연·박 수진 옮김). 역락.
- 伊藤智ゆき. 2007-이 진호 옮김. 2011ㄱ. 『한국 한자음 연구-본문편-』. 도서출판 역락.
- 伊藤智ゆき. 2007-이 진호 옮김. 2011ㄴ. 『한국 한자음 연구-자료편-』. 도서출판 역락.
- 曹廷換. 2000. 「韓國語昌寧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 — 体言を中心に —」, 韓國語アクセント叢論.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 附屬文化交流研究施設 東洋諸民族言語文化部門.
- 河野六郎. 1951. 「朝鮮古文獻の聲點に就いて」, 朝鮮學報 1. 朝鮮學會.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Row, New York.
- Pike, Kenneth L. 1948. *Tone Languag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국어학 문헌 자료〉

- 동국정운(東國正韻). 1448. 대제각 영인본(1973).
- 사서언해(四書諺解). 1590. 대제각 영인본(1985).
- 사성통해(四聲通解). 1517. 대제각 영인본(1973).
- 석보상절(釋譜詳節). 1447. 한글학회 출판부(1961).
- 소학언해(小學諺解). 1586. 대제각 영인본(1974).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447. 대제각 영인본(1973).
- 월인천강지곡 상(月印千江之曲 上). 1447. 대제각 영인본(1973).
-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1992. 어문각.
- 훈민정음(訓民正音). 1446. 재단법인 한글학회(1997).
- 대자원(大字源). 장 삼식·이 가원. 유경출판사. 1972.
- 신자해(新字海). 민중서관 편집국. 1967/1981.

제2부 1분과 발표

체언 말 자음의 발음 실태와 원인 분석

김연희(대진대)

< 차례 >

1. 머리말
 2. 체언 말 자음의 발음 현상
 3. 모음에 따른 체언 말 자음의 발음 현상
 4. 맺음말
- 참고 문헌
- <부록>

1. 머리말

현대 국어의 체언 말 자음은 음절경계 앞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으로만 발음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경우에는 체언의 음절 끝소리가 그대로 연음이 되어 발음이 되는 것이 표준발음이다. 그러나 체언 말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경우에 원래의 음소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다른 음소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우리는 ‘체언 말 자음의 교체 현상’¹⁾이라고 한다.

- | | |
|--------------------------------|---------------|
| (1) ㄱ. 이 <u>꽃에서</u> 달콤한 냄새가 나. | [꼬체서~꼬테서~꼬세서] |
| ㄴ. 사람이 처음이랑 끝이 다르면 안 되지. | [끄치~끄시] |
| ㄷ. 의사가 <u>목젓을</u> 보았다. | [목저줄~목저술] |
| ㄹ. <u>무릎으로</u> 누르니까 아프잖아! | [무르프로~무르브로] |
| ㅁ. 너네 <u>엄마 부엌에서</u> 뭐 하시니? | [부어게서~부어게서] |

(1)의 예는 체언 말 자음의 교체 현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1ㄱ, ㄴ, ㄷ)은 설정성 자음인 /ㄷ, ㅈ, ㅉ/이 연음될 때이고 (1ㄹ, ㅁ)은 비설정성 자음인 /ㅍ, ㅋ/이 연음될 때의 경우이다. (1ㄱ, ㄴ, ㄷ)의 설정성 자음의 경우는 [시]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1ㄹ, ㅁ)의 비설정성 자음의 경우는 [기]와 [비]로 발음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그동안 체언 말 자음 /ㄷ, ㅈ, ㅉ/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발음될 경우 [시]로 발음되는 경향에 대한 연구는 ‘마찰음화’의 일종으로 논의되어 왔다. 마찰음화 현상은 그동안 방언학에서 관심으로 가졌던 부분으로 전남, 경기, 충청도 지역의 연구가 이루어졌었다(곽충구 1984, 강희숙 1992). 또한 홍미주(2003)에서는 사회적 방언의 관점에서 체언 말 유기음의 마찰음화 현상을 유의미한 음운 현상으로 보고 대구 지역에서 세대에 따른 마찰음화 실현 비율에 관심을 두고 연구도 하였다. 2004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1) 오재혁·신지영(2007:210) 참고.

<표준 발음 실태 조사>에서는 체언 말 유기음의 교체 현상이 결합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의 유형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04). 이 조사는 표준어 화자를 세대별, 성별, 학력별로 모두 1124명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작업이었으나 실제 발음을 다룬 것이 아니고 표준발음과 교체형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최근 연구 오재혁·신지영(2007)에서는 체언 말 자음 교체 현상과 동음 충돌이 관련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동음충돌과는 상관이 없고 체언 말 자음 교체 현상은 사용 빈도에 의한 형태 유지 노력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체언 말 자음 교체 현상을 설정성 자음과 비설정성 자음으로 구분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에’, ‘을’, ‘은’, ‘으로’와의 결합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단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2) 연구 대상 단어 목록

/ㅈ/말음 체언 : 낮, 빛, 목젓

/ㅊ/말음 체언 : 꽃, 낫, 빛, 숲

/ㅌ/말음 체언 : 끝, 밑, 별, 솔, 바깥

/ㅋ/말음 체언 : 부엌, 들녘, 새벽녘

/ㅍ/말음 체언 : 앞, 잎, 무릎, 나뭇잎

(2) 단어 목록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것을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ㅈ/말음 체언 3개, /ㅊ/말음 체언 4개, /ㅌ/말음 체언 5개, /ㅋ/말음 체언 3개, /ㅍ/말음 체언 4개 단어로 조사 ‘이’, ‘에’, ‘을’, ‘으로’, ‘은’ 조사가 결합된 문장을 만들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표준어 화자로서 서울, 경기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20대 남자 50명과 여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00명 모두 국어학, 언어학 관련 전공자들은 아니었다.

조사 방법은 대학생들의 표준어 구사 자격과 부모님의 출신 지역, 성별 차이를 알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 체언 말 유기음이 들어가 있는 예문을 2회씩 읽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이것을 녹음하여 직접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였다.

2. 체언 말 자음의 발음 현상

2.1. 체언 말 설정성 자음의 발음

설정성 자음 ‘ㅈ, ㅊ, ㅌ’를 종성으로 가진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에, 을, 으로, 은’과 결합하여 발음되는 현상을 살펴보면 체언 말 자음 교체 현상은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표준발음이 실현된 경우로 체언 말의 설정성 자음 ‘ㅈ, ㅊ, ㅌ’의 발음이 그대로 실현된다. 둘째, 체언 말 자음 ‘ㅈ, ㅊ, ㅌ’이 마찰음 [ㅈ]로 교체되어 실현된 경우이다. 셋째, 체언 말 자음 ‘ㅈ, ㅊ, ㅌ’이 제3의 음소로 실현된 경우이다. 제3의 음소로 실현된 경우라 함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ㅈ/말음 체언이 들어간 /낮 이어서/를 [나치어서] [ㄷ]로 발음한 것과 /ㅊ/말음 체언이 들어간 /낫에/를 [나제] [ㅈ]로

발음한 것 두 가지가 있다. 넷째, 조사 대상의 단어를 잘못 읽었거나 읽지를 않아서 누락된 경우이다.

다음 <표 1>은 이 연구에서 조사한 단어들의 음성 실현 결과이다. 표준 발음 실현이 높은 단어는 ‘꽃’과 ‘끝’으로 각각 88.1%, 88.83%로 다른 단어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낮’ 77.75%, ‘빛’ 72.9%, ‘숯’ 56.63%의 순이다. 가장 낮은 표준 발음 실현 단어는 ‘목젓’으로 5.7%에 불과하였다. 표준발음 실현 비율이 가장 낮은 ‘목젓’의 경우는 교체형 [ㅅ]의 발음 비율이 92.4%로 가장 높았다.

<표 1> 설정성 자음 체언의 실현 양상

단어	표준발음	교체형[ㅅ]	기타 실현율	오실현율 /미실현율
낮	80.33%	7.16%	12%(ㄷ)	0.5%
빛	45.38%	15.12%	38.5%(ㄷ)	1%
목젓	5.7%	92.4%	1.9%(ㄱ)	0%
숯	56.63%	36%	6.38%(ㅌ)	0.75%
꽃	88.1%	8%	3.8%(ㅌ)	0.1%
낮	77.75%	16.25%	6%(ㄷ)	0%
빛	72.9%	19.2%	7.6% (3.9%(ㄷ), 3.7%(ㅌ))	0.3%
끝	88.83%	0.833%	8.17%(ㄷ)	0.5%
별	28.63%	26%	40.87%(ㄷ)	4%
솔	29.13%	41.88%	27.36%(ㄷ, ㅌ) (0.13%(ㅌ), 솔+이)	1.63%
바깥	49.86%	12%	33.13%(ㄷ, ㅌ) (0.13%(ㅌ), 바깥+이)	5%

체언 말 자음 /ㄷ/의 경우 ‘낮’과 ‘빛’을 [ㄷ]로 발음하는 비율이 각각 12%, 38.5%로 교체형 [ㅅ]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현상에 대하여 오재혁(2007:221)에서는 /ㄷ/말음 체언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ㅅ/교체 현상과 같은 교체현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발화 오류인지 혹은 조사한 /노름빛/에서만 나타난 특이한 현상인지 보다 정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보듯이 /ㄷ/말음 체언이 [ㄷ]로 발음하는 것은 엄연히 교체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 그 이유는 표준 발음

2) 본 연구에서 조사한 단어는 ‘한낮은’, ‘낮이어서’, ‘낮에는’ 이었다. 이들의 발음 현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발음	교체형 [ㅅ]	교체형 [ㄷ]
한낮은	60%	15.5%	24.5%
낮이어서	81%	6%	11.5%

로 /ㅍ/말음 체언은 [ㅍ]로 본 자음이 그대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둘째, 체언 말의 교체 현상으로 교체음이 실현된 경우이다. /ㅋ/말음 체언은 [ㄱ]로 /ㅍ/말음 체언은 [ㅂ]로 발음된다. 셋째, 표준 발음도 교체형도 아닌 제3의 자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ㅋ/말음 체언이나 /ㅍ/말음 체언 모두에 공통적으로 [ㅍ]가 첨가되어 나타났다. 즉 ‘부엌을’을 [부엌쑈]로, ‘앞을’은 [압쑈]로 발음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 발음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음 <표 2>는 이 연구에서 조사한 단어들의 음성 실현 결과이다. 표준발음 실현이 높은 단어는 ‘앞’과 ‘있’으로 각각 93.33%, 84.7%로 나타났다. 반면에 /ㅋ/말음 체언의 경우는 표준 발음 비율이 낮고 교체형으로의 실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재혁(2007:226)에서는 ‘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여 원래의 음소인 [ㅍ]로 발음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를 단어의 잦은 사용 결과가 어휘부에 {있}이라는 형태를 강화시키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 형태를 유지하려는 힘으로 인하여 표준 발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의견에 따라 ‘앞’과 ‘있’의 표준 발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은 ‘무릎’에도 적용된다. ‘무릎’은 ‘있’과 ‘앞’에 비하여 저빈도 어휘라 형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약하여 교체형 [ㅂ]로 발음하는 현상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2> 비설정성 자음 체언의 실현 양상

단어	표준발음	교체형[ㅂ]	기타 실현율[ㅍ]	오실현율 /미실현율
부엌	16%	82.9%	1%	0.1%
넙	14.4%	79.5%	6% (5.6%[ㅍ], 0.4%[ㄱ])	0.1%
무릎	20.6%	79.1%	0.3%	0%
앞	93.33%	1.16%	5.33%	0.16%
있	84.7%	13.2%	1.6%	0.5%

/ㅋ/말음 체언의 경우 교체형 [ㅂ]로의 실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ㅋ/말음 체언의 종류는 매우 한정적인데 이 단어 중 대표적인 어근이 ‘넙’과 ‘부엌’이다. 이들 어휘는 저빈도 어휘라 교체형 [ㅂ]로의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부엌을’을 [부엌쑈]로, ‘들넙을’을 [들넙쑈]로 [ㅍ]를 발음하는 비율이 각각 1%, 5.6%나 나타난다는 것이다. ‘부엌’이라는 단어의 형태소를 명확하게 발음하면서 조사 ‘을’을 강조하여 발음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정된다. 특히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 중 특정 조사의 형태에서 [ㅍ]가 실현되는 것은 아닌지 3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3. 모음에 따른 체언 말 자음의 발음 현상

체언 말 자음의 교체 현상은 뒤 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에 무엇으로 실현되는가에 초점

이 놓여있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모음의 유형에 따라 표준발음과 오류발음의 비율에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체언 말 자음이 결합하는 모음의 유형에 따른 발음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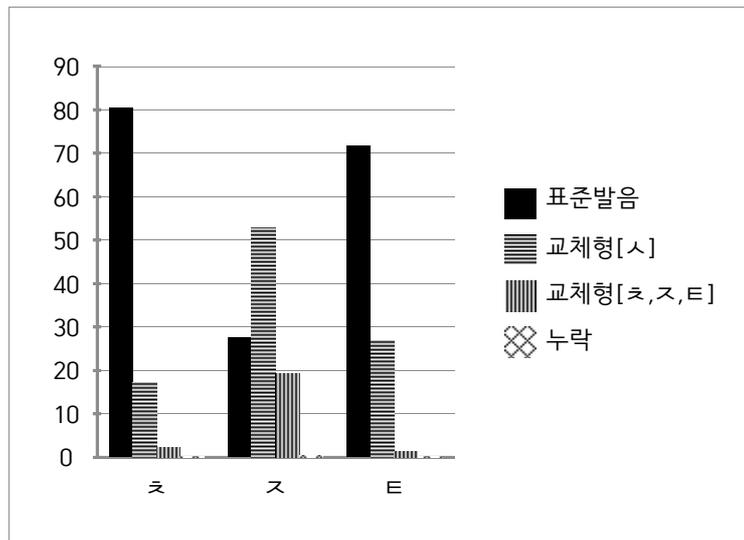
3.1. 체언 말 설정성 자음의 경우

먼저 설정성 자음 ‘ㅈ, ㅊ, ㅌ’ 뒤에 모음이 결합할 때 표준발음의 실현 비율과 교체형 발음의 비율의 정도를 살펴본다.

3.1.1. 조사 ‘이’가 뒤따를 때

다음 [그림 1]은 이 연구에서 조사한 자음 ‘ㅈ’의 ‘숲이, 꽃이, 낮이, 빛이’, 자음 ‘ㅊ’의 ‘빛이, 목젓이’ 자음 ‘ㅌ’의 ‘끝이’, ‘햇별이’, ‘솔이’, ‘바깥이’의 발음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 ‘이’가 뒤따를 때는 표준 발음의 실현 비율이 비교적 높다. 특히 /ㅈ/말음 체언의 경우는 표준 발음의 비율이 80.36%로 다른 자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ㅌ/말음 체언의 경우는 다른 모음에 비하여 조사 ‘이’와의 결합에서 표준 발음의 비율이 71.63%로 높다. 이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이라 생각한다.

<그림 1> 설정성 자음 + ‘이’의 실현 양상



/ㅈ/말음 체언의 경우는 다른 자음과 달리 교체형 실현 비율이 모두 75%로 높다. 이중 교체형 [ㅈ]의 실현 비율이 52.75% 그리고 [ㅊ]의 실현 비율은 19.25%이다.

<표 6> /ㅈ/말음 체언의 실현 양상

단어	표준발음	교체형 [ㅈ]	교체형 [ㅊ]	기타
빛이	48.5%	13%	38.5%	
목젓이	6.5%	92.5%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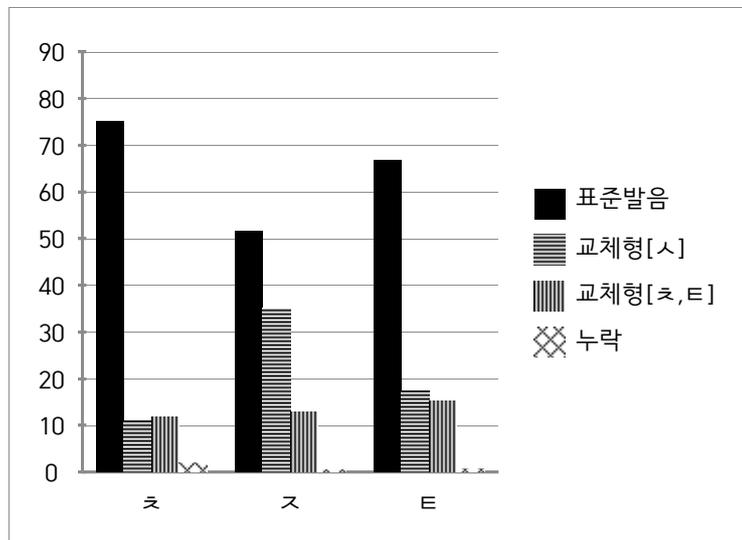
<표 6>에서 ‘빛이’에서 교체형 [ㅊ]로의 비율이 38.5%로 높게 나타난다. 2장에서도 언급하

였듯이 동음이의어를 가진 어휘들은 차후 좀더 자세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⁵⁾ ‘목젓이’의 경우는 교체형 [ㅅ]의 비율이 92.5%로 매우 높으며 교체형 [ㅈ]의 실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3.1.2. 조사 ‘에’가 뒤따를 때

[그림 2]는 설정성 자음 ‘ㄷ, ㅈ, ㅌ’에 모음 ‘에’가 결합된 표현의 발음 양상이다. 모두 표준 발음의 실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ㄷ/말음 체언의 표준 발음 비율은 75.25%, /ㅈ/말음 체언의 표준 발음 비율은 51.67%, /ㅌ/말음 체언의 표준 발음 비율은 66.75%로 나타났다.

<그림 2> 설정성 자음 + ‘에’의 실현 양상



/ㄷ/말음 체언은 교체형 [ㅌ]의 실현 비율이 11.75% 나타났다. 이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ㄷ/말음 체언에서는 [ㅈ]의 실현도 나타났는데 1.63%인데 ‘낮’과 ‘빛’ 어휘에서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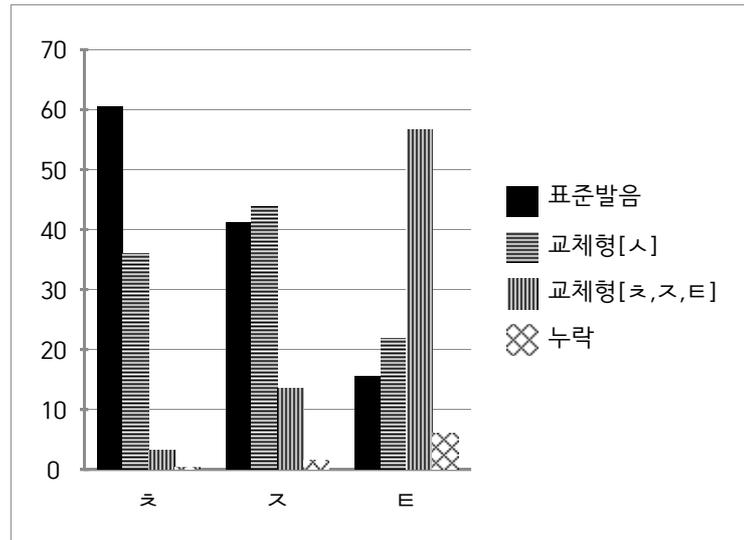
3.1.3. 조사 ‘은’이 뒤따를 때

[그림 3]은 설정성 자음 뒤에 조사 ‘은’이 결합된 표현의 발음 실현 양상이다. /ㄷ/말음 체언과 조사 ‘에’의 결합에서 표준 발음 비율은 75.25%로 가장 높다. 그러나 조사 ‘은’의 결합에서는 조사 ‘에’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ㄷ/말음 체언에서는 표준 발음의 비율이 교체형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ㅈ/말음 체언과 /ㅌ/말음 체언에 조사 ‘은’의 결합에서는 표준 발음 비율보다 교체형의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ㅈ/말음 체언과 ‘은’의 결합에서는 표준 발음이 51.67%, [ㅅ]로의 발음이 48.83%, [ㅈ]로의 발음이 13.5%로 교체형 [ㅅ]로의 발음이 비교적 높다. 다음 /ㅌ/체언 말음과 ‘은’의 결합에서는 표준 발

5) ‘낮+이어서’도 조사 대상 표현이었다. /ㅈ/체언 말 자음은 동일하지만 뒤에 결합하는 모음이 조사가 아니라 어미였다. 이 표현의 경우는 표준 발음 81%, [ㅅ] 교체형 6%, [ㅈ] 교체형 11.5%, 기타 1.5%로 나타났다. 앞으로 음절 끝소리 현상에 의한 동음이의어 발음 조사뿐만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에 따른 발음 차이는 없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음이 15.5%, [츠]로의 발음이 56.67%, [스]로의 발음이 21.83%로 [츠]로의 발음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 발음보다 변이형태의 실현이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림 3> 설정성 자음 + '은'의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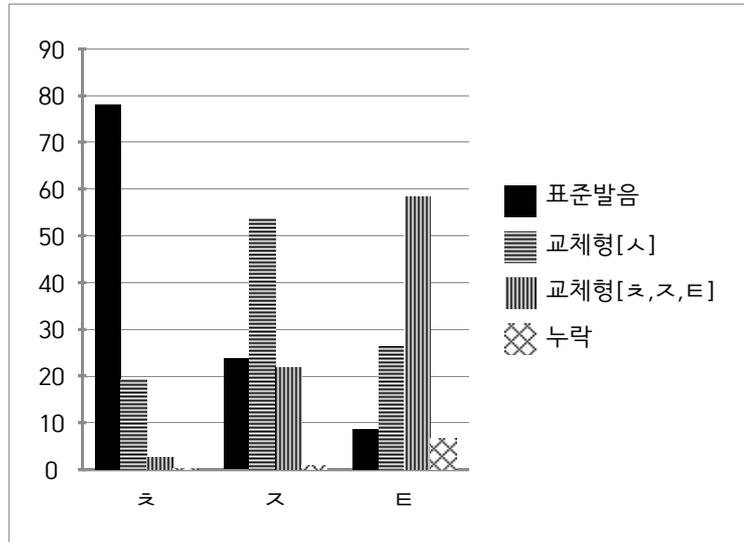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체언 말의 설정성 자음이 조사 '은'과 결합되었을 때 그 발음은 표준 발음보다는 [스]와 [츠]로의 실현이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만약 모음 '으' 때문이라면 조사 '을'과 조사 '으로'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1.4. 조사 '을'이 뒤따를 때

[그림 3]은 설정성 자음 'ㄷ, ㅈ, ㅊ'에 모음 '을'이 결합된 표현의 발음 결과이다. /ㄷ/말음 체언과 '을'의 결합에서 표준 발음의 비율이 7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ㅈ/말음 체언과 '을'의 결합에서는 표준 발음 23.75%, [스]의 실현이 53.75%, [츠]의 실현이 21.5%, [츄]의 실현이 0.25% 나타났다. /ㅊ/말음 체언의 경우는 조사 '을'과 결합될 때 [스]로 실현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ㅊ/말음 체언과 '을'의 결합에서는 표준 발음 8.67%, [스]의 실현이 26.33%, [츠]의 실현이 58.33%로 [츠]의 실현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앞서 다룬 조사 '은'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비율 분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조사 '은'보다 조사 '을'과의 결합에서 [스], [츠]의 교체형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림 4> 설정성 자음 + '을'의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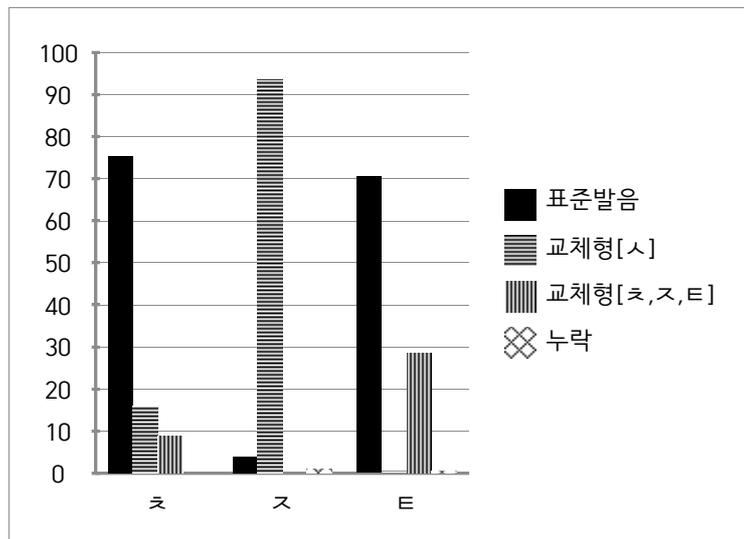


지금까지 [그림 3]과 [그림 4]의 조사 '은'과 '을'의 발음 결과를 보면 체언 말의 설정성 자음이 모음 '으'와 결합하면 표준 발음보다는 [시], [츠]로의 실현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3.1.5. 조사 '으로'가 뒤따를 때

[그림 5]는 설정성 자음에 조사 '으로'가 결합된 표현의 발음 결과이다. 조사 '으로'의 발음 결과는 조사 과정의 부족한 부분이다. /ㅌ/체언 말음의 표현은 '꽃으로', '낮으로', '빛으로'를 조사하였지만 /ㅍ/체언 말음의 표현은 '목젓으로', /ㅍ/체언 말음의 표현은 '끝으로'만을 조사하여 앞의 다른 조사들과의 결과에 비하여 신뢰가 떨어진다.

<그림 5> 설정성 자음 + '으로'의 실현 양상



조사한 결과는 /ㅌ/말음 체언과 '으로'의 결합에서 표준 발음은 75.34%, [시]의 실현은 15.83%, [ㅍ]와 [ㅌ]의 표현은 8.84%로 나타났다. /ㅌ/말음 체언의 경우 다른 조사와의 결

합에서 [ㄷ]와 [ㅈ]의 표현 비율은 3% 이하였지만 ‘으로’와의 결합에서는 8.84%로 다른 조사의 경우와는 달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⁶⁾ /ㅈ/말음 체언인 ‘목젓으로’의 경우는 표준 발음이 3.93%, [ㅈ]의 실현이 93.5%로 나타났다. /ㄷ/말음 체언인 ‘끝으로’의 경우는 표준 발음이 70.5%, [ㅈ]의 실현이 0.5%, [ㅊ]의 실현이 28.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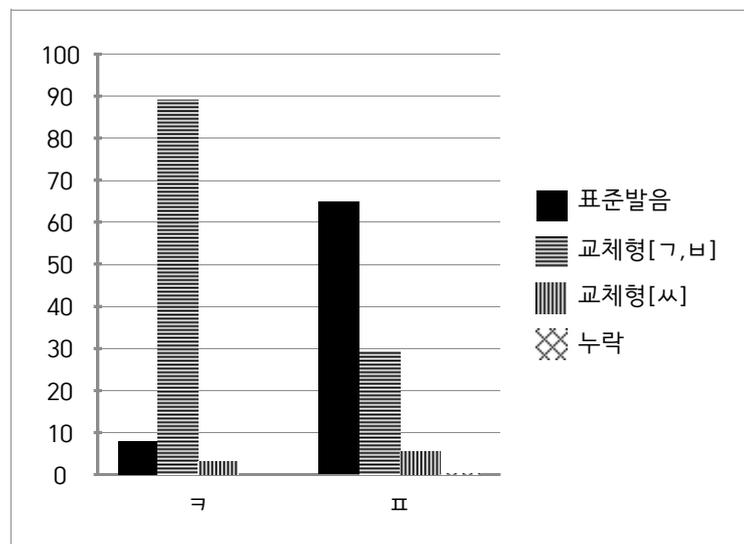
3.2. 체언 말 비설정성 자음의 경우

비설정성 자음 ‘ㄱ, ㅍ’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표준 발음의 실현 비율과 교체형 발음 비율의 정도를 살펴본다.

3.2.1. 조사 ‘이’가 뒤따를 때

[그림 6]은 비설정성 자음에 조사 ‘이’가 결합한 표현의 발음 결과이다. /ㄱ/말음 체언에 ‘이’가 결합한 표현의 표준 발음은 8%, [ㄱ]의 실현은 89%, [부억씨]의 실현은 3%로 나타났다. /ㅍ/말음 체언에 ‘이’가 결합한 표현의 표준 발음은 64.83%, [ㅍ]의 실현은 29.5%, [무릅씨]와 같은 발음은 5.5%로 나타났다.

<그림 6> 비설정성 자음 + ‘이’의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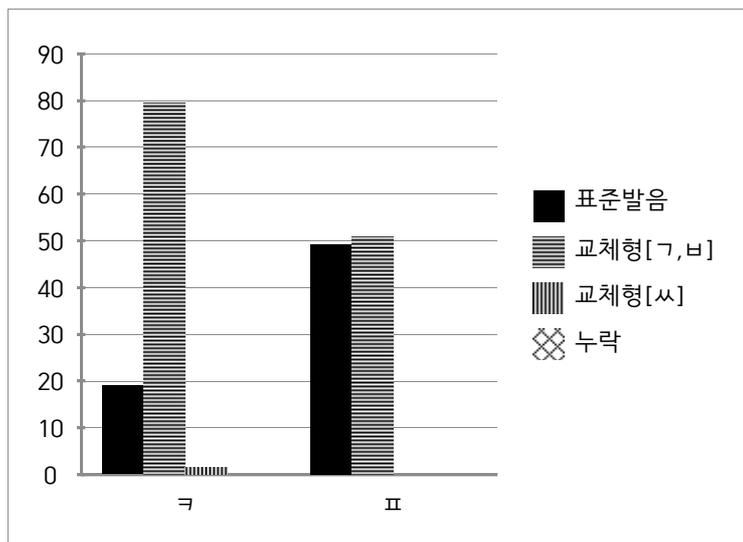


3.2.2. 조사 ‘에’가 뒤따를 때

[그림 7]은 비설정성 자음에 ‘에’가 결합된 표현의 발음 결과이다. /ㄱ/말음 체언과 ‘에’의 결합에서 표준 발음은 19%, [ㄱ]로의 실현은 79.5%, 기타 교체형은 1.5%로 나타났다. 조사 ‘이’와의 결합에 비하여 표준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ㅍ/말음 체언과 ‘에’의 결합에서 표준 발음은 49.25%, [ㅍ]의 실현은 50.75%로 나타났고 기타 교체형은 실현되지 않았다. 조사 ‘이’와의 결합에 비하여 표준 발음 비율은 낮아지고 [ㅍ]로의 발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6) 이에 대한 근거를 좀더 찾아봐야 하겠지만 ‘으로’ 조사가 ‘이’, ‘을’, ‘은’, ‘에’에 비하여 저빈도 조사이기 때문에 화자들이 표현을 똑똑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림 7> 비설정성 자음 + '에'의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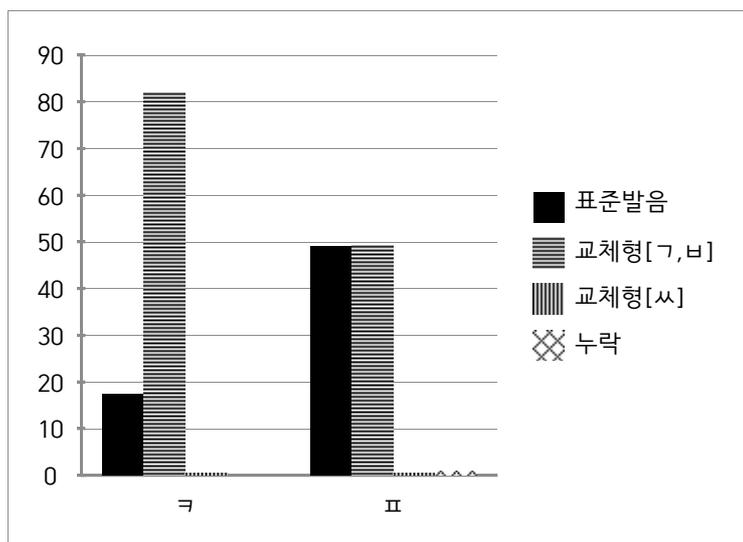


조사 '이'에 비하여 기타 교체형의 실현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2.3. 조사 '은'이 뒤따를 때

[그림 8]은 비설정성 자음에 조사 '은'이 결합한 표현의 발음 결과이다. /ㄱ/말음 체언과 '은'의 결합에서 표준 발음은 17.5%, [ㄱ]의 실현은 82%, 기타 교체형은 0.5%로 나타난다. /ㅍ/말음 체언과 '은'의 결합에서 표준 발음은 49%, [ㅂ]의 실현은 49.5%, 기타 교체형은 0.5%로 나타난다.

<그림 8> 비설정성 자음 + '은'의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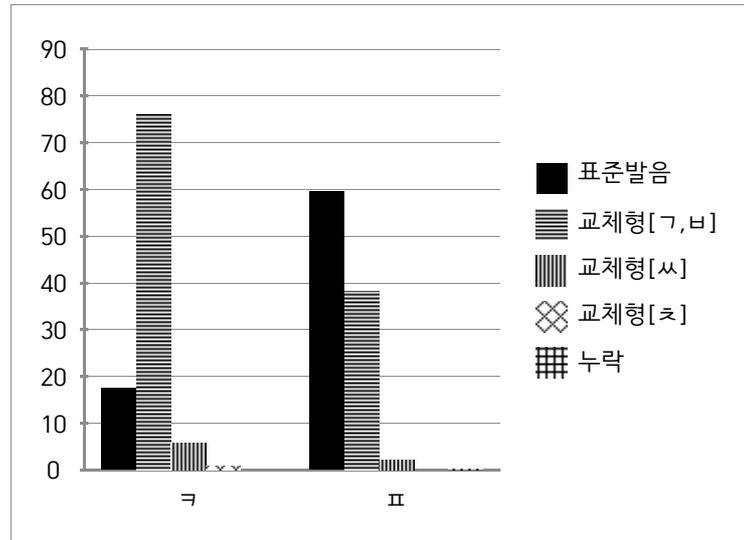


비설정성 자음과 조사 '은'의 발음은 조사 '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3.2.4. 조사 ‘을’이 뒤따를 때

[그림 9]는 비설정성 자음과 조사 ‘을’의 발음 결과이다. /ㄱ/체언 발음의 표준 발음 실현은 17.5%, [ㄱ]의 실현은 76%, 기타 교체형의 실현은 5.75%로 나타난다. /ㅍ/체언 발음의 표준 발음 실현은 59.5%, [ㅍ]의 실현은 38.17%, 기타 교체형의 실현은 2.17%로 나타난다.

<그림 9> 비설정성 자음 + ‘을’의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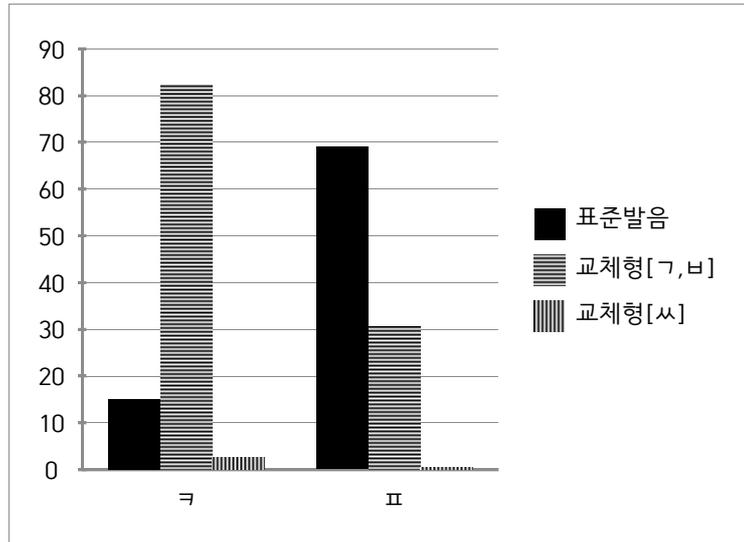
[그림 9]의 발음 결과는 [그림 6]의 조사 ‘이’의 발음 결과와 비슷하다. 즉 조사 ‘이’와 ‘을’ 일 때 기타 교체형의 실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ㅍ/말음 체언의 표준 발음 실현도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2.5. 조사 ‘으로’가 뒤따를 때

[그림 10]은 비설정성 자음에 모음 ‘으로’가 결합했을 때의 발음 결과이다. /ㄱ/말음 체언과 ‘으로’의 결합에서 표준 발음 실현 비율은 15%, [ㄱ]의 실현은 82.5%, 기타 교체형 실현은 2.5%로 나타난다. /ㅍ/말음 체언과 ‘으로’의 결합에서 표준 발음 실현 비율은 69%, [ㅍ]의 실현은 30.5%, 기타 교체형 실현은 0.5%로 나타난다.

조사 ‘으로’에서 기타 교체형 실현 비율은 앞의 조사 ‘이’, ‘을’과 차이가 있다. /ㄱ/말음 체언은 조사 ‘이’, ‘을’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지만 /ㅍ/말음 체언에 있어서는 ‘에’나 ‘은’과 유사하다.

<그림 10> 비설정성 자음 + ‘으로’의 실현 양상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체언 말 자음의 교체 현상을 설정성 자음과 비설정성 자음으로 구분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에’, ‘을’, ‘은’, ‘으로’와의 결합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교체 현상을 보이는 어휘를 선정하여 표준어 화자의 발음 실현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정성 자음 ‘ㄷ, ㅈ, ㅌ’을 종성으로 가진 체언의 음성적 변이형태, 즉 교체형을 마찰음 [ㅅ]만 볼 것이 아니라 [ㄷ]와 [ㅌ], [ㅈ]도 교체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교체형 [ㄷ]는 설정성 자음 전반에 걸쳐 발음이 실현되므로 일반적인 현상이라 말할 수 있으며, 교체형 [ㅌ]는 /ㄷ/말음 체언의 경우에 표현을 똑똑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발음으로 보았다. 교체형 [ㅈ]의 실현은 ‘낮, 낮, 날, 낮’, ‘빛, 빛, 빛’ 등과 같이 중화 현상에 의한 동음이의어를 갖고 있는 단어의 경우에 나타난다.

둘째, 설정성 자음 중 /ㅌ/말음 체언의 경우는 다른 자음과는 달리 교체형 [ㄷ]의 실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구개음화 규칙이 다른 모음까지 영향을 준 ‘유추적 평준화’에 의한 것이다.

셋째, 비설정성 자음 중 /ㅍ/말음 체언 ‘앞’과 ‘앞’은 고빈도 어휘가 형태를 강화시켜 본래 /ㅍ/의 발음 실현율이 높은 것이다.

넷째, 설정성 자음과 조사 ‘은’과 ‘을’의 결합에서 교체형 [ㅅ], [ㄷ]의 실현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조사 ‘이’, ‘에’에서는 표준 발음의 실현율이 높다.

다섯째, 비설정성 자음에서는 조사 ‘이’와 ‘을’의 결합에서 기타 교체형의 실현이 상대적으로 높다.

■ 참고 문헌

- 홍미주(2003), 체언 어간말 (ㄹ), (ㄷ)의 실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한국사회언어학회) 제11권 1호, 사회언어학회. 215쪽~239쪽
- 강희숙(1992), “국어 마찰음화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14, 조선대. 37~50쪽.
- 강창석(1984),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운현상, 국어학 13, 국어학회. 199~228쪽.
- 곽충구(1984), “체언 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91. 1-22.
- 김경아(1992), 체언 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 293~311쪽.
- 배주채(1989), “어간말 자음과 음절말 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
- 박종희 · 권병로(2010), “해례 8종성 ‘ㄹ’의 재구조화 과정”, 한글 289, 한글학회.
- 김경아(1992), “중세 국어 종성 표기 ‘ㄹ’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13~139쪽.
- 박태권(1968), “국어의 받침 표기에 대하여-ㄷ, ㄹ을 중심으로-”, 문창어문학회 Vol.7,
- 오재혁 · 신지영(2007), “체언 말 자음의 교체 현상과 동음 충돌”,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109~232쪽.
- 고광모(1989), “체언 끝의 변화 ㄷ>ㄹ 에 대한 새로운 해석”, 언어학(한국언어학회)11. 3-22쪽.
- 국립국어원. 1998. 『표준 국어 대사전』, 서울:두산동아.
- 국립국어원. 2004. 『표준 발음 실태 조사 3』, 서울:국립국어원.
- 허웅(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 최림식(1990),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 한국어문연구(한국어문연구학회)5, 123~144쪽.
- 배주채(1992),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서울대 국어국문학과)17. 181쪽~204쪽.

번호	표현
1	밤새 숲은 활활타고 새벽녘에 일어난 닭은 요란하게 운다.
2	카드 빛은 많은데 낮이 빠진 그녀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3	마루 밑에서 기어나온 친구는 내 몫을 달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4	빛이 많아서 값을 모른다며 논란 끝에 육탄전으로 끝을 맺었다.
5	부엌이 보이는 곳에서 엄마는 무식함은 알아 못하다고 말했다.
6	들녁을 건다가 목젓으로 삼켰던 말도 못하고 삶은 끝이 났다.
7	빛으로 빛은 백학이 허공을 뚫네
8	서쪽끝으로 가면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있다.
9	숲에 불을 지피니 끓는 물을 조심해
10	술로 목젓을 적시며 날이 밝도록 놀기에는 빌딩 앞이 최적의 장소
11	아침별에 굶은 낮으로 책을 읽는 학생
12	들녁으로 난 창 바깥을 내다보니 노을이 붉습니다
13	새벽녘이면 널따란 입을 밟는 소리
14	들녁에 뺨은 빛을 보려하나 내 시야가 짧지 않느냐!
15	시청 앞에 잔디를 무릎으로 밟도록 뒤
16	바깥에 있는 책상은 낡고 오래됐고 이 거대한 숲은 무겁다.
17	꽃을 예로 들면 다홍빛은 색깔이 옅다
18	하얀 빛에 숲이 넓둥글다
19	열린 문으로 바깥이 보이고 금줄에 숲이 굶습니다
20	무릎은 다쳐 붓대를 감은 바둑이는 내 낮에 초콜릿을 훔고 있다

번호	표현
21	동굴 바깥은 빛이 밝게 보인다
22	살갓에 닿는 별은 따갑다며 시청 앞을 지나며 팔을 굽는 아이
23	방에 난 창으로 보이는 들녘이 넓네
24	한낮은 햇별이 짹짹한데 새가 쉽게도 운다
25	꽃으로 장식한 바깥으로 뛰쳐나가 시를 읊고 있다
26	부엌에서 넓죽한 솔을 닦았다.
27	상을 들고 부엌을 나와 늙지도 않는 할머니께 향했다.
28	무릎에 손을 얹고 내용을 쭉 훑어보다
29	별을 가리는 곳에는 탈색된 꽃에, 시든 잎이 많아서 나의 기분을 떨게 한다.
30	꽃이 피어나듯 앞에는 애끓는 마음이 새겨져 있었다.
31	부엌은 되도록 숨겨야 할 곳, 아버지의 낮을 봐서라도 거기 앉아라
32	숯을 씻은 사람과 솔에 쌀을 안친 사람은 감기 옮겼다
33	빛을 갚을 경우 돈 대신 통닭을 여덟하고도 탕수육으로 갚아라.
34	목젖은 말을 할 때 떨어진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무릎을 치게 한다.
35	낮이 익은 손님이 끊이지 않아, 목젖이 좋아질 수 없어!
36	낮이어서 꽃은 피지만 내 목젖에 걸리는 숨소리는 “끝은 슬프다”고 말해준다
37	낮에는 맑다가 흐려졌다.
38	직접 탄 잎으로 여덟을 더해라.
39	담장 앞으로 튀어나온 잎은 빛에 쪼들리는 우리를 위로했다.
40	

* 40번 문장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체언 말 자음의 교체 현상’ 조사와 무관하므로 빈칸으로 둔다.

▣ 토 론

“체언 말 자음의 발음 실태와 원인 분석”에 대한 토론문

한명숙(안양대)

국어의 체언 말 자음 교체 현상은 같은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으로 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발음 실수 정도로 인식하여 음운론의 대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체언 말 자음 교체 현상이 현대국어에 엄연히 두루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원인에 대한 언어학적인 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표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가는 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이 연구는 체언 말 자음 체계 기술에서 크게 설정음과 비설정음으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연구에서도 설정성 자음을 따로 떼어 연구한 논의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처음부터 이 둘을 구분하여 논의한 것은 이 둘의 결과 차이를 예측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정음과 비설정음이 국어의 교체 현상에서 일반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표 1>에 제시한 설정성 자음 체언의 실현 양상을 보면 설정성 자음과 비설정성 자음으로 구분해서 다룰 이유가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2.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피실험자가 직접 질문지를 읽는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때 피실험자의 발음이 아무래도 표기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부가적인 조사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3. 이 연구에서는 체언 말에서 실현되는 다양한 교체 현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교체형’과 ‘기타 실현율’, ‘미실현율’ 등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분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3.1.1에서 설정성 자음 ㅈ, ㅊ, ㅌ, 뒤에 ㄹ이 결합할 때 /ㅈ/말음 체언의 경우는 다른 자음과 달리 교체형 실현 비율이 모두 75%로 높다고 하였고 그 근거로 다음의 <표 6>

과 같은 설문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표 6> /ㅈ/말음 체언의 실현 양상

단어	표준발음	교체형 [ㅈ]	교체형 [ㅉ]	기타
빛이	48.5%	13%	38.5%	
목젓이	6.5%	92.5%	0%	1%

그런데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어말 자음 ㅈ + ㅣ] 교체 등 어말 자음 교체 현상은 앞으로는 개별 단어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당장 <표 6>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만약 설문 조사에서 ‘낮 + 이’ 항목을 더 추가하거나 <표 6>에서 다른 어휘를 선택하여 조사하였다면 75%라는 평균 교체 실현율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어말 자음에 따른 교체 현상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조사 어휘수가 훨씬 더 큰 규모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해 <표 6>의 결과는 ‘빛+이’와 ‘목젓+이’의 개별 어휘에 대한 교체율을 보이는 것이지 이를 평균한 것이 ‘ㅈ’ 말음 체언 전체의 교체 실현율이라 단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평창방언 성조의 전이적 특징에 대한 연구

-곡용 시 실현되는 성조형을 중심으로-

최영미(경동대)

< 차 례 >

1. 머리말
 2. 연구방법
 3. 평창방언의 성조형 실현
 4.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의 성조형 비교
 5. 맺음말
- 참고 문헌

1. 머리말

이 연구는 평창 방언의 성조체계와 성조형을 기술하고, 정선방언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창방언 성조의 전이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평창 지역은 지리적으로 영서지역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 영동지역에 속하고 있다. 강원도 남부에 있는 군으로, 동쪽으로 정선군, 북동쪽으로 강릉시, 북쪽으로 홍천군, 서쪽으로 횡성군, 남쪽으로 영월군에 접해 있다. 뿐만 아니라 평창 지역의 생활 문화는 영동 방언 특히 강릉 지역 문화권에 속하여, 언어와 지역 문화가 영동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평창방언은 음장방언과 성조방언의 전이 지역으로써 언어적 가치가 크다. 운율을 기준으로 한 강원방언의 방언 구획은 음장 지역, 성조 지역, 준성조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성조 지역은 강릉, 삼척, 영월이고, 준성조지역은 평창, 정선, 고성, 양양이며, 음장지역은 그외 영서 지역이다(방언연구회:2001:1~2). 그러나 준성조지역으로 분류된 정선 방언은 성조방언의 성격이 삼척, 강릉방언과 동질성을 갖는 성조언어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체계적인 운율의 기술 없이 강원방언의 방언구획을 시도한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최영미 2009:35-42). 더욱이 준성조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 내륙 지역 중에 평창 지역은 음장방언과 가장 근접한 지역이므로 언어현실도 음장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준성조방언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언 지역이 아닌가 한다. 운율 유형의 변화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성조언어가 음장언어로 변화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지역 방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배가 된다.

강원방언은 동남방언보다 비성조언어의 특성을 갖는 사실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차균(2006:40)은 강릉방언과 삼척방언에서 거성의 평2형화¹⁾를 언급하고 강릉방언과 삼척방언에서 거성형은 2음절 이상에서 실현되지 않고, 평2형에 합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1) /·□₂/→ /□²·□₀/(2음절 이상의 거성형은 평2형으로 합류한다).

사실을 처음 언급했다. 강릉방언과 삼척방언뿐만 아니라 정선방언에서도 2음절 이상에서 거성형은 평2형에 합류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영미 2009:127~128). 이에 따라 강릉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형은 단음절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다. 즉, 거성형이 단독으로 실현되었을 때, 상성형의 음조형([M])으로 실현된다. 또한 강릉방언과 정선방언의 평복형의 자유변동을 겪기 때문에 평복형은 임의적으로 변이음조형을 가진다. 이에 따라, 하위 평측형(평2형 평3형, 평4형...)들은 변별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앞선 연구에서 강원방언의 성조체계 및 성조형의 변화가 거성형의 평2형화, 평복형의 자유변동 등과 같은 성조규칙으로 말미암아 비성조방언으로 변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평창방언 성조체계와 성조형을 파악하고, 정선방언의 그것과 비교하여 거성형의 평2형화와 평복형의 자유변동 등과 같은 성조규칙이 적용 여부와 정도성을 파악하여 평창방언 성조의 전이적 특징을 설명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 지역 및 제보자

이 연구의 조사 지점은 평창군 진부면 마평2리이다. 1906년 10월에 대화면, 봉평면과 함께 진부면은 행정구역 상 강릉으로부터 이관되었고, 주민들의 생활권도 강릉과 인접하여 춘천, 원주 등과 같은 영서 생활권이 아니라 강릉과 인접해 있으므로 영동 생활권을 갖는다. 즉, 태백산맥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생활권은 영동 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진부면은 강릉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조사지점은 강릉과 직접적으로 인접한 마을은 아니다. 즉, 유천리나 도암면은 1989년에 강릉이나 정선으로부터 진부면으로 편입된 곳과는 달리 진부면 마평리는 대관령면을 사이에 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1> 조사지점



제보자는 평창군에서 3대 이상 거주하고 70대 이상의 토박이 화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보자의 학력은 국졸 이하이다. 그러나 제보자가 명사의 곡용과 동사의 활용에 따른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성조형을 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였다. 진부면 토박이들

은 진부말과 강릉말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평창방언의 소중한 자료를 알려주신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 (1) ㄱ. 주제보자 : 조광현 70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59-2 국졸 (마평리 출생)
 ㄴ. 부제보자 : 권순자 61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59-2 국졸 (막동리 출생)

2.2.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조사 항목은 총 600여 개의 어휘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 명사 항목이 250여 개와 용언이 350여 개가 포함된다. 어휘 항목은 아래 (2)와 같이 곡용과 활용하면서 구성하는 패러다임을 구분하여 성조형을 조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 항목은 문장을 단위로 조사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음성 데이터를 작성하여 어절 단위의 성조 실현뿐만 아니라 문장을 단위로 하는 억양에 대한 후속 연구를 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곡용 시 성조형의 실현을 대상으로 한다.

(2) ㄱ. 명사		ㄴ. 용언	
목·이	/HM/[HM]	먹·지	/HM/[HM]
목·을	/HM/[HM]	먹·고	/HM/[HM]
목·도	/HM/[HM]	먹·나	/HM/[HM]
목·뚜	/HM/[HM]	먹·으·먼	/HM ² /[HMM]
목·에	/HM/[MH]	먹·어·서	/HM ² /[HMM]
목부·터	/H ² M/[MHM]	먹거·든	/H ² M/[MHM]
목까·지	/H ² M/[MHM]	먹더·라	/H ² M/[MHM]
		먹·도·록	/HM ² /[HMM]

조사 방법은 제보자의 집에서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녹음과 기록을 병행하고, 조사가 끝난 후 녹음된 자료를 반복 재생하면서 전사의 정확성을 꾀한다. 녹음은 DAT를 사용하여 음성 데이터를 구축했다. 조사 일정은 5차례의 조사에 걸쳐 실시되었다.

(3) 조사일정 :

- 1차: 2013. 12. 6~2013. 12. 8 (3일간) : 제보자 선정 및 명사 준굴곡형 조사 1
 2차: 2013. 12. 18~2013. 12. 20 (3일간) : 명사 준굴곡형 조사 2
 3차: 2013. 12. 23~2013. 12. 25 (3일간) : 동사 굴곡형 조사 1
 4차: 2014. 1. 10~2014. 1. 13 (3일간) : 동사 굴곡형 조사 2
 5차: 2014. 2. 10~2014. 2. 10 (3일간) : 변동평성 동사 조사 3

2.3. 성조 기술 방법

이 연구는 방점법 이론을 토대로 기술한다. 방점법은 체계 안에서 대립과 분포에 중점을

두고 기저층위와 표면층위로 구분하여 성조를 기술한다. 또한 방점법은 김차균(1977)에서 체계화된 이후 김차균(1991, 1998)에서 다듬어지고 확정되어, 정원수(1994), 이호영(1996), 이문규(1997), 박숙희(2005), 김세진(2006), 최영미(2009) 등에서 검증된 성조 기술 방법이다. 평창방언을 예를 들어 방점법의 성조 기술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립과 중화를 바탕으로 성조소를 찾아 성조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때, 15세기 훈민정음 사성주의 방점법에 따라 평성, 거성, 상성으로 명명한다. 성조소는 각 음절에 얹힌 높낮이 자질로서, 높낮이가 단어의 의미를 분화하는 변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다. 국어의 성조체계는 둘 또는 세 개의 성조소를 가진다. 삼척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의 성조체계도 3개의 성조소로 이루어졌으며, 방점과 성조소의 대응 관계를 제시하면 (4)와 같다.

(4) 성조소의 대응관계

성조 분류	중세국어	삼척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
평성	가장 낮은 음조 /L/ □	고 /H/ □	고 /H/ □	고 /H/ □
추성	거성	가장 높은 음조 /H/ ·□	저 /M/ ·□	저 /M/ ·□
	상성	높아 가는 음조 /R/ :□	고: /H/ :□	저: /M/ :□

둘째, 성조형은 형태소, 단어, 어절의 각 음절에 부여된 성조소의 연결형이며, 형태소, 단어, 어절에 얹히는 높낮이 가락을 지칭한다. 성조 방언에서 모든 성조소가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하지만, 성조방언에 존재하는 성조규칙이나 음조규칙에 따라 성조형은 한정되고 제한되어, 형태소, 단어, 어절의 성조형은 유형화가 가능하다.

셋째, 성조를 음운 층위의 기저층위와 음성 층위인 음조 층위로 분리하여 기술한다. 기저성조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조로 실현되는 성조의 음운과정은 방점형 → /성조형/ → [음조형]의 3단계를 거친다. ‘집, ·몸, :일’이 토씨 ‘이’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정선방언의 음운과정을 예로 보이면 (5)와 같다.

(5) 성조의 음운과정

		어휘	집·이(家)	·몸·이(身)	:일·이(事)
기저층위	단계	기저방점표상	□ + □	·□ + □	:□ + □
		← 성조규칙 ²⁾	당연규칙 ³⁾	중화규칙 ⁴⁾	중화규칙
		↓		·□ ² (중간형)	
		최종방점표상	□·□	□ ²	:□ ²
	성조형	/HM/	/H ² /	/M ² /	
표면층위	단계	← 음조실현규칙 ⁶⁾	평1형 음조실현규칙	평2형 음조실현규칙	상성형 음조실현규칙
		음조형	[HM]	[MH]	[MH]

2) 평창방언의 성조규칙은 중화규칙, {·에} 앞에서 거성의 평성화, 모음 앞에서 상성의 평성화, 거성의 평2형화, 평복형의 자유변동 등이 있다.

(5)에서 기저방점표상은 형태소, 단어가 가지는 고유 성조소의 연결형이고, 최종방점표상은 기저방점표상에 성조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되는 것이며, /성조형/은 최종방점표상을 (4)에 제시한 성조소로 바꾼 성조소의 연속체이다. 또한, [음조형]은 /성조형/에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된 표면층위의 음조의 연속체이다. 또한, 성조의 음운과정에서 성조규칙과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저방점표상이 최종방점표상으로 도출될 때, 적용되는 규칙은 성조규칙이고,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될 때 적용되는 규칙은 음조실현규칙이다.

넷째,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을 표시할 때는 음절수대로 모두 나열하지 않고 생성음운론의 표기 규칙에 따라 로마자 대문자와 소문자,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표기한다. 정선 방언의 5음절 평성형, 거성형, 상성형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6) 평창방언 5음절 성조 실현 표시

구분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	
평성형	평1형	□·□ ⁴	/HM ⁴ /	[HM ⁴]
	평2형	□ ² ·□ ³	/H ₂ M ⁷ /	[MHM ³] ~ [M _H HM ²] ~ [M _H ² HM] ~ [M _H ³ H]
	평3형	□ ³ ·□ ²		
	평4형	□ ⁴ ·□		
	평5형	□ ⁵		
측성형	거성형	(·□ ⁵ →)□ ₂ ·□ ⁿ		
	상성형	:□ ⁵	/M ⁵ /	[MH ⁴]
	음거성형	·□ ⁵	/FH ⁴ /	[FH ⁴]
	음상성형	:□ ⁵	/M ⁵ /	[MH ⁴]

3. 평창방언의 성조형 실현

3.1. 거성형

거성형은 첫째음절이 거성으로 시작되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는 측성으로 중화되는 어

- 3) 당연규칙은(default rule)은 기저방점표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최종방점표상으로 도출될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 4) 중화규칙은 국어의 모든 성조방언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성조규칙이다. 김차균(2006:34)에서는 중화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ㄱ. <<□ —>>의 환경에서 □(평성) 이외의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 ㄴ. <<{·□, :□, ·□, :□} —>>의 환경에서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 5) 거성형의 평2형화규칙은 평창방언에서 2음절 이상의 거성형은 평2형과 함류하는 성조규칙이다. 단, 이 규칙은 공식규칙인 동시에 통시규칙이기도 하다. 평창방언을 비롯하여 정선방언, 강릉방언, 삼척방언에서도 존재한다(김차균 2006:40).
- 6) 평창방언의 음조실현규칙

ㄱ. 단음절

- ① 평성 /H/ → [H̄] /#—#
- ② 거성 /M/ → [M̄] /#—#
- ③ 상성 /M̄/ → [M̄] /#—#

ㄴ. 다음절

- ① 평일형 /HM₁/ → [HM₁], [M_{H 0}H] / #___#
- ② 평복형 /H₂Mn/ → [M_{H 0}HMn] / #___#
- ③ 상성형 /M̄₂/ → [M̄_{H 0}HMn] / #___#

절의 성조형을 말한다. 평창방언의 거성형은 1음절에서만 실현된다. 2음절 이상에서 거성형은 평2형으로 합류한다. 평창방언의 거성형 명사의 성조실현을 보이면 (7)과 같다.

(7) 거성형의 성조 실현

ㄱ. 귀(耳)/M/[M]	
ㄴ. (·귀·가→)귀가	/H ² /[MH]
(·귀·를→)귀를	/H ² /[MH]
(·귀·도→)귀도	/H ² /[MH]
ㄷ. 귀·에	/HM/[HM]
ㄹ. (·귀·부·터→)귀부터	/H ³ /[M _{HH} H]
(·귀·버·터→)귀버터	/H ³ /[M _{HH} H]
(·귀·까·지→)귀까지	/H ³ /[M _{HH} H]

(7)을 보면, 거성형 명사 ‘귀’에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성조의 실현을 보인 것이다. (7ㄱ)은 명사 ‘귀’가 단독으로 실현된 것으로, 성조형과 음조형이 /M/[M]으로 실현된다. 여기서 음조형을 보면 상성형의 음조형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7ㄴ)과 (7ㄹ)은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이 2음절 이상으로 실현된 예다. 즉, (7ㄴ)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되어 평2형으로 실현되고, (7ㄹ)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과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어 평3형으로 실현된 예이다. (7ㄷ)은 명사 ‘귀’가 조사 ‘-에’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평1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1음절 단독 어절로 실현될 때는 거성형은 상성인 음조형 [M]와 같이 실현되어 축성의 성격이 나타나고, 조사 ‘-에’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이 될 때, 거성이 평성으로 바뀌는 것에서 평창방언의 거성형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평창방언에서 거성형 명사와 조사 ‘-에’가 어절을 이룰 때, 거성이 평성으로 변동하는 규칙은 수의적이다. 즉, 거성이 평성으로 바뀌어서 어절의 성조형이 평1형으로 실현되는 것과 거성이 평성으로 바뀌지 않고 평2형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 이처럼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에 있어서 수의성은 다른 성조방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거성의 평성화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8) ㄱ. 이·에	/HM/[HM]
ㄴ. 담·에	/HM/[HH ~ MM]
ㄷ. (·물·에→)물에	/H ² /[MH]

(8ㄱ)과 (8ㄴ)은 거성형 명사 ‘이(齒), 담(牆)’과 조사 ‘에’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평1형으로 실현되어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 반면에 (8ㄷ)은 거성형 명사 ‘물’과 조사 ‘에’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평2형으로 실현되고,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8ㄱ)과 (8ㄴ)은 방점형과 성조형은 같으나 음조형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8ㄱ)의 음조형 [HM]은 고조에서 저조로 많이 떨어지는 음성적으로 떨어지는 평1형이다. 그러나 (8ㄴ)의 음조형 [HH ~ MM]은 첫째음절이 고조이고, 둘째음절이 고조이나 첫째음절보다 조금 낮게 실현된 음조형으로 초점을 받을 때는 [HH]로 실현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MM]으로 실현되는 음조형이다.

7) 평측형에 대한 기술은 후술하겠다.

(8ㄱ-ㄴ)과 같이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는 예와 (8ㄷ)과 같이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9)와 같다.

- (9) ㄱ. [HM] : ·귀, ·금, ·이, ·땅, ·비, ·빛~빛, ·뱃....
 ㄴ. [HH~MM] : ·쌀, ·알, ·엿, ·웃, ·일, ·입, ·잔, ·점, ·칼, ·맛, ·발(足), ·쇠,
 ㄷ. [MH] : ·날, ·물, ·불, ·뿔, ·섬.....

3.2. 상성형

상성형은 첫째음절의 상성으로 시작되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가 중화되어 측성으로 되는 어절의 성조형을 말한다. 상성형의 성조 실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0) 상성형의 성조 실현

- ㄱ. :손(孫)M
 :손·이 /M²/[MH]
 :손·을 /M²/[MH]
 :손·도 /M²/[MH]
 :손·에 /M²/[MH]
 :손·부·터 /M³/[M_HH]
 :손·버·터 /M³/[M_HH]
 :손·까·지 /M³/[M_HH]
 ㄴ. :까·치M²
 :까·치·가 /M³/[M_HH]
 :까·치·를 /M³/[M_HH]
 :까·치·도 /M³/[M_HH]
 :까·치·두 /M³/[M_HH]
 :까·치·에 /M³/[M_HH]
 :까·치·부·터 /M⁴/[M_H²H]
 :까·치·버·터 /M⁴/[M_H²H]
 :까·치·까·지 /M⁴/[M_H²H]
 ㄷ. :그·마·리M³
 :그·마·리·가 /M⁴/[M_HHH]
 :그·마·리·를 /M⁴/[M_HHH]
 :그·마·리·도 /M⁴/[M_HHH]
 :그·마·리·에 /M⁴/[M_HHH]
 :그·마·리·부·터 /M⁴/[M_H²HM]
 :그·마·리·버·터 /M⁴/[M_H²HM]
 :그·마·리#부·터 /M³#HM/[M_HH#HM]
 :그·마·리#버·터 /M³#HM/[M_HH#HM]
 :그·마·리·까·지 /M⁴/[M_H²HM]
 :그·마·리#까·지 /M³#HM/[M_HH#HM]

(10)은 명사 ‘:손, :까·치, :그·마·리’와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어절의 성조형인 양성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10ㄱ)은 1음절 명사, (10ㄴ)은 2음절 명사, (10ㄷ)은 3음절 명사의 예를 보인 것이다. 다만 음조형에서 [H]는 [M]보다는 높고, 뒤따르는 [H]낮은 음조로 실현되는 음조이다. 평창방언에서 양성형은 임의적으로 변이음조형을 갖는다. (10ㄷ)에 제시한 ‘:그·마·리·가, /M’/’를 가지고 양성형 음조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1) ㄱ. [MHMM]
 ㄴ. [MHHM]
 ㄷ. [MH²H]

(11)은 양성형 ‘:그·마·리·가, /M’/’의 음조형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음조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평창방언 화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11ㄱ), (11ㄴ), (11ㄷ)이 결정된다. 삼척방언에서는 (11ㄱ)의 음조형이 우세하게 실현되고, 정선방언에서는 (11ㄴ)의 음조형이 우세하게 쓰인다. 평창방언에서는 (11ㄷ)의 음조형이 우세하게 실현되고, (11ㄴ)은 드물게 실현되며, (11ㄱ)은 아주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10)과 같은 양성형의 성조 실현을 보이는 어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2)
 ㄱ. 1음절 : :골(谷), :말(言), :곰(熊), :공, :짐, :담(膽), :돈, :눈(雪), :손(孫)...
 ㄴ. 2음절 : :까·치, :임·금, :대·추, :거·짓, :췌·미, :개·미, :매·미, :배·차, :안·개...
 ㄷ. 3음절 : :깍·재·이, :굴·베·이, :지·레·이, :호·래·이...

한편, 평창방언에서는 음상성형이 실현된다. 두 개의 평성 모음이 축약되어 음상성이 생성되는데 그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13) ㄱ. 마음(心)H ²		ㄴ. 맘(心)M̃	
마음이	/H ³ / [M H H]	:뎡·이	/M ² / [MH]
마음을	/H ³ / [M H H]	:뎡·을	/M ² / [MH]
마음도	/H ³ / [M H H]	:뎡·도	/M ² / [MH]
마음에	/H ³ / [M H H]	:뎡·에	/M ² / [MH]
마음#부·터	/H ² #HM/[MH#HM]	:뎡#부·터	/M ³ / [M H H]
마음#버·터	/H ² #HM/[MH#HM]	:뎡#버·터	/M ³ / [M H H]
마음#까·지	/H ² #HM/[MH#HM]	:뎡#까·지	/M ³ / [M H H]

(13ㄱ)의 평측형 중에 평2형인 ‘마음’은 첫째음절과 둘째음절이 평성이다. (13ㄱ)의 ‘마음’에 얹힌 두 개의 평성이 (13ㄴ)에서처럼 축약되어 ‘:뎡’이 되는 것이다. ‘:뎡’의 성조형과 음조형은 /M²/[MH]으로 실현된다. 평창방언의 양성형은 /M/과 /M/이 있는데, 이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즉, /M/은 중조의 음역에서 상승을 하는 음조로써 으뜸 양성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M̃/은 두 개의 평성이 축약되어 중조의 음역에서 길게 1.4ms 정도로 실현되는 음조형이다. 전자는 양성형이라 지칭하고 후자는 음상성이라 지칭한다. 이 음상성형은 강릉방언, 삼척방언, 대구방언 등과 같은 동해안 성조의 특징이다.

3.3. 평측형

평측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의 성조가 평성(□)이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가 거성(·□)인 성조형이다. 이때, 어절의 첫째음절 이후 평성의 개수에 따라 평측형은 하위 성조형을 갖는다. 즉, □·□, □·□·□, □·□·□·□ 등은 평1형이고, □□·□, □□·□·□ 등은 평2형이고, ·□□□·□, □□□·□·□ 등은 평3형이다. 평창방언에서 평측형의 성조 실현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4) 평측형의 성조 실현

ㄱ. 닭[닥]H

닭·이	/HM/[HM]
닭·을	/HM/[HM]
닭·도	/HM/[HM]
닭·에	/HM/[HH]
닭부터	/H ³ /[MHH]
닭버터	/H ³ /[MHH]
닭까지	/H ³ /[MHH]

ㄴ. 북[鼓]H

북이	/H ² /[MH]
북을	/H ² /[MH]
북도	/H ² /[MH]
북도	/H ² /[MH]
북부터	/H ³ /[MHH]
북버터	/H ³ /[MHH]
북까지	/H ³ /[MHH]

ㄷ. 감재H²

감재가	/H ³ /[MHH]
감재를	/H ³ /[MHH]
감재도	/H ³ /[MHH]
감재에	/H ³ /[MHH]
감재부·터	/H ³ M/[MHHM]
감재버·터	/H ³ M/[MHHM]
감재까·지	/H ³ M/[MHHM]

ㄹ. 할머이H³

할머이가	/H ⁴ /[MH ² H]
할머이를	/H ⁴ /[MH ² H]
할머이도	/H ⁴ /[MH ² H]
할머이에	/H ⁴ /[MH ² H]
할머이부·터	/H ⁴ M/[MH ² HM]
할머이버·터	/H ⁵ /[MH ³ H]
할머이까·지	/H ⁴ M/[MH ² HM]

(14)는 평측형 명사와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루고, 어절의 성조형이 평측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14ㄱ)의 1음절 ‘닭’은 평1형의 예이고, (14ㄴ, ㄷ, ㄹ)은 평복형의 예이다. 즉, 2음절 ‘북, 감재, 할머이’ 등은 평2형, 평3형, 평4형 등으로 지칭할 수 있지만, 어절의 첫째음절로부터 평성(□)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평복형이라고 지칭한다.

평창방언에서 평측형은 평일형과 평복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14ㄱ)에 제시한 1음절 명사 뿐만 아니라 2음절 명사, 3음절 명사에도 평1형은 존재한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5) ㄱ. 머·리(頭)HM

머·리가	/HM _# H/[HM _# H]
머·리를	/HM _# H/[HM _# H]
머·리도	/HM _# H/[HM _# H]
머·리에	/HM _# H/[HM _# H]
머·리#부·터	/HM _# HM/[HM _# HM]
머·리#까·지	/HM _# HM/[HM _# HM]

ㄴ. 메·누·리HM²

메·누·리가	/HM ² _# H/[HM ² _# H]
메·누·리를	/HM ² _# H/[HM ² _# H]
메·누·리도	/HM ² _# H/[HM ² _# H]
메·누·리에	/HM ² _# H/[HM ² _# H]
메·누·리#부·터	/HM ² _# HM/[HMM _# HM]
메·누·리#까·지	/HM ² _# HM/[HMM _# HM]

평복형은 그 음조형의 실현이 임의적으로 변이음조형을 갖는다. 즉, 평측형의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될 때,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어 평측형의 음조형은 변이음조형을 갖는다. 평복형의 변이음조형가 실현되는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15) 평복형 ‘할머이’의 음조 실현

- ㄱ. 할머이 /H³/ : [MHH](우세) ~ [MHM](드물)
- ㄴ. 할머이가 /H⁴/ : [MH²H](우세) ~ [MHHM](드물) ~ [*MHM²]
- ㄷ. 할머이버터 /H⁵/ : [MH³H](우세) ~ [MH²HM](드물) ~ [*MHHM²] ~ [*MHM³]

(15)를 보면, (15ㄱ)은 평3형으로 두 개의 음조형이 있으며, (15ㄴ)은 평4형으로 3개의 음조형이 있다. 즉, 평창방언 토박이들이 선호하는 음조형인 /H⁴/[MH²H]과 드물게 나타나는 [MHHM]과 실현된 음조형을 발견하지 못한 [*MHM²] 등이다. (15ㄷ)은 평5형으로 4개의 음조형이 있으나 주로 쓰이는 음조형은 [MH³H]이고, 드물게 쓰이는 음조형은 [MH²HM]이다. (15)에서처럼 평창방언에서는 어절의 첫째음절에서 마지막 음절로 차차로 상승하는 음조형이 우세형으로 토박이 화자들이 선호하는 음조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평창방언에서는 음거성이 실현된다. 음거성은 기원적으로 거성형이었던 것이 두 음절이 축약되면서 보상 작용으로 장음화한 성조형을 말한다. 음거성이 실현되는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6) ·꺠

- 추·우·가 → ·꺠가 /HH/[HH]
- 추·우·를 → ·꺠를 /HH/[HH]
- 추·우·도 → ·꺠도 /HH/[HH]
- 추·우·에 → ·꺠에 /HH/[HH]
- 추·우·부·터 → ·꺠부터 /HHH/[HHH]
- 추·우·버·터 → ·꺠버터 /HHH/[HHH]
- 추·우·까·지 → ·꺠까지 /HHH/[HHH]

(16)을 보면, 거성형 ‘·추·우’가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을 적용받아 ‘·추·우’가 되고, 다시 ‘·추·우’가 축약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추·우’가 ‘·꺠’로 축약되고, 조사 ‘가’가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성조형과 음조형이 /HH/[HH]으로 실현된다. [H]은 고조의 높이에서 수평조로 이루어지되, 어절을 구성하는 음절의 높이가 동일하게 실현되는 음조로써, 1mora의 길이를 가진다. 이처럼 기원적으로 거성형이었던 것이 두 음절이 축약되면서 보상 작용으로 장음화한 성조형/H/[H]을 음거성이라 지칭한다. 이 음거성의 실현도 동해안 성조방언의 특징이다.

4. 정선방언과 평창방언의 성조형 비교

3장에서 평창방언에서 실현되는 성조형을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의 성조형을 비교하여 평창방언이 비성조방언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보이는 특

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선방언의 성조는 김차균(1991, 2006)에서 제시한 강릉 방언의 성조체계와 성조형 실현이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다음절에서 거성형이 평측형으로 변화하여, 거성형이 1음절에서만 존재하고, 다음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과 평복형이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어 임의적으로 변이음조형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같다. 즉, 정선방언은 준성조방언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강릉방언과 삼척방언과 같이 성조방언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영미:2009 참조).

4.1. 거성형과 조사 ‘에’의 결합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형은 1음절에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2음절 이상에서 거성형은 평2형과 합류를 해서 평측형과 변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음절 거성형(·□)은 /M/[M]으로 성조형과 음조형이 실현된다. 즉, 1음절 거성형의 음조형은 상성형의 음조형과 같은데, 이는 거성이 상성과 같이 측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1음절 거성형의 실현은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이 다르지 않다.

또한 거성인 명사와 조사 ‘에’가 결합할 때, 거성(·□)은 평성(□)으로 변한다. 이러한 규칙은 중세국어 문헌 성조에서도 적용되는 규칙이다. 다만, 중세국어에서는 예외가 현대 성조방언에서는 예외가 점차 늘어가는 실정이다.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인 명사와 조사 ‘에’가 결합할 때, 거성(·□)은 평성(□)으로 변하는 예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7)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A유형	이·에	/HM/[HM]	이·에	/HM/[HM]
ㄴ. B유형	담·에	/HM/[HH ~ MM]	담·에	/HM/[HM]
ㄷ. C유형	(·불·에→)불에	/H ² /[MH]	(·불·에→)불에	/H ² /[MH]

(17)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17ㄱ-ㄴ)은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된 유형으로, 음조형의 차이를 갖는다. 즉, (17ㄱ)은 고조[H](13Qt)와 저조[M](4Qt)로 실현되어 기본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평1형이다. 반면에 (17ㄴ)은 고조[H](13Qt)와 저조[M](10Qt)로 실현되어 기본주파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평1형이다. 즉, (17ㄴ)의 음조형을 [HH ~ MM]으로 표시한 것은 조바꿈을 하여 성조가 낮게 실현되면 [MM]이 실현되고, 성조가 높게 실현되면 [HH]로 실현되는 특징을 갖는다. (17ㄷ)은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평2형으로 실현된 예이다.

거성인 명사와 조사 ‘에’가 결합할 때,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는 정도성을 비교해 보자. 현대 성조방언에서 거성의 평성화 규칙의 예외가 늘어가는 경향이다.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의 평성화가 실현되는 빈도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8)

	A유형	B유형	C유형	합계
평창방언	7	53	7	67
정선방언	67	발견 못함	13	67

(18)의 표에서 (17ㄱ)의 A유형은 정선방언에서 우세하나 (17ㄴ)의 B유형은 평창방언에서 우세하다. 반면에 (17ㄷ)의 C유형은 두 방언 모두에 드문 편이나 정선방언이 절대적으로 많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평창방언에서 B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실현되는 사실은 그만큼 거성인 명사와 조사 ‘에’가 결합할 때, 거성이 평성으로 변하는 성격을 잃어가는 것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4.2.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의 선호도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평측형은 평일형과 평복형 두 가지가 존재한다. 평일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의 성조가 평성(□)이고, 둘째음절에 거성(·□)이며, 이후 음절의 성조는 측성으로 중화되는 성조형을 말한다. 평복형은 어절의 첫째음절로부터 평성(□)이 둘 이상이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가 거성(·□)이며, 이후 음절의 성조는 측성으로 중화되는 성조형을 지칭한다. 이처럼 평측형 실현에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은 공통점을 지닌다.

평복형은 임의적으로 변이음조형이 실현된다. 이때, 변이음조형은 토박이 화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된다.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된 후 변이음조형의 실현된다. 평복형 3음절과 4음절의 가능한 음조형은 모두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9) ㄱ. 3음절 [MHM], [MHH]
- ㄴ. 4음절 [MHMM], [MHHM], [MHHH]
- ㄷ. 5음절 [MHMMM], [MHHMM], [MHHHM], [MHHHH]
- ㄹ. 6음절 [MHMMMM], [MHHMMM], [MHHHMM], [MHHHHM], [MHHHHH]

(19)에 제시한 가능한 모든 음조가 실현되기도 하지만 토박이 화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변이음조형의 실현 정도성이 결정된다.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평복형 명사 ‘피마주’와 ‘할아버이’의 변이음조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20)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피마주 ⁸⁾ H ³		핀매·주H ² M	
피마주가	/H ⁴ [MH ² H]	핀매·주·가	/H ² M ² [MHM ²]
피마주를	/H ⁴ [MH ² H]	핀매·주·를	/H ² M ² [MHM ²]
피마주도	/H ⁴ [MH ² H]	핀매·주·도	/H ² M ² [MHM ²]
피마주두	/H ⁴ [MH ² H]	핀매·주·두	/H ² M ² [MHM ²]
피마주에	/H ⁴ [MH ² H]	핀매·주·에	/H ² M ² [MHM ²]
피마주부터	/H ⁴ M/[MH ³ H]	핀매·주·부·터	/H ² M ³ [MHM ³]
피마주버터	/H ⁴ M/[MH ³ H]	핀매·주·버·텀	/H ² M ³ [MHM ³]
피마주까지	/H ⁴ M/[MH ³ H]	핀매·주·까·지	/H ² M ³ [MHM ³]
		핀매·주·꺼·짐	/H ² M ³ [MHM ³]
ㄴ. 할아버이H ⁴		할아버·이H ³ M	
할아버이·가	/H ⁴ M/[MH ² H]	할아버·이·가	/H ³ M ² [MHHM ²]

8) 피마주는 피마자의 방언형이다.

할아버이·를	/H ⁴ M/[M _{HH} ² H]	할아버·이·를	/H ³ M ² /[M _{HH} HM ²]
할아버이·도	/H ⁴ M/[M _{HH} ² H]	할아버·이·도	/H ³ M ² /[M _{HH} HM ²]
할아버이·두	/H ⁴ M/[M _{HH} ² H]	할아버·이·두	/H ³ M ² /[M _{HH} HM ²]
할아버이·께	/H ⁴ M/[M _{HH} ² H]	할아버·이·에	/H ³ M ² /[M _{HH} HM ²]
① 할아버이부·터	/H ⁵ M/[M _{HH} ³ HM]	할아버·이·부·터	/H ³ M ³ /[M _{HH} HM ³]
① 할아버이버·터	/H ⁵ M/[M _{HH} ³ HM]	할아버·이·버·텀	/H ³ M ³ /[M _{HH} HM ³]
② 할아버이부·터	/H ⁵ M/[M _{HH} ⁴ H]	할아버·이·부·터	/H ³ M ³ /[M _{HH} HM ³]
② 할아버이버·터	/H ⁵ M/[M _{HH} ⁴ H]	할아버·이·버·텀	/H ³ M ³ /[M _{HH} HM ³]
① 할아버이까·지	/H ⁵ M/[M _{HH} ³ HM]	할아버·이·까·지	/H ³ M ³ /[M _{HH} HM ³]
② 할아버이까·지	/H ⁵ M/[M _{HH} ⁴ H]	할아버·이·까·지	/H ³ M ³ /[M _{HH} HM ³]
		할아버·이·꺼·짐	/H ³ M ³ /[M _{HH} HM ³]

(20ㄱ)은 평복형 명사 ‘피마주’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고, (20ㄴ)은 평복형 명사 ‘할아버이’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다. (20ㄱ)을 보면, 명사 ‘피마주 또는 핀매·주’와 조사가 결합하여 4음절과 5음절 어절을 이루는데, (19)의 4음절과 5음절의 변이음조형 중에 평창방언은 /H⁴/[M_{HH}² H], /H⁴M/[M_{HH}³ H] 등이 실현되고, 정선방언은 /H² M² /[MHM²], /H² M³ /[MHM³] 등이 실현되고 있다. 즉, 평창방언의 평복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에서 끝음절까지 차차로 상승하는 변이음조형이 실현되고 있으나, 정선방언은 둘째음절에 가장 높게 실현되는 변이음조형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평창방언이 차차로 올라가는 변이음조형이 토박이 화자들이 선호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나 어절의 끝음절이 가장 높은 변이음조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20ㄴ)을 보면 평복형 명사 ‘할아버이’의 음조형을 보면, 조사 ‘-부·터, -까·지’가 결합할 때, 평창방언의 토박이 화자들도 어절의 넷째음절이 가장 높은 변이음조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평창방언의 토박이 화자인 부제보자는 80% 이상 평측형의 음조를 첫째음절에서 끝음절까지 차차로 상승하는 변이음조형을 사용하여 발화하였다.

4.3. 평1형과 평복형의 대응관계 불일치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평측형 중에 평1형을 대응관계를 보면, 평창방언이 정선방언보다 더 전이적 특징이 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평성형 명사 ‘술’과 ‘옆’이 조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성조형을 보자.

(21) 평창방언

ㄱ. 술H

술·이[수치]	/HM/[HM]
술·을[수톨]	/HM/[HM]
술·도	/HM/[HM]
술·에[수테]	/HM/[HM ~ HH]
술부터	/H ³ /[M _{HH} H]
술버터	/H ³ /[M _{HH} H]
술까지	/H ³ /[M _{HH} H]

정선방언

술H

술·이[수치]	/HM/[HM]
술·을[수톨]	/HM/[HM]
술·도	/HM/[HM]
술·에[수테]	/HM/[HM]
술부·터	/H ² M/[MHM]
술부·텀	/H ² M/[MHM]
술까·지	/H ² M/[MHM]

ㄴ. 옆H	옆H
①옆·이 /HM/[HM]	옆·이 /HM/[HM]
①옆·을 /HM/[HM]	옆·을 /HM/[HM]
①옆·도 /HM/[HM]	옆·도 /HM/[HM]
②옆이 /H ² /[MH]	옆·이 /HM/[HM]
②옆을 /H ² /[MH]	옆·을 /HM/[HM]
②옆도 /H ² /[MH]	옆·도 /HM/[HM]
옆·에 /HM/[HH]	옆·에 /HM/[HM]
옆부터 /H ³ /[MHH]	옆부·터 /H ² M/[MHM]
옆버터 /H ³ /[MHH]	옆버·텀 /H ² M/[MHM]
옆까지 /H ³ /[MHH]	옆까·지 /H ² M/[MHM]
	옆꺼·짐 /H ² M/[MHM]

(21ㄱ)은 ‘술’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고, (21ㄴ)은 ‘옆’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다. (21ㄱ)의 ‘술’은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모두 평1형으로 성조가 실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21ㄴ)의 ‘옆’은 평창방언의 주제보자는 평1형으로 발화하고 있지만 부제보자는 평복형으로 발화하고 있다. 반면에 정선방언에서는 평1형으로만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평창방언에서 토박이 화자에 따라 동일한 어휘의 성조가 평1형과 평복형 두 가지로 실현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평창방언이 정선방언보다 전이적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1ㄴ)과 같은 평1형의 성조 실현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평창방언에서 나타나고 있다.

4.4. 음상성과 음거성의 실현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두 평성이 축약될 때, 축약에 대한 보상 작용으로 생성되는 성조형과 음조형이 다르다. 즉, 평창방언에서는 음상성과 음거성이 실현되지만 정선방언에서는 음상성과 음거성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를 보여줄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2)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 :ㅉ(心)M	:맘(心)M
:ㅉ·이 /M ² /[MH]	:맘·이 /M ² /[MH]
:ㅉ·을 /M ² /[MH]	:맘·을 /M ² /[MH]
:ㅉ·도 /M ² /[MH]	:맘·도 /M ² /[MH]
:ㅉ·두 /M ² /[MH]	:맘·두 /M ² /[MH]
:ㅉ·에 /M ² /[MH]	:맘·에 /M ² /[MH]
:ㅉ·부·터 /M ³ /[MHH]	:맘·부·터 /M ³ /[MHM]
:ㅉ·버·터 /M ³ /[MHH]	:맘·버·텀 /M ³ /[MHM]
:ㅉ·까·지 /M ³ /[MHH]	:맘·까·지 /M ³ /[MHM]
	:맘·꺼·짐 /M ³ /[MHM]
ㄴ. :ㅉ(冬)H	:추(冬)M
·추·우·가 → ·ㅉ가 /HH/[HH]	:추·가 /M ² /[MH]

·추·우·를 → ·툰를	/HH/[HH]	:추·를	/M²/[MH]
·추·우·도 → ·툰도	/HH/[HH]	:추·도	/M²/[MH]
·추·우·에 → ·툰에	/HH/[HH]	:추·에	/M²/[MH]
·추·우·부·터 → ·툰부터	/HHH/[HHH]	:추·부·터	/M³/[MHM]
·추·우·버·터 → ·툰버터	/HHH/[HHH]	:추·버·터	/M³/[MHM]
·추·우·까·지 → ·툰까지	/HHH/[HHH]	:추·까·지	/M³/[MHM]
		:추·꺼·집	/M³/[MHM]

(22ㄱ)은 평복형 ‘마음’이 축약되어 ‘:툰’이 될 때, 음상성의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22ㄴ)은 기원적으로 거성이었던 ‘·추·우’가 축약 과정 ‘·추·우 → ·툰’을 거치면서 그 보상 작용에 의한 음거성의 실현을 보여준다.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창방언은 두 개의 평성이 축약 과정을 거쳐 그 보상 작용으로서 음상성과 음거성이 실현되지만 정선방언에서는 축약 과정을 겪지만 모두 상성형으로 실현되고 있다⁹⁾.

5. 맺음말

이상에서 평창 방언의 성조체계와 성조형을 기술하고, 정선방언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창 방언 성조의 전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창방언은 성조체계와 성조현 실현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나 정선방언보다 좀 더 비성조방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창방언은 정선방언과 유사한 성조방언으로 판단된다. 평창방언의 성조소는 3개, 평성(□ /H/[H]), 거성(· □ /M/[M]), 상성(:□ /M/[M])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조형은 거성형, 상성형, 평측형(평1형과 평복형)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평창방언에서 거성형은 1음절에서만 인정된다. 그 근거로는 1음절 거성(· □)이 단독으로 실현될 때, 음조형[M]로 실현되는 점과 조사 {-에} 앞에서 거성이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는 것에서 거성의 성격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정선방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또, 평창방언의 가장 큰 특징은 음거성과 음상성이 실현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음거성과 음상성은 동해안 성조방언의 특징적인 성조실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창방언도 아직 성조방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의 성조 실현을 비교하여, 평창방언이 좀 더 전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즉,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의 평2형화 규칙과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창방언에서 평측형 중 평1형의 성조 실현이 토박이 화자에 따라 평1형과 평2형으로 실현되고 있는 점과 음거성과 음상성이 실현되는 점은 평창방언의 성조가 전이적 성격을 더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선방언에서는 일관되게 평1형이 실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평성이 축약될 때 상성형으로 성조가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정선방언의 성조체계와 성조 실현이 더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에 기술한 사실은 평창방언의 곡용에서 보이는 성조실현을 토대로 나온 기술이다. 따

9) 음상성과 음거성의 성조 실현은 변동평성 동사가 활용할 때 실현되는 성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 추후 보충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둔다.

라서 이 논문은 활용의 성조 실현을 분석한 후에 성조실현 내용을 보완하여 평창방언 성조의 실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흥구(2002), 강릉방언 1음절 어간 풀이씨 성조, 『한글』270, 한글학회.
- 김봉국(1998),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국(1999), 삼척지역어의 상승조에 대한 실험음성학적인 고찰, 『관악어문연구』2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원(2003),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동해안 방언의 특성, 『동해안 지역의 방언과 구비문학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김차균(1975), 영남·영동 방언의 성조, 『한글』 155, 한글학회.
- 김차균(1977ㄱ),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차균(1977ㄴ), 어절 성조언어의 기술 방법, 『언어학』 2, 한국언어학회.
- 김차균(198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과학사.
- 김차균(1993), 『우리말의 성조』, 태학사.
- 김차균(1997), 우리말 성조 연구의 성과와 미래의 방향, 『언어』 18,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차균(1998), 『나랏말과 겨레의 슬기에 바탕을 둔 음운학강의』, 태학사.
- 김차균(1999), 『우리말 방언성조의 비교』, 역락.
- 김차균(2002ㄱ), 『국어 방언 성조론』, 역락.
- 김차균(2002ㄴ), 『영호남 방언 운율 비교』, 역락.
- 김차균(2006ㄱ), 『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 비교』, 글누리.
- 김차균(2006ㄴ), 『우리말 성조사 500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국어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 문효근(1969), 영동방언의 운율자질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22,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문효근(1974ㄱ), 한국 방언 성조의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 『연세논업』11, 연세대학교.
- 문효근(1974ㄴ), 한국어 성조의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숙희(2012), 강원 방언 외래어의 성조형, 『어문학』118, 한국어문학회.
- 윤종남(1987), 강릉방언에 대한 초분절음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 외(1991),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학술원 논문집』30, 대한민국 학술원.
- 이상녀(1991), 삼척지역어의 음운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재(2004), 『방언연구-자료에서 이론까지』, 태학사.
- 이익섭(1972ㄱ), 영동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 체계, 『동대어문』 2, 동덕여자대학교.
- 이익섭(1972ㄴ), 강릉방언의 형태음운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진단학회.
- 이익섭(1981), 『영동방언의 언어분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익섭(1981), 『영동방언의 언어분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 최영미(2001), 삼척지역어의 운소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미(2003), 삼척지역어의 장단과 고저에 대한 청취실험 연구, 『국어연구』11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최영미(2009), 정선방언 성조체계와 그 역사적인 변천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미(2010ㄱ), 정선방언 성조의 실험음성학적인 연구, 『겨레어문학』44, 겨레어문학회.
- 최영미(2010ㄴ), 정선방언 ‘가·다’류 동사의 성조형의 변화, 『한말연구』27, 한말연구학회.

- 최영미(2012), 정선방언의 운율유형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73, 어문연구학회.
- 한영균(1991), 강원도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방언구획과 음운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김영배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경운출판사.

▣ 토 론

“평창방언 성조의 전이적 특징에 대한 연구-곡용 시 실현되는 성조형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주연(건국대)

이 연구의 목적은 평창방언 성조체계와 성조형을 기술하고 정선방언과 비교하여 평창방언의 전이적 특징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발표자는 삼척방언의 성조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평창방언으로 성조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어 성조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조사 항목은 총 600여 개의 어휘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 명사 항목이 250여개와 용언이 350여 개가 포함된다. 어휘 항목은 아래와 같이 곡용과 활용하면서 구성하는 패러다임을 구분하여 성조형을 조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 항목은 문장을 단위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사 항목은 평창방언의 성조형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논문에 조사 항목의 선정 기준과 문장 단위의 형태를 밝혀 주신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21ㄱ)의 ‘술’은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모두 평1형으로 성조가 실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21ㄴ)의 ‘옆’은 평창방언의 주제보자는 평1형으로 발화하고 있지만 부제보자는 평복형으로 발화하고 있다. 반면에 정선방언에서는 평1형으로만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평창방언에서 토박이 화자에 따라 동일한 어휘의 성조가 평1형과 평복형 두 가지로 실현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평창방언이 정선방언보다 전이적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1ㄴ)과 같은 평1형의 성조 실현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평창방언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옆’이라는 단어에서 정선방언과 달리 평창방언의 주제보자와 부제보자 2명의 성조가 다르게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보자의 수나 단어의 환경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빈도인지 궁금합니다.

제2부 2분과 발표

질병체험 내러티브 DB 구축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우상수(서울대)

< 차례 >

1. 머리말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의 활용

1. 머리말

질병체험 내러티브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는 학술적 목적과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제1차 자료와 제2차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를 위해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융·복합적 토대연구에 해당한다.

특정한 질병을 체험한 환자 또는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심층 면담방식으로 인터뷰하여 동영상 및 음성자료 형식의 제1차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전자자료화 한 후 분석 평가하여 제2차 자료를 도출한다. 구축된 제1차 DB는 다양한 전공분야 학문연구를 위한 연구기초자료로 제공되고, 분석과 가공의 과정을 거친 제2차 DB는 인터넷 웹사이트(www.healthstory4u.co.kr)와 모바일을 통해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된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2009년 7월부터 진행된 연구로서 현재 당뇨병, 위암, 유방암, 우울증,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된 다섯 가지 질병모듈에 대한 제2차 DB가 구축되어 공개되고 있으며, 5차년 연구년도에 해당하는 현재는 치매모듈에 대한 제2차 DB 구축이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완료되어 사회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질병체험 이야기 DB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정서적 지지망 구축에 일조하고 있으며, 학계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 범주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축적될 자료의 활용가치 또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발표는 인문학 전공자가 주도한 융·복합 연구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통해 학술적 차원의 연구결과의 사회적 환원과 사회적 기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인문학의 전공분야가 다양한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어떻게 사회 공익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단서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적인 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토대구축: 문헌탐구, 연구 및 교육,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인터뷰 매뉴얼 작성
- 자료 확보: 협력기관 섭외, 홍보 및 환자섭외, 연구윤리 관련 업무, 인터뷰 실행

- 자료처리: 전사, 자료 분석 및 범주 설정, 동영상 및 음성자료의 분할 및 클립화
- 웹사이트 구축: 자료게재 및 공개
- 종합평가: 구축한 DB에 대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시행
- DB를 활용한 연구: 질병체험 내러티브 DB를 이용한 언어학적·다학제적 연구 수행
- 국제협력: 질병체험 내러티브 DB 작업을 하는 외국 연구팀과 연구협력관계 구축

2) 연구범위

현대 한국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며 개인의 삶과 가정생활 및 사회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병유형 중에서 당뇨병, 유방암, 위암, 우울증, 호스피스, 치매 등 총 6개의 질병모듈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질병모듈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데이터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각 질병에 대한 체험이야기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야기의 원형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질병이 지닌 특성에 따라서 독특한 고유성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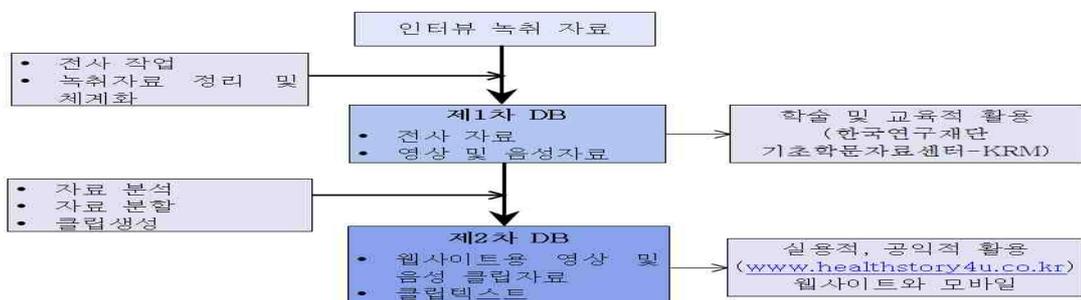
질병체험이야기 DB 구축 연구의 우선적인 연구범위로 설정된 질병 항목과 해당 질병을 설정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당뇨병: 현대인의 대표적 만성질환
- 위 암: 한국인에게서 특히 많이 발병하는 암
- 유방암: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암
- 우울증: 자살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신질환
- 호스피스: 잔여수명이 확인되어 관리 중인 상태 (주로 말기암 환자)
- 치 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노인질환 (환자 및 가족)

3) 연구방법

구축되는 DB는 제1차 DB와 제2차 DB로 구성된다. 제1차 DB는 환자 혹은 환자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보된 동영상 및 음성자료와 전사자료로 구성된다. 이 DB는 언어학적 방법론과 사회과학적 질적 분석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제2차 DB로 구축된다. 제2차 DB는 영상 및 음성 클립자료와 클립텍스트의 형태로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영상 및 음성 클립자료와 클립텍스트는 연구자와 일반인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모듈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제공된다.

제1차 DB와 제2차 DB 구축방법 및 활용방법을 구분하여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연구의 진행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 연구는 총 5년간에 걸쳐 진행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질병체험 내러티브 DB 구축을 위한 제반 준비가 시행되었다. 연구의 토대가 되는 질병체험 내러티브를 녹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터뷰어 및 전사인력이 양성되었고, 제1차 DB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제2차 DB를 도출하기 위하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의 연구방법론을 참고하여 재구성 연구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동시에 당뇨병 모듈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를 시작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모듈인 당뇨병 모듈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웹사이트 (www.healthstory4u.c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당뇨병 모듈 작업을 통해 확립된 연구 프로세스에 따라 위암, 유방암, 우울증, 호스피스 모듈 구축을 위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먼저 각 모듈별로 질병정보 교육 및 전문가 교육, 인터뷰 매뉴얼 작성, 인터뷰대상자 섭외, 롤 플레이를 통한 인터뷰 실행 연습 등 연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인터뷰 실행, 전사, 자료 분석, 영상 및 음성 클립 생성, 클립텍스트 작성 등 모듈 구축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4차년도 연구에서는 3차년도에 시작한 위암, 유방암, 우울증, 호스피스 모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위암과 유방암 모듈은 완성하였으며, 우울증과 호스피스 모듈은 4차년도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완성될 예정이다. 2차년도에 완성된 당뇨병 모듈과 더불어 4차년도에 완성된 모듈들은 지속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4차년도 후반기부터는 본 연구의 여섯 번째 연구 대상인 치매모듈에 대한 예비연구가 시작되었다.

5차년도에는 먼저 4차년도에 수행한 치매 모듈에 대한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질병체험 내러티브 DB 구축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심각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치매와 관련한 질병체험 내러티브의 확보를 위하여 치매질환 경증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당사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치매질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가족을 인터뷰 대상으로 설정하여 섭외 및 인터뷰가 실행되었다. 확보된 1차 DB를 바탕으로 내러티브 인터뷰 분석, 분석결과의 상호주관성 확인, 범주체계의 확립, 동영상 및 음성자료 분할, 분할된 자료 가운데 웹사이트에 게재할 클립 선정, 동일 범주에 속하는 클립들의 주제별 분류, 요약문 작성, 개인력 작성, 텍스트 윤문, 의료전문가 인터뷰 실행과 인터뷰 내용 전사 및 주제별 분류와 클립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제2차 DB가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제1차 DB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며, 제2차 DB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5차년도에는 2차년도에 구축된 당뇨병 모듈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인터뷰를 수행하여 이 모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며, 4차년도에 완성한 위암, 유방암, 우울증, 호스피스 모듈에 대해서도 내부 점검과 내·외부 평가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아갈 이다. 본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질병체험 내러티브 DB 구축 작업이 계속되고 질병체험이야기 웹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5년간 진행된 본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연구 방법론과 연구 성과 등을 총정리하는 연구백서를 발간하여 내러티브 DB 구축과 내러티브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연구진행 단계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1년차	질병체험 내러티브 자료구축을 위한 준비 및 예비연구(당뇨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이론과 방법론 구축 자료수집과 가공을 위한 교육 예비연구로서 당뇨병 모듈 10 사례 시행
2년차	당뇨병 질병체험이야기 자료수집 및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뇨병모듈 인터뷰, 전자 자료 확보, 분석, 가공 제1차 DB 구축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설계 제2차 DB 구축 및 당뇨병 모듈 웹사이트 오픈
3년차	위암, 유방암, 우울증, 호스피스에 대한 질병체험 내러티브 DB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 실시 및 인터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듈별 인터뷰 준비 교육 인터뷰 매뉴얼 작성 인터뷰 대상자 섭외 인터뷰 실시, 전자, 자료 분석 웹사이트 평가 등
4년차	위암, 유방암, 우울증, 호스피스 모듈 완성 및 치매모듈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뷰 실시, 전자, 자료 분석 4개 모듈의 제1차 DB 구축 범주 설정 및 클립 생성 제2차 DB구축 및 4개 모듈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치매모듈 준비작업
5년차	치매모듈 완성 및 기존 모듈들 수정·보완 연구 성과 확산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모듈 완성 및 수정·보완 웹사이트 완성 연구결과 평가와 홍보 다학제적 연구 및 국제적 협력 후속 연구를 위한 방안 마련
후속연구	연구결과의 공익적 활용과 후속 연구의 바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사이트의 유지 관리 및 개선 다양한 질병유형에 대한 질병체험 내러티브 DB 구축 시도

3.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의 결과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학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학술적·교육적 측면

- 질병체험 내러티브 데이터베이스는 인문학, 의학, 간호학, 가족치료학 분야 등에서 질병

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 최초로 구축되는 질병체험 내러티브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 입말 코퍼스이자 내러티브 코퍼스이며, 이 코퍼스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입말이나 내러티브를 연구할 때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질병체험 내러티브 데이터베이스는 경험을 이야기로 구성해 내는 담화 전략에 관한 학용론적 연구를 위한 코퍼스로 활용될 수 있다.
- 여러 국가의 연구팀들이 동일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질병체험 내러티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내러티브 구성과 전략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간 대조연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질병체험 내러티브 데이터베이스는 질병의 경험과 질병에 대한 대처 방법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연구하는 데도 활용될 것이다.
- 질병체험 내러티브 데이터베이스는 의료보건 분야에서 환자 중심적 진료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본 연구팀은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나 질적연구학회 등 관련 학술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질병체험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결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 사회적·공익적 측면

- 질병체험 내러티브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웹사이트인 『질병체험이야기』는 신뢰성과 공신력을 갖춘 웹사이트로 자리매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에게 질병체험과 극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사회적·정서적 지지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 본 연구팀이 구축한 웹사이트인 『질병체험이야기』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건강관련 정보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질병체험 내러티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본 연구는 질병체험 관련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적 기구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보건복지정책 입안자들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국제협력 측면

- 본 연구팀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 및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연구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통하여 연구방법론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 또한 본 연구팀은 2010년 4월부터 DIPEX International에 가입하여 질병체험 내러티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국제연구협력모임이 2013년 1월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하는 데에도 기여하여, 현재 이 기구의 초대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 연구팀들과의 국제협력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토론

“질병체험 네러티브 DB 구축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전영란(성균관대)

데카르트와 이원론은 몸과 정신, 감정과 이성, 자연과 과학의 상이성을 주장한다. 이들의 차이는 상호보완적이기 보다 위계적인 관계, 권력과 지배로 위치짓고 있으며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과학과 기술의 합리성, 객관성, 통계적 사고는 인간의 몸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필연적인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연장시키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질병과 관련한 의사의 위치는 환자보다 상위에 놓이고 치료과정에서 지배적인 역할과 담론을 주도하게 되었다. 반면, 인간의 몸과 감정은 객체화되고 분화되었으며 물화의 대상이 되었다. 질병은 몸의 일부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으로 관찰되어지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물화된다. 정상과 학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몸은 타자화되고 주변화된다. 인간의 감성, 감정은 억제되어야 할 대상이며 정신적 사유보다 저급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평가한다. 환자의 주체성은 소멸하고 주관성은 배제되었다. 과학의 합리성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작용력으로서 특정 성(Gender)을 차별한다.

니체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 “나는 몸이며 영혼이다.”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몸과 정신은 하나이며 동시에 존재하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주체이다. 몸은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힘의 근원이다. 또한 몸은 주체적인 정체성 구현의 터전이며, 몸과 영혼은 끊임없이 관계론적인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회귀와 복구, 가치의 균형회복이 필요하다.

인간은 커뮤니케이션하는 존재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전달하고 경험을 이해하며 삶의 존재의미를 찾는다.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몸은 불균형의 상태로 인간의 의식과 삶을 지배한다. 환우는 고통과 두려움, 사회관계, 삶의 계획과 죽음에 집중하게 한다. 누구나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해도 죽음과 대면하는 일은 수월하지 않다. 반면, 환우가 질병을 담대하게 수용하거나 극복하는 경우 주변사람들의 응원과 격려, 같은 질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의 정보교류가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주체적 인간으

로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배려하는 일은 중요하다. 삶의 여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아픔, 갈등의 과정이 다른 이들과 공유되고 나눌 때 수용, 공감, 극복의 힘은 배가되는 까닭이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배제되고 주변화되었던 환우들의 몸과 감정을 중심으로 담론을 전개한다는 데서 그 의미와 가치가 상당하다. 환우들이 함께 구축한 집단 지성으로서 DB가 확장되어 보다 유용하고 내실있는 공동체의 담론장이 되었으면 한다.

스피치를 위한 입말의 특성 연구

한성일(가천대)

< 차례 >

1. 머리말
 2. 스피치에 적합한 입말체의 필요성
 3. 입말의 특징과 스피치에의 적용 가능성
 4. 맺음말
- 참고 문헌

1. 머리말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이때 말과 함께 고저, 장단, 강약, 속도, 음량 등의 음성 표현과 표정, 몸짓, 눈맞춤 등의 몸짓표현 등이 메시지 전달에 관여했지요.

그런데 문자가 만들어지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출판물의 대량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졌고 사람들은 말이 아닌 문자를 통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쓴이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인 표현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으며, 글말(文語, written language)이 만들어졌습니다. 월터 J. 옹(1982)이 말한 대로 글말은 우리의 의식을 재구성하여 추상적 사유를 가능케 하고, 과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쓰기를 배우면서 그 사회의 글쓰기 문법을 배우게 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과 공간 속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읽고, 쓰는 교육에 집중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교육은 소홀했습니다. 대학에서도 글쓰기 교육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말하기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성균관대학교의 <스피치와 토론>1)과목은 대학의 말하기 교육을 선도했고, 커다란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목이 개설된 후 교수진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모델이 전무했기에 대학에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수진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학생들이 스피치²⁾를 준비할 때 스피치 전문을 작성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

1) <스피치와 토론>은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의 의사소통영역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으로 2학점 3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6명을 정원으로 하는 실습위주의 과목으로 학생들은 자기소개 스피치(3분), 정보제공 또는 설득스피치(5분), 아카데미식 토론(조별토론)을 수행합니다. 학생들의 스피치와 교수의 피드백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모든 내용이 녹화 저장되어, 학생들은 자신의 스피치와 토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입생의 70%정도가 이 수업을 수강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영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입니다.

략의 개요만 작성하게 한 후, 실제 발표에서 살을 붙여가며 스피치를 하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수자에 따라서는 후자의 방식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스피치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자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경우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스피치를 처음 접한다는 점, 공적인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갖춘 말하기라는 점, 사전에 준비가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피치 전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피치를 위한 대본을 글쓰기와 같은 글말로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적인 상황에서 격식을 갖춘 말하기는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입말에 비해 보다 짜임새 있게 다듬어지는 글말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청중 앞에서 표현하는 스피치는 당연히 입말과 몸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발표 후 피드백에서 이런 점들을 계속 강조했고, 학생들에게 글말을 입말로 바꿀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입말로 어떻게 바꾸나요?” “왜 이게 입말인가요?” “입말과 글말은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늘 직관으로만 두루뭉술 답변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 자신의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연구라고 할 만한 성과를 제시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입말과 글말의 특징에 대한 앞선 연구들을 소개한 후에 스피치에 적합한 입말의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의 스피치 사례를 통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 완성된 연구도 아니고, 원고고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글도 거칠고, 짜임도 엉성하며 분석도 날카롭지 못합니다. 그저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하는 아이디어 수준의 발표라는 점을 밝힙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스피치에 적합한 입말체의 필요성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입말과 글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language)은 먼저 입말(口語, spoken language), 글말(文語, written language), 몸말(身體語, body language)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미형(2004: 28)에서는 입말을 ‘말의 의사소통 행위로서 표현한 언어(사람들이 말을 하는 양식으로 쓴 말의 언어)’로 글말을 ‘글의 의사소통 행위로서 표현한 언어(사람들이 글을 쓰는 양식으로 쓰는 글의 언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말의 유형은 상호작용의 작용에 따라 ‘양방향성 담화’와 ‘일방향성 담화’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을 격식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격식’과 ‘비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김형정, 2002: 243).

이 연구에서 다루는 스피치는 공공의 영역에서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공적인 주제에

2) 여기서 ‘스피치’는 공공의 영역에서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공적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말로서 전달하는 소통행위를 의미하는데 ‘발표, 연설, 웅변 강연’등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철 외, 2014: 21).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말로서 전달하는 소통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격식을 갖춘 담화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기소개 스피치의 경우, 정보제공스피치나 설득스피치에 비해 덜 격식적일 수는 있지만,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격식을 갖춘 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스피치는 일상의 대화처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내용과 짜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실현됩니다. 따라서 스피치 대본은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짜임새 있는 글말체로 작성되는 것인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스피치는 음성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말의 특성도 지닙니다.

이렇게 보면 스피치 대본은 입말체와 글말체가 혼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일 외(2004: 3-4)에서도 일상대화의 순수 입말자료와 달리 '말해지기 위해 쓰인 자료'인 연극, 영화, 방송드라마 대본을 '준-입말자료'로 분류하고 있는데, 스피치 대본도 이러한 '준-입말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피치 대본을 보면 사전에 준비되기 때문인지 전체적인 짜임이 입말과 달리 체계적이고, 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사나 어미의 생략 등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종결어미의 경우도 대개 완결된 형태로 나타나며, 격식체의 합쇼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글말체의 특성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피치를 위한 대본이 글쓰기 원고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스피치를 위한 대본을 작성할 때, 일단 글말로 원고를 작성한 후, 그것을 읽어가면서 입말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학습자가 '읽기'와 '말하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습자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피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태도는 말하기는 화자와 청중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 방식이라는 기본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언어 외적인 요소, 다시 말해 비언어적 요소와 준언어적 요소가 음성언어와 함께 어우러져 스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연사는 말하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청중과의 소통에서 음성언어와 비언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소리내어 연습해야 합니다. 침과 휴지, 억양과 강약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대본 작성에 그대로 반영하여 입말체의 대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1) 가.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겠어.

나. 니가 책임지고 하는 게 좋겠어.

(1가)가 격식을 갖춘 글말체라면 (1나)는 비격식적인 입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치를 위해 필요한 대본을 작성할 때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스피치는 공적인 말하기로 격식을 갖추어야 하니까. (1가)처럼 쓰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1나)처럼 말할테니까 (1나)처럼 써야 할까요?

다음은 이창덕 외 율김(2008: 4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말체와 입말체의 차이³⁾입니다.

3) 스피치의 입말체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글말체와는 다릅니다. 입말체에서는 잉여성이 많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청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화자는 반복을 사용합니다. 입말체에서는, 방향 보여주기(signposting), 중간 요약하기(internal summaries), 다음 예고하기(internal previews) 등과 같이 그 말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유창성 기제들이 존재합니다(이창덕 외 율김, 2008: 411-412).

<표1> 글말체와 입말체의 차이

글말체	입말체
위에 언급한 것처럼	좀 전에 말했듯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개인을 피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사람을 피할 수 없어요.
피실험자는 임의로 통제 집단에 혹은 세계의 실험 집단 중 한 집단에 할당하였다. 주제에 대한 처음 태도를 사전에 조사했다. 실험 집단이 세 가지 수준의 위협 소구 중 한 가지를 포함한 설득적 메시지를 받은 후에 사후 텍스트가 진행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처음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피실험자를 네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네 그룹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 세 집단은 설득적 메시지를 듣게 했어요. 한 집단은 높은 수준의 위협 소구를, 다른 한 집단은 중간 수준의 위협 소구를, 나머지 한 집단은 낮은 수준의 위협 소구를 포함한 설득적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네 집단의 태도를 사후 조사했어요. 물론 메시지를 받지 못한 통제 집단도 함께 사후 조사를 했지요.

위 표를 보면서, 여러분은 글말체와 입말체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직관적으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략 글이라는 공간적 상황에서 사용된 ‘위’를 말이 이뤄지는 시간적 상황에 알맞은 ‘좀 전’으로 바꾸고, ‘언급’, ‘개인’이라는 한자어를 쉬운 ‘말’, ‘사람’으로 바꾸고, 높임말을 사용할 수 없는 글말의 ‘-다’ 종결형을, 상대방을 높이는 ‘해요’로 바꾸고, 세 번째 사례에서처럼 쉽고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한 것 등이 입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피치에 어울리는 입말체의 모습을 찾아야 하고⁴⁾,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입말체의 모습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드러나야겠지요.

3. 입말의 특징과 스피치에의 적용 가능성

이 장에서는 앞선 연구들에서 밝힌 입말의 특징⁵⁾을 소개하고, 이러한 특징이 스피치 대

4) 언어 연구는 주로 글말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연구 범위도 글말 중심의 어휘 연구와, 개념적이고 정형화된 통사론적 범위 내에 머무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의 대부분은 입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현되는 양상 또한 지금까지의 글말 중심의 어휘론 및 통사론적 기준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글말과 입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한국어 문법 기술을 위해서는 한국어 입말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서 일견 불규칙과 오류의 뭉치로 보이는 입말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서 유형화하고 그 기능을 밝히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김형정, 2002: 242).

5) 노대규(1996)에서는 입말은 다양성, 즉각성, 친교성, 표현성, 포함성, 구체성, 순간성, 동태성, 모호성, 비논리성, 비격식성, 그리고 상황의존성 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글말은 단순성, 계획성, 제보성, 서술성, 분리성, 추상성, 영구성, 정태성, 명시성, 논리성, 격식성, 문맥 의존성 등을 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일반적 경향일 따름이라고 생각합니

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입말의 특징은 특별한 분류기준 없이 나열했음을 양해바랍니다.

3.1. 줄임 표현

입말은 발화 시간을 빨리 해야 전달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되도록 늘임말 보다는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김미형, 2004: 54)

- (2) 가. 내가 사과할 거라고 생각마
나. 이번 시험에서 철수가 일등 했대.

(2가)의 ‘거’는 ‘것이’의 줄임 표현으로 글말에서는 ‘것이다’로 써야하는데 격조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2나)의 ‘했대’ 도 ‘했다고 한다’의 줄임 표현입니다.

그런데 스피치 대본에서는 이러한 줄임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말하기에서는 연사가 말을 줄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대본에 쓴 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입말로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스피치 대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줄임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것입니다.

- (3) 해커가 그 사진 파일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것이였습니다(→겁니다.)

<정보제공스피치 학생 대본>

3.2. 조사

순수 입말자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건일·권재일(2004)의 따르면 입말 자료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21.32%로 글말 자료의 2.75%에 비해 훨씬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보조사 보다 격조사의 생략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입말과 글말의 조사 생략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입말과 글말에서의 조사 생략의 차이를 박석준 외(2003)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격조사 중에서도 특히 글말과 입말의 큰 차이는 관형격 조사와 목적격조사 그리고 인용격 조사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입말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이지 않고 ‘명사+명사’의 명사구 구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목적격 조사의 경우에도 입말에서는 생략이 자연스러운데 비해 글말에서는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부사격 조사 ‘에게’와 ‘한테’의 경우는 입말과 글말에서의 사용 빈도가 정 반대로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말 텍스트에서 ‘에게’는 3.55%, ‘한테’는 0.29%로 나타난데 비해, 입말 텍스트에서 ‘에게’는 0.23%, ‘한테’는 5.22%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입말에서는 ‘한테’ 대신에 ‘더러’나 ‘보고’가 쓰이기도 합니다.

접속조사의 경우, ‘과/와’는 글말체 접속조사이고 ‘랑/이랑’ ‘하고/하구’는 입말체 접속조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 (3) 가. 나랑 우리 언니랑은 (나이 차가) 두 살이구...

다.

나. 한국하구 러시아 축구 하는 거 나오는데.

보조사의 경우 ‘요’는 대표적인 입말체 보조사로 글말에서는 전체 보조사 사용 빈도의 0.1%인데 비해, 입말에서의 ‘요’의 사용 비율은 1.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입말의 경우 비격식 두루높임해요체가 일반적이고 글말의 경우는 격식체의 ‘합쇼체’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야말로/야말로’ ‘는커녕/커녕’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말 텍스트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조차’, ‘마저’, ‘나마’ 등의 보조사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살핀 입말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징은 스피치 대본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가. 교환학생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학교 홈페이지와 국제처, 그리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통해 교환학생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나. 저에게는 여름이면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선크림입니다. 여자들에게는 친근한 이름이지만 남성분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제공스피치 학생 대본>

(4가)를 보면 앞서 살핀 입말의 특성과 달리 관형격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지 않았고, ‘와’와 같은 글말체 접속조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나)를 보면 ‘에게’와 같은 조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피치 대본에서 조사는 입말보다는 글말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3. 어미

대학생 입말 텍스트를 분석한 박석준 외(2003: 156-158)에 따르면 연결어미의 실현 비율은 입말과 글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입말에서 상대적으로 사용 비율이 높은 연결 어미로는 ‘면’과 ‘는데’가 있습니다. 이들 연결어미는 입말에서는 10%가 넘는 비율이 나타나지만 글말에서는 3.48%만 나타납니다. 또한 입말에서는 ‘는데/은데/ㄴ데’의 사용 빈도가 높고, 글말에서는 꽤 많이 사용되는 ‘며/으며’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은경(1999)에 의하면 ‘-므로, -자, 었자, -거니와, -되, -르지라도, -거든, 고자, ㄴ들, -느니, -다시피, -르지언정, -련만, -기로서니’ 등의 연결어미도 글말에서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종결어미⁶⁾의 경우 입말 텍스트에서 비격식체의 종결어미가 사용되는 비율이 글말 텍스트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글말에서는 ‘다/는다’와 ‘습니다/습니다’의 격식체 종결어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면 입말 텍스트에서는 비격식체 종결어미인 ‘어’ ‘야’ ‘지’ ‘잖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박석준 외, 2003: 159). 스피치는 격식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스피치 대본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격식체인 ‘합쇼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경현

6) 장경현(2003: 156)에 의하면 종결어미 ‘-리라, -노라, -나가’ 등과 하오체 계열의 어미 ‘-오/-소’ 등은 입말 텍스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2003: 161)에 따르면 ‘-어요’나 ‘-어’와 같은 ‘해요체’ 또는 ‘해체’ 같은 비격식체의 사용이 더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화자의 인식 양상이 직접적으로 청자의 인식 양상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 가.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나.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스피치 대본에서는 합쇼체를 기본으로 하고, 해요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중에게 묻고 답하는 부분에서는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6) 여러분! 나는 저작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인터넷에서 돈을 내지 않고 MP3나 영화, 드라마를 다운 받은 적이 없다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정보제공스피치 학생 대본>

그런데 해요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도, 다수의 청중앞에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스피치에서는 바람직할 지는 의문입니다.

(7)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어색한 사람 혹은 처음 보는 사람과 단둘이 만나는 일은 정말 자주 일어나요. 그때마다 어색함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면 인간관계에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꼭 인간관계가 아니더라도 불편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닐 거예요. 전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사람들은 만나서 쉽게 친해졌어요.

전성어미의 경우 글말 텍스트의 사용 비율이 입말 텍스트의 사용 비율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입말에서는 글말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내포문을 덜 만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형사절 내포문 구성이 입말에서 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박석준 외, 2003: 161) 김미형(2004: 49-50)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관형사절 내포문 구성이 입말에서는 어색하기 때문에 계층적인 관형절을 그냥 평면적인 문장으로 풀어서 연결해 나가는 방식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가. 평면적 개념인 구도보다 넓은 의미로 쓰인다.

(→ 구도는 평면적 개념인데, 이보다 넓은 의미로 쓰여.)

나. 문학적 행위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징 행위이다.

(→ 문학적 행위란 상징 행위인데,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지.)

3.4. 접속 부사

글말 텍스트와 입말 텍스트에서 실현되는 접속 부사의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을 전영옥(2007)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말에서의 접속부사와 글말에서의 접속부사는 접속부사로의 공통의 영역이 있고, 말과 글이라는 실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 쓰임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 입말에서 접속부사는 담화표지의 역할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글말보다 약 2.5배 많이 나타납니다. 글말은 구의 결합이나 절의 결합으로 복잡한 통사적 구성을 보이며 연결은 접속어미에 많이 의존하는 데 비해, 입말은 단문의 구성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그 연결은 접속부사에 많이 의존합니다. 접속부사는 입말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있고, 글말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입말에서 주요 사용되는 접속부사는 빈도수에 따라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리고’가 있는데, 전체의 81.2%를 차지합니다. 반면 글말의 경우에는 ‘그러나, 그리고, 또, 및, 그런데’의 순으로 전체 47%를 차지합니다. 이는 입말에서는 몇 개의 접속 부사를 이용하여 담화의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글말에서는 문맥의 의미에 따라 다양한 접속부사가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글말과는 달리 입말은 실시간으로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다양한 접속부사를 활용하기보다 익숙한 표현 몇 가지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제시한 스피치 대본을 보면 접속부사를 통해 문장들을 연결하고 있어, 입말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스피치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접속어를 생략하므로 더 자연스럽게 역동적인 입말의 특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9) 친구들과 기숙사를 탈출해서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선생님께서 걸려서 저를 포함한 여러 명이 기숙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짐을 싸들고 왔을 때 부모님은 예상외로 화도 안 내시고 오히려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녁에 어머니 몰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엄마가 너 쫓겨났다는 소식 듣고 많이 울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소개스피치 학생 대본>

김미형(2004: 61)에 의하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 중에 ‘...함에 따라, 이에 따라, ...함으로써, 그런 연유로, 따라서, 그러므로, 더욱이, -일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즉, 곧’ 같은 표현은 입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10) 가. 이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성장지상주의와 그에 따른 뿌리 깊은 과학기술주의라는 총체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 21>
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군집생활을 하다가 차츰 분가의 형태로 나가게 된 것도 이런데서 그 연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수필>
더. 한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가책정 고지서가 발부됨에 따라... <대학학보>

스피치 대본에서는 입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즉’과 같은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피치 대본이 글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 (11) 가. 특정 인물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을 중심으로 휴먼스토리를 이어가면 ‘드라마

장 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영화 장르 중에 공상을 제외하고 가장 포괄적인 장르이죠. <정보제공스피치 학생 대본>

나.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한편으로 환경에도 관심이 많고 과학 중 생물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자기소개스피치 학생대본>

3.5. 어휘

입말에서만 사용되는 어휘와 글말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말적 어휘 글말적 어휘라는 것은 경향과 관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과 관습을 어겼을 때, 그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의미를 지닌 '다리'와 '교량'은 그 쓰임새가 다릅니다. '다리'는 입말과 글말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지만, '교량'은 주로 문어에서 사용되고 입말에서 사용되면 어색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김정자 1999: 94). '사람'과 '인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고유어는 입말과 글말 모두에서 자연스러운 반면, 동일한 의미를 가진 한자어의 경우는 입말보다는 글말에서 사용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입말은 글말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스피치에서는 쉽고 분명하게 이해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창덕 외(2008:415)에서 제시한 더 나은 입말체의 사례입니다.

<표2>

뽀내는 글말체	더 나은 입말체
소위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미국 소설가의 타자기로부터 나온 <u>오물(feculence)</u> 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소위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미국 소설가의 타자기로부터 나온 <u>찌꺼기(filth)</u> 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 후 나는 커미션을 계획하는 <u>보수주의</u> 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 후 나는 커미션을 계획하는 일에 정면으로 맞섰다. 변화에 대한 병적인 증오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의 <u>탄원</u> 에 귀를 기울이시오.	나의 <u>애원</u> 에 귀를 기울이세요.

스피치 대본에서도 입말에는 적당하지 않은 글말적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12가)와 (12나)의 '인식'은 '생각' 정도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12) 가. 여러분들도 조경학과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 저의 별명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스피치 학생 대본>

다. 사람들이 PC 보안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의 보안은 등한 시하는 경향이 있다(→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제공스피치 학생 대본>

입말 텍스트 어휘의 특징으로 강조부사의 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 전영옥(2005: 238-239)에 의하면 학생들의 발표담화를 분석한 결과 '좀, 굉장히, 가장, 대개, 너무, 아주'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조부사들의 쓰임은 필수라고 보기보

다는 잉여적 요소가 많고, 화자의 심리상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장경현(2003: 147)에 의하면 ‘매우’와 같은 단어는 글말에서밖에 보이지 않지만 입말에서 격식을 갖춘 발화로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와 같은 발화가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피치 대본을 보면 ‘생각하다, 노력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화자의 생각, 노력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청중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13) 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겁니다).
나. 저는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생각하려고 합니다).
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실현시키고자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실현시키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스피치 학생 대본>

3.6. 주어와 술어의 거리

글말은 글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다음 (14)처럼 주어와 서술어 같은 긴밀한 성분 사이가 좀 떨어져 있어도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말의 경우, 음성은 발화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긴밀하게 관련되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 이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김미형, 2004: 52-53).

- (14) 가. 문학교육의 목표는 문학현상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무엇을 바람직하다고 하는가 하는 가치문제와 관련된다. <국어교육학 사전>
나. 더구나 이항대립적인 구조는, 거기에서 그려지는 추상적인 형태가 비록 제아무리 흥미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야기가 갖는 심리적인 긴장감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기우·임명진 옮김, 1982>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글말에서는 인용문을 내포문의 형식으로 결합합니다. 그런데 입말에서는 단문과 단문의 연결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15) 가. 선생님께서는 “철수야, 낙심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낙심하지 마. 모든 게 잘될 거야.”

스피치 대본에 나타나는 직접 인용은 대부분 (15가)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15나)와 같은 방식이 입말에서는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 (16) 가. 전 자괴감에 빠져 ‘난 해도 안 되는가 보다’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전 자괴감에 빠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해도 안 되는가 보다’)
나. 옛말에 ‘웃는 낮에 침 뱉으랴’라는 말이 있듯이 (→웃는 낮에 침 뱉으랴라는 옛말처럼)

3.7. 의문, 명령, 청유의 표현

기사의 입말성을 분석한 김정자(1999: 102)에 의하면 단정식, 보고식 어투가, 아니라 마치 친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듯이 말을 툭툭 던지고 있는 어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답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묻고 대답하면서, 독자를 청자로 설정하고 청자의 물음에 대답하듯이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문답법 역시 글말적 상황을 입말적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17) 우리는 영화를 보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DVD를 구입하죠. 그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민은 뭘니까? 바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고민 되는 질문, '뭐 볼만한 영화 없나?'입니다.

<정보제공스피치 학생 대본>

4. 맺음말

글쓰기를 가르칠 때 우리는 문법이라는 틀 속에서 글을 쓰도록 합니다. 조사와 어미는 어떻게 결합해야 하며, 접속어는 어떻게 사용하고, 단어들을 짜임새 있게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법 등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말하기를 가르칠 때 우리는 직관에만 의존합니다. 효과적인 말하기를 위해, 즉 음성 전달을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더 효과적인지,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조사를 생략하고, 어떤 어미를 사용해야 더 발음이 자연스러워지는지에 대한 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말의 문법은 존재하는데, 입말의 문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입말의 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입말 텍스트들의 분석을 통해 입말의 규칙을 찾아내고 정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스피치 대본을 작성할 때 글말이 아닌 입말체와 글말체를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피치에 가장 적합한 입말체가 무엇인지를 유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텍스트언어학적 방법론이 유용할 것입니다. 스피치 대본 텍스트를 가장 스피치대본답게 만드는 스피치대본 텍스트의 텍스트성(textuality)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입말 문법을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참고 문헌

- 김건일·권재일(2004), 구어 조사의 특성-문법 표준화를 위한 계량적 분석-, 『한말연구』 15, 한말연구학회, 1-22쪽.
- 김미형(2004),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15, 한말연구학회, 23-73쪽.
- 김정자(1999), 잡지 기사의 구어성 분석-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89-115쪽.
- 김형정(2002), 한국어 입말 담화의 결속성 연구- 생략 현상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41-265쪽.
-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 목정수(2011), 한국어 구어 문법의 정립-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을 지향하며-, 『우리말 연구』 28, 57-98쪽.
- 박석준 외(2003), 대학생 구어 텍스트에서의 조사·어미의 분포와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39-167쪽.
- 서은아(2004), 구어와 문어의 문형 연구- 단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24, 한국어학회, 99-129쪽.
- 서종훈(2011), 글말과 입말 수행에 대한 사례 연구- ‘침’과 ‘문장’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 연구』 41, 505-541쪽
- 손옥현·김영주(2009),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양상 연구, 『한국어의 미 학』 28, 한국어의미학회, 49-71쪽.
- 신지연(1999), 국어의 텍스트 형성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9-227쪽.
- 유혜원(2009), 구어에 나타난 주격조사 연구, 『한국어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147-169쪽.
- 이상철 외(2014), 『스피치와 토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장경현(2003), 문어/문어체·구어/구어체 재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어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143-165쪽.
- 장경희(2009), 구어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1-26쪽.
- 전영옥(2005), 발표담화와 발표요지 비교 연구, 『텍스트언어학』 1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9-246쪽.
- 전영옥(2007), 구어와 문어의 접속부사 실현 양상 비교 연구, 『텍스트언어학』 2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23-247쪽.
- Ong, W.J.(1982), *Orality and Literacy-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Routledge.(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 JO Sprague·Douglas Stuart(2008), *The Speaker's Handbook*, 7th Edition. (이창덕 외 옮김, 발표와 연설의 핵심 기법, 박이정, 2008.)

▣ 토론

“스피치를 위한 입말의 특성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전정미(상명대)

발표자 선생님의 연구는 발표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원고가 읽기 원고가 아닌 말하기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제가 토론을 하기 위해 받은 글에는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하기 수업을 하시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글로 된 원고를 받았으나 선생님께서 바로 옆에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은 것은 아마도 선생님의 그런 고민이 글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이 글이 토론 시간에 읽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 입말로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저 역시 선생님의 고민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론문에 입말의 특성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성한 토론문은 여전히 글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발표를 위한 원고에 필요한 것은 입말의 특성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스피치’라는 용어의 사용입니다. 저는 이 용어가 대중 연설을 포괄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인정되고 있는지, 또는 특정한 범위로 말하기의 한 유형을 제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스피치’를 발표나 대중 연설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은 ‘스피치’의 일반적인 의미인 ‘말하기’라는 매우 포괄적인 상황을 너무나 부분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부적절한 용어가 말하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큰 방해가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 말하기는 곧 발표라는 극단적인 일반화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명으로 사용될 때에는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발표(대중 연설)를 대신하는 용어로 ‘스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라는 용어를 써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기 수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입말의 특성에 따라 원고를 준비하게 하는 것보다 발표가 읽기가 아니라 말하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피치와 토론>과 거의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통해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자신의 발표를 듣는 청중에 대한 이해와 분석

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하게 하려면 어떤 주제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공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사적인 관계와는 구별되는 더 적절한 표현인가 등등 말하기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원고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은 읽기 위한 것이지 말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말의 특성을 담은 원고를 써와도 학생들은 여전히 입말체의 원고를 읽을 것입니다. 그것 역시 발표가 아니라 읽기입니다.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입말로 된 원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청중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는 요소들,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화용적인 특징을 교육할 때, 학생들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표에 필요한 비언어적 요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 드린 청중에 대한 고려와도 관련됩니다. 발표 할 때 학생들의 긴장하고 어색해 하는 태도는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발표 내용을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청중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언어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비언어적인 요소가 담당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호작용을 위한 시선의 맞춤, 밝고 자신 있는 얼굴 표정, 목소리의 온도와 적절한 높낮이, 청중과의 거리 등은 정보의 전달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입말로 된 원고를 읽을 때에는 확인할 수 없는 비언어적 요소의 효과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표는 입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통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입말과 비언어적인 요소를 별개로 다룰 수 없습니다. <스피치와 토론> 수업에서 녹화를 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소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장에서 다루신 적용과 관련하여, 입말의 특성을 담은 원고를 작성할 때의 정도성입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입말의 특성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줄임 표현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줄임 표현이라고 쓰셔서 어휘를 생각했는데 발표자께서 예로 제시하신 것은 연결어미와 서술격조사에 관한 부분이었고, ‘스피치 대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줄임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요즘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줄임 표현은 {그런데, 그러니까}와 같은 접속부사를 {근데, 그니까}로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고터}로 줄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연결어미를 줄이는 경우도 연속해서 비슷하게 줄인 표현이 말해지면 다른 학생들은 ‘정중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합니다. 줄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입말의 특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발표, 특히 공적인 말하기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입말에서는 {굉장히}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표에서는 {굉장히}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기보다는 부사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현학적인 표현보다는 쉬운 표현을 사용해서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발표 연습을 위한 말하기 교육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말의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입말의 문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 쓰이기 위해

서는 문법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지만, 말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용인성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용인성을 척도로 하는 말하기에서는 꼭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제안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내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입말의 특성은 글이 아닌 말로 할 때 용인해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발표자 선생님의 연구 내용은 비슷한 강의를 하면서 저 역시 고민하는 부분이라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발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입말의 특성보다는 말하기 수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두서없이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논의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발표자 선생님을 더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글로 써도 이렇게 정연하지 못한 것을 보면, 발표할 때는 친구한테 하듯이 편하게, 자신 있게, 읽지 말고 말하라고 했던 주문이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였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입말의 문법 기술에 대한 작업을 다짐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3부 1분과 발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의 표어 연구

방운규(평택대)

< 차례 >

1. 머리말
 2. 지방자치단체 표어의 어휘적 특성
 3. 지방자치단체 표어의 문법적 특성
 4. 지자체 표어의 수사적 특징
- 참고 문헌

1. 머리말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¹⁾에 실려 있는 표어의 양상과 그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감독 아래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²⁾ 즉,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국가의 일정한 감독 하에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 부담으로 직접 또는 자신들의 대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다.³⁾ 이 제도는 해방 이후부터 1961년까지 시행되다 중단되었는데, 1991년에 다시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현지 실정에 밝은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책임행정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이 이루어져 지방행정의 모든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두어지고 그 수행과정은 주민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관할구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공단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자체 수는 246개이다.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는 16개(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⁵⁾), 기초자치단체는 230개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컴퓨터는 사무능률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도 바꾸어 놓았다. 컴퓨터의 정보통신망⁶⁾ 구축으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누리그물은 1994년에

1) '누리집'은 영어 'homepage'를 우리말로 순화시킨 말이다.

2) 장황래(2001 : 21) 참조.

3) 조창현(1995 : 19) 참조.

4) 조창현, 앞의 책, 19쪽.

5) 제주도는 2007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그 행정명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도 폐지되었다.

6) 이것은 영어 'internet'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에 대한 우리말로는 '누리그물'이 있다.

상업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성장했는데, 그 해에 청와대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누리집이 개설되었다.⁷⁾

이와 같이, 지자체 실시와 더불어 누리그물의 발달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크게 발전시켰다. 지자체도 그 무렵부터 누리집을 만들어 투명한 행정업무를 실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해당 지자체에 대한 소속감을 끌어 올려 자긍심을 심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지자체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기능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정치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있다. 이는 곧 주민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실현이 지자체 행정업무의 핵심이 된다. 이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정책의 핵심 내용을 표어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표어란 주의·주장·강령 따위를 간단하고도 뚜렷하게 표현한 짧은 말귀를 뜻한다.⁸⁾

이 글에서는 지자체 표어의 어휘적 특성과 문법적 특성, 그리고 수사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자체 누리집의 표어를 수집했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자체 누리집 표어 수집 방법

- ① 표어 수집 기간 : 2009년 6월 30일-7월 1일(2일간)
- ② 표어 수집 지자체 대상 : 전국 246개 지자체(광역 : 16개, 기초 : 230개)
- ③ 수집 방법 :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여 표어를 수집함
- ④ 수집 표어 수 : 242개⁹⁾

2. 지자체 표어의 어휘적 특성

2.1. 지자체 표어의 음절

표어는 그 특성상 짧고 간결한 형식이어야 한다. 그래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주지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은 지자체 누리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표어의 짧고 간결한 형식은 곧 음절수와 관련된다. 표어는 일반적인 문장과는 다른 표현 방식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절수의 압축을 피할 수 없다.

지자체 표어의 음절수는 적게는 3음절¹⁰⁾에서 많게는 27음절¹¹⁾로 다양한 음절 양상을 보

7) 한국인터넷진흥원(2006).

8)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9) 246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의 강남구청, 서대문구청, 부산의 중구청, 경기도의 포천시청 등의 누리집에서는 표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강남구청과 서대문구청에 각각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더니 조만간에 표어를 만들어 누리집에 올릴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10) 3음절 표어에 해당하는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 표어는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표기되었다.

Top Gochang(전북고창군청)

11)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다. 그러나 이들의 음절수는 극단적인 모습이며, 일반적인 음절수하고는 다르다. 먼저 지자체 표어에 나타난 음절수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지자체 표어의 음절수

음절수	빈도수(총 음절수)	비율
7음절	9회(63)	4%
8음절	11회(88)	5%
9음절	20회(225)	8%
10음절	27회(252)	11%
11음절	17회(166)	7%
12음절	40회(480)	17%
13음절	16회(196)	7%
14음절	18회(213)	7%
15음절	14회(154)	6%
16음절	16회(241)	7%
17음절	10회(170)	4%
기타	44회(554)	17%

위의 표 (2)에서 242개 표어의 총 음절수는 2852음절이 되는데, 지자체 표어의 평균 음절수는 12음절이 된다. 이 표어의 음절 총 가운데 사용 빈도수의 비율이 4% 이상이 되는 7음절에서 17음절까지의 비율은 83%가 된다. 이 중에서 12음절 표어의 빈도수 비율은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음절에 해당하는 표어를 보이면 다음 (3)과 같다.

- (3) 가.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서울성동구청)
- 나.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부산수영구청)
- 다. 첨단과학기술중심도시 달성(대구달성군청)
- 라.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울산울주군청)

지자체 표어의 평균 음절수인 12음절은, 시조와 가사와 같은 우리 전통시가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음절수가 적은 편이다. 시조에서 초장과 중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14음절¹²⁾이 되며, 가사에서는 한 행이 16음절이 되어, 지자체 표어하고는 각각 2음절과 4음절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누리집 공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누리집에서 표어가 차지하는 공간은 그리 크지 않다. 제한된 공간에서 핵심 정책을 알려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살기좋은 명품도시 광산구(광주광산구청)
 12) 시조에서 한 행의 음절은 3음절 또는 4음절이 반복되어 3·4조 또는 4·4조의 음률을 이룬다. 이것은 국어의 특질상 본시 단음절이었던 우리말이 접미사, 조사, 어미가 붙음으로써 이루어진 어형이기 때문이다. 김제현(1992: 29).

하기 때문에 표어의 음절수는 제약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지자체 표어는 제한된 음절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표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짧은 언어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지자체 표어의 음절은 누리집의 공간 특성상 적절한 음절수라고 본다.

2.2. 지자체 표어의 표기 방식

지자체 표어의 표기 방식에는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영혼합표기 등 세 가지가 있다.

2.2.1. 한글표기

이것은 표어를 한글로만 표기한 것인데, 전체 표어 242개 가운데 한글표기는 226개로 94%를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 누리집에서 표어의 거의 대부분이 한글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¹³⁾

- (4) 가.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서울시청)
- 나.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경북안동시청)
- 다.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부산서구청)
- 라.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충청남도청)

위 (4)의 표어 예들은 모두 한글로만 표기된 것인데, 이와 같이 지자체 누리집에서 표어를 한글 위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한글이 쉬운 글자이며 국민 누구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누리꾼들이 그 매체를 이용할 때 거의 대부분 한글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2.2. 영문표기

표어 가운데 영문자만으로 표기한 표어의 예도 있는데, 이들은 짧은 명사구, 또는 동사구를 적은 것이다. 전체 표어 242개 가운데 영문표기는 7개로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표어 모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 가. Digital GuRo(구로구청)
- 나. Change more Namgu(부산남구청)
- 다. Vision Saha(부산사하구)
- 라. Super Pyeongtaek(평택시청)

(5)의 예는 영문자로 표기된 것인데, 이러한 표기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영어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3. 한영혼합표기

이것은 주로 한글로 표기된 표어에 영어 단어를 삽입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기 형

13) 표어 가운데 일부는 띄어쓰기 규정에 어긋난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표어의 원자료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본래의 모습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태는 영문표기의 그것처럼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전체 표어 가운데 9개가 나타나 4%를 차지하고 있다.

- (6) 가.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인천남구청)
- 나.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Very Good 유성구(대전유성구청)
- 다. 활기찬 도약 살맛나는 Hot 영양(영양군청)
- 라. 한반도 중심 Lohas¹⁴⁾ 연천(연천군청)

지자체 표어의 표기 방식 가운데 특이한 점은 한자 표기의 예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은, 지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표어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려운 한자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표어의 표기 방식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지자체 표어 표기 방식(총 표어 : 242개)

표기 방식	수(개)	비율(%)
한글표기	226개	93%
영문표기	7개	3%
한영혼합표기	9개	4%

2.3. 지자체 표어의 어휘적 특성

지자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있다. 즉,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지방행정의 귀착점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 표어의 내용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들 표어에는 지방자치제의 이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정한 어휘가 많이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자체 표어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어휘인 '도시'(89회), '행복'(37회), '희망'(33회), '미래'(17회), '꿈'(15회) 등의 쓰임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3.1. '도시'

도시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며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을 말하는데, 지자체 표어에 쓰인 '도시'는 곧 해당 지자체를 의미한다. 이 낱말은 242개 지자체 가운데 82곳에서 모두 89회¹⁵⁾ 사용하여, 34%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것은 대전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14) 'Lohas'는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뜻한다(출처: Daum 위키백과).

15) 한 표어에서 '도시'를 두 번 이상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세계명품도시 일류행복도시 서초(서울서초구청)
- 대한민국 중심도시 세계속의 명품도시 김포(경기김포시청)
- 한방건강도시 영상문화복지도시 제천(충북제천시청)

에서 고르게 사용하였다. 이들 표어에서 '도시'가 쓰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거나, 관형 구성에서 관형어의 한정을 받거나, 관형격조사 '-의'의 한정을 받기도 한다.

- (8) 가. 세계명품도시 일류행복도시 서초(서울서초구청)
 - 나. 힘찬도약 밝은미래 행복도시 연제(부산연제구청)
 - 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파주시청)
 - 라. 한방건강도시 영상문화복지도시 제천(제천시청)
- (9) 가.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서울성동구청)
 - 나.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군(경남기장군청)
 - 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보령시(보령시청)
 - 라.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안양시청)
- (10) 가.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서울강서구청)
 - 나.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인천연수구청)
 - 다. 청정관광의 도시 여주(경기여주군청)
 - 라.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의 도시(경남김해시)

위 (8 가-라)에서 '도시'는 '세계명품', '일류행복', '행복', '대표', '영상문화복지' 등의 명사와 각각 어울려 합성어 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도시'는 합성어 구성으로 볼 때 이들 앞 명사들의 수식을 받고 있다. 즉, '세계명품인 도시', '일류행복의 도시', '행복한 도시', '대표인 도시', '영상문화복지인 도시' 등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해당 지자체가 이와 같은 도시를 꿈꾸거나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9 가-라)는 관형 구성의 예인데, 여기에서 관형어의 한정을 받는 '도시'는 (8 가-라)의 예처럼, 통어 의미상 앞말의 수식을 받고 있다. 즉, '도시'는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곳'이며, '아침이 좋은 곳'이며, '쾌적하고 편안한 곳'이며, '아름다운 곳'이다. 이것은 해당 도시가 살기 좋은 곳임을 의미한다.

(10 가-라)에서는 '도시'가 관형격조사 '-의'의 한정을 받고 있는데, 이들 경우도 통어 의미상 앞말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⁶⁾ (10 가)의 '희망의 도시'는 '희망이 있는 도시/희망을 가진 도시'로, (10 나)의 '미래의 도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10 다)에서 '청정관광의 도시'는 '청정관광을 즐기는 도시/청정관광을

살기 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 전통이 살아숨쉬는 도시(전남담양군청)

16) 김승곤(2007)에서는 관형격조사 '의'의 의미를 통어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의'는 한 낱말을 대신하여 쓰이기도 하며, 구나 절을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 보아, '의'를 대용토씨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관련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의 맹서 ⇒우리가 하는 맹서
-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공이 부르는 뱃노래 가물거리며
- 남자 중의 남자 ⇒남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
- 예술의 전당 ⇒예술 행사를 하기 위하여 건축된 전당
- 올해의 문화인물 ⇒올해에 숭배할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인물
- 한국의 중심 채널 ⇒한국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해 주는 가장 훌륭한 중심 채널

할 수 있는 도시'로, (10 라)에서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의 도시'는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통어적 의미는 해당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와 확실히 차별됨을 부각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상의 예를 통해 볼 때, '도시'는 그 자체가 해당 지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나, 그 통어 의미상 그 지자체가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곳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2. '행복'

행복은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욕구이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있다. 즉,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행복'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36개 지자체에서 모두 37회¹⁷⁾ 사용하여, 15%의 사용률을 보였다. 표어에서 '행복'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다른 명사와 어울려 합성어를 이루거나, 주로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관형 구성을 이루어 뒤따르는 명사를 한정하기도 한다.

- (11) 가. 고구려인의 숨결 행복도시 광진(서울광진구청)
 - 나.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경기양평군청)
 - 다. 대한민국 행복1번지 푸른 청원 첨단 청원(충북청원군청)
 - 라. 의정부 행복특별시(경기의정부시청)

- (12) 가.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충북음성군청)
 - 나.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전북남원시청)
 - 다.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대구달서구청)
 - 라. 행복을 만드는 강북(서울강북구청)

(11 가-라)에서 '행복'은 '도시', '생태·도시', '1번지', '특별시'와 각각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낱말도 합성어 구성으로 볼 때 뒤의 명사를 한정하거나 수식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행복도시'는 '행복한 도시'로, '행복1번지'는 '행복한 1번지'로, '행복특별시'는 '행복한 특별시'로 해석된다. (12 가-라)에서는 표어 자체가 관형 구성이기 때문에 관형어 '행복한'과 '행복을 만드는'은 기능상 뒤의 명사를 한정하고 수식한다.

한편, '행복'은 표어의 문맥으로 볼 때 현재성을 갖는다. 즉, '행복'은 삶에 대해 현재 만족감을 느끼는 편안한 심리 상태로 이해된다. 이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심리 상태이다. 이러한 모습은 (12 가-다)에서처럼 관형형 어미를 통해서 드러난다. '행복한'에서 관형형 어미 '-ㄴ'은 형용사 어간인 '행복하-'와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이것은 현실적인 만족감을 뜻하는데, 표어에서 '행복'은 대부분 이러한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행복'을 표어에 사용한 지자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다른 광역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서울과 수도권, 다른 광역시에서는 표어

17) 한 표어에서 '행복' 어휘를 두 번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꿈과 행복이 넘치는 행복 남구(울산남구청)

18) 여기에서 광역자치단체만을 예를 든 것은 분포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표어의 예는 광역

가운데 '행복'이 모두 23회 나타나는 데 비해서, 강원, 충북, 전남, 경북과 같은 지자체에서는 14회만 나타나는 데 그쳤다. 특히 강원, 전남, 경북에서는 1회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강원도 지자체의 표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지리적인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표어에 '행복' 어휘가 나타난 예는 평창군청 한 곳밖에 없다. 'Happy 700'이 그 예인데, 이 표어의 의미는 해발 700미터가 되는 곳이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조건임을 뜻한다. 이곳에는 높은 산이 많이 있는데, 'Happy 700'에는 이런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전남, 경북, 전북 등 다른 지자체의 표어에서도 이 낱말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그 이유는 강원도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자체 표어에서 '행복'의 사용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사용상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행복'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와 같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고르게 사용하고 있음에 비해서 강원, 전남, 경북과 같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 지자체에서 '행복'과 같은 추상적인 낱말을 사용하는 대신 지역적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어휘를 표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들 표어의 예에서 '행복'은 그 쓰임새로 보아 현실적인 만족감을 나타낸다.

2.3.3. '희망', '미래', '꿈'

지자체 표어에서 '희망'은 33회, '미래'는 17회, '꿈'은 15회 사용되었다. 이들 세 어휘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 '희망'은 앞날에 대한 기대이며, '꿈'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래'는 뜻 자체가 '앞날'이지만, 표어에 쓰인 상황으로 볼 때, 이들 두 어휘의 의미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세 어휘의 공통적 의미는 '앞날의 실현 기대감'으로 요약된다.

(13) 가.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 복구(대구북구청)

나. 열린 생각, 열린 미래(인천동구청)

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울산중구청)

라.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서울성동구청)

'행복'이 현재의 만족감을 보여 주는 심리 표현인 데 비해서, (13 가-라)에서의 '희망', '미래', '꿈' 등과 같은 어휘는 앞날의 실현 기대감을 보여 주는 심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세 어휘는 대전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들 세 낱말의 사용 빈도는 65회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어휘의 사용은 지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자치행정을 보여 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된다.

2.4. 지자체 표어에서의 해당 지역명 표기

지자체 표어에 해당 지자체의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많다. 전체 242개의 표어 가운데서 지자체 이름이 표기된 것은 210개로 87%에 이른 반면에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모두 32개로 13%에 지나지 않는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다 포함시킨 것이다.

다.

(14) 가.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영등포(서울영등포구청)

나. 해양중심 행복영도(부산영도구청)

다.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대구광역시청)

라.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인천옹진군청)

(15) 가.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서울시청)

나. 대한민국의 보석이 되겠습니다(전북익산시청)

다. 지붕없는 미술관(전남고흥군청)

라. 물맑고 인정많은 충효의 고장(경북예천군청)

(14 가-라)의 경우, 표어에 해당 지자체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영등포', '영도', '대구', '옹진'이 그 예이다. 이와는 달리, (15 가-라)의 표어에는 지자체 이름이 없다. 대부분의 표어에서 지자체 이름이 표기되는 까닭은, 표어에 그 이름을 넣음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소속감을 적극적으로 고취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지자체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시키거나 널리 알리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 요약

지자체 표어의 어휘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지자체 표어의 어휘적 특성

- ① 지자체 표어에서 빈도수가 높은 낱말에는 '도시'(89회), '행복'(37회), '희망'(33회), '미래'(17회), '꿈'(15회) 등이 있다.
- ② '도시'는 그 자체가 해당 지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나, 그 통어 의미상 해당 지자체가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곳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어휘는 전국 지자체 표어에서 고르게 사용되고 있다.
- ③ '행복'은 그 쓰임새로 볼 때 현실적인 만족감을 나타낸다. 이것의 사용 빈도는 지역적인 편차를 보인다. '행복'은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 지자체에서는 고르게 사용하고 있으나,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드물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행복'과 같은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④ '희망', '미래', '꿈'은 앞날에 있어서의 실현 기대감을 보여 주는 심리 표현이다. 지자체 표어에서 이들 어휘가 쓰이고 있음은 지자체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치행정을 보여 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 ⑤ 지자체 표어에는 해당 지자체 이름이 거의 다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은, 표어에 지자체 이름을 명시하여 주민들의 소속감을 적극적으로 고취시키며, 지자체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시키거나 널리 알리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자체 표어의 문법적 특성

3.1. 지자체 표어의 구성 형식

지자체 표어는 구성 방식에 따라 크게 문장형 표어, 명사구형 표어, 관형형 표어¹⁹⁾, 혼합형 표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1.1. 문장형 표어

문장형 표어란 문장 형식으로 만들어진 표어를 말하는데, 이런 형식의 표어는 전체 표어 242개 가운데 10개가 나타나 4%를 차지한다.

- (18) 가. 종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서울종로구청)
- 나. 대한민국의 보석이 되겠습니다(전북익산시청)
- 다. 의령군과 함께 하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경남의령군청)
- 라.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 세상 부산진(부산진구청)
- 마. 장하다 순창²⁰⁾(전북순창군청)
- 바.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경북청송군청)

(18 가)의 예는 단문의 형식으로 된 표어인데, 주어인 '종로'가 전달기능면에서 주제 또는 화제로 부각되어 있다. 이것의 구조는 '종로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로 볼 수 있는데, 주어를 부각시키기 위해 느낌표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어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형식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서는 아주높임의 문장종결어미 '-입니다'를 사용하여 누리집 방문자를 대우하고 있다.

(18 라)의 예는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장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장의 원래 모습은 '희망 세상 부산진에서 웃음꽃을 피워요'로 볼 수 있는데, 표현 효과를 위하여 부사어인 '희망 세상 부산진에서'를 서술어 뒤로 옮긴 것이다. (18 마)와 (18 바)의 경우도 이와 같다. (18 바)의 '자연을 노래하다'에서는 서술어에 시제 표시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쓰이는 용언 형식이다.²¹⁾

3.1.2. 명사구형 표어

명사구형 표어는 두 개 이상의 명사로 구성된 표어를 말한다. 이 표어는 전체 242개 표어 가운데 31개가 나타나 13%를 차지하고 있다.

19) 관형 구성으로 만들어진 표어를 명사구형 표어로 포함시켜 논의를 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지자체 표어의 구성 방식을 보다 더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 관형형 표어로 분리하여 다루기로 한다.

20) '장하다'는 표면적으로 볼 때, 형용사로 보이지만, 이것은 '장수'와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려 의인화한 표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중의적 표현이다.

21) 동사 어간에 다른 어미가 연결되지 않고 직접 문장종결어미가 연결되는 문장을 절대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장은 일기에도 잘 쓰이고, 신문의 제호에도 잘 쓰인다. 임흥빈 외(2001: 273).

지금 형광등 아래에서 이 글을 쓰다.
야채밭효, 마리오 농장에 가다.

- (19) 가. 희망등대 군산(군산시청)
- 나. 지리산 청정골 산청(산청군청)
- 다.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이천시청)
- 라.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부여군청)

(19)의 표어는 명사로 이루어진 표어인데, 이것은 그 속뜻으로 보면 다음 (19')처럼 관형 구성인 것으로 해석된다.

- (19') 가. 희망등대인 군산
- 나. 지리산의 청정골인 산청
- 다. 대한민국의 행복도시인 이천
- 라. 세계역사도시이며 백제왕도인 부여

(19)의 표어는 (19')의 관형 구성에서 '-의'와 '-이+L'이 생략되어 명사구형 표어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사와 어미를 생략함으로써 보다 간결한 표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3.1.3. 관형형 표어

이것은 관형 구성으로 된 표어를 말하는데, 전체 표어 242개 가운데 137개가 나타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 표어는 관형 구성이 몇 번 실현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1.3.1. 관형 구성이 한 번 나타나는 표어

관형 구성이 한 번 나타나는 표어는 [관형어+N]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수식을 받는 명사가 지자체 이름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 1) 피수식어가 지자체 이름인 경우: [관형어+지역명]

이 경우 관형형 어미가 '-L/는'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관형격 조사 '-의'로 실현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먼저 '-L/는'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20) 가.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서울강동구청)
- 나. 훈훈한 인심과 포근한 정이 넘치는 당진(충남당진군청)
- 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하고 활기찬 창녕(경남창녕군청)
- 라. 신뢰와 화합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희망의 복지동작(서울동작구청)

(20 가-라)의 표어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는 해당 지자체 이름인데 '강동', '당진', '창녕', '동작'은 각각 그 지역의 이름을 가리킨다. 표어에 해당 지역의 이름을 넣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이름을 인상적으로 주시시키려는 의도에서이다. 그런데, (20 가-나)와 (20 다-라)의 명사의 실현 모습은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관형어의 수식을 직접 받는 데 비해서, 후자는 이와는 달리 명사 앞에 다른 수식어가 놓여,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 다)에서 관형어인 '자연과 함께 숨쉬는'은 '창녕'을 수식하고 있는데, 수식을 받는

명사는 또 하나의 관형어인 '행복하고 활기찬'이 나타나 확장된 구성 형식을 보이고 있다. (20 라)에서도 '복지동작' 앞에 관형어인 '희망의'가 나타나 확장된 구성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것의 구성 형식은 [관형어+[N+의+지역명]]으로 나타낼 수 있다. [관형어+지역명]의 구성을 지닌 표어에서 (20 가-나)의 모습을 보이는 예는 29개가 있으며, (20 다-라)의 모습을 보이는 예는 8개가 있다.

이 유형의 변형된 모습도 보인다. 즉, [관형어+N] 구성 형식 바로 뒤에 지자체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표어의 구성은 [[관형어+N]+지역명]로 나타낼 수 있다.

- (21) 가.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경남양산시청)
 나.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보령시(충남보령시청)
 다.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춘천(강원춘천시청)
 라.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곳, 태백(강원태백시청)

위 (21 가-라)에서 관형어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 구성 바로 뒤에 지자체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21 가)의 예는 관형어인 '행복을 열어가는'이 ' 으뜸도시'를 수식하고, 그 뒤를 이어 지자체 이름인 '양산'이 나타난 표어이다. 그런데, 이 경우 명사와 지역명은 동격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것은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인 양산'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것은 [관형어+지역명]의 표어보다는 구성 형식이 복잡하지만, 표어의 음률을 형성하고 이것을 부각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형형 표어 가운데서 이런 구성을 갖는 표어는 30개가 된다.

다음은 관형격 조사 '-의'가 지역명을 수식하는 표어이다.

- (22) 가. 세계속의 경기도(경기도청)
 나. 청정자연환경의 늘푸른청양(충남청양군청)
 다.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전남영암군청)

(22 가)에서는 명사 '세계속'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다음 지자체 이름인 '경기도'를 한정하여 [N+의+지역명]의 구성 형식을 보인다. 그러나, (22 나-다)의 구성은 이와는 다르다. 명사에 '-의'가 결합한 다음 뒤따르는 지역명을 한정하는 것인데, 이들 사이에 관형어가 한 번 더 실현되어 확장된 모습을 보인다. 즉, 이들 표어는 [N+의+[관형어+지역명]]의 구성 형식을 갖는데, 이것은 그 구성 순서상 [관형어+지역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관형어와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23)의 예는 [N+의+지역명]의 구성 형식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 (23) 가. 해오름의 고장 양양(강원양양군청)
 나.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경북안동시청)
 다. 꿈의 향만도시 창원(경남창원시청)

(23 가-다)는 [N+의+N]에 지역명이 통합된 구성 형식이다. (23 가)는 '해오름'에 '-의'가 결합한 다음 '고장'과 통합하고 여기에서 다시 지역명인 '양양'과 통합하였다. 이것은 [[N+의+N]+지역명]의 구성 형식을 가지고 있다. (22 다-라)도 이와 같은 구성이다.

한편, (23 가)의 표어는 그 통어 의미상 '해오름의 고장인 양양'으로 해석되는데, 이 때 '-의'의 수식을 받는 '고장'과 그 뒤의 '양양'은 동격의 의미를 갖는다. 이 표어를 통어 규칙에 따라 다시 배열하면 '양양은 해오름의 고장이다'가 되어, 이러한 해석을 잘 뒷받침한다.

2)피수식어가 지역명이 아닌 경우: [관형어+N]

이 경우도 관형형 어미가 '-ㄴ/는'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관형격 조사 '-의'로 실현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먼저 '-ㄴ/는'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24) 가.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서울시청)

나. 지붕없는 미술관(전남고흥군청)

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푸른도시(서울은평구청)

라. 물맑고 인정많은 충효의 고장(경북예천군청)

(24 가-나)에서는 관형어가 뒤의 명사를 한정하고 있다. (24 가)에서는 '맑고 매력있는'이 '세계도시'를 한정하고 있으며, (24 나)에서는 '지붕없는'이 '미술관'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24 다-라)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르다. (24 다)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이 '푸른도시'를 한정하고 있으며, (24 라)에서는 '물맑고 인정많은'이 '충효의 고장'을 한정하고 있다. 이들 표어는 각각 [관형어+관형어+N]과 [관형어+[N+의+N]]의 구성 형식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구성 순서로 볼 때, [관형어+N]과 [N+의+N]이 일차적인 구성을 한 뒤에 관형어의 한정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관형격 조사 '-의'가 명사를 수식하는 표어이다.

(25) 가. 꿈과 희망의 새만금중심도시(전북김제시청)

나. 동부 서울의 성장거점도시(서울동대문구청)

다. 삼국유사의 고장(경북군위군청)

라. 첨단항공산업의 메카(경남사천시청)

(25 가-라)는 [N+의+N]의 구조로 이루어진 표어인데, 관형격조사 '-의'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도시', '고장', '메카'와 같은 어휘가 쓰였다. 그런데, 관형격 조사 '-의'가 사용될 경우 표어는 그 통어 의미상 '-ㄴ/는'을 갖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5 가-라)의 표어는 다음 (25' 가-라)와 같은 의미로 풀이되는데, '-의'가 표어 구성을 간소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5') 가. 꿈과 희망을 가진 새만금중심도시

나. 동부 서울에 있는 성장거점도시

다. 삼국유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장

라. 첨단항공산업의 특성을 지닌 메카

한편, '-의'가 사용될 경우 [[관형어+N]+지역명]과 같은 구성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 (26 가-라)은 [[N+의+N]+지역명] 구성 형식을 갖는 표어이다.

- (26) 가. 경남의 중심 함안(경남함안군청)
 나. 해오름의 고장 양양(강원양양군청)
 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경북안동시청)
 라. 서울의 중심 중구(서울중구청)

(26 가)의 표어는 그 통어 의미상 '경남의 중심인 함안'으로 해석되는데, 이 때 '-의'의 수식을 받는 '중심'과 그 뒤에 실현된 '함안'은 동격의 의미를 갖는다. 이 표어를 통어 규칙에 따라 다시 배열하면 '함안은 경남의 중심이다'로 되어, 이러한 해석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3.1.3.2. 관형 구성이 두 번 나타나는 표어

관형 구성이 두 번 나타나는 표어의 구조는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관형형 표어 137개 중이런 구성 형식을 갖는 표어는 54개로 40%의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①[관형어+N][관형어+N], ②[관형어+N][관형어+지역명], ③[관형어+지역명][관형어+N], ④[관형어+지역명][관형어+지역명], ⑤[N+의+N][N+의+N], ⑥[관형어+N][N+의+N] 등이 있다.

1)[관형어+N][관형어+N]

이것은 관형어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 구성이 두 번 나타나는 구성이다. 이 구성 형식을 갖는 표어는 54개 가운데 2개에 불과한데,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7) 가. 열린 생각, 열린 미래(인천동구청)
 나. 튼튼한 도시 활기찬 도시(경기군포시청)

2)[관형어+N][관형어+지역명]

이 구성 형식을 갖는 표어는 24개로 54개의 표어 중 44%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다.

- (28) 가. 깨끗한 시정, 잘사는 영천(경북영천시청)
 나.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전북진안군청)
 다.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싶은 의왕(경기의왕시청)
 라.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서울마포구청)

3)[관형어+지역명][관형어+N]

이 구성 형식을 갖는 표어는 5개로 54개의 표어 중 9%를 차지한다.

- (29) 가. 21세기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충북도청)
 나. 발전하는 계양, 밝은 미래도시(인천계양구청)
 다.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전남해남군청)
 라. 할 일 많은 의성 함께 뛰는 군민(경북의성군청)

4)[관형어+지역명][관형어+지역명]

이 구성 형식을 갖는 표어는 7개로 54개의 표어 중 13%를 차지한다.

- (30) 가.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경기고양시청)
- 나.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경북도청)
- 다. 즐거운 하남, 행복한 하남(경기하남시청)
- 라. 풍요로운 문화부평 활력있는 경제부평(인천부평구청)

5)[N+의+N][N+의+N]

이 구성을 보이는 표어는 14개로 54개의 표어 중 26%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이것의 변형된 구성 모습도 보인다. 여기에는 기본 구성을 변형시킨 예도 나타난다.

- (31) 가. 세계속의 녹색첨단도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충남아산시청)
- 나. 21세기 신개념의 도시, 동북부의 중심 중랑(서울중랑구청)
- 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자 차세대 신산업이 메카 화순(전남화순군청)
- 라. 전통과 문화의 고장 신비의 왕국 대가야 고령(경남고령군청)

(31 가)의 표어는 [N+의+N][N+의+N]의 구성 형식을 갖는 데 비해서, (31 나-라)의 표어는 [[N+의+N][N+의+N]+지역명]의 구성 형식을 갖는다.

6)[관형어+N][N+의+N]

이것은 [관형어+N]과 [N+의+N]을 혼합한 구성인데, 54개의 표어 중 10개로 19%를 차지한다. [관형어+N]과 [N+의+N]의 경우 변형을 보이기도 한다.

- (32) 가. 격조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서울송파구청)
- 나. 살기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서울금천구청)
- 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충남도청)
- 라. 자연속의 가족마을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전남곡성군청)

3.1.3.3. 관형 구성이 세 번 나타나는 표어

관형 구성이 세 번 나타나는 표어는 그리 많지 않다. 137개 표어 중 5개가 나타나 4%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관형어+N][관형어+N][관형어+N]과 [관형어+N][N+의+N][N+의+N] 두 가지 구성 형식이 있다.

- (33) 가. 가고싶은 금산, 살고싶은 금산, 살아 행복한 금산(충남금산군청)
- 나. 밝은미래 푸른도시 살기좋은 남동구(인천남동구청)
- 다. 살기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 전통이 살아숨쉬는 도시(전남담양군청)
- 라.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인천연수구청)

3.1.4. 혼합형 표어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형식들이 서로 섞여서 만들어진 표어를 말한다. 이런 형식의 표어는 전체 표어 242개 가운데 13개로 5%를 차지한다. 이들 표어는 [문장+명사구](34 가), [명사구+문장](34 나), [명사구+관형구](34 다), [관형구+명사구](34 라) 등의 구성 형식을 보인다.

- (34) 가. 보성의 녹차향이 세계의 녹차향입니다 녹차수도 보성(전남보성군청)
나. 국토 정중앙 양구,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강원양구군청)
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새로운 동구건설(광주동구청)
라.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경기구리시청)

3.2. 지자체 표어의 시제

지자체 표어에서 시제 형태소가 쓰일 수 있는 경우는 문장형 표어와 관형형 표어 두 가지 유형에서이다. 여기에서는 시제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2.1. 문장형 표어에서의 시제

지자체 표어에서 문장 형식으로 이루어진 표어는 그리 많지 않다.

- (35) 가. 대한민국의 보석이 되겠습니다(전북익산시청)
나. 괴산,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습니다(충북괴산군청)
다. 의령군과 함께 하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경남의령군청)
라. 성북 60년, 새로운 희망을 만나다(서울성북구청)

(35 가)에서는 '-겠-'이 쓰여 미래 시제임을 보여 주고 있는데, 아울러 이것은 지자체의 미래지향적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35 나)에서는 문장종결어미 '-습니다'가 쓰였는데, 이것은 문맥으로 볼 때 지금의 지리적인 상황을 의미하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35 다)는 복합문으로 이루어진 표어인데, 조건을 뜻하는 접속어미 '-면'이 쓰인 상황을 고려하면 '-니다'는 미래 상황에서의 현재로 해석된다. (35 라)는 절대문에 해당한다. 이것은 시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성북구 60년의 역사로 새로운 희망을 만나다/만날 것이다'로 해석되어 현재 또는 미래 시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지자체 표어가 과거의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닌, 자치 정책이 현재 실현되고 있거나, 그것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임을 주지하는 표현 형식이라는 점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또한 문장형 표어에서 과거 시제가 실현되지 않는 까닭을 잘 뒷받침해 준다.

3.2.2. 관형형 표어의 시제

관형형 표어에서 시제가 실현되는 곳은 관형형 어미이다. 지자체 표어에서 쓰인 관형형 어미는 '-은'과 '-는' 두 가지다. 이들 어미는 시제 기능으로 볼 때 각각 과거와 현재를 나

타낸다. 먼저 과거의 의미를 보이는 표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36) 가. 아름다운 섬과 통제영 300년의 역사를 가진 바다의 땅 통영(경남통영시청)
 - 나. 자연을 담은 청정 디자인도시(부산북구청)
 - 다. 아름다움과 유구한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곳(인천강화군청)
 - 라.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전남함평군청)

지자체 표어에서 과거의 의미로 해석되는 관형형 어미는 모두 5개가 된다. 전체 표어 242개 가운데 관형형 어미가 실현된 표어는 152개인데, 여기에서 관형형 어미가 과거 의미를 실현하는 것은 5개이다. (36)에서 '가진', '담은', '어우러진', '향한'의 관형형 어미 '-ㄴ, 은'은 모두 이 기능을 갖는다. 이 경우, 두 어미는 이미 결정되었거나 확정된 사건을 나타낸다.

다음은 관형형 어미가 현재의 의미를 보이는 표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7) 가.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충북충주시청)
 - 나.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월드베스트 천안(충남천안시청)
 - 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울산중구청)
 - 라.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곳 행복도시 김천(경북김천시청)

관형형 표어 가운데 관형형 어미가 현재의 의미 기능을 갖는 표어는 147개에 이른다. 위의 (36)의 경우와 같이, 관형형 어미가 과거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은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42개는 모두 현재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37 가)의 '활기찬', '역동하는', (37 나)의 '넘치는', (37 다)의 '있는', (37 라)의 '열어가는'은 모두 이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 기능은 지자체의 정책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복리증진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시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3. 요약

지금까지 지자체 표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8) 지자체 표어의 문법적 특성

1) 지자체 표어의 구성 형식

- ① 지자체 표어는 구성 방식에 따라 문장형 표어, 명사구형 표어, 관형형 표어, 혼합형 표어 등이 있다.
- ② 문장형 표어는 문장 형식의 표어를 말하는데, 이런 표어는 전체 표어 242개 중 10개가 있다. 이 표어는 내용의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장성분을 바꾸었다.
- ③ 명사구형 표어는 두 개 이상의 명사로 구성된 표어인데, 전체 표어 중 31개가 있다. 이것은 관형 구성에서 문법 표지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된다.
- ④ 관형형 표어는 관형 구성으로 된 표어를 말하는데, 이것은 전체 표어 242개 중

137개가 있다. 여기에는 관형 구성이 한 번 나타나는 표어, 두 번 나타나는 표어, 세 번 나타나는 표어가 있다.

관형 구성이 한 번 나타나는 표어는 [관형어+지역명]과 [N+의+지역명], 그리고 이것의 확장형인 [N+의+[관형어+지역명]] 등이 있다.

관형 구성이 두 번 나타나는 표어 형식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관형형 표어 137개 중 이런 구성을 갖는 표어는 54개로 40%의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관형어+N][관형어+N], [관형어+N][관형어+지역명], [관형어+지역명][관형어+N], [관형어+지역명][관형어+지역명], [N+의+N][N+의+N], [관형어+N][N+의+N] 등의 구성 형식이 있다.

관형 구성이 세 번 나타나는 표어는 137개 표어 중 5개가 나타나 4%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관형어+N][관형어+N][관형어+N]과 [관형어+N][N+의+N][N+의+N] 두 가지 구성이 있다.

- ⑤ 혼합형 표어는 여러 형식들이 서로 섞여서 만들어진 표어를 말한다. 이런 형식의 표어는 전체 표어 242개 가운데 13개로 5%를 차지한다. 이러한 표어 형식으로는 [문장+명사구], [명사구+문장], [명사구+관형구], [관형구+명사구] 등이 있다.

2) 지자체 표어의 시제

- ① 문장형 표어에서 '-겠-'이 실현된 표어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 문장종결어미는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해석된다. 이것은 지자체의 청사진이 현재 실현되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 ② 관형형 표어에서의 어미는 '-은'과 '-는' 두 가지이다. 이 중 '-은'은 과거를 나타내는데, 관형형 어미가 실현된 표어 152개 가운데 '-은'이 실현된 표어는 5개 뿐이다. 이것은 이미 결정되었거나 확정된 사건을 드러낸다. 이와는 달리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데, 지자체 표어에서 '-는'의 쓰임이 많은 까닭은 이것이 지자체의 정책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4. 지자체 표어의 수사적 특징

수사학이란 어떠한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말한다. 즉, 표현과 설득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을 뜻한다.²²⁾ 하나의 생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보다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잘 통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 언어생활에서 수사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짧고 간단하게 표현해야 하는 표어에서는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기술이다. 수사법에는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자체 표어에 나타난 수사적 특징을 이들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1. 지자체 표어의 비유적 표현

비유란 한 물건을 다른 한 물건에 비교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어떤 사물에 대하여 그

22) 이용남 외 3인(1986: 179).

와 비슷한 성질, 모양 따위를 가진 다른 사물을 끌어대어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비유는 새로운 생명적 언어 표현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있다.

4.1.1. 직유법의 표어

직유는 한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유사한 사물을 끌어다가 비교하는 것이다. 직유는 'A는 B와 같다'라는 외형적 형식을 취하는데, 이것은 곧 원관념(A)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기 위해 보조관념(B)을 끌어다 비유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처럼', '-같이'와 같은 비교하는 말이 쓰인다. 지자체 표어에서 이 수사법으로 만들어진 예는 하나밖에 없다.

(39)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춘천(강원춘천시청)

위 표어에서 '희망'은 원관념이며 '강물'은 보조관념이다. '희망'이라는 어휘에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강물'이라는 어휘를 끌어들여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희망이 흐르는 도시'보다는 참신한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춘천이 강물이 흐르는 도시임을 상기할 때, 이 표어는 그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1.2. 은유법의 표어

은유법²³⁾은 직유법처럼 비유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표현 속에 비유를 숨기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직유법을 간결하게 하는 방법인데, 'A는 B와 같다'라는 형식에서 '같다'가 생략된 'A는 B다'인 형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바람은 가을의 노예다'에서 원관념은 '바람'인데, 이것의 의미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 보조관념인 '가을의 노예'를 끌어들인 것이다. 이 경우, '바람은 가을의 노예와 같다'에서 비교하는 말인 '-와 같다'를 생략하여 은유법을 만든 것이다. 지자체 표어에서 은유법으로 표현된 것들이 몇몇 보인다.

(40) 가. 지붕없는 미술관(전남고흥군청)
나. 자연으로 가는 길(전남구례군청)
다. 종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서울종로구청)
라.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대구시청)

(40)의 표어들은 'A는 B다'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0 가-나)는 원관념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쉽게 복원할 수 있다. (40 가)에서 원관념은 '고흥'이며, (40 나)에서는 '구례'이다. 따라서 전자는 '고흥은 지붕없는 미술관'이며, 후자는 '구례는 자연으로 가는 길'이 된다. 이들 표어는 표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40 가)의 경우는 세련되고 산뜻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0 다-라)의 경우는 원관념인 지역 이름이

23) 박영순(2000)에서는 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각종 은유 표현을 다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은유'를,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언어의 일탈이나 수사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 자연언어와 같다는 전제하에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은유는 지금까지 의미론에서보다 문체론에서 더 많이 다루어지긴 했지만, 결코 문학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표어에 제시되어 있다. 전자는 '종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후자는 '대구는 희망의 도시'로 모두 은유법에 속한다.

4.1.3. 의인법의 표어

의인법은 사물이나 추상적 관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꽃이 웃는다', '꿈이 자란다', '바위가 잠을 잔다' 등이 이에 속한다. 지자체 표어 가운데 이러한 표현 방법에 속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41) 가. 꿈을 두드리는 동두천(경기동두천시청)

나. 맑고 쾌적한 자연과 전통국악의 혼이 살아숨쉬는 고장 영동군(충북영동군청)

다. 통일을 꿈꾸는 미래의 땅 철원(강원철원군청)

라. 변화와 활기가 넘치는 에코피아²⁴⁾ 가평(경기가평군청)

(41 가-라)는 의인법의 표어들인데, '동두천이 꿈을 두드리다', '맑고 쾌적한 자연과 전통국악의 혼이 살아 숨 쉬다', '철원이 통일을 꿈꾸다', '가평이 변화와 활기가 넘치다'로 각각 해석된다. 이들 표어는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의 감정을 옮겨 놓은 것²⁵⁾으로 표어에 생명 의식을 넣어 주고 있다.

4.2. 지자체 표어의 강조적 표현

강조법이란 표현하려는 내용을 보다 강렬하게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취해진 여러 가지 장치들이다.²⁶⁾ 여기에는 과장법, 반복법, 점층법, 변화법 등이 있다.

4.2.1. 과장법의 표어

과장법이란 작은 것을 크게 표현하거나 큰 것을 작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걱정이 태산 같다', '인정이 눈곱만큼도 없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자체 표어에서는 이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특정 어휘로 현실을 크게 부풀려 표현하는 예가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비유가 없는 표현도 과장법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이들 표어에서는 '세계최고', '세계일류', '최고수준'과 같은 수식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42) 가. 세계최고 선진용인(경기용인시청)

나. 세계최고의 농업·건강 중심 도시(전북장수군청)

다. 세계일류 전원도시 청도(경북청도군청)

라.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모범자치구 대전 서구(대전서구청)

24) 에코피아는 '환경 생태'를 뜻하는 'Ecology'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에서 'Eco-'를, '낙원'을 뜻하는 'Utopia'에서 '-pia'를 떼어내어 결합시킨 합성어이다.

25) 건국대학교출판부(1995: 112).

26) 이용남 외 3인, 앞의 책, 193쪽.

(42 가-나)에서는 수식어인 '세계최고'가, (42 다)에서는 '세계일류'가, (42 라)에서는 '전국에서 제일'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이들 지자체가 '세계', '전국'과 같이 일정한 지역 공간 안에서 으뜸이 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러한 표현 내용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지는 회의적이다.²⁷⁾ 지자체 표어에서 이러한 과장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자체들이 서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 경쟁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4.2.2. 반복법의 표어

이것은 문장의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단어, 어구, 문장 등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반복은 문장의 의미를 강조해 줄 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효과까지 이루게 한다.

- (43) 가. 즐거운 하남 행복한 하남(경기하남시청)
나.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경기고양시청)
다. 가고 싶은 금산, 살고 싶은 금산, 살아 행복한 금산(충남금산군청)
라.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전북부안군청)

(43 가)에서는 '하남'이, (43 나)에서는 '고양'이 각각 두 번 반복되었다. (43 다)에서는 '금산'이, (43 라)에서는 비슷한 관형구가 반복되었다. 이들 표어에서는 해당 지역의 이름을 반복하거나 같은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어의 반복은 표어의 운율을 형성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4.2.3. 점층법의 표어

점층법은 언어 내용을 점점 힘 있고 중요하게 끌어 올리는 수법이다. 또한 이것은 감정을 서서히 고조시키는 기법이다. 이러한 표현 기법을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 (44) 가. 전통과 문화의 고장 신비의 왕국 대가야 고령(경남고령군청)
나. 가고 싶은 금산, 살고 싶은 금산, 살아 행복한 금산(충남금산군청)
다. 힘찬도약 밝은미래 행복도시 연제(부산연제구청)
라.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강원정선군청)

(44 가)는 세 개의 명사구로 이루어진 표어인데, 명사구가 거듭될수록 그 내용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즉, '전통과 문화의 고장'에서 '신비의 왕국'으로, 여기에서 다시 '대가야 고령'으로 표어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을 의미 부등호로 나타내면 '전통과 문화의 고장<신비의 왕국<대가야 고령'이 된다. (44 나)에서도 '가고 싶은 금산'보다는 '살고 싶은 금산'이 내용상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이것보다는 '살아 행복한 금산'이 더 강조되고 있다. (44 다-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27)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이러한 표어 내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 2009, 8.28, 42면.

4.3. 변화법의 표어

변화법은 문장이 너무 단조롭게 흐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글귀나 서술을 변화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특이하고 개성이 드러나도록 표현하여 표어를 인상 깊게 하는 표현 기술을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자체 표어 242개 가운데 문장 형식의 표어는 10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표어도 문장 성분의 자리를 바꾸어 변화를 모색하였다. 나머지 명사구형 표어와 관형형 표어 등은 모두 전형적인 변형 표어에 해당한다.

- (45) 가.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경북청송군청)
나. 장하다 순창(전북순창군청)
다. 함께 해요 잘사는 북구(광주북구청)
라. 종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서울종로구청)

- (46) 가.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전남장성군청)
나.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광주 1등시민(광주광역시청)
다. 일등군민 부자남해(경남남해군청)
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강원도청)

- (47) 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악(서울관악구청)
나. 열린생각, 열린미래(인천동구청)
다. 21세기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충북도청)
라.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충남예산군청)

(45 가-다)에서 '청송', '순창', '잘사는 북구' 등과 같은 주어, 부사어가 서술어 뒤에 실현되어 단조로운 문장 표현이 바뀌어졌다. (45 라)에서는 '종로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는 문장에서 '-가'를 생략하고 느낌표를 사용하여 '종로'를 강조하고 있다. (46 가-라)는 문장 대신 명사구를 사용하여 만든 표어인데, 이들 표어에서는 문장에서처럼 조사와 어미가 쓰이지 않아 깔끔한 인상을 준다. (47 가-라)은 관형형 표어인데, 지자체 표어 242개 가운데 137개가 이 형식에 속한다. 지자체 표어 가운데서 이 형식의 표어가 유독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표어 내용을 미묘한 문장 형식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보다 세련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다음 예문은 (47 가-라)의 표어를 문장 형식으로 복원한 것이다.

- (47') 가. 관악이 아름답고 풍요롭다.
나. 생각이 열린다. 미래가 열린다.
다. 충북이 21세기에 잘산다. 도민이 행복하다.
라. 도약이 새롭다. 예산이 행복하다.

(47')의 문장을 (47)의 표어와 비교해 보면 너무 단조롭다. 이것을 그대로 표어로 사용하면 표현 효과는 상당히 감소할뿐더러,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관형형 표어는 이와 같

은 문장형 표어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표어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문장 성분의 자리를 바꿈으로써 문장 형식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운율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관형형 표어가 지자체 표어의 대종을 이루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4.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지자체 표어의 수사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8) 지자체 표어의 수사적 특성

1) 지자체 표어의 비유적 표현

- ① 비유란 어떤 사물에 대하여 그와 비슷한 성질, 모양 따위를 가진 다른 사물을 끌어 대어 나타내는 방법을 말하는데, 지자체 표어에서 실현된 비유로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있다.
- ② 직유법은 한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유사한 사물을 끌어다가 비교하는 것으로 'A는 B와 같다'라는 외형적인 형식을 취한다. 이 경우 '-처럼', '-같이'와 같은 비교 조사가 쓰인다. 지자체 표어에서 직유법으로 만들어진 표어는 전체 표어 중 한 개가 있다.
- ③ 은유법은 표현 속에 비유를 숨기는 방법으로 'A는 B다'인 형식을 갖는다. 여기에서 'A'는 원관념이며, 'B'는 보조관념이다. 지자체 표어에서는 원관념이 드러나는 것과 생략된 것이 있는데, 은유법으로 만들어진 표어는 8개가 있다.
- ④ 의인법은 사물이나 추상적 관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것은 표어에 생명 의식을 넣어 준다. 지자체 표어에서 의인법으로 만들어진 표어는 19개가 있다.

2) 지자체 표어의 강조적 표현

- ① 강조법이란 표현하려는 내용을 보다 강렬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과장법, 반복법, 점층법 등이 있다.
- ② 과장법은 작은 것을 크게 표현하거나 큰 것을 작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지자체 표어에서는 비유 대상이 없이 사실만을 크게 부풀려 표현하는 예만 나타난다. 표어 내용이 과장된 것이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표어가 나타난 것은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표어는 9개가 있다.
- ③ 반복법은 문장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단어, 어구, 문장 등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표어의 의미를 강조해 줄 뿐만 아니라, 운율을 형성하는 데 한 몫을 한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표어는 56개가 있다.
- ④ 점층법은 언어 내용을 점점 힘 있고 중요하게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감정을 서서히 고조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표어는 63개가 있다.
- ⑤ 변화법은 문장이 너무 단조롭게 흐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글귀나 서술을 변화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특이하고 개성이 드러나도록 표현하여 인상 깊게 하는 기술인데, 지자체 표어는 모두 다 변화법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지방 행정의 내용을 간단하고 뚜렷하게 표현해야 하는 표어의 특성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교양교재편찬위원회(1995), 『대학작문』, 건국대학교출판부, 112쪽.
김승곤(2007), 『관형격조사 '의'의 통어적 의미 분석』, 경진문화사.
김제현(1992), 『시조문학론』, 도서출판 예전사, 29쪽.
박영순(2000), 『한국어은유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용남 외 3인(1986), 『문장의 원리와 작문의 실제』, 동성사, 179쪽.
임홍빈 외(2001), 『바른 국어생활과 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73쪽.
장황래(2001), 『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1쪽.
조창현(1995), 『지방자치론』, 박영사, 19쪽.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Daum 위키백과.
한국인터넷진흥원(2006).
중앙일보, 2009, 8.28, 42면.

▣ 토론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의 표어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용경(경동대)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조사하여 누리집에 제시된 표어를 수집·분석하고 음성적, 어휘적, 문법적 특징은 물론이고 수사적 특징까지 세밀하게 살펴본 연구이다. 먼저 이러한 논문을 읽고 토론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연구자가 말하고 있듯이 각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들이 표어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한 마디로 응축시켜 표현하기 위해 매우 고심한다. 이러한 표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의 음절 구조의 특징을 밝히고 표어에 나타난 중심 어휘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과의 연관성을 어떤지 살펴보기도 하였다. 또한 표어의 구성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떠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하여 표어를 보다 참신하게 표현하려 했는지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수집한 표어를 음절수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설명할 때, 시조와 가사와 비교하고 있는데 표어가 이들 장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2.1에서 “표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짧은 언어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지자체 표어의 음절은 누리집의 공간 특성상 적절한 음절수”라고 하였는데 표어에 따라 음절수의 차이도 많은데, 왜 이들 모두가 적절한 음절수라고 하였는지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2.3.1에서 “‘도시’는 그 자체가 해당 지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나, 그 통어 의미상 그 지자체가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곳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과연 ‘도시’ 자체가 이런 의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선뜻 긍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도시’를 꾸미고 있는 말에 따라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어에 사용된 중심 의미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이 있었다면 더욱 좋았다고 생각한다.

셋째, 3장에서는 표어의 문법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관형 구성’이란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장에서 관형 구성의 수에 따라 하위 구분하고 있는데,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여기서는 [관형어]와 [N+의]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둘은 모두 [관형어]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관형 구성의 수가 다르게 분류되어야 한다. (22)의 예문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재 분석될 수도 있다.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 변천과의 상관성

최대희(건국대)

< 차례 >

1. 머리말
2.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 변천과의 상관성
3. 맺음말
- 참고 문헌

1. 머리말

1.1. 연구목적과 대상

이 연구는 중세국어까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던 명사구 내포문에서의 ‘-오-’가 17세기에 거의 소멸하는데, 이러한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변천은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 변천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변천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지 않은 선어말어미 ‘-오-’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거리였다. 이와 같은 관심은 ‘-오-’에 관한 많은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고, 나름대로 부분적 진실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래서 ‘-오-’에 관한 논쟁은 해묵은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오-’와 관련하여 ‘-오-’의 기능, 내포문의 ‘-오-’와 연결·종결형의 ‘-오-’의 상관성 등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진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오-’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 중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변천 또한 ‘-오-’의 문법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다.

중세국어에서 ‘-오-’의 실현 환경은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서 흔히 동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ㅁ, -ㄴ, -ㄹ’ 앞인데, 환경에 따라 소멸된 시기가 다르다. 이는 ‘-오-’와 ‘-ㅁ, -ㄴ, -ㄹ’이 결합할 수 있었던 환경에서, 결합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

1) 본 연구에서 ‘-오-’의 문법적 기능은 전정례(1991)에서 논의한 ‘명사구내포문표지’임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정례(1991)에서는 ‘-ㅁ, -ㄴ, -ㄹ’ 앞에 ‘-오-’가 공통적으로 선접된다는 사실과 이들이 공통적으로 절을 이루어 명사구내포문을 구성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중세국의 선어말어미 ‘-오-’를 명사구내포문을 구성하는 내포선어말어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논의는 손주일(1990, 1996), 정수현(20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명사구 내포문에서 실현되고, 동명사형 어미에 실현되는 ‘-오-’를 명사적 특성이 강한 형태소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 ‘-오-’의 기능이 변화했는지, ‘-ㅁ, -ㄴ, -ㄹ’의 기능이 변화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만약 이런 기능의 변화가 실제로 있었다면,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변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오-’와 동명사형 어미의 상관관계 및 ‘-오-’의 소멸로 인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변천 과정을 확인해 보는 것은 ‘-오-’와 관련된 연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15세기에서 17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명사구 내포문 구성이 대상이다. 명사구 내포문 구성은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명사구 내포문 구성은 ‘-오-’가 실현되는 환경이고, 15세기에 빈번하게 실현되다가 16세기에 점점 줄어들어, 17세기에 거의 소멸되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로 한정하여 ‘-오-’실현 환경과 소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연구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볼 문헌은 다음과 같다.

<15, 16세기문헌>

문헌 이름	펴낸 연대	줄임
龍飛御天歌	1445	용가
釋譜詳節	1447	석보
月印千江之曲	1448	월곡
月印釋譜	1459	월석
楞嚴經診解	1462	능엄
法華經診解	1463	법화
金剛經診解	1463	금강
圓覺經診解	1465	원각
內訓	1475	내훈
金剛經三家解	1483	금강삼가
呂氏鄉約診解	1518	여씨
二倫行實圖	1518	이륜
童蒙先習診解	16세기	동몽
翻譯小學	1518	번소
翻譯朴通事	16세기 초	번박
翻譯老乞大	16세기 초	번노
分門瘟疫易解方	1542	온역
恩重經診解	1563	은중
野雲自警	1577	야운
小學診解	1587	소학
淸州順天金氏墓出土 簡札	1565-1575	청주간찰
論語診解	1587-1600	논어
孟子診解	1587-1600	맹자
中庸診解	1587-1600	중용
禪家龜鑑	1590경	선가
순천김씨간찰	16세기	순천김씨

<17, 18세기 문헌>

문헌 이름	펴낸 연대	줄임
診解痘瘡集要	1608	두창
診解胎産集要	1608	태산
練兵指南	1612	연병
東醫寶鑑	1613	동의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동신
家禮診解	1632	가례
新傳煮取焔焔方診解	1635	염소
女訓診解	17세기 초	여훈
火砲式診解	1635	화포
癸丑日記	1600년대	계축
남평조씨부인丙子日記	1636-1640	병자
勸念要錄	1637	권념
新刊救荒撮要	1639	구황
山城日記	1639	산성
辟瘟新方	1653	벽온
語錄解初刊本	1657	어록초
警民編診解(奎章閣本)	1658	경민중
語錄解重刊本	1669	어록중
老乞大診解	1670	노걸
捷解新語初刊本	1676	첩해초
朴通事診解	1677	박통
馬經抄集診解	1682	마경
救荒補遺方	1686	보유방
譯語類解	1690	역어
新傳煮硝方診解	1698	자초
蒙語老乞大	1741	몽노
淸語老乞大	1765	청노

본 연구는 ‘-오-’의 기능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변천과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

먼저, ‘-오-’의 기능과 동명사형 어미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오-’의 실현 환경은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서 흔히 동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ㄴ, -ㄷ, -ㄹ’ 앞인데, 환경에 따라 ‘-오-’가 소멸된 시기가 다르다. 먼저 관형화 구성에서 빠져나가고, 다음으로 명사화 구성에서 빠져나가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오-’의 기능 변화인지, ‘-ㄴ, -ㄷ, -ㄹ’의 기능변화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오-’의 소멸에 따른 명사화 구성의 변천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명사화 구성은 15세기에는 ‘-ㄴ’에 거의 필수적으로 ‘-오-’가 선접하고 있는데, 16세기를 거쳐 17세기에 오면, 이러한 결합의 빈도가 상당히 낮아진다. 이러한 ‘-오-’의 소멸은 명사화 구성의 변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의 소멸에 따른 관형화 구성의 변천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오-’의 소멸

이 명사화 구성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와 ‘-ㄴ, -ㄹ’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것이고, 관형화 구성에서도 ‘의존명사 구문’과 ‘일반명사 구문’에서의 ‘-오-’의 소멸 시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형화 구성의 변천 과정을 ‘-오-’의 소멸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이다.

1.2. 앞선 연구

‘-오-’의 연구는 허웅(1955)에서 ‘-오-’를 ‘삽입모음’으로 가칭한 이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오-’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문법적 기능을 밝히는 데 있었는데, 허웅과 이송녕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오-’와 관련하여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데, 허웅은 형태·통사론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내포문의 어미와 연결·종결어미는 다른 형태소로 설정하고, 각각 주체대상법, 인칭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송녕은 의미·화용론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같은 형태소라고 설정하고, ‘의도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대상법’과 ‘의도법’은 크게 대립하게 되는데 이 대립은 1970년 초반에까지 이른다. 그 후의 연구들은 각 학설을 뒷받침하거나 보충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나, 1980년대부터는 두 학설의 접근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오-’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① 주체.대상법

허웅(1958)에서는 관형사형에서 삽입모음을 취하는 활용형에서는 일인칭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한정사가 한정사에 대해서 주격의 자리의 말일 경우에는 ‘-(으/오)ㄴ’형을 사용하고, 피한정사가 한정사에 대해서 목적격의 자리에 서는 말일 경우에는 ‘-(오/우)ㄴ’형을 사용하는데 ‘-(으/오)ㄴ’형에서는 형용사가 우세하지만, ‘-(오/우)ㄴ’형에서는 형용사가 전혀 없는 것도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통사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종결형과 연결형에 나타나는 ‘-오-’와 관형사형에 나타나는 ‘-오-’를 구별하여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허웅(1963)에서 계속 이어지나 예외를 많이 남긴다는 한계가 있다.

주체.대상법을 재논의한 논문으로는 김승곤(1974), 최남희(1987), 강규선(1989), 양정호(2001) 등이 있다.

② 의도법

이송녕(1959)에서는 ‘-오-’의 개재를 설명하는 데에는 일관된 원리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하나의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간형성에서의 ‘-(오/우)-’가 [-(\emptyset)-]와 대립하는 것과 동사(존재사)의 활용어미에서 ‘-(오/우)-’가 개재되는 경우로 범주를 나누어 살폈다. 동사의 어간형성에서 ‘-(오/우)-’가 개입한 경우는 주어가 인간 또는 생물이며 그 주어가 무생물 자연물이라고 해도 의인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술어인 동사에 ‘-(오/우)-’가 쓰인 경우를 들어 결코 일인칭에만 국한되어 쓰인 것이 아니며 주어의 의도의 기술, 주관적 기술이라고 하였다. 이송녕(1960)은 이송녕(1959)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o/u)-’를 Volitive form(의도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서법 상에서 ‘의도’라는 것의 개념이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의도법설을 재논의한 논문으로는 이남덕(1970), 강길운(1972), 손주일(1979), 임홍빈(1981), 정재영(1985), 손형주(1993) 등을 들 수 있다.

③ 새로운 접근

이인모(1972), 차현실(1981), 손주일(1994, 1996), 전정예(1991), 홍종선(1997), 정수현(2011) 등이 있다. 90년대 이후 ‘-오-’의 통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생성문법의 개념을 도입하여 명사구 내포문 표지로 인식하고 있는 전정예(1991) 이후로 ‘-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정예(1991)는 통사론적 관점에서 ‘-오-’에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 논의로 허용의 인칭·대상 활용설과 이승녕의 의도법설로 이분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그 동안의 연구들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오-’는 선어말어미로서 통사적 기능을 갖는 요소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형태소 설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동명사형 어미 ‘-ㅁ’, ‘-ㄴ’, ‘-ㄹ’ 앞이라는 형태소적 조건을 제시하면서 종결·연결어미에서의 ‘-오-’와 명사형·관형사형의 ‘-오-’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생성문법 이론에 기반을 두어 명사구내포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명사화, 관형화 구성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오-’의 기능을 명사구내포문을 구성하는 내포선어말어미로 규정했다. 손주일(1996)에서는 전정예(1991)의 연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연구에서의 예문들을 재연구해 15세기 국어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이 변화가 15세기 당시의 ‘±(오/우-)ㄴ,ㄹ’형들이 그 자체로서 또 다른 기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다. 정수현(2011)에서는 종결·연결어미에서의 ‘-오-’와 명사형·관형사형 앞에서의 ‘-오-’가 동명사형 어미 ‘-ㄴ, -ㄹ, -ㅁ’ 앞에 나타난다는 형태소적 분포 환경을 중시하여 연결어미·종결어미와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 쓰인 ‘-오-’가 유기적 관련성을 가진 같은 형태소임을 밝히고, 그 기능 변화를 연구하였다.

‘-오-’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오-’를 명사구 내포문 표지로 설정했을 때, 명사구 개념의 판단 기준과 거기에 따라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2.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 변천과의 상관성

2.1. ‘-오-’와 동명사형 어미의 상관성

2.1에서는 ‘-오-’와 동명사형 어미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볼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오-’의 기능과 동명사형 어미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오-’는 명사구 내포문에 관여하는 표지이고, 동명사형 어미 ‘-ㅁ, -ㄴ, -ㄹ’은 동사이면서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명사성’이라는 부분에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²⁾ 그래서 ‘-오-’의

2) 전정예(1991)에서는 동명사형 어미 ‘-ㅁ, -ㄴ, -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그

소멸과 관련하여 ‘-오-’의 명사적 특성의 약화가 ‘-ㅁ, -ㄴ, -ㄹ’의 명사적 특성 약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ㅁ, -ㄴ, -ㄹ’의 명사적 특성의 약화가 ‘-오-’의 명사적 특성의 약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5~16세기까지의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서의 ‘-오-’의 실현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실현 양상을 확인할 때에는 ‘-ㅁ’에 선접하는 ‘-오-’와 ‘-ㄴ, -ㄹ’에 선접하는 ‘-오-’를 먼저 파악하여, ‘-오-’의 소멸이 빠르게 나타나는 구성을 확인하고, ‘-오-’의 소멸이 빨라지는 구성을 통해, ‘-오-’의 소멸과 ‘-ㅁ, -ㄴ, -ㄹ’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것이다.

- (1) ㄱ. 夫人이 며느리 어드샤문 溫和히 사라 (석보6:7)
 네의 어미 그려호미 상넛 ㅍ뎛 衆生에서 倍홀씨 (월석21:22)
 이 사르미 氣運이 揚揚호물 感激호노니 (두언15:42)
 몬져 丈六像이 못 우희 겨사물 보스뵤디니 (월석8:44)
- ㄴ. 내 犯혼 일 업거늘 (월석13:16)
 제 머군 ㅍ드르 고뵤거시 다외야 뵤며 (월석1:32)
 네 아논 사르미 윈 이를 니르디 말며 (내훈1:8)
- ㄷ. 들윗 사르미뵤 사름 드외엿논 바논 (내훈1:17)
 이 각시사 내 얻니논 ㅁ스매 맛도다 (석보6:13)
 이 사르문 如來 브룬 이이며 (법화4:76)
 眞如法이 하나히론 주를… (능엄4:13)
 사르미…모딘 일 지순 다스로 (월석1:46)
- ㄹ. 사르미 제 몸 닷굴 ㅅ ㅎ고 (석보13:36)
 내 지뵤 이십 저긔 여둘 나랏 ㅍ이 …(석보6:7)
 부터 겨신 적과 ㅅ쫄홀씨라 (능엄1:2)

(1)은 15세기 국어의 명사구 내포문에 보이는 ‘-오-’의 실현 양상이다. (1ㄱ)은 명사화 구성에서 ‘-오-’가 실현된 예이고, (1ㄴ, ㄷ)은 관형화 구성에서 ‘-오-’가 실현된 예인데, (1ㄴ)은 피수식어가 일반명사인 관계화 구성이고, (1ㄷ)은 피수식어가 명사성이 강한 의존명사인 보문화 구성이다.³⁾ (1ㄹ)은 관형화 구성에서 ‘-오-’가 실현되지 않은 예인데, 형태.통사적 제약을 받는 의존명사 구성이다.⁴⁾

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동명사형 어미는 일찍부터 국어와 알타이어와의 비교 연구에서 동명사형 어미로 확인된 것들로서 이들은 동사(서술)의 기능을 가지면서 명사(체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후에 ‘-ㄴ, -ㄹ’은 관형사적 기능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ㅁ’과 ‘-ㄴ’, ‘-ㄹ’이 중세국어에서 동계열의 동명사형 어미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중세국어에 이미 ‘-ㄴ, -ㄹ’은 관형사적 기능이 일반적인 기능이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시제성과 관련하여서도 ‘-ㅁ’에서 이미 시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ㄴ, -ㄹ’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국어에도 이들의 명사적 기능이 남아 있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되고, 알타이어군에서도 ‘-ㄴ’, ‘-ㄹ’의 명사적 기능과 함께, 관형사적 기능이 확인되므로 이들을 기원적으로 ‘-ㅁ’과 함께 국어의 동명사형 어미를 이루는 동계의 어미로 볼 수 있다.”

- 3) 관형화 구성에서 특히 관계절에서의 ‘-오-’의 실현에 대해 허웅(1975)에서는 주체-대상법으로 설명하고, 양정호(2001)에서도 주체-대상법을 보완하여 설명하고 있다. 관형화 구성에서 관계절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설명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고, ‘-오-’의 실현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 4) 최대희(2013)에서는 의존명사의 명사성과 관련하여 ‘-오-’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명사성이 아주 강한 제1유형에서는 ‘-오-’의 실현이 보이고 있고, 명사성이 약해진 제2, 3유형에서는 ‘-오-’의 실현이 보이지 않는다고 논의하였다. 명사성은 형태론적 조건(격조사, 보조사, 문법형태소 등

- (2) ㄱ. 아미와 직식이 親暱이 이시며 (동몽:1)
네 … 가문을 빗내요미 엇더홀고 (변박상:50)
네 날오미 내 뜯과 곧다 (변노상:11)
- ㄴ. 기타는 배 업스미 아니라 현대 表ㅣ 嘆息하고 가다 (소학6:85)
눅고 귀히니를 섬김은 하늘과 짜히 덜덜흔 經이며 (동몽:4)
두렵고 무셔오미 그음이 업스니 (은중:13)
天下에 올티 아니흔 父母ㅣ 업숨을 위히엘시라 히여놀 (소학5:38)
- ㄷ. 빅성이 자벳논 常性이라 (변소6:1)
이베 곱히올 마리 업스며 (변소6:13)
이 물 우히 시론 아니한 모시뵈도 (변노상:8)
밤마다 먹논 답과 콩이 (변노상:12)
- ㄹ. 등상이 궁박흔 줄을 어엿찌 너겨 (이륜:37)
孟子ㅣ 性이 어딘 줄을 날으사디 (소학4:1)
더 人家ㅣ 사르미 만흔 주를 보면 (변노상:46)

(2)는 16세기 국어의 명사구 내포문에 보이는 ‘-오-’의 실현 양상이다. (2ㄱ)은 명사화 구성에서 ‘-오-’가 실현된 예이고, (2ㄴ)은 명사화 구성에서 ‘-오-’가 실현되지 않은 예이며, (2ㄷ)은 관형화 구성에서 ‘-오-’가 실현된 예이고, (2ㄹ)은 관형화 구성에서 ‘-오-’가 실현되지 않은 예이다. 관형화 구성을 보면, 2(ㄷ)과 같이 피수식어가 일반명사일 경우에는 ‘-오-’가 실현되는 경우의 예를 확인할 수 있지만, (2ㄹ)처럼 피수식어가 의존명사일 경우(15세기에는 ‘-오-’의 실현이 보이는 의존명사들 포함)에는 ‘-오-’가 실현되는 경우가 잘 보이지 않는다.

- (3) ㄱ. 흙씩 도적질호미 도티 아니하랴 (박통하:26)
小學 글이 傳호미 업거늘 (여훈상:26)
네 敎호미 반드시 方이 이셔 (여훈상:26)
- ㄴ. 聖母ㅣ 법히시물 한 몸으로써 법이 되샤 (여훈상:9)
니일은 구름 브트미 도쓰오니 (첩해초6:13)
父母로 더브러 다르미 업스니라 (경민중:1)
- ㄷ. 그디 말리 올흔 줄을 아로디 (두창:12)
오직 제 싱각흔 거슬 머기면 (태산:13)
티긔 인논 줄 아라든 (태산:12)

(3)은 17세기 국어의 명사구 내포문에 보이는 ‘-오-’의 실현 양상이다. (3ㄱ)은 명사화 구성에서 ‘-오-’가 실현된 예이고, (3ㄴ)은 명사화 구성에서 ‘-오-’가 실현되지 않은 예이며, (3ㄷ)은 관형화 구성에서 ‘-오-’가 실현되지 않은 예이다.

정리하면, 15세기에는 ‘-오-’의 실현이 명사화 구성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실현되는데⁵⁾, 관

과의 결합 가능성)과 통사론적 조건(여러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가와 서술어와의 통사적 제약 관계)을 고려하여 설정한 개념이다.

5) 양정호(2001)을 보면,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명사형어미 ‘-ㅁ’이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전기중세국어 시기에 ‘-ㅁ’이 제한된 환경에 출현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시기가 명사형어미 ‘-ㅁ’이 발달해 가는 초기 단계였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라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ㅁ’에 ‘-오-’가 통합한 용례를 석독구결 자료를 통해 살폈는데, ‘-ㅁ’에 ‘-오-’가 통합한 예보다 그렇지 않은 예가 다소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 논의를 근거로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동명사형어미와 ‘-오-’의 통합을 추론해 보면, ‘-오-’는 명사적 특성을 가진 형태소인데, 전기중세국어 시기에 명사적

형화 구성에서는 불규칙하다. 피수식어가 일반명사 구문일 경우와, 형태·통사적 제약을 덜 받는 의존명사 구문일 경우에는 ‘-오-’의 선접이 거의 실현되는데, 형태·통사적 제약을 받는 의존명사 구문에서는 ‘-오-’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보인다. 16세기에는 15세기에 비해 ‘-오-’가 불규칙적으로 실현된다. 특히 명사화 구성보다는 관형화 구성에서 ‘-오-’의 실현이 더 불규칙적이다. 17세기에는 명사화 구성에서는 ‘-오-’의 실현이 보이지만, 관형화 구성에서는 ‘-오-’가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에 관형화 구성에서는 ‘-오-’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보면, 명사화 구성보다는 관형화 구성에서 ‘-오-’의 소멸이 빨리 진행되고, 관형화 구성에서도 피수식어가 일반명사일 때 보다 의존명사 일 때 ‘-오-’의 소멸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ㅁ’보다는 ‘-ㄴ, -ㄹ’ 앞에서 ‘-오-’의 소멸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 ‘-오-’의 명사성의 약화가 ‘-ㅁ, -ㄴ, -ㄹ’ 앞에서 차례대로 소멸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ㅁ, -ㄴ, -ㄹ’ 중에 ‘-ㄴ, -ㄹ’이 ‘-ㅁ’보다 빨리 명사적 성질이 소멸되어 명사적 특성이 있는 ‘-오-’를 관형화 구성에서 실현시킬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 설명 중에 전자보다는 후자가 설득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⁶⁾ 왜냐하면, ‘-오-’의 명사적 기능이 소멸되었다면, ‘-ㅁ’에서도 ‘-오-’가 실현되지 않아야 하는데, ‘-오-’는 ‘-ㅁ’앞에서는 ‘-ㄴ, -ㄹ’보다는 실현되는 양상이 더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2.2. ‘-오-’의 소멸과 명사화 구성의 변천

2.2에서는 ‘-오-’의 소멸과 명사화 구성의 변천 과정의 상관성을 확인할 것이다. ‘-오-’는 명사성이 강한 구성에 선접하는 형태소인데, 명사화 구성에서 왜 ‘-오-’가 소멸하고, 명사화 구성의 체계도 변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오-’의 기능 약화가 명사화 구성을 변하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명사형 어미의 빈번한 쓰임이 명사화 구성을 변하게 했는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오-’의 기능 약화에 따라 다른 명사형 어미가 등장해서 명사화 구성 체계를 변하게 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기’의 활발한 쓰임이 반대로 ‘-오-’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명사화 구성 체계를 변화시켰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관형화 구성에서의 ‘-오-’의 소멸이 명사화 구성에서도 ‘-오-’의 실현을 위축시켰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문헌에 보이는 명사화 구성을 확인하고, ‘-오-’의 소멸과 관련하여 명사화 구성의 체계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명사화 구성의 변천 양상은 최대희(2014)의 <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명사화 구성을 형성하는 구성요소의 분포를 확인해 보면, 15세기에는 ‘-ㅁ’에 의한 명사화 구성이 주를 이루었고, 16세기 이후 ‘-기’에 의한 명사화 구성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17세기 이후 20세기 초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ㄴ, -ㄹ’에 ‘-오-’의 실현이 불규칙한 것은 ‘-ㅁ’의 영역 확대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ㅁ’이 명사절 형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ㄴ, -ㄹ’은 명사절 형성에서 매우 굳건한 위치를 차지했겠지만, ‘-ㅁ’의 영역 확대는 ‘-ㄴ, -ㄹ’의 불안정성을 가져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에 후기중세국어시기로 오면서 ‘-ㅁ’은 명사절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명사적 특성이 강한 ‘-오-’를 예외없이 통합하게 되었지만, ‘-ㄴ, -ㄹ’은 명사절 형성에 덜 관여하게 되면서, ‘-오-’가 통합되지 않은 예가 더 많아졌다고 판단된다.

6) 15세기의 ‘-오-’와 ‘-ㅁ’, ‘-ㄴ, -ㄹ’의 명사성의 정도를 추측해 보면, ‘-오-’[명사성 강함], ‘-ㅁ’[+명사성 강함], ‘-ㄴ, -ㄹ’[명사성 약함]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까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20세기 이후로는 ‘-ㄴ 것’에 의한 명사화 구성의 분포도 높아졌다. 최대희(2014)의 <표>를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세기	문헌명	이름마디의 구성요소 (빈도수)		
		-ㅁ	-기	-ㄴ 것
15세기	석보상절	164	6	0
	구급방언해	70	1	0
	삼강행실도(동경대본)	53	7	0
	내훈	275	1	0
16세기	번역박통사	40	13	0
	번역노걸대	38	9	0
	논어언해	125	1	1
	여씨향약언해	29	3	0
17세기	경민편언해	59	46	4
	권념요록	29	4	0
	노걸대언해	53	44	0
	박통사언해	99	46	2
18세기	몽어노걸대	39	29	2
	삼역총해	114	14	9
	병학지남	96	3	0
	인어대방	17	26	13
19세기	규합총서	1	43	0
	성교백문답	84	4	2
	진교절요	27	9	0
	이언언해	600개 이상	556	32
	장백전	148	31	0
	장풍운전	138	23	0
	진대방전	69	17	1
	장경전	88	29	0
20세기초	경세종	13	56	38
	화중화	27	43	32
	마상루	8	49	33
21세기	초등학교 읽기 동화	4	116	31

각 시기별 명사화 구성은 최대희(2014)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기별 특성을 보여주는 소수의 명사화 구성 예만 들어 보이겠다. 각 시기별 명사화 구

성은 다음과 같다.

- (4) 어버이 子息 사랑호몬 아니흔 스시어니와 (석보6:3)
夫人이 며느리 어드샤문 溫和히 사라 (석보6:7)
모든 行勳 사르미 모습 시소물 正히 아니흐야 (능엄1:23)
새 개요물 알외디 아니하리로다 (두언6:16)
- (5) ㄱ. 子路ㅣ 그리호려 헛 말을 무굽이 업더라 (소학4:43)
분변티 아니흠이 이실띠언뎡 (중용:33)
두워 두워 더로미 아니하다 (변박상:4)
三年을 父의 道애 고티미 업세사 可히 孝ㅣ라 닐을이니라 (논어1:6)
鬼神에 質흐야도 疑ㅣ 업숨은 天을 알시오 (중용:46)
기티는 배 업스미 아니라 恨대 表ㅣ 嘆息호고 가다 (소학6:85)
ㄴ. 활 혀기논 각별흔 히미 잇고 (변박:55)
이 노미 마좌 므너 가니 하 보내기 서온히여 두거니와 (순천김씨)
天下에 人牧이 人殺호기를 嚙티 아니흠 者ㅣ 잇디 아니흐니 (맹자1:17)
어버시 섬기며 제스호기를 엇디 노모로 호라 호리오 (번소7:6)
- (6) ㄱ. ㅈ연히 靑공한 덜덜흠 업스며 (권념:4)
小學 글이 傳호미 업거늘 (여훈상:26)
니일은 구름 브트미 朶썩오니 (첨해초6:13)
貴흔 ㅈ 者논 閨門의 ㄷ쓰미 잇고 (여훈상:21)
ㄴ. 명조의 용밍흔 스자을 항복호기 어려우니라 (권념7)
진실로 아득호고 어두어 알기 어렵거니와 (경민중36)
ㅈ음을 노화 朝夕의 비브르기를 取호며 (경민중:12)
네 뇌여란 호디 말라 니르기를 ㅈ초매 (박통중:28)

(4)는 15세기의 명사화 구성인데, 15세기 명사화 구성은 ‘-ㅁ’에 의한 명사화 구성이 주를 이룬다. (5)는 16세기 명사화 구성인데, ‘-ㅁ’에 의한 명사화 구성이 주를 이루지만, ‘-기’에 의한 명사화 구성도 15세기에 비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5ㄱ)은 ‘-ㅁ’에 의한 명사화 구성이고, (5ㄴ)은 ‘-기’에 의한 명사화 구성이다. ‘-ㅁ’에 의한 명사화 구성에서 ‘-오-’가 실현된 경우와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를 실현하는 구성이 ‘-오-’를 실현하지 않은 구성보다는 빈도수가 높다. (6)은 17세기 명사화 구성인데, (6ㄱ)은 ‘-ㅁ’에 의한 명사화 구성이고, (6ㄴ)은 ‘-기’에 의한 명사화 구성이다. 17세기에는 ‘-ㅁ’에 의한 명사화 구성과 더불어 ‘-기’에 의한 명사화 구성이 매우 활성화 되었으며, ‘-ㅁ’에 의한 명사화 구성에서 ‘-오-’의 소멸이 더 확산되어 ‘-오-’가 실현되지 않는 형태가 ‘-오-’를 실현한 형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오-’의 소멸과 명사화 구성의 변천은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오-’의 소멸로 인해 ‘-ㅁ’에 의한 명사화 구성이 불안정하게 되고, 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에 의한 명사화 구성이 활성화 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기’명사화 구성의 활발한 사용이 ‘-ㅁ’명사화 구성을 위축시켜 ‘-오-’의 소멸을 가져왔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논의의 설득력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자의 경우는 ‘-오-’의 기능 약화에 따

라, ‘-오-’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면서, ‘-ㄹ’명사화 구성의 불안정성이 다른 명사화 구성의 활성화를 촉진시켰다고 논의이고, 후자의 경우는 15세기에는 접사의 기능을 주로 하였던 ‘-기’가 16세기 이후 활용어미로 기능을 확대하면서, ‘-ㄹ’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결국 활용어미로서의 ‘-기’는 ‘-ㄹ’의 범위를 침범하게 되고, 그 결과 ‘-ㄹ’명사화 구성을 위축시키고, ‘-오-’의 소멸을 촉진시켰다는 논의인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논의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언어 변화에서도 공식적으로 공존하는 두 언어 형식 중에서 어느 하나가 세력을 얻어 다른 하나를 침식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⁷⁾

2.3. ‘-오-’의 소멸과 관형화 구성의 변천

2.3에서는 ‘-오-’의 소멸과 관형화 구성의 변천과의 상관성을 확인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오-’와 ‘-ㄴ, -ㄹ’의 기능 변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오-’의 실현과 관형화 구성의 변천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이 둘의 명사성 약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2.1에서도 논의하였듯이, ‘-ㄹ’보다 ‘-ㄴ, -ㄹ’의 명사성 약화가 ‘-오-’의 실현을 거부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관형화 구성의 어떤 구문에서부터 ‘-오-’의 실현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15세기에서 17세까지 문헌에 보이는 관형화 구성을 피수식어가 ‘일반명사’인 경우와 ‘의존명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오-’의 실현 양상을 확인한 후, ‘-오-’와 ‘관형화 구성’ 변천의 상관성을 살펴 볼 것이다.

15세기에서 17세까지 관형화 구성을 전체 문헌에서 확인하고, 예문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논의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일반명사 구성과 의존명사 구성에 보이는 ‘-오-’의 실현 양상을 요약하여 살펴 볼 것이다.

(7) ㄱ. 소내 물 뿔 숯가라기 도드며 바래 물 뿔 고기 니슬씨라 (능엄1:19)

나랏 衆生이 니불 오시 무스매 머거든 (월석8:65)

내 犯흔 일 업거늘 (월석13:16)

이 보비로 뿔 것 밧고면 (원각서:77)

너희의 어루 玩好홀 꺼시 希有 亨야 (법화2:26)

저희 願흔 바는 님금스 官人을...(두언25:37)

ㄴ. 물읷 有情의 뿔 거시 다 날븐 줄 업기 호리라 (석보9:5)

이런드러 머러 잇는 거시 업스니라 (능엄2:109)

淡然히 즐기논 배 업더라 (내훈:25)

엇데 아로물 세웁 주리 이시리오 (능엄5:8)

잡간도 흐르도 ㄴ 불근 저기 업스며 (내훈2:17)

흔 句스 法도 니르신 저기 업고 (석보24:39)

天地祖宗이 ㅅ되에 도을 썩니 아니라 (내훈2:98)

부텃 몹 드르미 現홀 썩니 아니라 (석보11:7)

7) 전정례(1991)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오-’의 소멸과 관련하여 기능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는데,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공존했던, ‘것’, ‘기’가 ‘-오-’의 소멸에 중요한 몹을 담당하였다고 논의하였다. ‘-오-’를 선접하지 않는 ‘것’, ‘-기’의 활발한 사용은 동일한 기능의 ‘-오-’의 위축을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오-’를 선접한 형이 ‘것’, ‘기’로 교체된 예를 많이 발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8) ㄱ. 무쇼돌히 밤마다 먹논 딥과 콩 (번노상:11)
 진실로 太子의 니르논 말와 곤 하야 (번소9:46)
 제 모미 하마 아논 이리 저고디 (번소6:18)
 황촌이라 흘 짜해 (번박상:64)
 보비로 썬민 수늬 노픈 곳 곳고 (번박상:5)
 일헛논 무스물 거두어 (번소8:24)
 ㄴ. 이 내이 키 아철논 배니 (번소6:13)
 저문 비홀 사르미 모로매 몸져 홀 배라 (번소6:8)
 행하논 바와 닷 물릿 니르논 바를 (소학6:123)
 비록 자반논 배 다 올홀디라도 (소학5:36)
 티장하야 주어 보내논 거시 7장 만하더니 (번소9:58)

- (9) ㄱ. 선회 향화로 가질 여가 묻하야 (권념:29)
 每日 學長이 더 7래논 學生올다가 스승씨 숲고 (노결상:6)
 머리에 쓴 거슨 도흔 돈피 이엄이오 (노결하:46)
 멀리 혼 초가로 지은 덤이 이시니 (노결상:56)
 ㄴ. 그 둥에 7래논니 잇논냐 그리어니 7래논니 잇논니라 (노결상:6)
 너희 들히 썰리 니러 자본 것 서러 저 집 시르라 (노결상:53)
 아히의 먹논 것 닙논 거시 다 이 어린 놈의 천이라 (노결하:44)
 므슴 유의홀 빼 이시리오 (경민중:16)

(7)은 15세기의 관형화 구성인데, (7ㄱ)은 피수식어가 일반명사인 경우로 ‘-오-’가 실현되는 경우와 실현되지 않은 경우이다. (7ㄴ)은 피수식어가 의존명사인 경우로 ‘-오-’가 실현되는 경우와 실현되지 않은 경우이다. (8)은 16세기의 관형화 구성인데, (8ㄱ)은 피수식어가 일반명사인 경우로 ‘-오-’가 실현되는 경우와 실현되지 않은 경우이다. (8ㄴ)은 피수식어가 의존명사인 경우로 ‘-오-’가 실현되는 경우와 실현되지 않은 경우인데, 제1유형의 의존명사들도 ‘-오-’의 실현이 불규칙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9)는 17세기 관형화 구성인데, ‘-오-’의 선접이 피수식어가 일반명사와 의존명사인 경우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⁸⁾ 먼저, 15세기 관형화 구성은 피수식어가 일반명사일 경우에는 ‘-오-’의 실현이 거의 예외가 없지만, 의존명사일 경우에는 ‘제2, 제3유형’에서는 ‘-오-’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인다.⁹⁾ 다음으로, 16세기 관형화 구성을

8) 17세기 국어에서는 ‘닐은’, ‘홀’ 등의 형태만 남아 있다.

닐은 바 병에논 그 근심을 닐위다 혼은 (경민중:35)

닐은 조식이 어버이 봉양하기를 (경민중:34)

수리 조차 나으락 무르락 호디 각각 제 홀 일돌홀 보아 하라 (연병:25)

위의 예들은 ‘-오-’가 관용적인 사용에 의하여 화석화하여 남아있는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 의존명사의 목록은 기존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정례(1991)에서는 의존명사의 목록을 ‘-오-’의 출현과 관련하여, 보편성 의존명사, 부사성 의존명사, 서술성 의존명사로 구분하였으며, 허웅(1975)에서는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로서, 전형적 매인이름씨, 불구적 매인이름씨, 수단위 매인이름씨로 분류하였다. 최대희(2013)에서는 명사성의 정도에 따라, 1유형(명사성이 가장 강한 유형), 2유형(명사성이 덜 강한 유형), 3유형(명사성이 가장 약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에서는 최대희(2013)의 의존명사 목록을 활용하여 논의를 한다. 의존명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ㄱ. 제 1 유형 - 것, 곧, 바, 이, 줄, 닷, 양

ㄴ. 제 2 유형 - 적(제), 덜

ㄷ. 제 3 유형 - 만, 썬, 썬름

보면, 피수식어가 일반명사일 경우에는 ‘-오-’가 실현되는 경우의 예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식어가 의존명사일 경우(제1, 2, 3유형) ‘-오-’가 실현되는 경우가 잘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7세기 관형화 구성을 보면, 일반명사와 의존명사 모두 ‘-오-’의 실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위의 결과를 통해, ‘-오-’의 소멸과 관형화 구성의 변천도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명사화 구성에 비해 관형화 구성에서 ‘-오-’의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관형화 구성에서는 일반명사 구문보다는 의존명사 구문에서 ‘-오-’의 소멸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는 명사화 구성을 형성하는 ‘-ㅁ’이 관형화 구성을 형성하는 ‘-ㄴ, -ㄹ’보다 명사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형화 구성에서는 일반명사 구문이 의존명사 구문보다 명사성이 더 강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관형화 구성의 변천은 ‘-오-’의 소멸로 관형화 구성이 변천하였다기보다는, ‘-ㄴ, -ㄹ’의 명사성의 약화와 의존명사 구문의 명사성의 약화가 명사적 특성을 가진 ‘-오-’를 실현시킬 이유가 없어지면서, 관형화 구성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변천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¹⁰⁾

3. 맺음말

지금까지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 변천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변천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의 기능과 동명사형 어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명사화 구성보다는 관형화 구성에서 ‘-오-’의 소멸이 빨리 진행되고, 관형화 구성에서도 피수식어가 일반명사일 때 보다 의존명사 일 때 ‘-오-’의 소멸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ㅁ’보다는 ‘-ㄴ, -ㄹ’ 앞에서 ‘-오-’의 소멸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ㅁ, -ㄴ, -ㄹ’ 중에 ‘-ㄴ, -ㄹ’이 ‘-ㅁ’보다 빨리 명사적 성질이 소멸되어 명사적 특성이 있는 ‘-오-’를 관형화 구성에서 실현시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오-’의 소멸에 따른 명사화 구성의 변천 과정을 확인하였다. ‘-오-’의 소멸과 명사화 구성의 변천은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기’명사화 구성의 활발한 사용이 ‘-ㅁ’명사화 구성을 위축시켜 ‘-오-’의 소멸을 가져왔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15세기에는 접사의 기능을 주로 하였던 ‘-기’가 16세기 이후 활용어미로 기능을 확대하면서, ‘-ㅁ’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결국 활용어미로서의 ‘-기’는 ‘-ㅁ’의 범위를 침범하게 되고, 그 결과 ‘-ㅁ’명사화 구성을 위축시키고, ‘-오-’의 소멸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언어변화에서도 공시적으로 공존하는 두 언어 형식 중에서 어느 하나가 세력을 얻어 다른 하나를 침식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의 소멸에 따른 관형화 구성의 변천 과정을 확인하였다. 명사화 구성에 비해 관형화 구성에서 ‘-오-’의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관형화 구성에서는 일반명사 구문보다는

10) 양정호(2001)에 보면, 동명사형 어미 ‘-ㄴ, -ㄹ’은 전기 중세국어시기에는 ‘-ㅁ’보다는 오히려 명사절을 형성하는 주요한 수단이었으며, ‘-ㅁ’은 극히 제한적으로 명사절 형성에 참여하는 요소였으나, 후기 중세국어시기에 오면서 ‘-ㅁ’은 명사절 형성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ㄴ, -ㄹ’은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ㄴ, -ㄹ’은 명사적 성질이 강한 어미였으나, 후기 중세국어시기에 오면서, 명사적 성질이 약화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존명사 구문에서 ‘-오-’의 소멸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는 명사화 구성을 형성하는 ‘-ㅁ’이 관형화 구성을 형성하는 ‘-ㄴ, -ㄹ’보다 명사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형화 구성에서는 일반명사 구문이 의존명사 구문보다 명사성이 더 강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관형화 구성의 변천은 ‘-ㄴ, -ㄹ’의 명사성의 약화와 의존명사 구문의 명사성의 약화가 명사적 특성을 가진 ‘-오-’를 실현시킬 이유가 없어지면서, 관형화 구성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변천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강규선(1989), 「삽입모음 「~(o/u)-」의 기능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논문집 8, 청주대학교, 41~61쪽.
- 강길운(1972), 「한정법(삽입모음 -오/우-)에 대하여」, 덕성여대논문집, 덕성여자대학교, 3~128쪽.
-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 김송룡(1985), 「16세기 국어의 인칭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곤(1974), 「‘오/우’ 형태소고-노결대와 박통사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65.66, 국어국문학회, 1~28쪽.
- 김영태(1973), 「-오/우- 접미사고:전성부사화의 경우」, 경대문화 6, 경남대학교, 62~71쪽.
- 손주일(1994), 「{-오/우-} 연구 현황과 과제」, 인문학연구 32, 강원대학교, 3~21쪽.
- 손주일(1996), 「15세기 국어 ‘-ㄴ, -ㄹ’ 관형사형과 ‘±{-오/우-}’와의 관련성」, 강원인문논총, 강원대학교, 47~98쪽.
- 손형주(1993), 「15세기 국어「-오/우-」의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호(2001), 「중세국어 동명사의 선어말어미 ‘-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창돈(1964), 『이조어 사전』, 연세대 출판부.
- 이광호(2004),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 이광호(1996), 『명사화소 ‘-기’의 의미 기능과 그 기원에 대한 소고』, 이기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 이남덕(1970), 「15세기 국어의 서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욱(2005), 「15세기 국어 ‘-옴’ 결합형의 통사적 지위와 단어 형성-<능엄경언해>의 용례를 중심으로-」, 국어학46, 국어학회.
- 이승녕(1959), 「어간형성과 활용어미에서의 「-(오/우)-」의 개재에 대하여」, 논문집 8, 서울대학교, 3~70쪽.
- 이승녕(1960), 「Volitive form으로서의 Prefinal ending 「-(o/u)-」의 개재에 대하여」, 진단학보 21, 진단학회, 107~178쪽.
- 이승녕(1964), 「‘-(오/우)-’ 논고」, 국어국문학 27, 국어국문학회, 3~20쪽.
- 이인모(1975), 「중세국어의 서법과 시제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승(1955), 『국어학 개설』, 민중서관
- 임홍빈(1981), 「선어말 {-오/우-}와 확실성」,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91~134쪽.
- 전정례(1991), 「중세국어 명사구내포문에서의 ‘-오-’의 기능과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수현(2011), 「선어말어미 ‘-오-’의 기능과 변천 -명사성의 약화와 그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영(1985),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오/우-}에 대한 연구-형태론과 통사미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차현실(1981), 「중세국어 응축보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남희(1987), 「선어말어미 「-오/우-」의 통어 기능」, 동의어문논집 3,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157~192쪽.
- 최대희(2010ㄱ), 「17세기 이름마디 체계의 형성 과정」, 한말연구26, 한말연구학회, 209~237쪽.
- 최대희(2010ㄴ),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대희(2013), 「‘-오-’의 실현과 의존명사 명사성과의 상관성 연구-15세기 문헌을 대상으로」, 한말연구 32, 한말연구학회, 363~392쪽.
- 최대희(2014), 「국어의 이름마디 변천 연구」, 한말연구34, 한말연구학회.
-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 한재영(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선어말어미 ‘-오/우-’』, 동아출판사.
- 허 웅(1958), 「삽입모음고-15세기 국어의 일인칭 활용과 대상 활용에 대하여-」, 논문집 7, 서울대학교, 83~152쪽.
- 허 웅(1963), 『언어학개론』, 정음사.
- 허 웅(1965), 「‘인칭 어미설’에 대한 다섯 번째의 논고」, 한글 135, 한글학회.
- 허 웅(1973), 「15세기 국어의 주체-대상법 활용」, 한글 152, 한글학회, 48~55쪽.
-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허 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원욱(1991), 15세기 국어의 이름마디와 매김마디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원욱(1993), 『15세기 국어 통어론』, 샘문화사.
- 홍종선(1997), 『근대 국어 문법-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43~190쪽.

▣ 토론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 변천과의 상관성”에 대한 토론문

정수현(건국대)

이 발표는 중세국어까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던 명사구 내포문에서의 ‘-오-’가 17세기에 거의 소멸하는 과정 안에서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변천에 관한 상관성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둔 논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와 관련한 연구가 주춤해진 이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의 문법적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논문을 읽는 내내 선생님의 논문에 누가 되지 않을까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하나마 논문을 읽으며 궁금하였던 것을 질문 드리는 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1.1. 마지막 부분에서 “먼저, ‘-오-’의 기능과 동명사형 어미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오-’의 실현 환경은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서 흔히 동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ㅁ, -ㄴ, -ㄹ’ 앞인데, 환경에 따라 ‘-오-’가 소멸된 시기가 다르다. 먼저 관형화 구성에서 빠져나가고, 다음으로 명사화 구성에서 빠져나가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오-’의 기능 변화인지, ‘-ㅁ, -ㄴ, -ㄹ’의 기능변화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가 ‘-ㅁ’과 더 지속되어 실현되는 양상을 들면서 각주 6면에 ‘-오-’의 성격을 [명사성 강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 전체에 예시가 부족하기는 하나 ‘-오-’의 소멸 과정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고, ‘-ㅁ, -ㄴ, -ㄹ’ 앞에서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정도로 ‘-오-’가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오-’ 자체가 명사적 특성이라고 기술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가 관여하는 구문의 명사성 정도로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여도 선생님의 논문에 무리는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하는 이유를 각 구문 구성에 관여하는 의존명사나 일반명사 자체의 명사적 쓰임과 관련하여 논증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면 ‘-오-’의 기능이 명사성을 확보한 구문 구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오-’가 명사적 쓰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는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 관여하는 형태소로 기능하고는 있지만 ‘-오-’ 자체에 명사적 특성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계기(繼起)] 어휘목록의 통사적 제약 및 의미

김기준(단국대)

< 차례 >

1. 서론
 2. [계기] 표현 기술을 위한 기본 논의
 3. [계기] 표현의 어휘 목록
 4. [계기] 표현의 통사적 제약
 5. 결론
- 참고 문헌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시간표현 중 [계기]의 의미적 관계를 가진 표현들의 목록을 찾고 그들의 통사적 제약과 의미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고, -고서, -아서/어서, -자, -자마자’와 같은 연결어미류와 ‘-(으)ㄴ 다음에, -(으)ㄴ 뒤에, -(으)ㄴ 후에, -고 나서’와 같은 문법적 연어류, ‘이후, 직후’와 같은 체언류, ‘그리고, 그러자’와 같은 접속부사류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1) 가. 그는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
 나. 그는 전화를 받은 후에 밖으로 나갔다.
 다. 그는 전화를 받은 직후 밖으로 나갔다.
 르. 그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위 (1)의 문장들은 선행절의 사건(전화를 받다)과 후행절의 사건(밖으로 나가다)이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문장들이다. (1가)은 연결어미 ‘-고’를 사용하여 선·후행절의 사건이 계기적 관계를 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1가)의 ‘-고’를 (1나)과 같이 ‘-은 후에’나 (1다)과 같이 ‘직후’로 대체하여도 문장의 의미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1르)과 같이 접속부사 ‘그리고’로 대체하여도 (1가)과 의미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1)의 표현들은 통사적으로는 차이를 보인다. (1가, 나, 다)은 복문이나 (1르)은 담화문이며, (1가)은 연결어미, (1나)은 ‘관형형어미+명사+조사’의 구성의 문법적 연어, (1다)은 명사로 선·후행절이 [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¹⁾

1) (1르)의 경우 담화문이나 두 문장이 [계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담화문에서도 [계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한정환(1993)은 국어의 시제는 직시적인 방법(deictic use)과 조응적인 방법(anaphoric use)으로 연구가 가능하며 특히 조응적인 방법은 복문이나 담화문에서 선행시간어와

(1)의 예문들은 모두 [계기]의 표현이나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는 ‘바로’를 삽입한 예이고, (3)은 ‘한참 후에’를 삽입한 예이다.

- (2) ㄱ. 그는 전화를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ㄴ.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갔다.
ㄷ. 그는 전화를 받은 직후 바로 밖으로 나갔다.
ㄹ. 그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 (3) ㄱ. 그는 전화를 받고 한참 후에 밖으로 나갔다.
ㄴ.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참 후에 밖으로 나갔다.
ㄷ. *그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한참 후에 밖으로 나갔다.
ㄹ. 그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한참 후에 밖으로 나갔다.²⁾

‘바로’는 (2)의 모든 문장에 삽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참 후에’는 (3ㄱ, ㄹ)에서는 삽입이 가능하나 (3ㄴ, ㄷ)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것은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나 ‘그리고’는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넓은 반면, ‘직후’는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선행 사건(event)이 끝난 후에 후행 사건(event)이 이어지는 [계기]적 의미를 가진 표현 목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런 통사.의미적 차이는 [계기]의 의미를 가진 표현 목록들의 통사적 제약이나 [계기] 의미 안에서의 차이로 보고자 한다.

2. [계기] 표현 기술을 위한 기본 논의

2.1. 시간 표현에 대한 기존 논의

이 장에서는 시간 표현인 [계기]의 개념 설정을 앞서 시간 표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홍종선(1991: 224)에 따르면 언어에서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통사적 문법 범주를 설정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문법소로 감당하는 것은 시제이며, 다른 하나는 현상적인 시간 위치의 의미를 가진 어휘소

후행시간어 간의 조응관계에서 그 지시점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의 예문에서 한정환(1993)은 선행문과 후행문의 시제가 계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ㄱ. 민호는 불을 켜다.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방안은 칙칙같이 캄캄했다.

2) 문법적 연어 ‘-(으)ㄴ 후에’ 대신 ‘-자마자’로 교체한 이유는 ‘바로’와 결합하였을 때는 정문이나 ‘한참 후에’와 결합하였을 때는 비문처럼 느껴진다. 다음 예문을 보자.

- ㄱ. 그는 전화를 받은 후에 바로 밖으로 나갔다.
ㄴ. *그는 전화를 받은 후에 한참 후에 밖으로 나갔다.
ㄷ. 그는 전화를 받은 후 한참 후에 밖으로 나갔다.
ㄹ. 그는 전화를 받은 후에 한참 후 밖으로 나갔다.

필자는 (ㄴ)만이 비문으로 느껴지고 다른 예문들은 정문으로 느껴진다. 이것은 (ㄴ)이 조사 ‘에’의 충돌로 비문인 것이지 선.후행절의 [계기]적 의미 때문에 비문인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어이다.³⁾ 홍종선(1991)의 논의에 따라 본고의 논의 대상을 구분하면 연결어미나 문법적 연어는 시제이며, 체언 ‘이후’, ‘직후’만이 시간어에 해당한다.⁴⁾ 본고는 시제나 시간어에 국한하지 않고 [계기]의 의미를 가진 총 어휘목록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종선(1991)에 따르면 국어에서 시간어는 모두 명사나 부사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우선 시간 명사에 대한 연구는 정동경(2013)을 들 수 있다. 정동경(2013)은 시간 명사에 한하여 통시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시간 명사들의 형태·의미론적 변화의 세부적 양상을 보이고자 하였다. 정동경(2013)의 논의는 그동안 시제와 시간 부사에만 치우쳐 있던 시간 체계의 특징을 보다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 표현들 중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어 시간 명사가 참여하는 구문이나 문법적 연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보인다.

민현식(1990)은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시간부사를 시제와 상으로 구분하였다.⁵⁾ 특히 어휘상 시간 부사로 ‘선행상, 순서상 동시상, 후행상, 순간상, 지속상, 반복상’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후행상 ‘므춤, 므즈막, 므츠매, 내중애, 버거, 벽조차 드디여, 이속고’ 등이 [계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 부사에 대한 최근 논의는 김상태(2005)가 있다. 김상태(2005)은 시간 부사를 어휘론적인 방법으로 고찰하였는데 어휘재를 기존의 통시적 연구와 달리 공시적으로 연구하였다. 시간 부사를 기능별로 ‘위치 시간부사, 빈도 시간부사, 지속 시간부사, 상황의 내적 시간의 속성들을 기술하는데 제공되는 시간부사, 연속된 상황 속에서 위치를 가리킬 수 있는 시간부사’로 구분하였다. 김상태(2005)는 ‘연속된 상황 속에서 위치를 가리킬 수 있는 시간부사’를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본고의 [계기]와 유사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않아 어떤 어휘들이 ‘선행, 동시, 후행’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2. [계기]에 대한 개념 설정

시간관계 표현이란 접속문의 선행절 사건과 후행절 사건을 같은 시간 또는 시차(時差)에 의한 선후의 순서에 따라 결합시켜 주는 표현을 말한다(윤평현, 2005:197). 본고에서는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첫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동시]로, 둘째,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까지 지속되면서 후행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속]으로, 셋째, 선행절의 사건이 종결된 후 후행절의 사

3) 홍종선(1991)은 “시제도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事象들의 선후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이므로 넓은 의미의 시간어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다.

4) 홍종선(1991)은 시간어 체계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며 시간어를 “어떤 事象의 시간성 의미 그 자체를 나타내는 어휘소일 따름”으로 국한하였다. 특히 시간을 나타내는 구절 이상의 단위나 시간 관계 접속어미들은 시간어에서 제외하였으며 문법적 의존형태소가 아닌 독립어휘만이 시간어라고 하였다.

ㄱ. ‘지점’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적 위치 개념으로, ‘時點’ (년.월.일..., 아침.낮.저녁..., 지금.아까.이따...)

ㄴ. ‘영역’에 대한 인식으로, ‘時域’ 또는 ‘時期’ (잠깐..., 내내.한참.수년...)

ㄷ. 모든 진행하는 선이 갖는 속성으로 ‘방향성’ (여태.아직..., 이후.앞으로...)

ㄹ. 시간적 위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인식인 ‘반복성’ (매년.매초.격주..., 밤낮.늘.가끔.자주...)

5) 민현식(1990)은 시간 부사를 ‘時制 관련 시간부사(시제 부사)’와 ‘相關된 시간부사(상 부사)’로 구분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민현식(1990: 165-167) 참조.

건이 잇달아 일어나는 경우를 [계기]로 설정하여 구분하기로 한다.⁶⁾ 다음 예를 살펴보자.

- (4) ㄱ. 아버지는 TV를 보면서 신문을 본다.
 - ㄴ. 철수는 가방을 매고 학교에 갔다.
 - ㄷ. 철수가 떠나고 영희가 돌아왔다.

위 (4ㄱ)은 [동시]관계를 보여주는 문장이다. 이런 [동시]관계는 선·후행절의 두 사건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남을 알 수 있다. (4ㄴ)은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까지 지속되는 [지속]관계이다. (4ㄷ)은 선행절의 사건이 끝나고 후행절의 사건이 일어난 [계기]관계이다. [지속]관계나 [계기]관계가 [동시]관계와의 차이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의 변화가 오거나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5)는 [동시], (6)은 [지속], (7)은 [계기]관계의 예이다.

- (5) ㄱ. 아버지는 TV를 보면서 신문을 본다.
 - ㄴ. 아버지는 신문을 보면서 TV를 본다.
- (6) ㄱ. 철수는 가방을 매고 학교에 갔다.
 - ㄴ. *철수는 학교에 가고 가방을 댔다.
- (7) ㄱ. 철수가 떠나고 영희가 돌아왔다.
 - ㄴ. 영희가 돌아오고 철수가 떠났다.

위 (5)처럼 [동시]관계는 선행절 사건과 후행절 사건이 시간적 선후 관계에 비관여적이어서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의 변화는 크게 없다.⁷⁾ 윤평현(2005)은 [동시]관계 접속문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순서를 바꾸면 비문이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8)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 (8) ㄱ. 노파는 끼니를 거르{고, 며, 면서} 산다.
 - ㄴ. 노파는 살{*고, *며, ??면서} 끼니를 거른다.

그러나 [지속]관계나 [계기]관계는 (6), (7)처럼 비문이 되거나 의미가 변해버린다.

[지속]관계와 [계기]관계의 차이는 [지속]관계는 선행절의 행동이 후행절까지 계속되며 선행절의 행동이 상태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 (9) ㄱ. 철수는 가방을 매고 학교에 갔다.
 - ㄱ'. 철수는 가방을 매고 나서 학교에 갔다.

6) 윤평현(2005:202)은 시간관계 표현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ㄱ. 두 사건이 똑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넓은 시간대 속에서 두 사건이 함께 있는 것.

ㄴ. 앞 사건이 있는 후에 시간적 차이를 두고 뒤 사건이 이어지는 것.

(ㄱ)을 시간의 겹침이 있는 동시관계로, (ㄴ)을 시간의 겹침이 없는 계기관계로 구별하였다.

7) 윤평현(2005)은 (4ㄱ, ㄴ)에 대해 아버지의 주된 행동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시간표현의 구분을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4)의 예는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 ㄴ. 밥 먹고 과자를 먹어라.
- ㄴ'. 밥 먹고 나서 과자를 먹어라.

위의 예 (9ㄱ, ㄱ')은 [지속]관계를 나타낸다. '가방을 매-'는 선행절에서는 동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행동이 끝나지 않고 후행절에서는 상태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철수는 학교를 가는 동안 계속 가방을 매고 있는 것이다. (9ㄱ')에서 '-고 나서'가 착용동사와 결합하면 [계기]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고 나서'가 [지속]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착용동사의 어휘적 의미 때문에 [지속]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9ㄴ, 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착용동사가 아닌 경우 '-고, -고 나서'는 [계기]의 의미를 가진다. [지속]의 의미와 [계기]의 의미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착용동사와 결합하지 않을 때도 [지속]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10) ㄱ.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기차에 올랐다.
- ㄴ. 유미는 전등을 켜고 공부를 했다.

예문 (10)의 경우 착용동사가 아닌 '들다, 켜다'가 사용되었지만 선행절에서 동작성을 가진 '가방을 들-'과 '전등을 켜-'는 후행절에서 상태성으로 변하여 선행절의 행동이 후행절에 계속 지속됨을 알 수 있다.

한정한(1993)은 다음의 예문들이 [계기]적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 (11) ㄱ. 민호는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침실로 갔다.
- ㄴ. 민호가 학교에 가니까 혜진이도 갔다.⁸⁾
- ㄷ. 민호는 혜진이가 유학을 간 걸 몰랐다.
- ㄹ. 민호는 그 여자가 준 메모를 살펴보았다.
- ㅁ. 우리는 그가 미국에 갔음을 알았다.

한정한(1993)은 (10ㄱ, ㄴ)의 연결어미 '-고', '-아서', '-니까'에서만 [계기]적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 보문인 (10ㄷ), 관계관형절 (10ㄹ), 체언문 (10ㅁ)에서도 [계기]적 관계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한정한(1993)은 [계기]의 조건을 시제형태소에 의한 조응관계(anaphoric relation)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1) 시제형태소에 의한 조응관계의 시간해석 규칙

문 :복문은 주절의 시제형태소(a)와 종속절 혹은 내포절의 시제형태소(b) 사이에, 담화문 은 선행문의 시제형태소(a)와 후행문의 시제형태소(b)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시간해석 규칙이 적용된다.

- ㄱ. a와 b가 동작동사일 경우 두 사건시는 계기적이다. $e_1 < e_2$
- ㄴ. a와 b가 상태동사일 경우 두 사건시는 겹친다. $e_1 = e_2$

8) 한정한(1993)은 다음 예문의 '-니까'의 경우 [계기]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주절 상태동사의 사건시(e_1)와 종속절 동작동사의 사건시(e_2)는 겹쳐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ㄱ. 집에 가니까 친구의 편지가 와 있었다.

ㄷ. a와 b가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조합으로 되어 있을 경우 두 사건시는 RT가
동 일하면 겹치고 RT가 이동되었으면 계기적이다.⁹⁾

ㄹ. b가 비함의동사이면 두 사건시는 역순이다. $e_1 > e_2$

(11)의 조건 중 (11ㄱ)은 [계기]의 조건으로 인식된다. (11ㄷ)을 [계기]로 볼 수 있을지 필자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¹⁰⁾ 본고에서 필자는 [계기]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 동사인 경우만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다.

3. [계기] 표현의 어휘 목록

이번 장에서는 [계기]의 의미를 가진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록 선정은 <표준국어대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토대로 선정하여 각 사전마다 목록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¹¹⁾

3.1 연결어미

① -고(25/2)¹²⁾

‘-고’는 <표준>에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기술되어 6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¹³⁾

- (12) ㄱ.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ㄴ. 할머니께서는 상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
ㄷ.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셨다.
ㄹ.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 웃고 하더라.
ㅁ. 길고 긴 세월
ㅂ. 나는 금강산을 보고 싶다.

위 (12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할 때, (12ㄴ)은 계기, (12ㄷ)은 지속, (12ㄹ)은 대립,

9) 여기에서 RT는 ‘reference time’으로 기준시를 뜻한다.

10) 한정현(1993)은 (11ㄷ)의 경우를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ㄱ, ㄴ)은 두 사건시가 겹쳐지는 것으로 보고, (ㄷ)만 [계기]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 ㄱ. 집에 가니까 친구의 편지가 와 있었다.
ㄴ. 그 때 그가 값비싼 물건만 훔쳐갔다.
ㄷ. 민호는 불을 켜다.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방안은 칙칙같이 캄캄했다.

11)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표준>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를 <한국어>로,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을 <어미 . 조사>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고려>로 표기한다.

12) (25/2)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각 단어의 표제어번호와 의미번호이다.

13)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동사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 앞 절의 일이 일어난 뒤에 뒤 절의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로 뜻풀이 하였다.

(12ㄱ)은 강조, (10ㄴ)은 본용언에 붙는 어미로 기술하였다. 본고에서는 ‘-고’의 여러 의미 중 (12ㄴ)의 계기적 의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선행절의 사건이 끝나고 후행절의 사건이 일어날 때만을 의미하는 ‘-고’를 대상으로 한다.¹⁴⁾

<이조.어미> 사전에서는 ‘-고’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였는데, 대등적 연결어미 5가지, 부사형 어미 6가지, 보조적 연결 어미 1가지로 모두 12가지로 세분하였다. 이 중 특이한 것은 ‘-고’가 [동시], [계기], [지속]의 의미가 모두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 (13) ㄱ. 그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
 ㄴ. 우선 세수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ㄷ. 너 꼭 편한 신발 신고 가라.

위의 예 (13ㄱ)은 [동시], (13ㄴ)은 [계기], (13ㄷ)은 [지속]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분류는 필자가 시간의 선후행 표현을 3가지로 구분한 것과 일치한다.

② -고서(03/0)

‘-고서’는 “앞, 뒤 절의 두 사태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앞선 것임이 강조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고서’와 ‘-고’의 관계를 서정목(1984)과 최재희(1989)는 ‘-고’에 ‘-서’가 수의적으로 첨가되어 ‘-고서’의 형태가 나왔다는 견해를 가지고 권재일(1985)은 ‘-고서’에서 ‘-서’가 수의적으로 탈락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기]관계의 ‘-고’와 ‘-고서’는 의미 차이를 크게 발견할 수 없다. 다음 예를 보자.

- (14) ㄱ.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ㄴ.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서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 (15) ㄱ. 할머니께서는 상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
 ㄴ. 할머니께서는 상한 음식을 드시고서 탈이 나셨다.

위 (14)의 ‘-고’는 대등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대등의 의미 ‘-고’는 ‘-고서’로 교체될 수 없지만, (15)의 예처럼 계기의 의미를 가진 ‘-고’는 교체해도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고’를 ‘-고서’로 교체를 하면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14) <한국어>에서는 ‘-고³⁾’을 7 가지로 분류하였다.

- ㄱ.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는 중국 사람이다. (나열)
 ㄴ. 그는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 (연결)
 ㄷ. 나는 옷을 입고 갔다. (지속)
 ㄹ. 철수는 학생이 아니고 회사원이다. (반대 사실 나열)
 ㅁ. 길고 긴 세월. (강조)
 ㅂ. 자고 또 자도 졸려. (반복)
 ㅅ.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보충)

③ -니까

‘-니까’를 <표준>에서는 “‘-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풀이하였고, ‘-니’는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쓰는 연결 어미”으로만 풀이하였다. <고려>에서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말”, “앞 절의 행위가 진행된 결과 뒤 절의 사실이 그러하거나 곧 뒤 절의 행동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풀이하였다.

(16) ㄱ. 가루약은 먹기 힘드니까 알약으로 주세요.

ㄴ. 민호가 학교에 가니까 헤진이도 갔다.

ㄷ. 밖에 놀러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다.

(16ㄱ, ㄴ)은 [원인]의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16ㄷ)은 [원인]의 의미가 없다. (16ㄴ)은 [원인]의 의미도 있지만 [계기]의 의미도 같이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6ㄱ, ㄷ)은 [계기]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16ㄱ)의 경우 선행절이 상태성을 지니며, (16ㄷ)은 후행절이 상태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계기]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선·후행절이 모두 동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16ㄴ)을 [계기]관계로 보고 ‘-니까’도 [계기]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④ -더니(01/1)

‘-더니’는 <표준>에 “과거의 사태나 행동에 뒤이어 일어난 상황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 주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원인이 된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으로 해석되지 않고 계기적으로 연결될 때도 사용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17) ㄱ. 철수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번 학기에 일등을 했다.

ㄴ. 아침에는 비가 오더니 지금은 눈이 온다.

ㄷ. 아까 딸아이가 집에 오더니 인사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ㄹ. 여자 쪽에서 몸을 돌리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위 (17ㄱ)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17ㄴ)은 선행절의 사건과 후행절의 사건이 [대조] 관계이며, (17ㄷ)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계기적으로 연결됨을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17ㄷ)의 경우를 [계기]관계로 보고 논의에 포함시켰다.

⑤ -어서(03/1)

‘-어서’는 주로 [이유]나 [원인]의 의미로 많이 쓰이나 계기적 관계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 예를 보자.

(18) ㄱ. 어머니는 솔을 씻어서 쌀을 안쳤다.

ㄴ. 강이 깊어서 아이가 건너기는 어렵다.

ㄷ. 그는 걸어서 학교에 다닌다.

위 (18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계기]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18ㄴ)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이 되고, (18ㄷ)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수단]이 된다. 본고에서는 [계기]적 의미를 갖는 (18ㄱ)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⑥ -자(25/1)

‘-자’는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나 사실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자’는 계기관계,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이나 [동기], ‘이다’ 뒤에 붙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예를 보자.

- (19) ㄱ. 집을 막 나오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ㄴ. 날이 추워지자 난방 기계가 잘 팔린다.
 ㄷ. 그는 시인이자 교수이다.

위 (19ㄱ)은 계기관계를 나타낸다. (19ㄴ)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고 (19ㄷ)은 주어인 ‘그’가 ‘시인’과 ‘교수’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¹⁵⁾ 본고에서는 [계기]의 의미를 가진 (19ㄱ)만을 대상으로 한다.

⑦ -자마자(00/0)

‘-자마자’는 계기적 관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며, ‘-자’와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의 모든 형태에 교체가 되지는 않고 계기적 의미인 ‘-자’만 교체가 가능하다. ‘-자마자’를 ‘-자+말자’로 보아 ‘-자’의 강조형으로 보는 견해(윤평현 2005:201)가 있으나 두 형태소의 통사적으로나 의미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별개의 형태소로 보겠다. 다음 예를 보자.

- (20) ㄱ. 촘스키는 언어학자이자 수학자이다.
 ㄴ. *촘스키는 언어학자이자마자 수학자이다.
- (21) ㄱ. 먼지가 문자마자 닦아 버리면 깨끗합니다.
 ㄴ. *먼지가 문자 닦아 버리면 깨끗합니다.

위 (20)의 ‘-자’는 ‘-자마자’로 교체를 하면 비문이 된다. ‘-자’가 계기의 의미가 아닌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문장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1)의 예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계기의 관계를 가지나 ‘-자’와 ‘-자마자’의 의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로 교체될 수 없는 것이다. ‘-자’와 ‘-자마자’의 통사적 차이는 4장에서 더 자세히 기술한다.

3.2 문법적 연어

① -고 나서

15) <표준>에는 (13ㄴ)을 동시관계로 보고, (13ㄷ)을 일정한 자격과 함께 다른 자격을 있음으로 보았다.

<표준>과 <고려>에서는 ‘보조동사’로 기술하며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로 기술하였고, <한국어>에서는 ‘-고 나다’를 “어떤 행위를 끝낸 다음에 다른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행위를 한 뒤에, 또는 그 결과로 뒤에 오는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새삼 깨닫게 됨을 나타낸다.”로 기술하였다. <어미.조사>에서만 ‘-고 나다’를 ‘-고 나니’는 ‘어떤 행동을 다 한 결과’로, ‘-고 나면’은 ‘어떤 행동을 다 한 것이 뒷절의 조건이 됨’으로, ‘-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다 한 후에’로 세분하여 각각의 뜻을 밝혔다.

(22) ㄱ. 잔뜩 먹고 나니 배가 불렀다.

ㄴ. 이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ㄷ. 샤워를 하고 나서 밥을 먹었다.

(22ㄱ)은 [결과], (22ㄴ)은 [조건], (22ㄷ)은 [계기]의 의미를 가진다. ‘-고 나-’는 결합하는 연결어미의 의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 나서’의 경우 ‘나-’에 ‘-아서’가 붙어서 [계기]의 의미를 획득했다기 보다 ‘-고 나-’의 형태에 ‘-아서’가 결합하여 [계기]의 의미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고 나서’는 ‘-고’의 여러 의미 중 [계기]의 의미를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이지 [계기]의 의미를 가진 ‘-고’와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가 필자는 ‘-고 나-’의 형태 중 ‘-고 나서’만을 [계기]의 어휘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② -ㄴ 다음(에)¹⁶⁾

‘-ㄴ 다음(에)’에 대한 사전 기술은 <표준>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고려>에서는 ‘-은 다음’의 형태로 “그러한 일이 끝난 뒤”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나 과정이 끝난 뒤임을 나타낸다.”의 뜻으로 사용되며 조사 ‘에’가 생략된 ‘-은 다음’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어미.조사> 사전에서는 ‘-ㄴ 다음(에)’의 형태를 표제어로 삼고 뜻풀이는 다른 사전과 동일하게 하였다. ‘-ㄴ 다음(에)’ 역시 [계기]의 의미를 가짐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ㄱ. 동생은 한동안 울고 난 다음(에) 곤히 잠이 들었다.

ㄱ'. 동생은 한동안 울고 나서 곤히 잠이 들었다.

ㄴ. 철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ㄴ'. 철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ㄴ''. 철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③ -ㄴ 뒤에

<한국어>에서 ‘-은 뒤에’는 특별한 설명없이 관련어로 ‘-은 다음(에), -은 지, -은 후에’로 표기되어 있다. <어미.조사> 사전에서는 ‘시간이 얼마 지나간 후에’의 뜻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ㄴ 다음(에)’와 의미상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ㄴ 후에’ 역시 의미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16) <세종 체언 상세검색기>의 ‘다음’에 대한 의미 부류는 ‘관계 시간’이나 ‘순서’로 기술되어 있음.

- (24) ㄱ. 진수가 미국으로 떠난 뒤에 유미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ㄴ. 진수가 미국으로 떠난 다음에 유미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ㄷ. 진수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 유미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④ -ㄴ 후에

<한국어> ‘-은 후에’는 “어떤 행위를 하고 시간적으로 뒤에 다른 행위를 함을 나타낸다.”로 기술하였다. <어미.조사> 사전에서는 ‘앞의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

⑤ -는 길로

‘-는 길로’는 <표준>에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즉시’로 뜻풀이가 되어 있으며, <고려>는 ‘어떤 일을 하자마자 바로’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어미.조사> 사전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는 길로’도 [계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5) ㄱ. 경찰에서 풀려나는 길로 나는 그 애를 따라 서울로 갔어.
 ㄴ. 경찰에서 풀려나자마자 나는 그 애를 따라 서울로 갔어.
 ㄷ. 경찰에서 풀려난 다음에 나는 그 애를 따라 서울로 갔어.

3.3. 체언

① 직후 [直後]

‘직후’는 <표준>이나 <고려>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바로 뒤’의 뜻풀이로 ‘즉후’와 유의어 관계로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직후’는 선.후행절의 연결에서 주로 [계기]의 의미를 획득하며 조사 ‘에’가 결합하기도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6) ㄱ.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저녁 식사가 끝난 직후에 시작했다.
 ㄴ. 그는 범선으로 38선을 넘은 직후 약 한 달 동안 경민의 집에 식객으로 기식했다.
 ㄷ. 사흘째 되던 날 밤 정성 들인 탕재를 마신 직후 황제는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다.

② 즉후 (卽後)

=직후.

③ 이후

3.4. 접속부사

접속부사 중 선행절과 후행절을 계기적 관계로 두 문장을 연결하는 목록은 장기열(2003)에서 선정하였다. 장기열(2003)은 접속부사 중 ‘그-’ 계열의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는데, ‘그-’ 계열의 어원인 ‘그리하다, 그러하다’의 대응적 측면이 아닌 접속의 기능만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가 논의한 접속부사 중 계기적 의미를 가진 ‘그리고, 그러자, 그러고서, 그러니, 그러니까, 그래서’ 등의 접속부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은 장기열(2003)이 제시한 접속부사들의 의미기능 표이다.

의미자질 접속부사	의미 기능				
	나열	계기	대립	동시진행	선택
그리고	+	+	+	+	+
그러자	-	+	-	+	-
그러면서	+	-	-	+	-
그러고서	-	+	-	-	-

4. [계기] 표현의 통사적 제약

4.1. 서술어 제약

시간관계 접속어미들은 일반적으로 동작의 시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계기]의 의미를 지닌 연결어미는 서술어로 동사만을 취할 수 있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27) ㄱ. 집주인이 방에서 뛰어나오{며, 면서} 소리쳤다.
 ㄴ. 언니는 키가 늘씬하{며, 면서} 얼굴이 예쁘다.
 ㄷ. 언니는 키가 늘씬하{고, *고서} 얼굴이 예쁘다.
 ㄹ.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고서} 질문을 했다.

위 (27ㄱ)의 ‘-며, -면서’는 선행절에 ‘뛰어나오-’라는 동사를 취하며 [동시]의 의미를 가진다. ‘-며, -면서’는 (27ㄴ)처럼 선행절에 ‘늘씬하-’라는 형용사를 취하면 [동시]의 의미가 아닌 [나열]의 의미로 해석된다.¹⁷⁾ (27ㄷ)의 ‘-고’와 (27ㄹ)의 ‘-고’는 각기 형용사와 동사를 취했는데, 전자는 [나열]의 의미로 해석되고 후자는 [계기]의 의미로 해석된다. ‘-고서’의 경우 [계기]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7ㄷ)은 비문이 되는 것이다. (27ㄹ)은 [계기]의 의미이기 때문에 ‘-고서’의 사용이 정문이 된다.

[계기]의 의미를 가진 다른 연결어미 예도 서술어에 동사, 형용사, 지정사 등의 제약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어서’의 서술어 제약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예를 보자.

- (28) ㄱ. 철수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다.
 ㄴ. 창수는 키가 커서 농구선수로 뽑혔다.
 ㄷ. *철수는 시인이어서 화가이다.

17) ‘-면서’의 경우 선행절에 형용사가 결합하여 시간관계의 의미를 가지나 [계기]가 아닌 [지속]의 의미를 가지며, 후행절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한다.

ㄱ. 영화는 몸이 아프면서 학교에 갔다.
 ㄴ. 그는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탄전을 피운다.

위 (28ㄱ)은 [계기]의 ‘-어서’이며 선행절에 동사와 결합하였다. (28ㄴ)의 형용사와 결합하였는데 [계기]의 의미가 아닌 [원인]의 의미를 가진다. (28ㄷ)은 지정사 ‘이다’와 ‘-어서’가 결합하여 비문이 된 경우이다.¹⁸⁾

(29) ㄱ. 아기는 어머니를 보{자, 자마자} 울음을 터트렸다.

ㄴ. 물결이 거세{자, *자마자} 우리는 강을 건너는 것을 포기했다.

위 (29ㄱ)은 [계기]의 의미로 쓰여 ‘-자, -자마자’가 동사와 결합하여 정문이 되지만, (29ㄴ)처럼 형용사 ‘거세-’와 결합한 ‘-자’는 [원인]의 의미를 ‘-자마자’는 비문이 된다.

(30) ㄱ. 그가 가고 난 뒤 나는 갑자기 외로워졌다.

ㄴ. 밥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드십시오.

ㄷ. 이 책을 다 읽은 뒤에 모여서 토론해 봅시다.

ㄹ.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모여서 토론해 봅시다.

위 (30)의 예처럼 문법적 연어들도 [계기]의 의미를 가질 때 선행절에 동사와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기]의 의미를 가진 부사절 연결어미들은 선행절에 항상 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며 형용사나 지정사가 결합하면 다른 의미로 바뀌거나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4.2. 주어의 동일성 여부 제약

주어의 동일성 여부는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제약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31) ㄱ. 영희가 울고 간다.

ㄴ. *영희가 울고 철수가 간다.

ㄷ. 영희가 울면서 간다.

ㄹ. *영희가 울면서 철수가 간다.

(32) ㄱ. 영희는 아침밥을 먹{고, 고서} 학교에 갔다.

ㄴ. 딸이 귀가하{고, 고서}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다.

위 (31)의 예는 [동시]의 의미를 가진 ‘-고’이다. [동시]의 의미인 ‘-고’는 (31ㄴ, ㄹ)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32)의 예처럼 [계기]의 ‘-고, -고서’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어서’의 주어 일치 여부를 살펴보자. 다음 예를 보자.

18) ‘-어서’의 경우 [원인], [계기], [수단]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NP1은 NP2이다’처럼 사용되는 [지정]의 의미와 결합할 수 없다.

- (33) ㄱ. 영호가 도서관에 가서 참고문헌을 찾았다.
 ㄴ. *영호가 도서관에 가서 철수가 참고문헌을 찾았다.

- (34) ㄱ. 비가 와서 옷이 젖었다.
 ㄴ. 철수는 머리가 아파서 회사에 안 나갔다.

위 (33)에서 볼 수 있듯이 [계기]의 ‘-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4)의 ‘어서’는 [원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자, -자마자’의 경우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 제약이 없다. 다음 예를 보자.

- (35) ㄱ. 아이는 어머니를 보{자, 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ㄴ. 순이가 방으로 들어오{자, 자마자} 영희는 밖으로 나갔다.

다음은 문법적 연어들의 주어 제약을 살펴보겠다. 다음 예를 보자.

- (36) ㄱ. 그가 가고 난 뒤 나는 갑자기 외로워졌다.
 ㄴ. 철수는 숙제를 하고 나서 밖에 나가 놀았다.
- (37) ㄱ. 철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ㄴ.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
- (38) ㄱ. 이 책을 다 읽은 뒤에 모여서 토론해 봅시다.
 ㄴ. 아이가 집에 들어온 뒤에 안심하고 잠을 잤어요.
- (39) ㄱ. 나는 보통 식사를 마친 후에 차를 마신다.
 ㄴ. 손님이 들어오신 후에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위 (36)는 ‘-고 나서’의 주어 일치 여부이다. (36)에서 보듯이 ‘-고 나서’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7)의 ‘-ㄴ 다음에’, (38)의 ‘-ㄴ 뒤에’, (39)의 ‘-ㄴ 후에’ 역시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계기]의 표현 중 ‘-어서’를 제외하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3. 시상어미 결합 제약

다음은 선행절의 용언에 시상어미 결합 제약을 살펴보겠다.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의 경우 시상어미의 결합이 후행절에서는 가능하나 선행절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40) ㄱ. 영희는 달을 보{*았, *겠}(으)며 속삭였다.

ㄴ. 영희는 달을 보았으며, 철수는 별을 보았다.

- (41) ㄱ. 철수는 비를 맞{*았, *겠}고 학교에 갔다.
ㄴ. 영희는 방문을 열{*었, *겠}고 들어왔다.
ㄷ. 철수는 가방을 샀고, 영희는 옷을 샀다.

위 (40ㄱ)은 [동시]의 의미를 가지는 ‘-며’인데 시상어미와 결합 제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0ㄴ)처럼 [나열]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시상어미 결합 제약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41ㄱ)은 [지속], (41ㄴ)은 [계기]의 의미를 가지는 시간표현 연결어미들이다. ‘-며’와 마찬가지로 시간표현을 가지는 ‘-고’는 시상어미 결합 제약이 보인다. 그러나 ‘-고’ 역시 [나열]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시상어미 결합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어서’, ‘-자’, ‘-자마자’ 역시 시상어미 결합 제약을 보인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42) ㄱ. 영희는 백화점에 가{*았, *겠}서 옷을 샀다.
ㄴ. 창호가 들어오{*았, *겠}자 영수는 밖으로 나갔다.
ㄷ. 어머니를 보{*았, *겠}자마자 철수는 돈을 달라고 졸랐다.

위 (42)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관계 연결어미들은 시상어미와 결합 제약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문법적 연어들도 시상어미 결합 제약을 보이는지 살펴보겠다. 다음 예를 보자.

- (43) ㄱ. 그가 가{*었, *겠}고 난 뒤 나는 갑자기 외로워졌다.
ㄴ. 철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었, *겠}은 다음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ㄷ. 이 책을 다 읽{*었, *겠}은 후에 모여서 토론해 봅시다.
ㄹ. 나는 보통 식사를 마치{*었, *겠}은 후에 차를 마신다.

위 (43)의 예처럼 문법적 연어들도 선행절에 시상어미 결합 제약을 있음을 알 수 있다. [계기]의 표현을 가진 문장들 경우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앞서 사건이 발생하여야 함으로 선행절에 시상어미 결합제약이 오는 것으로 보인다.

4.4. 서법 제약

이번 절에서는 서법 제약에 대해 살펴보겠다. 서법은 평서, 의문, 청유, 명령의 네 가지 문형만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44) ㄱ. 차 한 잔 들{고, 고서} 갑니다.
ㄴ. 차 한 잔 들{고, 고서} 갔습니까?
ㄷ. 차 한 잔 들{고, ??*고서} 가십시오.
ㄹ. 차 한 잔 들{고, ??*고서} 갑시다.

위 (44)은 ‘-고’, ‘-고서’의 서법 제약을 보인 것이다. ‘-고’의 경우 서법의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고서’는 청유와 명령에서 비문이거나 비문에 가깝게 보인다. 다음은 ‘-

어서'의 경우를 살펴보자. 다음 예를 살펴보자.

- (45) ㄱ. 영희가 옷을 꺼내서 입어 보았다.
 ㄴ. 영희가 옷을 꺼내서 입어 보았느냐?
 ㄷ. 네가 옷을 꺼내서 입어 보아라.
 ㄹ. 우리가 옷을 꺼내서 입어 보자.

위 (45)의 예처럼 '-어서'는 서법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자', '-자마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 (46) ㄱ. 창호를 보{자, 자마자} 영수는 집안으로 숨었다.
 ㄴ. 창호를 보{자, 자마자} 영수는 집안으로 숨었느냐?
 ㄷ. 창호를 보{*자, 자마자} 너는 집안으로 숨어라.
 ㄹ. 창호를 보{*자, 자마자} 우리는 집안으로 숨자.

위 (46)의 예에서 보듯이 '-자'의 경우 명령과 청유에서 서법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기]표현들 중 '-고서'와, '-자'만이 명령과 청유에서 서법 제약이 있고 다른 표현들은 서법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사전에서는 '-고, -아서'만을 연결어미로 보고 이들만을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하며 '-(으)ㄴ 다음에'와 같은 문법적 연어들은 표제어 뿐만 아니라 하위 항목에도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¹⁹⁾ 다만 <어미.조사 사전>에서는 관용표현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에서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으)ㄴ 다음에, -(으)ㄴ 뒤에, -(으)ㄴ 후에'는 이은경(2005)에서는 명사를 중심어로 하는 문법적 연어 중 고빈도로 제시되어 있으며²⁰⁾, 임근석(2010)에서는 공기성이 높은 1379개의 문법적 연어 후보 중 55개의 어미적 연어에 선정되었을 만큼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다.²¹⁾ 이처럼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문법적 연어들을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또한, 문법적 연어들은 형태구조상 '관형형 어미+명사+부사격조사'의 구조를 가지나 구성요소가 문장에서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적 형태가 되어 '-고, -아서'처럼 문장에서 부사절 연결어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으)ㄴ 다음에, -(으)ㄴ 뒤에, -(으)ㄴ 후에' 등을 "통사범주를 '관형어+의존명사+조사'로 보기보다는 부사

1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으)ㄴ 다음에'의 경우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ㄴ' 뒤에 쓰여))어떤 일이나 과정이 끝난 뒤"로 '다음'의 다의어로 제시되어 있고, '-고 나다'는 '나다'의 보조동사로 "「2」(동사 뒤에서 '-고 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로 제시되어 있다. '-(으)ㄴ 후에', '-(으)ㄴ 다음에'는 설명이 없다.

20) 이은경(2005)는 명사를 중심어로 하는 문법적 연어 구성 목록을 37개를 제시하며, '-ㄴ 다음', '-ㄴ 뒤', '-ㄴ 후'의 구성을 문법적 연어 구성으로 제시하였다.

21) 임근석(2010)은 '-고 나-'의 경우 '어미+용언어간'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절 연결어미로 보아야 한다”.는 한정한(2008:196)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하나의 통사적 기능(절접속 기능)을 가진 어휘부 단어로 설정하여 사전 기술에 있어 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경희(1998), “국어 종속 접속문의 문법적 특성”, 동남어문논집 8, 27-45.
- 김미선(2007), “말뭉치 분석을 통한 접속부사의 결속 단위 고찰”, 한국어학 34, 141-167.
- 김상태(2005), 「현대국어 시간표현 어휘 연구」, 학교방.
- 김진수(1987), “‘-고’, ‘-(으)며’, ‘-(으)면서’의 통사.의미의 상관성”, 국어학 16, 621-644.
- 김진수(1989), “국어 접속어미의 분류”, 언어연구 6, 79-99.
- 김하수 외(2007),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흥수(1977), “계기의 ‘-고’에 대하여”, 국어학 5, 113-136.
- 목지선(2012), “계기의 접속어미 ‘-고’와 ‘-아서’의 의미.통사상 차이”, 국어학 116, 51-78.
- 민현식(1990), “中世國語 時間副詞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백낙천(2001), “동사구 구성 통합형 접속어미의 형태론적 해석”, 한국어학 13, 151-169.
- 백낙천(2003), “‘-자’를 포함한 접속어미의 형태론적 해석”, 국어교육 112, 247-271.
- 백낙천(2003), “국어 접속어미의 형태론과 사전 기술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0, 1-28.
- 서정수(1985),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1)”, 한글 189, 51-86.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 이영민(2003), “접속어미 ‘-며’, ‘-면서’, ‘-면’의 의미와 상관관계”, 시학 6, 259-253.
- 이은경(2005),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법적 연어 구성”, 한국어 의미학 17.
- 이정택(1995), “접속어미 ‘-자, -자마자, -았자’의 의미와 문법”, 애산학보 17, 71-97.
- 이희자·이종학(2010),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임근석(2009), “문법적 연어와 한국어 교육 - 조사적 연어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
- 임근석(2009),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문법적 연어 후보 추출”, 한국어학 45, 305-333.
- 임근석(2010), 「한국어 연어 연구」, 월인.
-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87-130.
- 장기열(2003), “국어 접속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복사행정연구 19, 175-194.
- 정동경(2013), “국어 시간 명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정한(1993), “국어 시간표현의 조응적 해석”, 「언어」18, 한국언어학회, 123-140.
- 한정한(2010), “언어의 문법범주”,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
- 함계임(2007), “대립의 ‘그러-’형 접속부사의 한국어 교육적 접근”, Foreign language education 14, 407-428.
- 홍종선(1991), “국어의 시간어 연구-시간부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홍혜란(2007), “한국어 고급학습자의 문법적 연어 오류 분석 - 학습자 말뭉치와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1-1, 23-52.
- 황화상(2008), “연결어미 ‘-어서, -니까’의 의미 기능”, 국어학 51, 57-88.

▣ 토 론

“[계기(繼起)] 어휘목록의 통사적 제약 및 의미”에 대한 토론문

신호철(경기대)

본 발표문은 ‘계기(繼起)’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을 유목화하고, 문장 상에서 이것의 통사·의미적인 특성을 살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類)의 연구들은 이미 1980~90년대부터 절정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문법 교육 실행에 있어서는 문법소들의 명확한 변별을 하는 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가 훌쩍 지난 작금에도 이러한 유의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발표문의 내용 속에서 재검토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제언하면서 토론을 진행하겠다.

먼저 제목에서 오는 오류이다. ‘[계기(繼起)] 어휘목록의 통사적 제약 및 의미’란 제목인데, 이는 곧 본 발표문의 주요 내용이 ‘어휘목록’에 대한 통사적 제약과 그 ‘어휘목록’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목록’ 곧 ‘목록(list)’에서 어떻게 통사적 제약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목록은 단순히 ‘어휘’를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것에 어떤 통사나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곧 ‘어휘목록’에서 통사적 제약이나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계기’적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에서 통사적 제약이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어휘목록’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어휘’가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발표문의 서론에서 ‘계기’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네 가지(연결 어미, 문법적 연어, 명사, 접속 부사)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 어휘에 해당하는 것은 명사와 접속 부사뿐이다. 연결 어미나 ‘문법적 연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휘가 아니라 ‘문법 요소’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제목의 ‘계기 어휘목록’은 ‘계기 표현’ 정도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표문의 1장 첫 쪽에서도 모순된 진술들이 보인다. 곧 예문 (1)에서 “(1ㄱ)의 ‘-고’를 (1ㄴ)과 같이 ‘-은 후에’나 (1ㄷ)과 같이 ‘직후’로 대치하여도 문장의 의미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1ㄴ)과 같이 접속부사 ‘그리고’로 대치하여도 (1ㄱ)과 의미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단락에서 “(1)의 예문들은 모두 [계기]의 표현이나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앞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하지만 (1)의 네 예문들은 모두 의미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1)의 예문은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의 연속성에서 의미적으로 구별 것으로 전화를 받고 한참 후에 나갔는지 바로 나갔는지, 아니면 선후행 사건만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가 각기 구별된다.

또한 각주 2)에서 “문법적 연어 ‘-(으)ㄴ 후에’ 대신 ‘-자마자’로 교체한 이유는 ‘바로’와 결합하였을 때는 정문이나 ‘한참 후에’와 결합하였을 때는 비문처럼 느껴진다.”라고 (3)에

서 ‘-(으)ㄴ 후에’를 ‘자마자’로 교체한 이유를 기술하였는데, 이것이 근거로 타당한 것인지 궁금하다. 자세한 교체 이유가 필요하다. 또 궁금한 것은 ‘-(으)ㄴ 후에’는 문법적 연어라 하고 ‘직후’는 명사로 구분하였는데, ‘직후’ 또한 ‘-(으)ㄴ 직후(이후)(에)’라 하여 발표문에서 분류한 ‘문법적 연어’로 볼 수는 없는 것인간다.

2장에서는 ‘계기 표현’을 위한 기본 논의를 기술하고 있다. 곧 시간 표현에 대한 기존 논의와 계기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국어 문법에서 시간 표현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소략하게 다룰 수 없다. 물론 ‘계기’라는 의미적 관점에서 정리한다고 하여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발표문에서는 ‘시제’, ‘시간어’, ‘시제 표현’, ‘시간 관계 표현’, ‘시간부사’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별과 함께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 논의들에서 가져온 것이라 각 논의별로 용어나 개념이 다를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하나의 정리된 개념으로 ‘계기’라는 것을 시간 표현과 관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연후에야 ‘계기’라는 의미가 시간의 개념 속에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표문에서 시간 관계 표현을 ‘동시, 지속, 계기’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곧 “첫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동시]로, 둘째,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까지 지속되면서 후행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속]으로, 셋째, 선행절의 사건이 종결된 후 후행절의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 경우를 [계기]로 설정하여 구분”하였다. 그러면서 (4)의 예문을 제시하면서 세 가지 시간 표현을 구분한다고 하였다.

- (4) ㄱ. 아버지는 TV를 보면서 신문을 본다.(동시)
- ㄴ. 철수는 가방을 매고 학교에 갔다.(지속)
- ㄷ. 철수가 떠나고 영희가 돌아왔다.(계기)

(4)에서 밑줄 친 부분들은 3장에서 ‘계기’ 표현의 ‘어휘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요소들이다. 이 시간 표현 요소들이 각각 ‘동시, 지속, 계기’의 의미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밑줄 친 요소들이 ‘동시, 지속, 계기’의 의미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세 문장이 각기 ‘동시, 지속, 계기’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면서, -고, -고’에 의한 ‘어휘 목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행절과 후행절의 문맥적 의미에서 발생하는 의미이지, 밑줄 친 연결 어미들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연결 어미들은 단지 선행절과 후행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3장에 제시된 ‘계기 표현의 어휘목록’을 볼 때 연결 어미 7개, 문법적 연어 5개, 명사 3개, 접속 부사 4개이다. 과연 이들을 ‘어휘목록’이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어서, 니까’ 등과 같이 기존의 이유나 원인의 의미로 분류되어 있는 것까지 ‘계기’의 의미를 가진 어휘목록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계기’ 표현들의 ‘서술어 제약, 주어의 동일성 여부 제약, 시상어미 결합 제약, 서법 제약’ 등 통사적 제약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통사 의미적 선택 제약을 규명하는 연구는 80~90년대 국어 문법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바로 제약을 제시한 것에 위배되는 예문이 나왔을 때에는 바로 제약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취약점을 가지게 된다. 곧 강력한 제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주어의 동일성 여부 제약은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제약이라고 하면서 (31)의 예를 제시하였다.

(31) ㄱ. 영희가 울고 간다.

ㄴ. *영희가 울고 철수가 간다.

(31ㄴ)은 선행행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다는 것이다.

(31ㄴ ') 영희는 울고 철수는 간다.

(31ㄴ ') 예는 주격 조사 '가'를 보조사 '는'으로 교체한 것이지만, 주어는 (31ㄴ)과 동일하게 선행행절과 후행행절이 다르다. 곧 양자는 동일한 성분 구조를 이루는 문장이지만, (31ㄴ ')은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이는 곧 '-고'가 주어 동일성 여부 제약에 해당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하나의 예이다.

이와 같이 문법 요소의 제약을 규명하는 논의들의 취약점은 예문 하나에 어렵게 규명해 낸 제약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발표문을 읽어 내느라 발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곡해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오해가 있다면 차치하고,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 결과물로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친다.

제3부 2분과 발표

품사 통용어 교육 현황 분석

김한샘(국립국어원)

< 차례 >

1. 머리말
 2. 품사 통용의 개념과 범위
 3. 품사 통용 교육 현황 분석
 4. 맺음말
- 참고 문헌

1. 머리말

품사 통용, 품사 전성, 품사 전환, 무접사 파생, 영(변화) 파생, 품사 중복. 모두 같은 문법적 현상에 대한 다른 관점의 용어들이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용어가 포괄하는 외연의 실체는 달라지게 된다. ‘품사 통용’은 홍기문(1927) 이후 공식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현상을 일컫던 것을 학교 문법 기술과 사전 편찬에서 받아들이면서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된 용어이다. ‘씨의 몸바꿈(품사 전성)’은 하나의 단어가 취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품사에 주종 관계와 방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최현배(1937/1971)의 용어이다. 대부분의 복수 품사 단어들이 주로 취하는 품사가 있음을 고려하면 ‘품사 전성’이라는 용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나 교착어인 한국어에서 ‘품사 전성²²⁾’은 전성 어미를 동반한 용언의 활용이라는 좁은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품사 전환’이라는 용어도 서구 언어의 현상을 논의할 때 흔히 쓰는 용어이지만 한국어를 대상으로 할 때는 ‘품사 전성’과 마찬가지로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어 문법에서는 ‘품사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김백련(2005)에서 기술한 바에 의하면 북한어 문법에서 ‘전환’은 다음 (1)~(4)의 예를 모두 포함한다. (2)의 일부만이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는 ‘품사 통용’의 개념에 해당하는 예이며 (1)~(4) 전체는 최현배(1937/1971)의 ‘씨의 몸바꿈(품사 전성)’보다도 범위가 넓다.

- (1) ㄱ. 꺾다 → 꺾, 덜다 → 덜, 길다 → 길
ㄴ. 신 → 신다, 흔들 → 흔들다

- (2) ㄱ. 정말(명사 → 부사), 만세(명사 → 감탄사), 천만에(수사 → 감탄사),

22) 임지룡 외(2005)에서는 ‘품사 전성’이 두 가지의 품사 중 어느 하나에서 영파생을 통해 다른 품사로 전성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잘못(부사 → 명사), 아니(부사 → 감탄사), 그리고(동사 → 부사),
아서(동사 → 감탄사), 탄(형용사 → 관형사), 하여튼(형용사 → 부사), 옳지(형용사 → 감탄사)

(3) ㄱ. 밝다 → 밝는다(형용사말줄기 → 동사말줄기), 마른다 → 마르다
(동사말줄기 → 형용사말줄기), 움직인다 → 움직인다(자동사 → 타동사)

(4) 걸음(동사대상형 → 명사), 즐거움(형용사대상형 → 명사)

송철의(1992)에서 언급한 ‘무접사 파생’ ‘영(변화) 파생’은 품사 분류보다는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 파생법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품사 중복’은 이현희(2011)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나머지 용어가 ‘A와 B가 통용되다’, ‘A가 B로 전성되다/전환되다’, ‘A에서 B가 파생되다’와 같이 복수의 품사 개념과 관련된 용어임을 명칭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반면 ‘중복’은 일반적으로 동일 요소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용어만으로는 ‘같은 단어의 다른 품사’가 아니라 ‘같은 품사를 가진 다른 단어’가 반복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품사 통용의 양상을 보이는 어휘를 지칭하는 용어도 여러 가지이다. ‘품사 통용어’, ‘겹품사어’, ‘다품사어’, ‘다범주 단어’ 등 연구자가 품사 통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존재한다. 이 논문은 학교 문법에서 80년대에 품사 통용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여 약 30년 동안 교육해 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품사 통용’과 ‘품사 통용어’를 용어로 사용하여 현행 문법 교육에서의 적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품사 통용어에 속하는 어휘의 집합이 방대하므로 ‘명사·부사 통용어²³⁾’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품사 통용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본다.

2. 품사 통용의 개념과 범위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지도서(2002)에서는 품사 통용을 ‘단어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보여 주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자체로도 뜻이 통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자면 ‘특정 품사에 속한 단어로서 가지는 문법적 성질을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에 속하는 것처럼 함께 지니는 경우’가 된다. 학교 문법의 단어 분류 기준인 의미, 형태, 기능을 인정한다고 할 때 품사 통용의 정의에 나타나는 ‘문법적 성질’은 형태와 기능을 가리키게 된다. 의미, 형태, 기능이 모두 다른 경우 단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별개 단어 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품사 통용의 개념 정의를 다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현상을 연구하고 교육할 때 부딪치는 핵심적인 문제가 도출된다. 개별 단어의 품사 통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각 품사 범주를 결정짓는 문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우선 기존 논의의 명사·부사 통용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23) ‘품사 통용’의 개념이 공시적 차원이기 때문에 통시적 변화나 변화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어느 품사로 주로 쓰이느냐와 관련해서 계량적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명사·부사 통용어’를 남기십·고영근(1985/2011)의 ‘명부류’와 ‘부명류’를 함께 일컫는 용어로 사용한다.

- (5) ㄱ. 잘못알고잘못일것다.
ㄱ'. 나의잘못을용서해라.
- (6) ㄱ. 네잘못을모른다
ㄱ'. 잘못알고말했다
ㄴ. 앞뒤를쟁다
ㄴ'. 뒤먹어댄다
- (7) ㄱ. 이름씨 → 어찌씨: 정말, 참, 참말, 한번, 어제, 오늘, 내일
ㄴ. 어찌씨 → 이름씨: 다, 모다, 조금, 스스로, 서로, 오래
- (8) ㄱ. 이름씨 → 어찌씨: 참, 참말, 정말, 어제, 오늘, 내일, 모래, 글피
ㄴ. 어찌씨 → 이름씨: 조금, 모두, 오래, 스스로, 서로
- (9) ㄱ. 길이, 높이, 처음, 자연
ㄴ. 더러, 다, 서로, 모두

(5ㄱ)은 홍기문(1927)에서 ‘명사와 부사의 통용’을 포함하는 문장을 예로 든 것이고 (6)은 홍기문(1947)에서 ‘명사와 부사의 통용’ 예를 구로 제시한 것이다. ‘품사 통용’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홍기문(1927)의 예문은 현재 학교 문법이나 사전에서 인정하는 품사 통용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부사와 명사의 통용’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종 관계나 방향성에 대한 고려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나 영어에서는 흔하지만 국어에서는 예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 같은 학자의 문법 기술이지만 20년 뒤에 추가로 제시한 (6ㄴ)의 예는 공식적으로는 유효하지 않다. ‘앞뒤를쟁다’의 ‘뒤’는 명사로 ‘뒤먹어댄다’의 ‘뒤’는 부사로 본 것인데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홍기문(1947)의 문법 기술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 (10) ㄱ. 문자와 음성
ㄴ. 품사론 상(명사, 대명사, 수사)
ㄷ. 품사론 중(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ㄹ. 품사론 하(후치사, 접속사, 종결사)
ㅁ. 문장론

(10)을 보면 문자보다 크고 단어보다 작은 단위인 형태소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체계 안에서 (5ㄴ)의 ‘뒤먹어대다’의 ‘뒤’를 (11)의 예들과 같이 ‘동사나 형용사의 머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못 쓰는 부사’인 ‘계립부사²⁴⁾’로 본 것이다. 홍기문(1927)과 달리 홍기문(1947)은 문법을 기술한 본문이나 예문에 현재와 유사한 띄어쓰기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11)와 같은 부류에 대해 용언에 뜻을 더한다는 의미적 기능과 용언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부사보다 밀접하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용언에 붙여서 표기한다는 형태적 특징은 파악하였으나 형태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부사의 일종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앞뒤’의 ‘뒤’와 ‘뒤먹어대다’의 ‘뒤’의 어원이 다르므로 문법 기술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만 하

24) ‘제법’, ‘미리’와 같은 부사는 ‘자립부사’로 분류하였다.

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 (11) ㄱ. 엇: 엇먹고, 엇가고
- ㄴ. 빗: 빗맞고, 빗가고
- ㄷ. 헛: 헛알고, 헛외고
- ㄹ. 울: 울심꼬, 울크고
- ㅁ. 되: 되알고, 되겘고
- ㅂ. 시: 시퍼러, 시커머
- ㅅ. 새: 새파라, 새카마
- ㅇ. 비: 비집고, 비틀고
- ㅈ. 배: 배집고, 배틀고
- ㅊ. 외: 외대고, 외보고
- ㅋ. 치: 치잡고, 치먹고

세부적인 논의가 거친 면은 있지만 홍기문(1927), 홍기문(1947)의 품사 통용은 홍재성(2001)에서 ‘다범주 단어’가 존재하게 되는 현상이 범언어적 일반성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어, 영어에 흔한 문법적 현상이 국어에도 있음을 처음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7)과 (8)은 각각 최현배(1937)과 최현배(1971)의 ‘씨의 몸바꿈(품사 전성)’의 세 가지 하위 분류²⁵⁾ 중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가 다른 아무것을 더하지 아니하고, 그 본형 그대로, 다른 씨줄기 또는 다른 씨로 몸바꾸는 것’의 예이다. ‘품사 전성’은 밑(本)과 끝(末) 즉 전성이 되기 전후의 범주가 있다는 통시적 변화를 전제로 하므로 (7ㄱ)처럼 명사가 부사로 전성된 경우와 (7ㄴ)의 부사가 명사로 전성된 경우를 따로 설명하였다. (7ㄱ)에서 전성된 후의 부사는 양태 부사와 시간 부사로 범주화가 가능하지만 (7ㄴ)의 전성되기 전의 부사는 경향성을 찾기 힘들다. 남기심·고영근(1985/2011)에서는 명부류인 (9ㄱ)과 부명류²⁶⁾인 (9ㄴ)을 따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남기심·고영근(1985/2011)의 품사 통용 개념과 영어의 예(work)는 홍기문(1947)에서 비롯된 것인데 홍기문의 ‘명사와 부사의 통용’을 ‘명부류’와 ‘부명류’로 하위 분류한 것이 흥미롭다. 최현배(1937/1971), 정인승(1956)으로 대표되는 전통 문법의 ‘품사 전성’ 개념이 으뜸되는 품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9ㄱ)의 ‘길이’와 ‘높이’는 공시적인 형태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품사의 통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유연성이 떨어져 품사 통용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명류’가 아닌 ‘명부류’의 예로 ‘길이’를 제시한 이상 아래 (12)와 같은 통시적 절차를 상정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13)과 같은 공시적 조어 과정만을 인정하여 별개의 단어, 다시 말해 형태는 같고 품사는 다른 동형어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12) ‘길-(형용사 어간)’ + ‘-의(명사화 접미사)’ > 기릭(명사) > 길이(명사)
> 길이(부사)

- (13) ㄱ. ‘길-(형용사 어간)’ + ‘-이(명사화 접미사)’ > 길이(명사)
- ㄴ. ‘길-(형용사 어간)’ + ‘-이(부사화 접미사)’ > 길이(부사)

25)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에 씨가지를 더하여서 다른 씨로 몸바꾸는 것’과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가, 다른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하고 어울려서, 그 본대 어우른 씨들과는 다른 씨로 몸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26)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통용부명류’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기능하는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문법 기술의 관점 중 조어론이 아닌 품사론의 차원에서 논의한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품사 통용의 범위에 포함하기에 부적절한 예들을 걸러내었다. 홍기문(1927/1947)은 주된 품사를 따로 내세우지 않는 통합적 품사 통용, 최현배(1937/1971)에서는 통시적 변화를 전제로한 품사 전성, 남기심·고영근(1985/2011)은 이를 절충한 형태의 분석적 품사 통용으로 같은 현상을 다르게 풀어내고 있다. 남기심·고영근(1985/20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품사 전성은 으뜸되는 품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전성의 절차를 형태론적으로 형식화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품사 통용은 어휘군이 아니라 개별 어휘가 가지는 문법적 특성이며 이를 인정할 경우 사전에 기술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서의 품사별 기술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주된 품사를 정해야 하며 세 가지 이상의 품사가 통용되는 경우에는 순위를 판단해야 한다. 김슬옹(1992)나 『연세한국어사전(1998)』²⁷⁾처럼 품사 통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품사 특성을 지닌 어휘를 그중 어떤 품사로 기술하고 나머지 품사적 특성을 세부 의미나 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품사 통용어의 주된 품사를 설정하는 방식에는 정량적 방식과 정성적인 방식이 있다. 『연세』와 『고려대 한국어사전(2009)』²⁸⁾이 정량적 방식을 취한 대표적인 예이다. 정량적 방식은 공식적인 태도를 전제로 한다. 『연세』는 거시구조(표제어 선정)와 미시구조(의미 구획, 의미 항목 배열, 문법 기술 등)에 말뭉치의 계량적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최초의 사전이며 품사 통용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어휘의 품사를 결정하는 데에 말뭉치의 빈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고려』도 표제어 전체를 형태소 분석하여 거시구조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시구조의 기술에도 말뭉치 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다. 품사 통용과 관련하여 도원영(2010)에서는 ‘다품사어’의 품사별 배열 순서는 1500만 어절의 형태 분석 말뭉치에서 해당 표제어의 용례를 모두 추출하여 각각의 품사에 대해 빈도를 낸 결과에 근거하였으며 말뭉치에서 용례가 추출되지 않는 무빈도 다품사어의 경우 품사 정보 제시의 기본 순서에 따라 배열했음을 밝히고 있다. 『연세』와 『고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전이 편찬자의 직관에 기반해 어휘의 특정 품사로서의 문법적 성질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기대고 있다. 이중 품사 통용 인정 기준과 예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1999)』²⁹⁾이 유일한데 품사 통용의 다양한 유형 중 명사·부사 통용어에 대해서만 국립국어원(2000)의 품사별 뜻풀이를 설명하는 장에서 기술해 놓았다. 한정환·한희정(2013)에 따르면 명사·부사 통용어는 명사·관형사 통용어, 동사·형용사 통용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의미 기술과 통용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아 따로 지침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에서 제시한 명사·부사 통용어 의미 기술의 대원칙은 (14)와 같다. 명사와 부사로서의 쓰임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지, 형태론적으로 명사적인 속성을 보이는지의 여부는 각 표제어 집필자의 언어학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다.

(14) ㄱ. 명사, 부사 통용어는 하나의 표제어가 명사와 부사로서의 쓰임을 확고히 가지고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ㄴ.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을 분명히 구별하여,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서 기능하더라도 조사와의 결합

27) 이하 『연세』로 표현한다.

28) 이하 『고려』로 표현한다.

29) 이하 『표준』으로 표현한다.

(일부 보조사, 서술격 조사 제외)을 허용하는 등의 형태론적으로 명사적인 속성을 보일 때에는 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최형용(2010)은 품사의 경계 문제에 대해 품사 개념을 적용할 대상의 범위와 형태론과 통사론의 상호 소통을 다룸으로써 품사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였는데 품사 통용과 관련해서는 단일범주적 접근과 다범주적 접근에 대한 언급에 주목할 만하다. 어떤 언어 요소가 A 범주와 B 범주의 속성을 보일 때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려는 단일범주적 접근(동음이의적 접근)과 속성을 서로 연관지으려는 다범주적 접근(다의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최신 사전이 각각 품사 통용어에 대해 취한 방식은 동음이의적 접근인가, 아니면 다의적 접근인가?

- (15) 가. 오늘Ⅰ ①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
②지금 살고 있는 시대.
Ⅱ[부사적으로 쓰이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에.
나. 오늘Ⅱ ①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
②지금 살고 있는 시대.
Ⅲ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에.
다. 오늘Ⅲ ①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 이 날.
②지금 이 시대.
③지금 이 시점.

‘오늘’이라는 어휘에 대한 세 사전이 서로 다른 기술 방식을 출간 순서대로 보인 것이 (15)이다. 『연세』는 ‘오늘’의 품사를 명사로 보고 “엄마, 오늘 소양이 붙들고 얘기 좀 해 보지 그랬어요.”와 같은 예문에 나오는 단독형 ‘오늘’은 부사적으로 쓰인 것이라고 문법적 부류가 다를 때 사용하는 로마자를 바꾸어 기술했다. 『표준』은 ‘오늘’이 명사와 부사의 두 가지 품사를 가진다고 설명했으며 『고려』는 조사와 결합한 쓰임만을 용례로 들어 ‘오늘’의 품사가 명사 한 가지인 것으로 보았다. 위에 든 예문을 “엄마, 오늘에 소양이 붙들고 얘기 좀 해 보지 그랬어요.”에서 조사 ‘에’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 없이 쓰이는 ‘오늘’의 단독형에 대해 따로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독립 품사로 기술할지 명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풀어낼지는 정오의 문제는 아니다. 명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기술한다면 이는 다의적 접근이겠으나 다범주적 접근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최형용(2010)의 논의와 같이 다범주적 접근이 다의적 접근이라는 분류는 품사 통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다. 품사 통용어의 사전 기술에서는 범주와 의미가 같은 층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품사 통용어의 사전 기술은 『표준』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고 할 때 단어(표제어 단위), 품사(문법적 분류 단위), 의미 항목(의미 구획 단위)의 삼단 구조로 이루어진다. ⅠⅢ과 ⅡⅢ의 관계는 범주의 다양성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의미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품사 통용어의 범주별 의미는 대부분 어휘적 관점에서 동일하고 기능적 관점에서만 달라지기 때문이다.

- (16) 맹탕ⅠⅢ ①맹물처럼 아주 싱거운 국.
②옹골차지 못하고 싱거운 일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ⅡⅢ 무턱대고 그냥.

(17) ㄱ. 들어번쩍01㉠「운동」화투나 투전에서, 나누어 가진 여섯 장 가운데 각각 같은 자끼리 갖추어져 있어서 더 할 것 없이 돈을 따게 되어 있는 상황.

ㄴ. 들어번쩍02㉡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급세 없어지는 모양을 속되게 이르는 말.

한편 어형은 같지만 어휘적 의미와 품사적 기능이 모두 다른 용법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어휘적 의미의 유연성이 얼마나 유지되었느냐에 따라 (16)³⁰⁾처럼 품사 통용어로 기술할지 (17)³¹⁾의 동형어 기술 방식을 택할지가 결정된다. 『표준』의 기술 내용인 (16)과 (17)을 비교해 보면 (16)의 I 과 II 의 의미적 연관성과 (17)의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는 어휘적 의미의 공통 분모가 크게 차이나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휘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을 분석하고 사전이라는 형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편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위 (16), (17)의 예는 구분관(2010)³²⁾에서 제시한 품사 통용 현상의 원인 중 ‘낱말의 의미가 품사를 분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품사 통용어의 기술이 사전마다 어떻게 다르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기존 논의에서 비교한 바 있다. 김슬옹(1992)에서는 “새한글 사전(한글학회, 1986)”, “국어대사전(이희승, 1982)”, “새 우리말큰사전(신기철·신용철 1989)”, “현대조선말사전(사회과학원, 1981)” 등 네 종류의 사전을 비교하였고, 한정한·한희정(2013)에서는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2)”, “국어대사전(김민수 외, 1996)”,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 “조선말 대사전(사회과학원, 1992)”, “연세 한국어사전(연세대, 199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고려대, 2009)” 등 사전 여섯 종의 기술을 분석하였다.

(18) 처음

- ㄱ. 한글학회: 이름씨, 어찌씨
- ㄴ. 이희승: 명사, 부사
- ㄷ. 신기철·신용철: 명사
- ㄹ. 현대 조선말: 명사(부사처럼 쓰인다는 기술 포함)

(19) 가까이

- ㄱ. 조선말대사전: 부사, 명사
- ㄴ. 표준국어대사전: 부사, 명사
- ㄷ. 우리말 큰사전: 부사, 명사
- ㄹ. 금성국어대사전: 부사, 명사
- ㅁ. 고려대한국어사전: 명사, 부사
- ㅂ. 연세한국어사전: 명사(가까이1), 부사(가까이2)

(18)은 김슬옹(1992), (19)는 한정한·한희정(2013)의 어휘별 품사 통용 기술 양상을 분석한

30) 같은 어휘에 대해 『연세』는 명사로만, 『고려』는 명사·부사 통용어로 기술하였다.

31) 같은 어휘에 대해 『고려』는 부사로만 기술하였다.

32) 구분관(2010)에서는 품사 통용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가. ‘의미’보다 ‘분포’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
예) 백(수사/관형사), 이지적(명사/관형사), 밝다(동사/형용사)
- 나. 낱말의 의미가 품사를 분화한 경우
예) 아니(부사/감탄사), 평생(명사/부사), 거기(대명사/부사)
- 다. 통시적인 변화를 공시적으로 분류
예) 만큼(명사/조사), 보다(조사/부사), 품-(명사/동사), 가물-(명사/동사)

표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18)에는 품사 통용어의 판정 및 품사 설정이 사전마다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 있고, (19)를 보면 어휘의 품사적 성격에 대한 관점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주된 품사의 설정이나 동형어 설정 등에서 기술 방식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과 (19)의 분석 대상이 된 8종의 사전 중 “현대조선말사전(사회과학원, 1981)”과 “연세 한국어 사전(연세대, 1998)”은 아예 품사 통용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품사에 속하는 어휘가 다른 품사처럼 쓰이는 ‘용법’의 차원에서 기술하였다. 최근 출간된 사전들은 품사 통용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남기심·고영근(1985) 이후 학교 문법에 품사 통용의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운영(2002)에 의하면 『표준』의 전체 표제어 중 3,400 항목이 품사 통용어로 기술되어 있어 전체의 0.67%를 차지한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고려』는 다품사어를 폭 넓게 인정하여 전체 표제어 중 0.83%에 해당하는 2,856 항목의 표제어를 다품사어로 기술하였다고 도원영(2010)에서 밝히고 있다.

‘품사 통용’의 개념과 범위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품사 통용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주로 사전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사전별로 품사 통용의 적용 여부와 범위, 기술 방식이 상이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면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별 단어의 품사 통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이 장 첫머리의 문제 제기과 연결이 된다. 품사 통용이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 학교 문법에서 다루기 힘든 지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교육적 가치가 높은 지식일 수도 있다. 이병규(20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변적인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제시하여 설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탐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문법 교육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본관(2010)에서도 서태룡(2006)에서 품사 통용 논의가 학생들에게 국어의 품사 분류가 이상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반하여, 품사 통용 현상을 언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여 다루게 되면 오히려 좋은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음 장에서 품사 통용이 현행 문법 교육에서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품사 통용의 교육적 가치가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3. 품사 통용 교육 현황 분석

3.1. 품사 통용 개념의 이해

품사 통용을 이해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품사 분류에 대한 지식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2)는 품사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 기준이다.

(20) 3-4학년군

- ㄱ.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 ㄴ.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사전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가 된다. 사전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낱말의 기본형과 활용을 간단한 수준에서 이해시킨다. 또한 형태나 의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낱말들을 구별해 내는 활동을 통해 국어사전 찾기에 필요한 주요 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

사, 형용사, 조사)를 변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면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국어사전에서 여러 낱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국어사전의 유용성을 익히고 국어사전을 즐겨 찾는 습관을 지니도록 지도한다.

(21) 중1-3학년군

- ㄱ.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 ㄴ. 단어들을 품사별로 분류해 보는 경험은 국어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국어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어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을 이해시킨 뒤 품사별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형용사와 동사의 활용 등 국어 활동에서 틀리기 쉬운 현상을 중심으로 품사별 특성을 지도하여 문장 생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게 한다.

(22) 독서와 문법

- ㄱ. 품사 분류를 통해서 개별 단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 ㄴ. 개별 단어에 대한 이해는 언어 이해의 출발점이다. 먼저 국어 단어가 형태, 기능, 의미와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품사로 분류되는 원리를 이해한다.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 쓰이거나 여러 품사로도 쓰임을 이해하고, 국어사전에서 단어 하나가 보여 주는 발음, 품사, 의미 정보의 다양함을 이해하여 국어사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본다. 아울러 단어의 형태 변화는 표기법과도 관련이 있음을 이해한다. 이러한 단어의 품사 이해를 통해 같은 단어라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경현(2007)은 문법 교육의 위계화를 위해서는 문법 교육 내용을 결정할 때 꼭 알아야 할 국어 지식 요소를 결정해야 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반복-심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대표적인 반복-심화 필요 지식으로 ‘품사’를 제시하였다.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20)~(22)를 분석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은 품사 관련 교육 내용의 위계화가 드러난다.

<표 1> 교육과정에 나타난 품사 관련 교육 내용의 위계화

교육 단계	반복 교육 내용	심화 교육 내용
3-4학년군	품사 분류 : 주요 품사 변별	기준: 형태, 의미 대상: 체언, 용언, 조사 적용: 국어 사전 활용
중1-3학년군	품사 분류 : 품사별 특성 이해	기준: 형태, 기능, 의미 대상: 품사 전체 적용: 문장 생산 능력 신장
독서와 문법	품사 분류 : 품사 분류를 통한 개별 단어 특성 이해	기준: 형태, 기능, 의미 대상: 품사 전체 적용: 품사 통용 이해, 개별 단어의 표현과 활용

반복 교육 내용은 교육 단계가 높아져도 지속되는 품사 교육의 기본 골격이고, 심화 교육 내용은 이와 관련해 교육 단계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해 난이도를 높이거나 더 깊은 지식을

추가한 것이다. 반복 교육 내용을 보면 ‘품사 분류’라는 기본틀이 계속 반복되면서 개별 단어를 품사라는 범주로 묶는 통합적 사고, 품사라는 범주로 묶이는 개별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분석적 사고를 이끌어 내게 되어 있다. 학교 문법에서 품사 분류의 기준은 남기심·고영근(1985) 이후 의미, 기능, 형식(형태)의 세 가지로 가르쳐 왔는데 3-4학년군에서는 품사 분류 기준으로 형태와 의미를 제시하고 중1-3학년군 이후에 기능을 추가한 세 가지 원리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어의 문장 내에서의 역할, 문장을 이루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등을 가리키는 기능을 품사 개념을 처음 교육하는 3-4학년군 단계에서 배제한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의 기능에 대한 교육 내용이 5-6학년군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형태와 의미 중심으로 분류 가능한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의 체언과 동사, 형용사 등의 용언, 그리고 조사가 3-4학년군 단계에서 다루어진다. 5-6학년군에서 문장 성분 교육을 통해 기능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면 중1-3학년군 이후에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9품사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체언, 용언, 조사 등의 품사를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국어 사전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전체 품사 분류 능력이 생기면 문장을 생산하는 능력이 함께 신장되며, 품사별 특성을 개별 단어에 적용하게 되면 일부 단어의 품사 통용 현상을 이해하게 되어 바르게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체계적으로 위계화된 품사 관련 지식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등장하는 ‘품사 통용’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처음 정식으로 다루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국정 교과서로 개발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23)과 같은 탐구 활동이 제시된 바 있다. ‘쓰임에 따라 품사를 달리하는 단어’라는 표현은 이미 품사 통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부 탐구 주제에서 이를 지지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이다.

(23) 다음과 같이 쓰임에 따라 품사를 달리하는 단어들을 모둠별로 탐구하여 보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인</u>은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 <u>인</u>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군요. ·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u>다섯</u>이 모였어요. · 야구를 좋아하는 <u>다섯</u> 사람이 모였어요. · <u>여기</u>에 물건을 놓아라. · 물건을 <u>여기</u>³³⁾ 놓아라. |
|--|

- ㄱ. 각각의 품사를 이야기하여 보자.
- ㄴ.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는 근거를 수집하여 보자.
- ㄷ.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근거를 수집하여 보자.

33) ‘물건의 여기 놓아라.’라는 문장에서 ‘여기’의 품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때 ‘여기’가 지시 부사라고 풀이하였지만 막상 학습자가 탐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찾아볼 1차적인 자료인 사전에서 대명사로만 기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글학회 사전, 이희승 사전, 연세한국어사전 등에서는 대명사와 부사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신기철·신용철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사전 등에서는 대명사로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서 만든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대명사로만 기술하였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에서는 품사에 대한 판단은 문법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여기’ 단독형을 대명사로 처리한 것은 ‘여기에’에서 조사 ‘에’가 생략된 것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4) 다음 문장에서 ‘바로’의 쓰임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 그 사람은 바로 떠났다.
·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ㄱ. 위에서 밑줄 친 단어가 꾸며 주는 말은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보자.
- ㄴ. ‘바로’의 품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모둠별로 발표하여 보자.

바로 이어 일반적으로 품사 통용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체언 수식 부사’라고 칭하는 ‘바로’의 용법에 대한 탐구 활동이 (24)와 같이 제시되었다. 탐구 활동으로 제시된 (23)과 (24)를 나란히 접한 학습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23)의 예들은 활동 주제를 설명한 메타 언어를 통해 전제가 한 단어에 복수의 품사를 할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예문에도 다양한 기능이 드러나는 반면, 탐구 활동을 해결하려고 사전을 탐색하면 오히려 하나의 품사로 기술한 내용을 보게 될 확률이 높다. 한편 (24)는 활동 주제 자체는 중립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예문을 분석하면 각각 부사와 관형사의 기능이 드러나지만, 사전에는 모두 부사로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실제 언어 현상을 반영한 문법의 다양한 관점을 교육하기 위해서 탐구 활동을 설계할 때, 활동 자체를 제시하는 메타 언어 기술,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예문의 선정, 학습자들이 탐색할 사전을 비롯한 참고 자료 분석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탐구적 사고를 촉진시키려는 교육 의도가 학습자의 혼란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개발된 검정 교과서에서도 발견된다.

(25) 다음 만화를 보고, 품사 지식을 활용하여 사전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 굴이 맛있다.’의 ‘이’의 의미, 품사를 사전에서 찾는 만화 제시)

- ㄱ. 이 만화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밑줄 친 ‘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자.
 - 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② 충치를 예방하려면 음식물을 먹은 뒤엔 꼭 이를 닦아야 한다.
 - ③ 지나가던 이들이 모두 대로에서 다투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 ④ 우리 반은 키대로 번호를 정해서 키가 작은 나는 이 번이 되었다.
- ㄴ. ‘이’처럼 여러 품사로 통용되는 단어를 더 찾아보고,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 조사해 보자.
 - 예) 크다 - 동사: 아기가 쑥쑥 잘 크다.
 - 형용사: 친구의 키가 매우 크다.

(25ㄱ)에서 ‘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인 것은 사실이다. ①은 대명사, ②는 명사, ③은 의존 명사, ④는 관형사로 쓰였다. 그런데 (25ㄱ)은 한 단어의 품사 통용 양상, 즉 형태는 같고 의미는 관련성을 유지하되 기능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아니라 형태만 같고 의미, 기능은 전혀 다른 여러 단어, 즉 동형이의어에 대한 예문이다. (25ㄴ)에서 예로 든 ‘크다’와는 전혀 다른 문법 현상이다. 하나의 큰 탐구 활동 안에 나란히 제시된 (25ㄱ)과 (25ㄴ)을 통해 학습자가 동형이의어와 품사 통용어의 개념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

(22)의 굵은 글씨와 같이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 기준에 포함된 것은 학교 문법에서 단어의 기능에 대한 관점 중 품사 통용을 지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품사 통용 개념의 이해를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의도를 교과서에서, 교수·학습 현장에서 어떻

게 구현하느냐이다. 품사 통용이라는 문법 개념의 특성상 지금까지와 같이 탐구 활동을 통해 개념을 파악하고 사고력을 신장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탐구 활동 설계 시 교육 내용의 명확한 전달을 위한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2. 품사 통용어의 품사 변별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품사 통용 관련 교육은 품사 통용 개념의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동시에 교수·학습 개선의 기회인 평가의 단계에 들어서면 방향이 달라진다. 교과서에서 단어의 품사와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였다. 반면 평가에서는 그 다양한 가능성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알고, 품사 통용어가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26)은 2013년도 EBS 수능 특강의 품사 통용 관련 문제이다. (26)의 문제와 교과서에 제시되었던 탐구 활동 (23)은 사고의 진행 방향이 정반대이다. (23)에서는 예문을 분석하여 품사 통용의 개념을 다른 관점과 비교하며 이해하게 되어 있는 반면 (26) 문제는 품사 통용이라는 문법적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예문이 적합한지 정오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문법화가 진행되어 정서법이 달라진 ①의 예는 명확하지만 ②, ④의 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명사로 통합하자는 견해도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③ 역시 두 예문의 '밝다'를 한 단어의 서로 다른 품사로서의 용법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두 단어로 기술하는 사전도 있다. (27)은 특정 사전을 기준으로 한 문제이다.

(26)

<보기>에서 언급한 '품사의 통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품사는 각 부류에 소속되는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단어가운데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 범주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그 사람만큼 빌 수 있다.

②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③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벌써 날이 밝는다.

④ 다섯까지는 필요 없고 셋이면 되겠는데,
고구마가 다섯 가마니에 줍쌀머 두 가마니였다.

⑤ 비온 뒤라 그런지 앞산이 한결 더 푸르러 보인다.
푸른 공기를 들이마셨다.

(27)

〈보기 1〉은 '조금'과 '좀'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은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기 2〉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조금

[I] 「명사」

「1」 적은 정도나 분량. 「1」 아버지께 받은 용돈은 조금이었다.

「2」 짧은 동안. 「1」 그는 급한 성격에 조금을 못 기다리고 가 버렸다.

[II] 「부사」

「1」 정도나 분량이 적게 「1」 음식에 소금을 조금 넣어 먹어라.

「2」 시간적으로 짧게 「1」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

좀

「부사」

「1」 '조금[II]「1」'의 준말. 「1」 물건값이 좀 비싸다.

「2」 '조금[II]「2」'의 준말. 「1」 좀 늦었습니다.

「3」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삼입하는 말. 「1」 손 좀 빌려 주세요.

「4」 (의문문이나 반어적 문장에 쓰여) 그 상태가 웬만큼 감당할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

「1」 날씨가 좀 추워야 기동을 하지

「5」 (의문문이나 반어적 문장에 쓰여) '얼마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

「1」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니 좀 기특해요?

보기 2

ㄱ. 조금 기다려 주세요.

ㄴ. 돌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니 좋으냐?

- ① 〈보기 2〉의 '조금'은 [I]「1」의 의미로 쓰였고, 〈보기 2〉의 '좀'은 「4」의 의미로 쓰였구나.
- ② 〈보기 2〉의 '조금'은 [I]「2」의 의미로 쓰였고, 〈보기 2〉의 '좀'은 「5」의 의미로 쓰였구나.
- ③ 〈보기 2〉의 '조금'은 [II]「2」의 의미로 쓰였고, 〈보기 2〉의 '좀'은 「3」의 의미로 쓰였구나.
- ④ 〈보기 2〉의 '조금'은 [II]「2」의 의미로 쓰였고, 〈보기 2〉의 '좀'은 「4」의 의미로 쓰였구나.
- ⑤ 〈보기 2〉의 '조금'은 [II]「2」의 의미로 쓰였고, 〈보기 2〉의 '좀'은 「5」의 의미로 쓰였구나.

(27)의 답이 ⑤라는 것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쉽다. 보기 2의 ㄱ에서 '조금'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는 것과 ㄴ의 의문문에 쓰인 '조금'이 뒤에 오는 서술어를 강조하여 '얼마나'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보기 1을 통해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7)을 기반으로 출제된 다음 문제를 통해 '조금'의 품사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8)

[서술형 5] 다음은 '조금'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은 결과이다.
조건에 맞게 '조금'을 활용한 예시 문장을 각각 만드시오. [8점]

조금

[I] 「명사」

「1」 적은 정도나 분량.

「2」 짧은 동안.

[II] 「부사」

「1」 정도나 분량이 적게.

「2」 시간적으로 짧게

<조건>

1. '조금'이 명사로 사용된 문장, '조금'이 부사로 사용된 문장 각각 하나를 만들어 서술하시오.
2. 의미 「1」 과 「2」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음.

㉠ '조금'이 **명사**로 사용된 문장: _____

㉡ '조금'이 **부사**로 사용된 문장: _____

(28)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고사에 출제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학생 오답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29)~(31)과 같다. ㄱ이 '조금'이 명사로 사용된 문장, ㄴ이 '조금'이 부사로 사용된 문장의 답안이다.

(29)ㄱ.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

ㄴ. 시간이 조금 있다.

(30)ㄱ. 나는 조금을 못 기다렸다.

ㄴ. 눈이 조금 내린다.

(31)ㄱ. 밥이 조금밖에 없었다.

ㄴ. 밥이 조금도 없다.

(29ㄱ)은 조사 결합 여부로 명사와 부사를 변별하려 했으나 부사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만들어낸 문장이다. (30ㄱ)을 만든 학생은 격조사가 붙으면 명사라는 정보는 알고 있었으나 '을'이 격조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 (31ㄱ)은 격조사가 붙으면 명사이고 부사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으나 '밖에'가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는 것을 간과하여 부사를 명사로 착각하고 만들어낸 문장이다. 한편 (30ㄱ)과 아래 (32ㄱ)은 얼핏 보면 같은 구조 같지만 (30ㄱ)의 '조금'이 부사와 보

조사가 결합한 부사어인데 비해 (32ㄱ)의 ‘조금’은 ‘명사+명사’ 구성으로 이루어진 명사구 ‘케이크 조금’에 격조사가 붙어 동사 ‘먹었다’의 목적어로 기능하므로 맞는 답을 제시한 것이다.³⁴⁾

(32)ㄱ. 거기에 있는 [케이크 조금]을 먹었다.

ㄴ. 나는 케이크를 조금 먹었다.

몇 가지 예만 살펴보아도 (28)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단순히 9품사의 특성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를 취할 수 있는 품사, 서술어의 자릿수(용언의 격틀), 격조사와 보조사 각각의 목록, 조사의 다양한 기능 등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 조사를 취할 수 있는 품사나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한 사항은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격조사와 보조사의 목록은 의미로만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혼동하기 쉬우며 사전마다 목록이 다르다. 격조사로 널리 알려진 조사의 보조사적 기능에 대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에서 ‘학교를 간다’, ‘학교에를 간다’에서 ‘을/를’이 붙은 성분이 목적어인지 부사어인지 하는 문제도 탐구 활동의 재료가 되는데 ‘을/를’을 격조사로 보느냐 보조사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준 것은 품사 통용어가 각각의 품사로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 못한 사전의 예문이다.

(33)

[I] 「명사」
 「1」 적은 정도나 분량.
 ¶ 아버지께 받은 용돈은 조금이었다./ 남아 있는 음식이 조금밖에 없다./ 그 어떤 말에도 조금의 미동도 없는 그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2」 짧은 동안.
 ¶ 그는 급한 성격에 조금을 못 기다리고 가 버렸다./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윤후명, 별보다 멀리>>/ 그 여자가 안방으로 들어간 지 조금 뒤에 옥주가 나왔다.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II] 「부사」
 「1」 정도나 분량이 적게.
 ¶ 음식에 소금을 조금 넣어 먹어라./ 잠을 자고 나니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 진통제를 있는 대로 가져다 먹고 기다리니 정오가 다 될 무렵에야 통증이 조금 가셨다. <<이청준, 조율사>>/ 몇 초 동안의 침묵이 지난 뒤에 내게도 조금은 귀 익은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조해일, 아메리카>>
 「2」 시간적으로 짧게.
 ¶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 조금 기다려 주세요.

(33)는 (27) 문제의 소재가 되고 (28) 문제의 채점 기준이 된 사전의 ‘조금’에 대한 기술이다. ‘조금’이 부사로 사용된 문장에 대한 예는 문제가 없으나 명사 ‘조금’의 예문 중에는 (34)~(37)과 같이 ‘조금’을 부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다.

34) ‘케이크’ 뒤에 목적격 조사를 써서 ‘거기에 있는 케이크를 조금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만들면 목적격 중출 문장으로 보아 ‘조금’을 명사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케이크를 조금 먹었다.’로 환원이 가능하므로 ‘조금’을 부사로 볼 수도 있다.

(34)ㄱ. 남아 있는 음식이 조금밖에 없다.

- *ㄱ'. 남아 있는 음식이 조금 없다.
- ㄴ. 남아 있는 음식이 조금 있다.
- ㄷ. 남아 있는 음식이 없다.
- ㄹ. 철수는 공부밖에 모른다.

(35)ㄱ. 그는 급한 성격에 조금을 못 기다리고 가 버렸다.

- ㄴ. 그는 급한 성격에 조금 기다리고 가 버렸다.
- ㄷ. 그는 급한 성격에 기다리다 가 버렸다.

(36)ㄱ.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 *ㄱ'. 그는 조금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 ㄴ. 그는 조금 머뭇거리고 말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37)ㄱ. 그 여자가 안방으로 들어간 지 조금 뒤에 옥주가 나왔다.

- ㄴ. 그 여자가 안방으로 들어간 지 얼마 뒤에 옥주가 나왔다.
- ㄷ. 그 여자가 안방으로 들어간 지 바로 뒤에 옥주가 나왔다.

부정문인 (34ㄱ)의 ‘조금밖에’는 긍정문인 (34ㄴ)으로 환원이 가능하므로 부사인 ‘조금’에 보조사 ‘밖에’가 붙은 것으로 봐야 한다. (34ㄴ)에서 ‘조금’은 서술어 ‘있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보조사 ‘밖에’를 생략한 (34ㄱ)이 비문이고, (34ㄹ)과 같은 문장에서 명사와 보조사가 결합한 ‘공부밖에’가 ‘모른다’의 목적어로 필수 논항이기 때문에, (34ㄱ)의 ‘조금밖에’도 명사와 보조사가 결합한 필수 논항으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34ㄱ)이 비문인 것은 ‘밖에’가 반드시 부정어와 공기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고, (34ㄱ)의 ‘없다’는 형용사로 한 자리 서술어이기 때문에 주어 이외의 논항을 필요로 하지 않아 (34ㄷ)과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 (35ㄱ)의 ‘조금’은 격조사로 흔히 쓰이는 ‘을’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명사에 목적격 조사가 붙은 구성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35ㄴ)과 같이 조사 ‘을’을 생략하거나 아예 ‘조금을’ 전체를 생략한 (35ㄷ)과 같은 문장이 가능하므로 ‘조금을’을 목적어로 볼 수 없다. (36)은 (34)와 유사한 사례이다. 보조사 ‘도’를 생략한 (36ㄱ)이 비문이기 때문에 헛갈리기 쉬우나 이는 (36ㄱ)이 ‘조금도 ~지 않다’라는 문법적 연어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며 (36ㄴ)과 같이 부사를 포함하는 긍정문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37ㄱ)의 ‘조금’은 명사, 부사 두 가지 품사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37ㄱ)의 ‘조금’은 ‘얼마’, ‘바로’ 등 시간적인 간격을 나타내는 다른 어휘로 교체가 가능한데 똑같이 명사인 ‘뒤’를 수식하지만 ‘얼마’는 명사이고 ‘바로’³⁵⁾는 부사이기 때문이다. (37)의 예문은 2장 첫머리에서 도출한 품사 통용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 중 ‘각 품사 범주를 결정짓는 문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26)~(37)을 통해 품사 통용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학습자 입장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교육 과정에 명시되어 교과서에서 구현한 탐구 활동

35) ‘바로’는 현존하는 모든 사전에서 일관되게 부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체언 수식 부사’라 하여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은 인정하지만 품사 범주는 부사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해서는 황화상(2008)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의 취지를 살려 품사 통용을 이해하는 사고의 과정을 평가할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야 하겠다. 기존의 출제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6), (27)과 같은 문제를 출제할 때는 최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28)과 같은 문제를 출제한다면 학습자에게 사고를 전개할 수 있는 단서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 내용을 벗어하는 심화 지식에 대해서는 탐구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문제 내에 관련 문법 지식을 포함해야 하며 이것이 평가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4. 맺음말

학교 문법에 개념이 적용되어 교육과정에 명시된 ‘품사 통용’의 개념과 범위를 확인하고, 교과서의 탐구 활동과 방송 교재의 평가 문제 등을 분석하여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품사 통용은 언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어 학습자의 탐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기도 하지만, 탐구 활동을 설계하거나 지식을 평가하기는 매우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지식 항목이다. 기존의 교과서나 문항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거나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게 난이도가 높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품사 통용 교육의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부족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국어 교육용 품사 통용어 목록을 선정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서와 사전 간에, 사전과 사전 간에 품사 통용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이 달라서 교수·학습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

둘째, 품사 통용을 논하기에 앞서 각 품사의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특성에 대한 교육적 합의가 필요하다. 남기심 외(2006) 등의 학술적 논의에서 품사별로, 또 배주채(2003)과 같이 개별 어휘를 대상으로 품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지만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정리가 요구된다. 이현희(2011)의 품사 전형성에 대한 논의나 정병철(2012)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등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품사 통용어를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해야 한다. ‘품사 통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품사 통용 범주에 포함다고 해도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형태, 의미, 기능, 분포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언어 현상의 다양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상규(2005)에서 명사·부사의 품사 통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사를 명사로서의 용법을 중심으로 하는 부류와 부사로서의 용법을 중심으로 하는 부류로 분류한 바 있다.

넷째, 어문 규범 정보를 정비하여 품사 통용 교육과 연계해야 한다. 『표준』이 현재 구체적인 어휘의 표준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규범 사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 콘텐츠가 이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표준』에 등재된 품사 통용어 기술의 불균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평생’은 명사, 부사를 따로 동형어로 등재하고 ‘평생’, ‘일생’은 명사로만 기술한 것이나, ‘기왕’을 품사 통용어로, ‘기왕에’를 부사로 인정하면서 ‘진작’은 부사로만 기술하고 ‘진작에’를 비표준어로 기술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국어 규범 정비 위원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 참고 문헌

- 교육부(1991), 『고등학교 문법』.
-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 국립국어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 구분관(2010),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179-199쪽
- 김백력(2005), 『조선어단어론』, 사회과학출판사
- 김슬옹(1992), 이른바 “품사통용어”의 사전 기술 연구, 『사전 편찬학 연구』 4, 연세대학교 한국어 사전 편찬회, 104-169쪽
- 김정웅(2008), 한국어 부사의 술어성: 품사론의 새로운 시각을 위하여, 『언어학』 52, 한국언어학회, 167-49쪽
- 남기심 외(2006), 『왜 다시 품사론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기심·고영근(1985/2011),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도원영(2010),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품사 정보와 다품사어 처리에 관하여,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1-32쪽
- 민현식(2001), 국어의 부사화, 『새국어생활』 11-4, 국립국어원, 157-176쪽
- 박진호(2010), 분포에 의한 단어 분류와 기능에 의한 단어 분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언어연구소·한국 언어 유형론 연구회 공동 워크숍』, 서울대학교
- 배주채(2003), ‘물론’의 품사와 구문, 『국어학』 47, 국어학회, 53-81쪽
- 서상규(2005), 부사와 관형사, 『새국어생활』 15-1, 국립국어원, 179-192쪽
- 서태룡(2000), 국어 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을 위하여, 『국어학』 35, 국어학회, 251-285쪽
- 서태룡(2006), 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 『국어학논총』, 태학사, 359-389쪽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송경안·송진희(2007),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품사, 『언어학』 49, 한국언어학회, 23-49쪽
-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이경현(2007), 학습자를 고려한 문법교육내용 위계화 : 중학교 국어과 문법단원 분석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7, 한국문법교육학회, 109-141쪽.
- 이광정(2001), 국어 어휘의 품사별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 의미학회, 1-81쪽
- 이병규(2012), 국어 문법 교육의 원리 탐구, 『새국어교육』 90, 한국국어교육학회, 29-56쪽.
-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이정택(2006), 우리말 체언의 품사 설정과 하위분류,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233-252쪽
- 이현희(2011), 범주로서의 품사와 품사 전형성, 『한국학연구』 39,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359-384쪽
- 임지룡 외(2005),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 정인승(1956), 『표준고등말본』, 신구문화사
- 정병철(2012), 인지언어학으로 보는 학교 문법의 품사, 『담화와 인지』 19-2, 담화인지언어학회, 107-131쪽
- 정희정(2000), 『한국어 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 최웅환(2011), 국어 품사론의 교육적 접근, 『언어과학연구』 56, 언어과학회, 219-238쪽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사
- 최형기(2011), 품사 통용을 이용한 국어 품사 교육 방안, 『언어학』 19-3, 대한언어학회, 293-313쪽

- 최형용(2010), 품사의 경계 -조사, 어미, 접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61-92쪽
- 한정한(2008), 품사로서의 명사와 통사범주로서의 명사,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학회, 427-448쪽
- 한정한·한희정(2013), 국어사전에서의 품사 통용 정보 기술 방안, 『한국어 의미학』 40, 한국어 의미학회, 441-468쪽
- 홍기문(1927), 조선문전요령, 현대평론사
- 홍기문(1947), 조선문법연구, 서울신문사
- 홍재성(2001), 한국어의 명사 I, 『새국어생활』 11-3, 국립국어원, 129-144쪽
- 홍재성(2001), 한국어의 명사 II, 『새국어생활』 11-4, 국립국어원, 119-131쪽
- 황화상(2008), 관형사와 부사의 품사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학』 42, 한국어학회, 317-344쪽

■ 토론

“품사 통용어 교육 현황 분석”에 대한 토론문

박동근(건국대)

이 연구는 ‘품사 통용’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품사 통용의 개념과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품사 통용과 같이 학자들 간에 공통된 의견 접근이 어려운 국어연구의 난제들은 오히려 고등사고능력 신장을 위한 좋은 탐구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으므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품사 통용에 관한 발표자의 고견을 청하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품사 통용의 인정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품사 통용을 최소화하는 입장과 개방적인 입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에서 조사와 의존명사로 통용되는 ‘만, 만큼’은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의존명사’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큰사전>이 되도록 1 형태는 1 품사로 처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어에서 품사 통용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1 형태 1 품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능’의 측면에서 가능한 것들을 모두 품사 통용어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예를 들어 ‘명사’는 모두 잠재적인 ‘관형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기타 사전이나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품사 통용의 범위는 적절한 타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어학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품사 통용 교육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용 품사 통용어 목록 선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는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은 가지지만 탐구적 사고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취지에 다소 어긋나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 평가와 관련하여, ‘조금’의 품사 통용을 이해하는 문제로 (27)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답한 (28)~(30)을 분석하여 ‘품사 통용’에 관한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고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조금밖에 없다’, ‘조금을 못 기다린다’, ‘조금밖에 었었다/조금도 없다’의 답안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 정도를 유추한 것은 선생님의 뛰어난 분석력이 엿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과도한 해석이 아니까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넷째, 2012년에 발족한 국어 규범 정비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편된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지도 방안

-텍스트 강화와 개요 쓰기를 중심으로-

고경민·이소영(국한교협)

<차 례>

1. 들어가기
 2. 개편된 한국어능력시험 개괄
 3. 선행 연구 내용과 학습자 사례 점검
 4. 작문 문항 교육 방안
 5. 나가기
- 참고문헌

1. 들어가기

1997년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시작으로 곧 있을 35회 시험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시행처, 시험 유형, 문항 수 등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으며, 이제 다시 한 번 개편된 시험 유형과 평가 기준으로 학습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조용준(2012:328)에서는 그간의 한국어 쓰기 교육의 동향에 대해 살펴면서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제2언어로서의 작문에 대한 연구가 특수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 치우쳐 있어 제2언어로서의 작문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제2언어로서의 쓰기 교육이나 작문 교육의 거시적인 차원이 아닌 평가 항목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는 목적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쓰기 이론과 작문 이론을 소개하고, 논의하기 보다는 실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학습자의 입장과 한국어 교수자의 관점에서 '작문 문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과정 중심 교수법이나 장르 중심 교수법, 독자 중심 접근법 등의 이론이 바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학습자의 오류 사례와 그 사례에 대한 간략한 교육 방안이 될 것이다.

2. 개편된 한국어능력시험 개괄

2.1. 전체 영역에서의 변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1997년에 첫 시행된 이후에 사업주관기관이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1~2회가 시행되었고, 1999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변경되어 20회까지 시행되

었다. 그리고 2011년에 국립국어원으로 사업주관기관이 변경된 이후에 34회까지 시행되었다. 2014년 7월 20일에 시행되는 35회 토픽시험에서는 시험 체제를 개편¹⁾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개편된 토픽 시험 체제는 기존의 토픽 시험 체제와 비교해 볼 때 시험 등급 및 평가 영역, 총 문항 수, 배점, 등급 판정 방법에 있어서 변경되었다.

먼저 개편 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시험 등급의 구분과 시험 영역, 그리고 등급판정이다. 시험 등급의 구분은 한국어능력시험 I 과 한국어능력시험 II로 나누어졌는데 중급과 고급 수준이 한국어능력시험 II에 포함되면서 중급 수준의 응시자들은 고급 수준의 학습도 준비해야 하므로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편된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개편 된 TOPIK (35회 이후)		개편 전 TOPIK
시험 등급	한국어능력시험 I (1급~2급) 한국어능력시험 II (3급~6급)		초급(1급~2급), 중급(3급~4급) 고급(5급~6급)
	2종 6등급 체제		3종 제6등급 체제
시험 영역	한국어능력시험 I 듣기, 읽기 - 2개 영역	한국어능력시험 II 듣기, 쓰기, 읽기 - 3개 영역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 4개 영역
문항수	총 70문항 듣기(30), 읽기(40)	총 104문항 듣기(50), 쓰기(4: 서답형 2문항, 통합형 200~300자 작문 1문항, 독립형 600~700자 작문 1문항), 읽기(50)	각 급별 총 104~106문항 어휘·문법(30), 쓰기(서답형 4~6문항, 선택형 10문항) 듣기(30), 읽기(30)
등급판정	200점 만점 1급 - 80점 이상 2급 - 14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II -	300점 만점 3급 - 120점 이상 4급 - 150점 이상 5급 - 190점 이상 6급 - 230점 이상	각 급별 400점 만점 초급 1급, 중급 3급, 고급 5급 - 평균 5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초급 2급, 중급 4급, 고급 6급 - 평균 70점 이상 (과락 50점 미만)
	※ 획득한 총 점수에 따른 등급 판정 (종합 점수에 따른 급간 분할 점수는 검사 회차 간, 영역 간 동등화 방안을 적용하여 매회차 시험 후 별도로 공개한다.)		※ 전 영역 평균점수가 급별 합격점수에 도달하고 평가영역별 과락점수가 없어야 함
시험시간	100분	180분	각 180분

<표 48> 개편된 한국어능력시험과 이전 체계의 비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급 판정에 대한 부분도 획득한 점수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 점수제와 등급제의 절충 방안으로 개편되었으며, 평가 유형 내 측정 범위별 문항 수의 배정이나 배점에서도 개편이 되었다. 시험이 치러진 후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공청회 논의 내용에서는 총점과 평균을 표시하거나 인증 등급을 표시하고, 참고 사항으

1) 개편 내용은 2013년 9월에 있었던 공청회 내용과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www.topik.go.kr>)에 공지된 샘플 문항을 참고하였다.

로 등급 분할선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제시된 바 있다.

2.2. 쓰기 영역에서의 변화

한국어능력시험 I에는 쓰기 영역의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어능력시험 II에서는 쓰기 문항수가 4개의 문항으로 축소되었다. 4개의 문항은 서답형 2문항, 통합형 200~300자 작문 1문항, 독립형 600~700자 작문 1문항으로 개편되었다. 개편 전 쓰기 영역의 문제가 실질적인 쓰기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문법이나 상황 이해에 대한 내용을 객관식 유형으로 평가하다보니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쓰기 능력 평가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비해 개편 후 쓰기 영역의 평가는 실질적인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 입장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쓰기 영역의 4개의 문항을 60분 안에 다 작성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공개한 2014년 한국어능력시험 개편 체제 샘플문항을 보면 서답형 1번과 2번의 두 문항을 제외한 3번 문항은 200~300자, 4번 문항은 600~700자로 작문을 하도록 출제되었다. 즉, 한국어능력시험 II에 응시한 학습자들은 1.2번을 빠른 시간에 작성한다고 해도 50분의 시간 안에 최소한 900자의 작문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개편 전 쓰기 문항의 출제 내용과 개편 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편 전 쓰기 영역(중급 기준 ²⁾)	개편 후 쓰기 영역
문항 수	14~15문항	4문항
문항 유형	대화 완성형 문항(31번-34번) 동일한 의미의 문장 찾기(35번-36번) 도표나 그래프에서 바른 정보 찾기(37번-38번) 문맥에 맞게 글 완성하기(39번-40번) 제시어를 사용하여 문장 완성하기(41번-42번) 맥락을 파악해 글 완성하기(43번-44번) 작문(45번)	맥락에 맞게 문장 완성하기(51번-52번) 제시된 정보를 사용하여 단락 구성하기(53번) 작문(54번)
서술형 문항 배점	제시어를 사용하여 문장 완성하기 (7점 X 2) 맥락을 파악해 글 완성하기 (8점 X 2) 작문 (30점)	맥락에 맞게 문장 완성하기 (10점 X 2) 제시된 정보를 사용하여 단락 구성하기 (30점) 작문 (50점)

<표 49> 개편된 쓰기 영역의 문항 유형과 배점

기존의 문항 유형에서 서술형 문항을 제외하고는 개편 과정에서 모두 바뀌었다는 것을

2) 토픽 중급 시험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고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 있다면 전체 쓰기 문항수가 고급이 한 문제 적다는 것과 서술형 작문의 글자 제한이 700-800이라는 점이다.

알 수 있다. 어휘력, 문법, 글의 구성 능력, 의사소통능력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담아내는 평가 도구로서의 쓰기 문항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영옥(2013:312)에서는 개편 전의 쓰기 영역은 마지막 자유 작문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관련 문제에 답을 하거나 문법 학습을 위한 통제 작문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전체 100점의 쓰기 배점에서 작문 문항이 50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 선행 연구 내용과 학습자 사례 점검

3장에서는 4장에서 다룰 교육 방안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학습자 쓰기 내용의 문제점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3.1.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 사항

먼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쓰기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던 이미혜(2000:134)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 스스로가 학습 초기 말하기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하거나 듣기 능력 향상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급으로 갈수록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쓰기로 바뀐다는 것을 살핀 바 있다. 이를 욕구와 기대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말하기와 듣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쓰기 점수에 절망하거나 보고서, 논문과 같은 학문적 쓰기 능력의 부재를 몹시 아쉬워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능력시험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졸업의 요건이 되거나 취업을 위한 조건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서 심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영역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데, 특히 쓰기 평가와 관련한 논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쓰기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로 진대연(2004:489)에서는 쓰기 평가가 무엇을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기를 언어의 종합 운용 능력으로서의 의사소통, 문제의 발견-해결, 의미의 창조 행위라고 본다면 쓰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필요한 능력들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며 포괄적으로 쓰기 교육 평가의 초점은 '텍스트 생산 능력'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쓰기 평가가 텍스트 생산 능력에 중점을 둔다면 어떤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가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원경(2013:406)의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평가 과제의 목적 요소 빈도를 보면 초급의 경우 '자기 표현'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중급의 경우도 '자기 표현'이 75%로 가장 비중이 크다. 반면에 고급의 경우 85.8%가 '설득'이 목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작문의 목적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편된 쓰기 문항의 경우도 예시로 제시한 문항을 봤을 때 자기 주장을 통한 '설득'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치루는 평가 문항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쓰기 평가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수업 모형을 제시한 연구로 김유정(2001)과 장향실(2009)을 살펴볼 수 있다. 김유정(2001:89)에서는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제안한 바 있다. 쓰기 포트폴리오 평가는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쓴 여러 편의 글을 모은 작품집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 발생이 줄었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은 결론적으로 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 학습자의 쓰기 오류 수정 등을 통한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쓰기 교육 자체가 단기간에 혹은 일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쓰기 평가를 수업에 활용한 것이 장향실(2009)의 연구 내용인데 여기서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활용해 교육 과정 구성을 '수업 계획 -> 수업 -> 수업 결과 분석'의 3단계로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16주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별로 12편의 완성된 글과 5편의 개요를 분석한 결과 쓰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정확한 문법 표현 사용하기(33%)', '문맥에 맞는 어휘 선택하기(16%)', '자료 찾기(16%)' 순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문법의 유용론이나 무용론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쓰기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브레인 스토밍'이나 '마인드 맵'과 같은 사고의 확장과 마찬가지로 문형을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하고, 단락을 구성할 수 있는 쓰기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쓰기 평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쓰기의 교육 모형에 대한 연구이다.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간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이 강조되어 왔고,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결과 중심의 쓰기 교육은 여전히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육 방법의 일환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능력시험과 같이 짧은 시간에 잘 조직된 글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강현자(2009:4)에서는 결과 중심의 쓰기 교육이 학습자들에게 글의 장르와 모형을 제시하여 글을 구성할 때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고 기술하면서 모방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는 결과 중심의 쓰기 교육은 과정 중심의 교육이 제공할 수 없는 틀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최주리(2008:246)에서는 학습자의 인터뷰를 전사한 내용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글을 작성할 때 보통 하게 되는 계획하기 단계를 한국어 쓰기에서는 잘 하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학습자의 이러한 반응은 그동안의 한국어 쓰기 지도가 '결과 중심 쓰기'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과정 중심 쓰기 지도³⁾를 통해 쓰기의 전 과정에 초점을 맞춰 작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하고, 쓰기 영역의 작문 문항이 결국에는 하나의 평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 방식의 문제를 모든 원인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쓰기 영역의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로 김호정(2007), 김은희(2012)를 살펴볼 수 있다. 김은희(2012:402)에서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쓰기 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크게 다섯 단계로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 속 주제 분석' -> '다양한 사고 활동을 통한 배경지식 활성화' -> '글의 목적 및 조건 분석' -> '글 구성하기' -> '다시 읽고 수정하기'의 단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 대한 수업지도안을 함께 첨부하였다. 쓰기 영역의 작문 문항을 최근의 기출 문제를 통해 분석하고, 논술문 작성과 쓰기 지도를 연계해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호정(2007:256)에서는 독자

3) 김영미(2010:98)에서도 과정 중심 접근법의 약점으로 교사가 쓰기 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계획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교수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쓰기 수업에서는 간단한 브레인스토밍과 동료 및 교사의 피드백이 반복되는 진행 방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쓰기 수업이 학생 각자의 쓰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진행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와 필자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쓰기 교육 원리를 제시하면서, 아이디어 생성에서 퇴고에 이르는 쓰기 과정을 함께 하여 텍스트의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피드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2. 학생 사례 점검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채점 기준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쓴 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오류 부분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내용 및 과제 수행 오류로 주어진 주제나 과제에 맞지 않게 글쓰기를 한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글의 전개 구조 오류로 단락 구성 등의 전개 구조가 맞지 않게 글쓰기를 한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언어 사용 오류로 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문형⁴⁾을 사용한 경우이다. 각각에 해당하는 글쓰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1) 내용 및 과제 수행 오류 - 주어진 주제나 과제에 맞지 않게 글쓰기를 한 경우

외국인이나 교포로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십시오.

- 다문화 사회의 정의와 의미는 무엇인가?
-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다문화 사회가 아주 많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일어난다.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니까 안 맞는 것이 너무 많다. 음식도 안 맞고 말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생활할 때 아주 불편하다. 생활하다 보면 불편해서 다시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가 다른데 결혼을 해서 사니까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마다 다문화가 아주 많아서 지금은 많이 본다. 우리 반에 있는 친구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중국 사람이다. 이 친구는 아버지와 말할 때 한국말로 말하고 어머니와 말할 때 중국말로 말한다. 아주 불편할 것 같다. 다문화 사회에서 살면 불편할 것 같다. 그세 사람이 있을 때 무슨 말로 할지 걱정할 것 같다. 그런데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니까 좋은 것도 있다.

다문화 사회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사회다. 다문화 사회에서 살 때 다른 문화도 좋아해 주고 이해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는 다른 문화끼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도 많다. 다른 문화를 알 수 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다. 다문화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4) 강현화(2007:18)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항목을 크게 범주접근적 문법항목과 어휘접근적 문법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범주접근적 문법항목이란 국어학에서 접근하는 문법범주에 따른 필수 문법 항목 등을 의미하며, 어휘접근적 문법항목이란 고정적이고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문법적 표현 단위로 마치 하나의 어휘처럼 기능하는 문법 표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형'의 개념은 어휘접근적 문법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법 형태'의 준말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5) 이 글에서는 학습자들의 글쓰기 사례를 통해서 글쓰기 전략을 세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실제 글에서 맞춤법, 띄어쓰기, 조사 오류 등의 부분은 수정하였으며 학습자가 쓴 글에서 해당하는 오류가 드러나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실었음을 밝힌다.

문장 구성이나 단락 구성은 차치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글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중심 내용(과제)을 어떻게 배치하고 답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전개가 이루어졌고, 과제를 글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 중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글이 작성되었다.

(2) 글의 전개 구조 오류 - 단락 구성 등의 전개 구조가 맞지 않게 글쓰기를 한 경우

사회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지만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십시오.

-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개인과 사회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한다. 나의 가족과 생활하고 학교에서는 친구와 생활한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 사람들과 생활한다. 하지만 매일 기분이 좋고 사이 좋게 지내지는 않는다. 싸울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서 안 좋기도 하다. 기분이 안 좋아서 싸우는 경우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기적이어서 싸우고 서로 말도 안 한다. 그러면 개인 갈등이 생긴다. 개인 갈등이 생기면 사회도 갈등이 생긴다. 왜냐하면 사회는 개인이 모두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갈등이 일어나면 사회가 발전을 못 한다.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기적으로 생각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같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가 점점 나빠진다. 갈등도 계속 심해진다.

갈등은 빨리 극복해야 한다. 갈등이 계속 일어나면 개인도 안 좋고 사회도 안 좋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이기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하면 갈등을 극복하지 못 한다.

이 학습자의 글은 주어진 세 개의 과제 내용이 각각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두 개의 과제 내용이 하나의 단락에 구성됨으로써 평가의 주요 기준인 글의 전개 구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중심내용(과제)이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학습자로 볼 수 있다.

(3) 언어 사용 오류 - 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문형을 사용한 경우

요즘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연예인의 외모를 보고 청소년들까지도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형 수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십시오.

- 요즘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소년들이 성형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무분별한 성형 수술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하는 이유는 연예인처럼 더 예뻐지려고 한다.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 그리고 성형 수술을 하면 모습이 달라져서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것이다. 좋은 점이 있다.

청소년들이 일찍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은 안 좋다. 나는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은 너무 어려서 성형 수술을 하면 반드시 안 좋게 될 것 같다. 너무 어릴 때 성형 수술을 하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 얼굴이 더 이상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후회한다. 어른이 돼서 후회하면 아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청소년일 때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무분별한 성형 수술을 막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음대로 성형 수술을 안 한다. 그리고 예쁜 모습보다 좋은 실력을 가진다. 좋은 실력이 있으면 예쁘지 않아도 좋은 회사에 취직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성형 수술을 안 하고 좋은 실력이 생기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 학습자는 주제에 맞게 제시된 내용을 모두 각 단락에 구성을 하였다. 하지만 주장하는 글에 적절하지 않은 문형과 문장 호응 관계를 맞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내용 전달이 정확하지 않다. 어휘와 문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글쓰기를 할 때 문장 안에서 어떻게 호응을 이루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배운 문형 중에 주장하는 글의 특성에 맞는 문형이 어떤 것인지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전에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읽어보고 문형을 학습한 후에 실제 작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능력시험의 작문 문항을 작성했던 중급 이상의 학습자는 크게 두 가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첫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하는가?' 둘째, '답화 수준의 글을 작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글을 조직하고, 문장을 완성해야 하는가?'이다. 앞선 예시와 같이 자신이 배운 문형을 활용하고 싶은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언어 지식 차원의 문형을 사용 능력으로 이끌어 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 대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중급 수준까지 배우는 문형(표현을 포함)을 살펴보니 400개⁶⁾가 넘는 문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급과 4급 과정에서 배우는 문형들은 문어적인 표현이 상당수 담겨 있어 자신의 견해를 완성해야 하는 글을 작성하는데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언어연수 기관의 일주일 수업 시간이 20시간이고, 교재 한 권을 배우는 데 200시간이 사용된다. 이점을 감안할 때 수업 시간을 통해 배운 문형을 활용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형 사용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과제 수행이나 내용 조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의 경우도 학습자 개인 능력의 부족이나 교수 방법의 문제점만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간략한 교육

6)

교재 - 건국대	문법+표현
1급	93개 (새로 바뀐 교재)
2급	57개 (새로 바뀐 교재)
3급	120개
4급	160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작문 문항 교육 방안

이 장에서는 앞선 학생 답안을 통해 두 가지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적어도 400시간 이상의 한국어를 학습한 학습자들이 적어도 자기가 배운 문형을 몇 가지라도 기억하고,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고, 둘째는 배운 문형과 자신의 스키마를 활용해 평가 문항에서 요구하는 과제 내용에 맞게 단락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4.1. 신문 기사 자료의 텍스트 강화를 통한 형태-의미 연결하기

Wynne wong(2012:88)에서는 텍스트에 있는 특정한 정보에 독자의 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해 볼드체나 이탤릭체와 같은 활자상의 차이를 사용하는 것을 텍스트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강화(textual enhancement)는 교사가 언어 학습자의 주의를 문법형태에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며, 학습자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여 형태-의미 연결을 잘 하지 못하는 서면 입력(written input)의 특정 자질들을 두드러지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국어교사는 해당 학습자 집단 혹은 개별 학습자의 취약한 문형을 텍스트에 노출할 수 있으며, 노출된 문형은 학습자에게 의미에 대한 입력뿐만 아니라 형태에 대해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⁷⁾ 다음의 표는 입력을 통해 출력에 이르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I	II	III
입력 -> 수용 -> 발전하는 체계 -> 출력 사용 기억 장치		
I. 입력 처리 : 학습자가 자신이 들은 언어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언어 자료를 취하는 방식 (수용의 창조) II. 체계 변화 a. 수용(intake): 학습자가 자신이 창조하는 있는 언어의 내재적 체계 내에서 문법적 형식 또는 구조를 통합하는 방식 b. 재구조화 : 발전하는 체계로 수용의 통합 III. 출력 처리 : 학습자가 발화 생성을 위해 습득한 내재적 지식을 실시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방식		

<표 3> Wynne wong(2012:51)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세 가지 조합 과정

입력한 내용을 학습자가 수용하고 재구조화하여 출력하는 과정을 위해 이 글에서 택한

7) 다만 Wynne wong(2012)에서도 지적하듯이 텍스트 강화의 단점은 학습자가 강화된 입력으로부터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형태-의미로의 연결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입력 방법은 텍스트 강화이다. 단순히 밑줄을 긋거나 표식을 하는 것으로 텍스트 강화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은 먼저 학습자가 접하게 될 쓰기의 목적에 필요한 문형을 선별하고, 그 문형이 노출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다.⁸⁾ 예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써야 한다고 할 때 주장하는 글에 자주 사용되는 문형에 대한 노출이 충분한 텍스트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텍스트에 그러한 문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교사에 의한 재조직도 필요할 것이다.

(1) 꽃가루·자외선… 외출 땀 긴 옷 입으세요

날씨가 좋아 야외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5월. 하지만 꽃가루 등 알레르기 물질로 인한 피부병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략

해당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피부접촉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사전에 숙지,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특히 봄철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나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됐다면 해당 부위를 곧바로 비누나 세정제로 씻어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소년조선일보 2014년 5월 19일 2면 기사 중에서)

위에 텍스트는 실제 소년조선일보에 실린 대기환경 오염과 관련한 기사 내용에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문형을 텍스트 강화한 것이다. 텍스트 강화를 통해 문형을 노출하되 예시의 경우 특별히 자신의 견해를 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형에 대해서만 강화 처리한 것이다. 신문 기사를 활용한 텍스트 강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4.1.1. 왜 신문 기사인가

신문 기사를 활용한 교육 방안은 한국어교육에서 처음 거론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최은규(2004), 이찬희(2010), 임영(2012) 등을 통해 논의되기도 했으며, 최은규(2004:210)에서는 신문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의 교육적 의의를 일곱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기도 했다.⁹⁾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신문을 활용해서 수업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학습자들에게 신문 기사를 읽기 텍스트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신문 기사가 어렵다.”이다. 중급 이상의 학습자라고 해도 신문 기사를 통해 유의미한 교육 효과를 얻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

8) 다만 무조건 문형을 선별하고 배치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텍스트 강화는 이해 가능한 입력 자료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제, 기능, 상황 중심의 텍스트를 먼저 준비하고, 이러한 언어 자료 가운데 교육해야 할 문형을 선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일곱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스러운 교육이 가능하다. 둘째,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셋째, 풍부한 정보를 담은 실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학습자의 흥미에 기초한 내적인 동기 유발에 용이하다. 다섯째, 읽기 전략을 연습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여섯째, 통합적인 언어 교육이 가능하다. 일곱째, 주제 중심적 어휘 학습에 효과적이다.

휘의 문제 특히 전문용어나 한자식 표현 등은 외국인 학습자가 신문을 어렵다고 느끼는 요소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자신이 원하는 주제나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기사를 통해 실제 한국의 실생활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읽기 능력이나 쓰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문 기사를 택한 학습자가 어떤 내용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신문 기사 교육적 의의를 살리면서도 학습자가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청소년 신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은 기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의 난이도, 주제 선택 등 여러 면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신문 기사를 활용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¹⁰⁾ 선행 연구에서 신문 기사의 읽기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는 이미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활용한 텍스트 강화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4.1.2. 텍스트 강화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해영(2004)과 강현자(2009)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학술 텍스트의 문체에 일정한 양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분야의 텍스트를 보면 문어체적 표현과 피동 구문의 사용이 많고, 완곡한 표현 양식이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강현자(2009:11)에서는 그러한 예로 완곡한 표현 양식을 제시하면서 당위적인 글에서 단정적 표현 양식이 ‘-아/어야 하다’ 인데 반해 완곡한 표현은 ‘-아/어야 할 것이다’, ‘이/가 요구되다’, ‘-(으)르필요가 있다’가 있으며,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표현을 익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장하는 글에 반드시 등장하는 몇 가지 문형들을 텍스트 강화를 통해 학습자에게 노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형태-의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의미의 이해를 위해 읽는다는 점이다. 의미-형태로의 연결을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속에서 강화된 형태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Wynne wong(2012:51)에서는 텍스트 강화의 방법으로 볼트 처리나 이탤릭체로 교육 대상 형태(문형)를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노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신문 기사를 텍스트로 선정하고, 텍스트 강화를 통한 입력이 이루어질 경우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장르 중심 접근법’을 통한 교육도 가능할 수 있다. 이미혜(2011:397)에서는 장르 중심 접근법은 결과 중심 접근법과 같이 텍스트 형식을 강조하지만, 텍스트 형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 맥락에 의해 변화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정 중심 접근법이 쓰기의 과정을 중심으로 학습자와 동료,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쓰기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나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 교수법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글의 구조나 형식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10) 김영미(2010:10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쓰고자 하는 내용 지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쓰려고 하는 글의 내용을 이를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써야 할 혹은 쓰고 싶은 주제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조직화하는 것부터 쓰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손쉽게 정보를 얻고, 조작할 수 있는 텍스트의 출처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을 장르 중심 접근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신문 기사를 활용한 텍스트 강화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화 처리를 통해 형태(문형)를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폭넓은 주제를 접하고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미 Lee, J·Vanpatten, B.(1995)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반적인 학습자의 입력 처리 활동에서 우선시하는 원리¹¹⁾는 의미라는 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형태에 대한 강화 활동이 반드시 의미에 대한 이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는 재고가 필요하다.¹²⁾ 유의미한 내용 안에서 형태(문형)의 주의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는 Long(1991)의 형태 초점(Focus-on-form)과 가까운데 형태 초점 교수법에 대해 황종배(2007:237)에서는 “문법 구조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나타난 형태 초점 교수법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문법 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식 교수법 처럼 의미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자들의 주의력을 필요한 어휘나 문법, 발음 등으로 이끌어 주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텍스트 강화는 형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미와 글의 구조 등으로 이끌어 주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강화를 통한 문형의 노출과 입력 강화는 언어 지식에 그친 문형을 사용 능력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것이 쓰기 능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 민현식(2008:273)에서는 문법 형식의 유형을 목록화, 위계화하여 배치하다 보면 전통적 문법 중심 교육이나 상향식 교육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으므로 문법 형식의 항목들을 선정, 배열하는 일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한 바 있다. 기능 중심, 내용 중심, 주제 중심 교육 과정에 따라 내용 항목을 먼저 구성한 뒤 거기에 맞는 언어 자료를 난이도에 따라 선정하고, 자료에서 도출되는 문형을 수준에 따라 배열할 것을 제기하였다. 텍스트 강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제에 맞는 텍스트를 먼저 선정하고, 선정한 텍스트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문형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4.1.3. 텍스트 강화와 문형, 그리고 작문

텍스트 강화를 통해 익숙해진 문형에 대해서는 교사가 나름의 방식으로 해당 문형에 대한 연습과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강화를 통해 문형을 익숙하게 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것을 작문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 있다. 심상민(2012:835)에서는 Knapp·Watkins(2005)를 인용하여 기존의 문법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문법과 쓰기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의 문법에 대

11)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의미 우선 원리’이며, 두 번째 원리가 ‘첫 번째 명사 원리’이다. ‘의미 우선 원리’는 학습자가 형태를 위해 입력을 처리하기에 앞서 먼저 의미를 위한 입력을 처리한다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12)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소년 신문 기사를 통한 입력 강화라는 개념은 흔히 학습자의 스키마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 쓰기의 ‘내용 지식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쓸 때 필요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지식을 구성해 내는 일은 김정숙(2009), 최은지(2009), 윤지원 외(2013)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윤지원 외(2013:5)에서는 ‘내용 지식’의 활용이 쓰기의 첫 단계인 ‘계획하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쓰기에서의 내용 지식을 ‘필자가 쓰기 주제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 알게 된 지식을 포함하여 글을 완성하는데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지식들의 총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 제시하는 ‘입력 강화’는 형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용 지식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한 관점이 문장 수준에서의 조직 방식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장르 수준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런 경우 문법이 텍스트나 장르와 연결되어 쓰기의 목적과 독자, 구조 등과 관련해 특정 장르를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목적이나 장르의 글쓰기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문형이 있고, 이러한 문형에 대한 교육이 담화 수준까지 확대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문형의 의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목적에 맞는 글을 완성하고, 장르에 적합한 글의 구조를 이루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형 학습과 작문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문형 자체가 갖는 쓰기 자원(resource)으로서의 역할이다. Frodesen·Hoten(2003, 심상민 2012 재인용)에서는 쓰기 수업에서 학습자가 서로 다른 유형의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형태와 구조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쓰기 활동에서 하나의 자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모국어 학습 성향이나 방법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언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법 중심의 수업을 통해 작문 과정에서 자신이 배운 문형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국어를 통한 작문에서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문형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문형을 먼저 생각하고, 형태에 맞춰 내용을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¹³⁾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문형에 의존하는 이러한 작문 경향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자기표현의 도구나 자원으로서의 문형의 활용은 작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 김성숙(2012)을 살펴볼 수 있는데, 김성숙(2012:9)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수행 능력 평가 준거를 ‘구조, 내용, 양식’으로 설정하고, 평가 문항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양식 범주에 해당하는 통사적 호응 지식이나 문어적 격식성, 논리적 호응 지식 등이 쓰기 수행 능력과 상관이 높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양식’의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휘적 호응’, ‘통사적 호응’, ‘문어적 격식성 및 논리적 호응’, ‘표기법’ 인데 쓰기의 구조나 내용과 더불어 양식(문형 포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2. 과제 수행 및 단락 구성을 위한 개요 쓰기

4.2.1. 개요 쓰기의 목적과 틀

현재의 한국어능력시험 쓰기의 경우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주리(2008:2300)에서는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이 학문 목적이나 비즈니스 목적 글쓰기와 같이 특정 담화 양식의 글쓰기에 적절하며, 이와 같은 글쓰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동체가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담화 양식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여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인지 구성주의 쓰기 이론과 쓰기 전략이 한국어 쓰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때 두 번째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계획하기’ 단계이다. 흔히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 맵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작성할 주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계획하

13) 최주리(2008:246)에서도 학습자의 사전 인터뷰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구술 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로 쓸 때는 단어나 문법에 많이 신경 써요.”, “모국어로 글을 쓸 때는 아이디어 먼저 쓰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글을 써요. 그런데 여기 수업 방식은 다른 것 같아요.”와 같이 문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문법의 무용론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 구상과 더불어 실제 이를 바탕으로 '개요 쓰기'가 이루어져야 주제에 대한 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모국어 학습자라면 머릿속의 구상과 계획이 작문으로 이어지기 수월하겠지만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밑바탕이 필요하며, 이것이 글쓰기 전 단계에서 흔히 행해지는 '개요 쓰기'의 역할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개요 쓰기'를 통해 추상적인 '계획'이 구체적인 '문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혜(2000:140)에서는 이를 '구상 개요 작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상 개요를 작성함으로써 글을 통해 나타내려는 논지가 무엇인지, 그 논지를 뒷받침해 주는 상세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이는 '목록화하기', '자유롭게 쓰기', '도식화하기', '글의 틀 구성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개요를 작성하는 일은 단순한 메모와는 다른 것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글의 중심 내용은 물론 전체 글의 구조까지 담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요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학습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작문을 하기 위한 개요 쓰기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는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를 조직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개요 작성을 위한 교사의 틀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근 대중문화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해지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대중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십시오.

-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글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¹⁴⁾

단계	중심내용	핵심 내용	핵심어휘와 문형
도입	중심내용(1)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개	중심내용(2)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측면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측면	
정리	중심내용(3)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이 교재에서는 자료1과 자료2를 통해 학습자의 입력을 강화하는 텍스트가 제공되었고, 대중문화의 장점이거나 문제점에 대한 정리, 대중문화에 대한 찬반 의견, 주제에 대한 예비 질문 과정을 먼저 제시한 후 개요 작성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무엇일

14) 고경민 외(2014) 참조

니까?”, “대중문화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예비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스키마를 충분히 활성화해서 개요 작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지식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여기에 600~700자의 글을 쓰기 전에 나오는 제시된 들을 읽고 주제에 따라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등 입장을 정해 자유롭게 쓰는 문항을 통해 긴 글쓰기에 대한 목록화 하기(Listing)와 자유롭게 쓰기(Free writing) 연습도 가능하다. 개요 쓰기 틀을 통해 학습자는 막연히 ‘대중문화가 필요한 이유’나 ‘문제점’, ‘올바른 자세’ 등에 대해 작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틀에 제시된 여섯 가지의 내용 개요 쓰기를 통해 자신이 써야 할 내용은 물론 단락 구성이나 전체 글의 구조에 대한 연습도 가능하다. 김원경(2013:393)에서는 장르를 구분하는 중요한 자질은 의사소통의 목적이므로 작문의 목적이 쓰기 평가 과제에 명시되어야 수험자가 쓰기 수행에서 장르적 특성에 적합한 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고, 글의 전개 구조를 평가하는 것 역시 글의 목적에 맞게 글을 구성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개요를 작성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 올바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요를 작성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작문 문항에서 요구하는 2~3가지의 중심 내용과 그 중심 내용에 따라 단락이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연습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학습자가 체계를 갖춘 개요를 직접 작성하기보다 교사가 먼저 틀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이 구성해야 할 글의 핵심 내용을 미리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2.2. 개요 쓰기를 활용한 자료 구성의 예

앞에서 살핀 텍스트 강화와 개요 쓰기 내용을 토대로 두 가지를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간략하게 지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1. 자료를 보고 주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¹⁶⁾

▶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의 0.0086%뿐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약 14억㎞³. 이 중 먹을 수 없는 바닷물이 97.5%를 차지한다. 그렇다고 나머지 2.5%의 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가운데 1.76%는 빙하 또는 만년설 형태이고, 0.76%는 지하수로 존재한다. 하천이나 호수에 있는 나머지 0.0086%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다.

▶ 80여 개국 이미 물부족 상태

유엔에 따르면, 20세기 세계 인구는 두 배로 증가한 반면 물 사용은 6배나 늘어났다. 물론 지구 전체의 수자원량은 변함이 없었다.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

15) 샘플 문항이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환경 오염’과 관련한 주제로 자료를 구성해 보았다.

16) 텍스트 강화에서 다른 것처럼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텍스트 자료는 청소년 신문 기사를 발췌하여 수정하였다. 1번 문항은 문형 노출,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단락 구성 및 핵심 내용의 배치, 배경 지식 및 문형의 입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는 80여 개국이 물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 미래 후손은 물론 우리 이웃을 위해서라도 물을 절약하는 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 6명 중 1명은 깨끗한 식수 못 먹어

전 세계 11억 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으며, 26억 인구는 하수처리시설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 한국유니세프에 따르면, 5세 미만 어린이 1억 2000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며, 이 중 185만명이 해마다 설사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맑은 물만 있으면 하루 5000명의 어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2010년 3월 18일 소년조선일보 기사 일부 수정)

▶ 생각할 문제

1. 여러분도 위와 같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 부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안전하지 못한 식수로 인해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문형 연습

문형	의미	문장 완성하기
-를 차지하다.		
-는 것도 아니다.		
-(으)르 수밖에 없다.		
-아/어/해야 하다.		
-아/어 보아야 하다.		

2.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 여러분은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같은 주장에 V표 하고 그 이유를 써 봅시다.¹⁷⁾

주장	선택과 이유
물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려우니 물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17) 이런 유형의 연습 문항은 개편된 쓰기 영역의 200-300자 글쓰기 연습과 더불어 긴 글쓰기의 개요를 작성하고,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준비하였다. 개편된 문항을 보면 제시된 글을 읽거나 주제에 따라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입장을 정해 쓰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3. 개요 작성하기

▶ 다음의 주제로 긴 글쓰기를 하기 위해 글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현대 사회는 환경 오염, 인구의 증가, 산업 개발 등의 이유로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80개국에 이미 물부족 상태이며, 6명 중 1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물을 마시고, 부족한 물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십시오.

- 물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물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단계	중심내용	핵심 내용	내가 사용할 핵심 어휘와 문형 ¹⁸⁾
도입(단락1)	중심내용(1)	물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연적인 이유	
		물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공적인 이유	
전개(단락2)	중심내용(2)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1)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2)	
정리(단락3)	중심내용(3)	물부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개요 쓰기의 경우 핵심 내용을 먼저 제시하여 연습하고, 글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연결 짓는 방법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스스로 이런 틀을 만들어 연습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기

이 글에서는 개편된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문 문항의 지도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문형을 작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강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형태-의미 연결(form-meaning connec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의 청소년 대상 신문 기사를 텍스트로 제시하였다. 청소년 신문 기사는 단순히 텍스트 강화의 재료로만 활용할 수 있는

18) 글을 쓰기 전에 문형을 선정하는 일은 일반적인 쓰기 과정에 역행하는 일이지만 여기서는 주장하는 글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당위적 표현이나 설명을 할 때 필요한 문형 등을 먼저 생각해 본다는 의미로 핵심어휘와 문형을 적도록 만들어 보았다.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를 익히고,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입력 자료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둘째, 작문 문항의 채점 기준인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를 위한 개요 쓰기를 제시해 보았다. 개요 쓰기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작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소개가 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과제 수행과 단락 구성의 측면에서 간단한 틀을 제시하여 개요 쓰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학습자의 총체적인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의사소통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는 식의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배경 지식이 풍부한 학습자임에도 어떻게 글을 구성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과 문형의 활용에 집착해 전체 글의 구조를 생각하지 못하는 학습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실제 교육 사례와 방법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분한 입력이 제공되는 수업이면서 글의 구조와 내용,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나 활동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 두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강현자(2009), "학문적 글쓰기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 《언어와 문화》 5, 1-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강현화(2007), "한국어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담화기능별 문형표현 단위에 대한 연구 - '거절'의 담화기능을 중심으로", 《응용 언어학》 23, 17-36, 한국응용언어학회.
- 고경민 외(2014), "새롭게 바뀐 TOPIK 중고급 쓰기", 박이정.
- 김민경(2012), "학문 목적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평가 유형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20, 103-139, 국어교과교육학회.
- 김성숙, 유혜령(2012),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수행 능력 연구 -대학 입학 전의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9, 1-28, 이중언어학회.
- 김영미(2010),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장르 기반 접근법으로-", 《한국어 교육》 21, 87-1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원경(2013), "한국어교육학 :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과제 구성 요소 분석", 《새국어교육》 94, 389-412,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유정(2001), "한국어 쓰기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연구 -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 《한국어학》 13, 85-120, 한국어학회.
- 김은희(2012),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쓰기 지도 방안", 《국어교과교육연구》 21, 387-406, 국어교과교육학회.
- 김정숙(1999),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0, 195-2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현진(2013), "토픽(TOPIK) 쓰기 영역의 지도 방안", 《人文科學研究》 41, 21-43,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호정(2007), "한국어 쓰기 교육의 원리와 교육 방안 탐색", 《國語教育學研究》 30, 233-260,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261-33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배윤경·우진아·정지은·강승혜(2011),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22, 163-1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서희정(2005),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문항 개발에 관한 연구", 《高鳳論集》 37, 13-32, 慶熙大學校 大學院 院友會.
- 심상민(2012),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문법의 개념과 역할", 《先淸語文》 40, 827-84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오지혜(2008), "이야기 문법을 활용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이야기 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7, 275-305, 한국작문학회.
- 윤지원, 전미화(2013),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쓰기의 내용 지식 구성 양상 연구", 《우리말 글》 58, 217-243, 우리말글학회.
- 이미혜(2000), "과정 중심의 한국어 쓰기 교육", 《한국어 교육》 11, 133-15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미혜(2011),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장르 분류 연구", 《Foreign languages

- education》18, 391-41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이미혜(2012),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석 연구의 방향과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 275-301,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이영옥(2013), "학문 목적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항의 개발 방향 모색", 《새국어교육》 97, 291-326,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윤진(201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수 원리 - 쓰기에서의 정직성을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 48, 369-392, 이중언어학회.
- 장향실·김서형(2009), "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쓰기 수업 모형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20, 255-27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용준(2012),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의 동향", 《한말연구》 31, 309-339, 한말연구학회.
- 진대연(2004),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 《國語教育學研究》 19, 483-512, 국어교육학회.
- 최주리(2008), "인지 구성주의 쓰기 전략 교수가 한국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3, 227-26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황미향(2007),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243-278, 한국어교육학회.
- 황종배(2007),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과 형태초점 교수법의 상호작용 연구",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0, 237-255,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 Lee, J.F. · Vanpatten, B.(2003), "Making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happen" 2nd edition, New York : Longman.
- Wynne wong(2012), "Input Enhancement : From theory and research to the classroom, 서종학 외 역, 한국문화사.

<http://kid.chosun.com/> 소년조선일보 홈페이지

▣ 토론

“개편된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지도 방안-텍스트 강화와 개요 쓰기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해권(한국외대)

최근 새로운 형식으로 TOPIK이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쓰기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상황 등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입력 강화의 일종인 텍스트 강화와 함께 개요 쓰기를 새로운 쓰기 교육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쓰기 교육 및 평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보완했으면 하는 점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이 연구에서는 쓰기 평가 및 교육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쓰기 평가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새로 개편되는 TOPIK II에서 기존 평가와 구별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요? 개편된 TOPIK II에 대한 교육 방안은 이와 같은 새로운 TOPIK II의 특성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2절에서 개편된 TOPIK II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적인 측면은 제한된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TOPIK II에서 예시된 작성 방법에는 담화 구성 능력의 측면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이 연구의 논의가 다양한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텍스트 강화와 개요 쓰기는 전혀 별개의 접근 방법으로 보입니다. 텍스트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은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개요 쓰기는 전체 텍스트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서론과 선행 연구 등에서 모든 쓰기 교육 및 평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방안이 왜 필요한지, 기존 연구 및 방안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문 점수가 50점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작문에만 치중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점수로만 따지면 작문에서 주제 12점, 구조 12점, 언어 26점으로 언어 사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작문에 대해 논의하는 근거를 연구 도입에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문장 완성하기와 단락 구성하기 등도 담화 맥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텍스트 강화 기법은 맥락에 맞게 문장 완성하거나 제시된 정보를 사용하여 단락 구성하기에서도 유

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락 구성하기에도 개요 쓰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문형을 텍스트 강화와 개요 쓰기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문형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에서 “~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최대한 ~을 피 해야 한다. ... ~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 ~에 따라야 한다.”와 같이 너무 단편적인 어휘적 표현에 치중하는 것보다 인용한 것처럼 보다 긴 유형의 언어적 표현을 담화 표지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2.2.의 예문에서 “그렇다고 ...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담화표지의 측면에 대한 교육이 없음이 아쉽습니다. 단순하게 문형에 의존해서는 전체 개요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강화에 의한 문형 교육은 형태와 의미를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담화 맥락에 대한 제시를 빠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2.2.절에서 ‘는 것도 아니다’와 함께 ‘수 있는 것이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함께 ‘~르 수 있는 것이(도) 아니다/~르 수 있는 것이다.’의 대립으로 제시하고 문형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담화 맥락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즉 문형을 넘는 다양한 담화표지와 그에 상응하는 담화 맥락이 제시될 때, 전체 글의 구조에서 차지하는 단락에 알맞은 문형 및 문장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새롭게 개편된 TOPIK II에서 요구하는 쓰기 능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 텍스트 강화는 상향식 글쓰기를 지향하고 개요 쓰기는 하향식 글쓰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담화 표지 및 담화 맥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상향식과 하향식을 아우를 수 있는 상호작용식 글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청소년 신문에 나타나는 문형이 성인 학문목적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예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신문에는 “~라고 사료된다.”와 같은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 대학 학습자용 텍스트에서는 자주 발견되는 문형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신문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스키마 활성화와 관련하여 내용 스키마보다는 형식 스키마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연구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새로 개편된 TOPIK II의 쓰기 영역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제안되는 방안이 얼마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될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 연구의 마무리를 보면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한국어 쓰기 교육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 사전 특징 분석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 편찬의 활용 방향-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김은영(경기대)

<차 례>

1. 머리말
 2. 외국인을 위한 문화 사전의 편찬 현황
 3. 외국인을 위한 문화 사전의 특징
 4.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 편찬에서의 활용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그 역할에 비해 교육 자료와 교육 과정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 특히 한국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은 단편적이거나 특정한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²⁾ 한국 문화 교육에서 협의의 문화로 인식하게 되면 한국 문화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그칠 수 있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그것이 한국 문화의 전부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의 목적에 맞고 한국 문화 교육에 적합한 자료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 문화 교육의 특성상 광범위한 한국 문화의 범위와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독학도 가능한 문화 사전을 찾아 그 특성을 분석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 편찬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은 한국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필요한 교육 자료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화 사전의 특징을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김정숙(1997), 성기철(2001), 배현숙(2002), 조향록(2002) 등이 있다. 특히 한국어 교재 중 문화 교육으로서 다양한 한국 문화의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지 못한 것은 전통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거나 특정한 산물이나 유물, 유적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외국인을 위한 문화 사전의 편찬 현황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 사전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사전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문화 사전의 편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아야 하는데³⁾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참고할 문화 사전은 크게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선별하려고 한다.

첫째, ‘문화’와 ‘사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자료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적명에 ‘사전’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수록된 내용이 한국 문화와 관련이 있더라도 사전의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면 포함시키지 않았다⁴⁾. 언어 사전의 미시적 정보나 백과사전적 구조를 찾아볼 수 없다면 사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고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한국어 교육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화 교육은 그 시기가 더 늦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 문화 교육 자료로 문화 사전을 찾는다면 1980년 이후에 발행된 종이 사전으로 한정하려고 한다. 그 이전에는 ‘한국 문화’라는 용어가 제시된 사전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종이 사전과 전자 사전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종이 사전으로 한정한다. 1988년에 처음으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1~4}가 발행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한국 문화 사전이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 문화 사전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의 자료로 편찬된 것은 아니다.

셋째, 자료의 편찬 장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문화라는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편찬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에서 편찬된 문화 사전의 내용은 한국 문화를 담고 있어야 하고 국외에서 편찬된 문화 사전의 내용은 편찬 장소의 문화를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문화 사전이지만 문화 사전의 내용이 세계 문화에 관련된 백과사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⁵⁾ 세계 문화는 한국 문화 교육의 자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 사전에 속하지만 전문 용어 사전의 성격을 지닌 특수한 분야의 문화 사전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⁶⁾ 한국 문화 교육에서 특수한 문화 내용

3) 수집한 문화 사전은 159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전자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였고 실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박형익(2004)를 참고하고 경기대 도서관 및 교보문고 등에서 수집하였다. 외국 문화 사전은 구글과 아마존, 교보문고 등에서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4) 예를 들어 「한국인의 일생: 한국인 2000년 백과사전」은 서적명에 ‘사전’이 들어있고 문화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형식이 언어 사전이나 백과사전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통계 자료에 가깝다.

5) 이수광(1634, 인조 12년)이 편찬한 「지봉유설(芝峰類說)」을 제시할 수 있는데, 목록에서 제외한 이유는 「지봉유설」이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이지만 중국을 다녀와서 보고 들을 것을 토대로 편찬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선의 문화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문화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이유로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과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권문해(1589)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郡玉)」도 본문의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6) 예를 들어 「관소리 문화 사전」(김진영, 2007), 「한국 불교 문화 사전」(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9), 「종교 문화 사전」(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1) 등 특수한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용

을 교육하는 것보다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사용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전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문화의 내용이나 기술 방법, 표제항 선정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편찬된 문화 사전과 국외에서 편찬된 문화 사전 중 사전 사용자가 외국인 또는 제2언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편찬된 문화 사전이라도 사전 사용자가 외국인이 아니거나 제2언어 학습자가 아닌 경우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⁷⁾ 그런데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타 특수한 사전으로 문화 항목이나 문화 어휘와 연관이 있는 사전은 살펴볼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조건에 충족하면서 1980년 후에 종이 사전으로 발행된 문화 사전은 총 5종이며, 기타 사전으로 2종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국내에서 편찬된 한국 문화 사전 중 외국인 학습자나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편찬된 한국 문화 사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한국 문화 사전은 「한국 언어 문화 사전 New millenium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2003)이다. 서정수가 엮은 것으로 국어학과 한국학에 관련된 항목들을 묶어 편찬한 언어 사전이다. 표제항의 배열은 알파벳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 언어는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사전 사용 대상자는 영어권 화자와 교포 2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제항만 4만 5천개에 달하고 2006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를 역사, 지리, 종교, 사상 등 36개 분야로 걸쳐 다루었고 특히 현대 문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⁸⁾ 문화 어휘로 분류되어 내용이 첨가된 표제항은 약 400개로 부연 설명된 표제항의 기술은 유래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사와 어미의 쓰임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적 측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영어권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국 문화 사전은 「한국 문화 백과사전(AN ENCYCLOPAEDIA OF

어 사전의 성격을 지닌 문화 사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대중문화 사전」(김기란 외, 2009)는 인터넷 분야의 통신 어휘와 신어 300개만을 표제항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국내에서 편찬된 문화 사전으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1989, 1990, 1991, 1995), 「한국 문화 상징 사전」(두산동아, 1992), 「한국 생활 문화 사전」(강준만, 2006), 「100가지 민족 문화 상징 사전」(주강현, 2007), 「한국 문화 대사전」(신기철, 2008) 등은 사전 사용자가 한국인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한국 언어 문화사전」의 문화 분류에 따른 배열

1. 한국 지리 개요	2. 한국의 주요 산과 강	3. 한국 고대 역사	4. 한국 현대 역사	5. 대도시와 지방(도)
6. 한국어와 한글 원리	7. 주요 종교	8. 가치관, 관습	9. 민속신앙	10. 궁궐, 역사적 장소
11. 절과 탑	12. 일상 음식	13. 특별한 음식과 궁중 요리법	14. 의복	15. 4계절과 24절기
16. 주택	17. 가구	18. 가족 생활과 공휴일	19. 축하, 결혼	20. 전통 의식(제사)
21. 전통 놀이	22. 탈과 탈춤	23. 스포츠	24. 도자기	25. 공예(수공예)
26. 미술과 조각	27. 교육, 인쇄, 출판	28. 대중매체와 문학	29. 동물과 식물	30. 농업, 어업, 목축
31. 음악	32. 춤, 드라마	33. 건강과 의료	34. 과학과 기술	35. 전통적 상업 도구와 현대 산업
36. 정보와 의사소통				

KOREAN CULTURE」(2004)이다. 대표 편찬자가 서정수로 79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전은 학술적 관점이 아닌 일반적, 지식적 관점에서 만들어졌고 사전 사용자의 이해와 전파에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문화가 무엇인지 알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편찬 목적이 있다. 사전 사용자가 영어권 학습자이거나 한국 교포 2세와 3세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된 언어는 영어이다. 「한국 문화 백과사전」은 백과사전의 형식을 따르며 사진과 그림이 약 2300장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전의 배열 방식은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제별로 되어 있는 문화의 범주는 45개이다. 45개의 범주로 나눈 표제항의 수는 약 120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항의 설명은 다시 일반적 지식과 유래, 구체적인 예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⁹⁾ 그러나 일러두기는 없고 표제항의 수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학습용으로 바라본 「한국 문화 백과사전」은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우선, 영어로 표기되어 있고 영어권 학습자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국적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결혼 이민자의 국적 분포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¹⁰⁾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인 학습자는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풀이문의 설명에 있어서도 어려운 어휘를 찾아봐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사전의 목적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알아야 하는 문화 지식, 알리고 싶은 지식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과 다를 수 있다. 즉, 편찬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한국 문화 어휘와 설명이라는 점에서 사전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 중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이라면 표기 언어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표제항의 선정에 있어서 사전 사용자의 요구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전 사용자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 문화 사전을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한국 문화 사전은 「한국 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2009)이다.

9) 「한국 문화 백과사전」의 문화 분류에 따른 배열

1. 한국 지리 개요	2. 기후, 계절, 환경	3. 서울 수도	4. 광역 도시	5. 중부 지역 4개도
6. 남부 지역 5개도	7. 북한대도시와 지방	8. 한국의 역사 개요	9. 대한민국	10. 북한과 남북관계
11. 한국어와 글자	12. 한국 문학 개관	13. 주요 종교	14. 사상, 관습	15. 무속, 민속신앙
16. 일상 음식	17. 음료, 술	18. 의복, 모자, 신발장식	19. 집	20. 가구와 침구
21. 생활 기구	22. 가족생활과 휴일	23. 잔치, 혼인, 제사, 장례	24. 민속놀이	25. 운동
26. 길쌈과 수공예	27. 도자기	28. 전통 공예	29. 전통 상업 기구와 고장	30. 미술과 서예
31. 조각	32. 음악	33. 탈놀이와 무용	34. 연극과 영화	35. 교육
36. 인쇄와 출판	37. 대중매체	38. 건강과 의료	39. 식물	40. 동물
41. 농업	42. 산림업, 어업, 축산업	43. 과학과 기술	44. 현대 산업	45. 정보와 통신

첫 번째 큰 범주로 한국 지리 개요(Korean Geographical Aspects)의 경우 1.Land and Population 2.Administrative units and provincial divisions 3. Traditional Transportation 4. Modern Transportation 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0) 결혼 이민자의 국적 분포는 중국이 약 44%, 베트남이 약 26%, 일본이 약 8%로 비영어권 국가로 이루어진 경우가 78%에 해당한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자료, 2012)

임영철이 편찬한 사전으로 한국 문화의 범주를 먼저 생활양식, 사회 구조, 한국 문화, 한국인의 정신세계, 자연환경으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범주를 정하여 설명하고 있다.¹¹⁾ 표제항의 수는 212개로 생활양식은 식생활, 주거, 복식으로 나누고 사회 구조는 사회생활, 교육, 정치, 경제·경영으로 나누었으며 한국 문화는 예능, 스포츠, 놀이, 오락·취미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는 한국인의 정신, 언어, 상징,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종교, 축제, 연중행사·국경일로 나누고 마지막인 자연 환경은 동물, 식물, 지리·기후·풍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전 사용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 두 언어로 소개되어 있고 두 문화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307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러두기는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다음은 외국에서 편찬된 문화 사전 중 외국인과 제2언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으로 영미

11) 「한국 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2009)의 문화 항목(표제항) 배열

현대 한국인의 생활양식	식생활	김치, 수라상, 쌀, 비빔밥, 오곡밥, 나물, 떡, 국, 찌개, 삼계탕, 보신탕,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계장, 젓갈, 불고기, 갈비, 신선로, 술, 구절판, 칼국수, 냉면, 파전, 떡볶이, 순대, 묵, 식혜, 수정과, 김, 김밥, 수저
	주거	초가집, 온돌, 부엌, 한지, 마루, 장독대, 보료, 죽부인, 요강
	복식	한복, 한복과 인사, 한복과 양반다리, 외출용 한복
한국사회의 구조	사회생활	주택사정, 아파트, 고시촌, 군대, 교통사정, 계, 386세대, 정보 강국, 명절 선물, 백일과 돌, 혼수, 결혼식, 장수축하, 고령화시대, 황혼 이혼, 주요 사망 원인, 출생률과 사망률, 장례식
	교육	교육제도, 의무교육, 입시전쟁, 학력사회, 학원, 영어교육, 영재교육, 유학
	정치	대통령제, 국회, 온라인 정치, 선거, 주한미군
	경제·경영	경제발전, 국내총생산, 국민소득, 외환위기, 카드대국
한국문화에 접하다	예능	한국무용, 부채춤, 탈춤, 하회탈, 판소리, 창극, 민요, 아리랑, 사물놀이, 마당놀이, 남사당놀이, 가야금, 거문고
	문화	도자기, 향아리, 떡매기, 풍속화, 꽃꽂이, 다도, 시조, 복조리, 칠보, 한국의 정원, 콘텐츠 산업, 한류, 한국 영화, 난타, 라이브카페, 미팅
	스포츠	축구, 야구, 씨름, 태권도, 택견
	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닭싸움, 윷놀이, 쥐불놀이, 공기놀이, 투호놀이, 강강술래, 널뛰기, 가위바위보
오락·취미	복권, 화투, 카지노, 비디오방, PC방, 만화, 바둑, 장기, 해외여행, 등산, 온천, 찜질방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엿보다	정신	은근과 끈기, 유교사상, 삼강오륜, 홍익인간, 백의민족,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족보, 양반, 선비정신, 풍수지리사상, 성명과 본관, 빨리빨리, 괜찮아요, 한, 화병
	언어	한국어, 한글, 경어, 방언
	상징	단군, 국기, 국화, 서울, 경복궁, 백두산, 한라산, 남대문, 동대문, 인사동, 민속촌, 인삼
	세계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종묘, 화성, 석굴암, 팔만대장경
	종교	종교별 인구,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숭례, 장승, 고사, 무당, 굿, 점, 토정비결, 금줄, 삼신, 삼재, 도깨비, 절, 스님/비구니, 제사/성묘
	축제	제주 들불축제, 진해 군항제, 진도 영등제, 남원 춘향제, 강릉 단오제, 금산 인삼제, 안동 민속제
	연중행사, 국경일	설, 정월 대보름, 삼월 삼짱날,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한가위, 동지, 선달 그믐날, 삼일절, 식목일, 스승의 날, 현충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한국의 자연환경	동물	용, 해태, 호랑이, 개, 까치
	식물	고추, 진달래, 개나리
	지리기후풍토	기후, 강, 황사현상, 제주도

권에서 출판된 문화 사전 2종을 살펴보려고 한다.¹²⁾

첫 번째가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1992)으로 Longman에서 출판된 언어 문화 사전이다. 이 사전은 영어 학습에서 문화를 내세운 최초의 사전으로 1992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1998년 개정판이 2판이 나왔다. 2005년도에는 3판이 발행되어 꾸준히 개정 보완되고 있는 언어 문화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표제항의 배열은 알파벳순이고 표제항의 수는 4만여 개다. 그 중에서 문화 어휘 표제항은 1만 5천여 개에 해당한다. 표기 언어가 영어이고 어휘의 뜻이나 예문에 있어서 문화적인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나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전이다. 이 사전의 기초 자료는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으로 어휘의 출처가 분명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전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 외에 15,000이상의 인명, 장소, 사건, 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러두기는 24쪽에 걸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발음 정보의 경우 영국 발음과 미국 발음을 제시하였고 품사 정보, 동음이의어, 동일인, 철자의 변이, 문형 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Culture Note(문화 관련 정보)부분을 두어 어휘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첨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전은 「*Oxford Guide to British and American Culture*」(1999)으로 Oxford에서 편찬한 문화 사전이다. 이 사전은 1999년에 초판이 나오고 2005년에 개정판이 나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사전이다. 특징적인 것은 표제항 모두가 문화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고 영국과 미국의 사회 문화적인 표제항을 실고 있다는 점이다. 표제항에서 발음 정보, 사회 문화적 의미까지 영국과 미국을 비교하며 기술하고 있다. 표제항의 배열은 알파벳순이고 1만 여개의 표제항과 500개 이상의 사진과 그림이 있으며 따로 32쪽에 걸쳐 지도와 컬러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영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으며 차이점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문화 사전이다. 표제항의 범위는 역사, 사건, 인물, 상징, 관습,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유명 인사가 표제항인 경우 그에 대한 기술과 함께 명언이나 말씀 등이 같이 기술되어 있다.

한국 문화 사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문화 항목이나 문화 어휘를 사용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는 기타 사전은 총 2종으로 이들을 제시하면 첫째로, 주제별로 나눈 신현숙(2000)의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 사전」이 있다. 이 사전은 어휘 사전이기는 하지만 의미별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분류 사전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한국 문화 사전은 표제항의 선정이나 배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전의 의미 분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3개의 의미로 나누어 15,000의 어휘를 설명하고 있으며 원어 정보, 품사 정보, 간단한 뜻풀이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만 용례 정보는 없다. 용례 정보가 없다는 것은 이해 사전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의미별로 분류된 표제항이 주제에 따라 중복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표제항의 중복은 지면을 사용하는 종이 사전인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12) 다른 언어권에서도 문화 사전이 존재하지만 영미권의 사전을 대표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제2언어 학습자를 비롯해서 영어를 학습하는 인구가 많아 연구 자료가 많고, 영어를 학습하는 다양한 외국인 학습자와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문화 사전의 형태와 내용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 있는 출판사로 사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이다.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사용자가 한국어 학습자인 외국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끝으로 살펴볼 자료는 「Korean Picture Dictionary」으로 강현화(2007)가 편찬한 것으로 외국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료이다. 문화 사전은 아니고 어휘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를 주제별로 나눈 것은 대부분의 언어 사전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목할 점은 그림이 어휘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제별¹³⁾로 그림을 제시하고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6가지의 대역어와 함께 기술하고 있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어휘를 선정하고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서 대역어와 음성 CD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급 중에서도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유용한 어휘집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와 국외에서 편찬된 외국인을 위한 문화 사전의 현황을 간략히 알아봤다면 기존의 문화 사전이 갖는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문화 사전의 특징

3.1 국내에서 편찬된 한국 문화 사전의 특징

국내에서 편찬된 한국 문화 사전 중에서 먼저 살펴볼 사전은 「한국 언어 문화 사전」이다.

「한국 언어 문화 사전」(서정수, 2003)은 문화 항목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알파벳순으로 표제항을 배열하고 문화 어휘라고 선정된 것들은 따로 기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를 총 36개의 항목을 나누고 그 아래에 각각의 표제항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표제항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려면 표제항을 선정하여 여러 문화 사전을 비교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표제항 중에서 '생일'에 관련된 표제항과 '출산' 표제항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 한다. 만약 이에 맞는 표제항이 없다면 '교육'에 관련된 표제항으로 대신할 것이다.¹⁴⁾

「한국 언어 문화 사전」에서 표제항 생일 중 '환갑'과 '출산'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한국 언어 문화 사전」(서정수, 2003)의 표제항 기술

13) 13개의 대주제와 9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14) 문화 사전에서 살펴볼 표제항으로 '환갑', '출산' 또는 '교육'으로 정한 것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의 대상이 결혼 이민자이기 때문이다. 생일 중 '환갑'은 다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도 필요한 문화 어휘이기도 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결혼 이민자에게 더 중요한 어휘이며, '출산'과 '교육'이라는 문화 어휘도 결혼 이민자에게 필요한 문화 어휘이다. 다문화 가정에서 교육에 관련된 어휘는 자녀들의 교육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화 어휘가 될 수 있다.

환갑 [hwaŋgap] n. the 60th anniversary of one's birth; one's 60th birthday/anniversary. 그는 올해 환갑을 맞이했다. He reached the age of sixty this year. 그는 환갑으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젊게 보인다 He looks too young to be sixty. 환갑노인 an old person of sixty; a sexagenarian. 환갑잔치 a banquet on one's 60th birthday. 환갑잔치를 베풀다 give a banquet on one's 60th birthday. cf. 회갑. 還甲. (see pp. 753~60 for CNF)

19. Ceremonies and Marriage

환갑/Hwangap 'Sixtieth birthday'

In the day when people rarely lived beyond 50, the sixtieth birthday was a cause for celebration as it represented the completion of one full life cycle. Though people live longer today, the sixtieth birthday is still celebrated in the traditional manner with a big feast prepared by the children. The honoree sits at a table filled with special foods and receives bows and offerings of wine from all the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order of age. Next, younger siblings, friends and other guests pay their respects. If an older family member is present, he or she is seated at a similar table and is honored first.



Sixtieth birthday feast <CF>



Talk setting for the sixtieth birthday feast <CF>

출산 [chulssan] n. delivery; (a) childbirth; (a) birth; parturition. 출산은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The baby is due/expected on March 10. 출산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When is your baby due? 그의 아내는 다음 주 출산 예정이다 His wife is expecting her baby next week. 출산 휴가 maternity leave. 그녀는 지금 출산 휴가 중입니다 She is on maternity leave. 출산율 a birth rate. 첫출산 one's first childbirth. 출산하다 v. give birth to (a child); be delivered of (a baby) 여자 아기를 출산하다 give birth to a baby girl. cf. 낳다, 해산. 出産

위에서 제시한 표제항 '환갑'이나 '출산'을 보면 발음 정보, 품사 정보와 뜻풀이 정보, 용례 정보, 관련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사전에서 발음 정보인데 로마자 표기법을 바탕으로 하되 몇 가지 발음은 조정하고 현실 발음에 맞게 표기했다는 점이다. 로마자 표기가 현실 발음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¹⁵⁾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다면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을 위해서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환갑'이나 '출산'에 대한 뜻풀이를 보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 간단하게 직역하거나 설명하고 있다. 문화적 의미가 필요하다고 보는 표제항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환갑'은 문화 어휘로 선정하여 언어 사전적 정보 외에 문화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글로 된 표제항, 발음과 의미는 영어로 제시하고 있다. 표제항의 기술 내용 순서는 표제항의 의미 유래, 현대적 가치, 방법 순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모든 표제항이 이러한 순서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 어휘 4만 5천개 중 문화 어휘 표제항은 1만 5천개로 따로 분리되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전 사용자가 사전을

15) 파이낸셜 뉴스(2012. 5.29) 참조 <http://www.fnnews.com>.

또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구와 어휘, 또는 문장으로 다양한 용례를 들어 표제항의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 점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서 차용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용례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고 제한하는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문화 백과사전」의 표제항 중 생일에 관련된 문화 어휘로 ‘환갑’에 관한 기술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출산’에 관련된 표제항을 나타나지 않아서 ‘교육’에 관련된 기술 내용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환갑’과 ‘교육’에 관련된 표제항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한국 문화 백과사전」(서정수, 2004)의 표제항 기술

23. Ceremonies, Marriage, Rites, and Funerals

Ceremonies of Birth

Hwangap/환갑 or Sixtieth Birthday

In the days when people rarely lived beyond 50, the sixtieth birthday called hwangap/환갑 was a cause for celebration as it represented the completion of one full life cycle. Though people tend to live longer today, the sixtieth birthday is still celebrated in the traditional manner with a big feast prepared by the children. The honoree sits at a table filled with special foods and receives bows and offerings of wine from all the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order of age. Next, younger siblings, friends, and guests pay their respects. If an older family member is present, he or she is seated at a similar table and is honored first.



35. Education

Remarkable Development of Modern Education

School Education System

The backbone of the school education system is unified structure connection the different school levels. Korea has a single track 6-3-3-4 system which insures that every citizen can receive elementary,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without discrimination and according to his or her ability. The main track of the system includes six years of elementary school, three years of middle school, three years of high school, and four years of university education.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onsist of graduate schools, four-year universities, and two-year or three-year junior colleges.

As of 2001, there were 173 universities and colleges specializing in professional education in Korea. This number reflects a substantial increase from 118 in 1990. The greater number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properly reflects the active pursuit of a college education in Korea by its people.

「한국 문화 백과사전」에서는 표제항의 발음과 의미는 표제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환갑’은 한국 발음과 의미를 영어로 제시하고 한글도 같이 표기한 반면 교육 제도(학제)에서는 영어로 제시하고 있다. 정의 정보 외에 발음 정보와 기타 미시 정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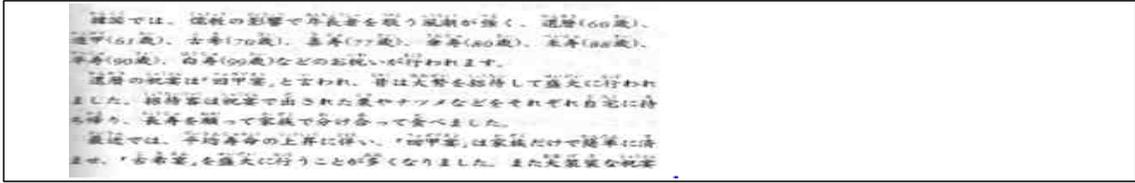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전이 백과사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권 학습자나 교포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이라면 발음 정보나 용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표제항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의, 유래, 현대적 가치, 방식의 순서로 제시되고 있지만 모든 표제항이 일관적인 순서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표제항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영어권 화자나 교포에게 최소한의 문화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 문화적 내용을 과도하지 않고 깊이 있게 제시하지 않은 점은 사전 사용자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시각 자료가 다양하지 못하고 최신 자료가 아닌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제도(학제)’는 현대 교육의 하위 주제이며, 현대 교육에 관한 것은 9쪽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 학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기타 특화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산학 협동, 대학원, 특수 교육 등을 세분화되어 기술하고 있다. 표제항마다 시각 자료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표제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편이다. 내용의 기술은 「한국 언어 문화 사전」의 문화 항목에서의 ‘한갑’의 기술보다 더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현대적 입장에서 기술된 표제항의 내용은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서 차용할 만한 요소이다. 기존의 문화 사전이 전통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면 현대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서 사전 사용자가 결혼 이민자라면 미시 정보를 표기하는 언어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표제항의 선정에 있어서도 사전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전 사용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임영철, 2009)는 문화 항목을 22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그 중에서 생일과 관련된 어휘는 사회생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생일’ 어휘는 없고 생일과 관련된 표제항인 ‘장수 축하’ 표제항이 제시되어 있다. 일반 목적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에 관련된 표제항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교육’에 관련된 표제항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한국 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의 표제항을 살펴 그 기술 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한국 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임영철, 2009)의 표제항 기술

<p>사회생활 社会生活</p> <p>장수 축하 [長壽祝い]</p> <p>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연장자를 공경하는 풍조가 강하여 회갑(60세), 진갑(61세), 고회(70세), 회수(77세), 산수(80세), 미수(88세), 졸수(90세), 백수(99세) 등의 잔치를 합니다. 회갑잔치는 ‘회갑연’ 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초대 손님은 잔치에 나오는 밤이나 대추 등을 각자 자기 집으로 가져가 장수를 바라면 가족과 나눠 먹었습니다.</p> <p>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상승과 더불어 ‘회갑연’은 가족끼리 간단하게 치르고 ‘고회연’을 성대하게 치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잔치를 크게 치르지 않고 부부끼리 오붓하게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p>	
--	---



교육

교육제도 [教育制度]

한국의 근대교육제도는 조선시대(1392~1910)말기인 1895년에 고종황제가 발표한 교육조서에서 시작됩니다.

해방 후인 1949년, 미국을 모방하여 6.3.3.4년제라는 학제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외에 유치원이나 직업학교 등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일본의 입학식은 4월이지만 한국은 3월입니다. 1년이 2학기제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길고, 졸업식은 대부분 2월에 합니다.

「한국 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임영철, 2009)은 표제항을 가다나순으로 하지 않고 주제별로 나누었다는 점이 다른 문화 사전과 다르다. ‘장수 축하’는 생일에 관련된 표제항으로 대주제인 ‘사회생활’의 하위 주제로 제시되어 있고 ‘교육 제도’는 대주제인 ‘교육’의 하위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 표제항의 발음 정보는 한국식으로 제공하지 않았지만 일본식 발음이나 표기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뜻풀이 정보도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일본인 학습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뜻풀이 정보는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뜻풀이 정보는 완전한 문장으로 정중한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표제항의 표기 방식은 한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일본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를 감안하여 한국어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에 일본어로 풀이하여 제시한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뜻풀이 정보는 표제항의 유래, 종류, 구성 성분, 최근의 경향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 제시했다는 점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뜻풀이의 기술 내용이 일괄적이지 않고 표제항마다 기술 내용의 틀이 다르다.

3.2. 외국에서 편찬된 문화 사전의 특징

영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에게 영미권 문화를 소개하는 사전은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1992)가 있다. 이 문화 사전에서 생일에 대한 표제항 birthday와 출산에 대한 표제항 childbirth, delivery, parturition 의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1992)의 표제항 기술

birth-day /'bɜːdeɪ || 'bɜːr-/ *n* 1, a day which is an exact year or number of years after one was born: *my 21st birthday* | *a birthday party* | *Happy birthday to you!* - compare ANNIVERSARY

▶ **CULTURE NOTE** people, esp. children often celebrate their birthdays with a **birthday party** where people play games, sometimes wear special paper hats, eat **birthday cake**, and special song called *Happy Birthday to you*. people are usu. given presents and **birthday cards** on their birthday. ◀

2 **in one's birthday suit** *infml humor* having no clothes on; NAKED

childbirth /'tʃaɪldbɜː || -bɜːr / *n* [U] the act of giving birth to a child.

delivery /dɪ'livəri/ *n* 2[C] the birth of a child. *The mother had an easy delivery.*

par.tu.ri.tion / | pɑːtjə'riʃən || | pɑːtə-, -tʃə-/ *n* [U] *med* the act of giving birth.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1992)에서는 언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화의 내용은 부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문화적 부가 의미가 제공된 표제항이 1만 5천개에 달한다. 표제항의 발음 정보, 품사 정보, 정의 정보, 용례 정보, 언어 정보, 관련 어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적 의미는 Culture Note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다. Culture Note은 표제항의 정의 정보와 문화적 의미를 분리하지 않고 그 밑에 제시함으로써 사전 사용자가 한번에 표제항의 정의 정보와 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Culture Note은 어휘에 관련된 정보(영어 모어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 가치, 전통, 역사적 정치적 사건, 특정 문화 등)를 기술하고 있지만 모든 표제항의 기술 순서가 같은 것은 아니며 기술 내용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술 내용에서 표제항과 관련이 있는 관련어들은 글씨의 굵기를 진하게 하여 다른 어휘들과 구분하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미시 정보들이 간단한 정보이긴 하지만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유용하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산’에 대한 표제항은 일반 어휘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정의 정보, 용례 정보 등이 제시되어 있다. ‘출산’ 관련 어휘는 3가지로 설명되어 있으나 각각이 유의어 정보로 묶이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 의미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영미권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사전으로 『Oxford Guide to British and American Culture』(1999)가 있다. 이 영미 문화 사전에서 생일에 관련된 표제항은 있지만 출산에 관련된 표제항은 제시되지 않아 교육에 관련된 표제항으로 대신하였다. 다양한 표제항의 기술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해서 ‘생일’과 ‘교육’에 관련된 표제항의 기술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Oxford Guide to British and American Culture』(1999)의 표제항 기술

▶ **birthday**

Birthday are especially important to the very young and very old. On their birthday, people receive **birthday cards** and **birthday presents** from their family and friends. Children's cards

often have a large number on them showing how old they are. Cards for adults have picture of flowers or scenery, or humorous or rude cartoons. Inside there is usually a simple greeting, such as "Happy Birthday" or "Many Happy Returns of the Day". Children expect to receive a special birthday present from their parents. As they get older, many expect larger, more expensive presents, such as a music system or a television.

In the US, children who have their birthdays during the school year take a cake to school and have a small party with their class. In Britain children sometimes get **bumped** by their friends(= lifted off the horizontally and put down again sharply), same number of times as their age. Some US parents have the custom of **spanking** their child, once for each year of their age.

Many young children invite their friends to a **birthday party** at their home. Balloons are often tied to gate of the house where the party is being held. Children wear their **party clothes** and take a present. They play **party games** such as 'pin the tail on the donkey' or 'musical chairs'. Sometimes parents arrange for an entertainer such as a magician to visit the house. After the games there is a special tea with a **birthday cake**. The cake is covered with sugar icing(AMÉ frosting), and has small candles on top, the same number of candles as the child's age. As the cake is carried into the room with the candles lit, everyone sings '*Happy birthday to you!*' and then the **birthday boy** or **birthday girl** tries to blow out all the candles with one breath and makes a secret wish.

In the US the 16th birthday is called sweet sixteen. In many states it is the age at which a person can get a US driver's licence, and some wealthier parents give their children a car as a present. At 18, Britain and in the US, young people become adults and many have a big party. In most parts of the US 21 is the age at which people can drink alcohol legally. In Britain people celebrate 21st birthdays less than when 21 was the age at which they became adults.

Many adults dislike getting older and a few lie about their age, saying they are younger than they really are. But in general older people are now much more willing to tell others their age. you may see a sign by the side of a road saying: 'Dave Ellis 40 today!', put there by Dave's friends. At about 65 people retire, and those who have reached this age are called 'senior citizens'. Few people live to be 100, so a 100th birthday is very special. In Britain people reaching this age may receive a card containing a printed message from the Queen.

preparatory school (also 'prep school / 'prep/) n. 1.(in Britain) a private school for students aged between 7 and 13, whose parents pay for their education. Preparatory schools prepare their students for the *Common Entrance exam, which allows them(if they pass) to go on a * public school(I). Most preparatory schools are for either boys or girls, and some students may live at the school rather than at home.
2.(in the US) a private school that prepares students for college.

위에서 제시한 표제항을 살펴보면 표제항에 따라 발음 정보, 품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의 정보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공식, 비공식적 표현은 물론 유머, 반의적인 의미, 과거의 의미, 속어적 의미, 구어적 표현과 문어적 표현 등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전은 순수한 문화 어휘로 1만여 개의 표제항을 선정하였고, 표제항에 대한 관용구나 용례 정보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언어 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생일인 'birthday'는 특별한 표제항으로 '▶' 표시를 두어 자세한 기술을 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birthday'는 발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 설명이 다른 표제항보다 길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표제항과 연관된 문화 어휘들은 다른 설명보다 진하게 표

시를 하여 구분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표제항의 문화적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제항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 제시한 일반 표제항 ‘preparatory school’은 유의어 표현은 물론 발음 정보도 제시하고 있으며 품사 표시도 제공하고 있다. 정의 정보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단점은 미시 정보 중에 표제항의 용례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용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문화 의미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 맥락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필요한 요소이다.

4.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 편찬에서의 활용

사용자에 따라 표제항의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사용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다양한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 한국 문화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사전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결혼 이민자들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구성원으로 생활해야 하고 한국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집단이므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는 다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고 문화 교육이 시급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 사전이 일반 목적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 사전으로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이 일반 목적으로 편찬된 문화 사전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학습 목적과 달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과 목적에 따른 세분화된 한국 문화 사전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 이민자들은 일반 목적 학습자와 매우 다른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의 편찬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에서 기존의 문화 사전의 특징을 알아보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이 언어 사전의 형식을 따를 것인가 백과사전의 형식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 볼 수 있다. 백과사전 형식의 문화 사전은 「한국 문화백과사전」(2004), 「한국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2009) 등이 있고 언어 사전의 형식으로 된 문화 사전은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1992)이 있다. 이 사전은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모두 해당되므로 외국인을 위한 언어-문화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 사전의 형식에 백과사전적 요소를 더한 사전은 「한국 언어 문화 사전」(2003), 「*Oxford Guide to British and American Culture*」(1999)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사전은 언어 사전의 특징이 강하며 여기에 사회, 문화적 의미가 첨가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은 표제항의 사회 문화적 의미만 제공하기 때문에 표제항의 다양한 언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하고 언어 사

전은 문화 어휘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화 사전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은 언어 사전이면서 백과사전의 요소를 더한 복합적 사전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문화 사전의 기술 방식 중에서 기술한 언어가 단일 언어인가 다중 언어인가를 살펴보고 적절한 언어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위한 국내의 한국 문화 사전을 살펴보면 「한국 문화 백과사전」(2004)과 「한국 언어 문화 사전」(2003)은 영어권 화자 또는 교포 2·3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사전으로 전자는 영어가 사용되었으나 후자는 표제항뿐만 아니라 용례 정보에서도 한국어-영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 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2009)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본어 화자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사전으로 한국어-일본어가 사용되었다. 국외에서 편찬된 문화 사전으로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1992)와 「*Oxford Guide to British and American Culture*」(1999)은 단일 언어인 영어로만 표기하고 있다.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선호하는 사전의 언어 기술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되 모국어로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제시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국어로 기술된 한국 문화 내용은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 이해와 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어 숙달도가 다른 학습자에 비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국어가 같이 제공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은 백과사전의 특징적 요소뿐만 아니라 언어 사전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점검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화 사전에서 점검할 사항

표제항의 수	결혼 이민자에게 표제항은 얼마의 크기가 적당한가?
표제항의 선정	어떤 선정 방법이 효율적인가?
뜻풀이 정보	뜻풀이의 어휘 수준은 어느 정도가 효율적인가?
시각 정보	시각 정보는 얼마나 어떻게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기타 정보	기타 정보를 어디까지 주는 것이 좋은가?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문화 사전의 표제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많게는 4만 5천 개의 표제항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의 특성상 범위가 포괄적인데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제항이 너무 많으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제항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표제항 수를 선정하는 기준은 빈도와 사전 사용자의 요구가 될 것이다. 특히 모든 문화 어휘를 담기보다는 빈도에 따라서 표제항 범위를 정하는 것이 사전 사용자에게 더 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표제항 수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배열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문화 사전 중 「한국 언어 문화 사전」(2003)과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1992), 「*Oxford Guide to British and American Culture*」(1999)은 알파벳순 배열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외에 「한국

문화 백과사전」(2004), 「한국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2009)는 주제별 배열을 하고 있다. 가나다순 배열은 표제항 수를 제한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제별 배열이라면 표제항의 수를 조절할 수 있고 문화 어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주제별 배열이 학습자가 주제를 분류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을 반복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색인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은 주제별 배열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서 뜻풀이 정보는 기존의 문화 사전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좋다.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1992)과 「한국 언어 문화 사전」(2003)은 사전 사용자를 위해 뜻풀이 정보에서 풀이문의 어휘가 쉬운 것을 사용하고 있다. 표제항의 어휘보다 풀이문의 어휘가 어려울 경우 사전을 반복적으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 사용자의 수준에 맞게 쉬운 어휘로 풀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적극 수용하여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서도 기초적인 어휘들로 풀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표제항의 사전적 정의 이외에 백과사전적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것은 문화 어휘에서 필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백과사전적 정보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그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에서 편찬된 문화 사전 모두 문화 내용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표제항의 뜻풀이 정보가 일관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술 내용의 순서가 의미- 유래- 방식- 현대적 가치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면 많은 문화 어휘의 표제항의 기술 내용이 일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사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시각 자료는 백과사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서 시각 자료는 필히 제시되어야 하는 자료이다. 시각 자료를 얼마나 제시하고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사전의 쓰임새가 달라질 것이다. 시각 자료를 통해 표제항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표제항에 시각 자료를 제공할 것인가 또는 어느 수준까지 시각 자료를 제공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도가 정해졌다면 시각 자료의 종류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외국인을 위한 문화 사전과 기타 사전의 편찬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문화 사전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이것을 기존의 문화 사전과 기타 사전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내외 문화 사전 및 기타 사전의 구조

한국 언어 문화 사전(2003)	표제항- 어깨 번호- 문법 정보- 대역어(영어)- 용례 정보(영어-한국어)-활용형(영어-한국어)- 참고 사항- 상호 참조
-------------------	---

한국 문화 백과사전(2004)	표제항(영어-한국어)- 정의 정보(영어)- 시각 자료
한국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2009)	표제항(한국어-일본어)- 정의 정보(한국어-일본어)-시각 자료
<i>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1992)</i>	표제항-어깨 번호-발음 정보-문법 정보- 정의 정보-관용표현, 활용형- 용례 정보- 참고 사항(문화적 사항)-상호 참조
<i>Oxford Guide to British and American Culture(1999)</i>	표제항- 어깨번호- 발음정보- 문법정보- 정의정보(중심 어휘)- 활용형- 용례정보- 참고사항(비교 어휘)- 상호참조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 사전(2000)	표제항- 품사 정보- 정의 정보- 시각 자료

위의 표를 참고삼아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서 가장 필요한 구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내외 문화 사전을 분석해 본 결과 정의 정보에 초점을 맞춘 문화 사전이 있는 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을 위한 문화 지식과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문화 사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의 초점은 사회 문화적 의미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 정보의 개념 정의와 사회 문화적 정의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 외에 발음 정보나 용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전을 사용하는 학습자에게 이해 어휘뿐만 아니라 표현 어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문법 정보는 과도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제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화 어휘 표제항 대부분이 명사이기 때문에 품사 정보를 주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의 정보에서는 다룰 수 없지만 꼭 알려주어야 할 내용들은 참고 정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의미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특징을 고려하여 새롭게 편찬할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서는 기존의 한국 문화 사전의 특징을 반영하여 기술하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표제항- 발음 정보 - 정의 정보(정의정보1, 정의정보2) - 시각 정보 - 용례 정보 - 참고 정보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편찬된 기존의 문화 사전의 특징 분석을 통해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 편찬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활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적용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을 사용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 문화 학습에 취약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 사전을 편찬하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편찬된 한국 문화 사전은 표제항 선정이나 기술 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은 한국 문화의 이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언어 사전의 성격을 띠면서 백과사전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먼저,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 실릴 표제항의 선정은 결혼 이민자에게 맞는 문화 어휘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표제항의 배열은 주제별 배열이 유용할 것이다. 주제별 배열은 의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표제항의 수를 제한하기 쉽고 색인에서 문화 어휘 목록을 제시하면 표제항을 찾기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제항의 정의 정보가 될 수 있다. 풀이문이 쉬울수록 이해도와 사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풀이문의 어휘는 쉽게 풀이하도록 한다. 또한 풀이문은 표제항의 의미 정보와 사회 문화적 정보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며 사회 문화 의미를 기술하는 풀이문은 나열식보다는 의미-유래-방식-현대적 가치 등과 같은 일정한 틀에 따라 일관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 정보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해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의 편찬 방향과 기초적인 틀을 구성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 미루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김은영(2013),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에 관한 기초 연구, 경기대 박사논문.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한글학회, 317-325쪽.
-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서울: 월인.
- 배현숙(2002),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177-198쪽.
- 서태길 외 역(2008), *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제*, 서울: 제이앤씨.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1-135쪽.
- 유현경·남길임(2009),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서울: 역락
- 조항록(2002),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441-472쪽, 서울: 한국문화사.
- 홍종선 외(2006), *국어사전학 개론*, 서울: 제이앤씨.
- 황인교(2006),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학교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7-227쪽.
- 황인교(2007),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문화, *이중언어학* 35, 이중언어학회, 409-437쪽.
- Bopp, R. E. & L. C. Smith.(1995),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An Introduction* 2nd ed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pp436-447.
- Byram, M., & C. Morgan.,(1994),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 and- cultur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Hinkel, E.(1999),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덕영 역(2009), *문화와 제2언어 교수 학습*, 서울: 한국문화사.
- Kramersch, C.(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idney I. Landau. 1984. *Dictionaries: The art and craft of Lexicograph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김영안, 강신권 공역, 2002, 『사전편찬론: 예술성과 장인 정신』, 서울: 한국문화사.
- Louis, S.(1954), *Basic Reference Sources*, Chicago ALA.
- [사전류]
- 강준(2006) 『한국 생활 문화 사전』,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강현화(2007) *Korean Picture Dictionary*, 서울: 다락원.
- 서상규 외,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서울: 신원 프라임.
- 서정수(2003) 『한국 언어 문화 사전』, 서울: 한세본.
- 서정수(2004) 『한국 문화 백과사전』, 서울: 한세본.
- 신현숙 외(2000) 『의미로 분류한 한국어 학습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임영철(2009) 『한국 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 서울: 제이앤씨.
- 주강현(2007) 『100가지 민족 문화 상징 사전』, 서울: 한겨레아이들.
- 한국문화대사전간행 편집위원회(2008) 『한국 문화 대사전』, 서울: 한울터.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1992/2001) 『한국 문화 상징사전』, 서울: 두산동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Della Summers(1992/2005)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Longman Group UKLimired.
- Jonathan Crowther (1999/2005) *Oxford Guide to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 <http://folkency.nfm.go.kr>

한국 향토 문화 전자 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 토론

“문화 사전 특징 분석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 편찬의 활용 방향-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화진(홍익대)

이 글은 한국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기존 문화 사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 사전의 형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문화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문법이나 어휘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사전은 아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한국어 교육계에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는 과정에서 드는 의문점과 토론자의 무지함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본 발표는 기존의 문화 사전의 특징을 분석하여 외국인을 위한 문화 사전을 편찬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기존 문화 사전의 특징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인 동시에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 참고할 문화 사전의 선별에 고려되어야 할 4가지 측면 중, 두 번째인 ‘편찬 시기’에서 종이 사전과 구조가 다른 전자 사전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시기적 측면과 사전의 구조적 측면에서 전자 사전이 문화 사전 편찬의 참고 자료로 채택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세 번째인 ‘자료의 편찬 장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8페이지에 ‘한국 문화 사전’에서 로마자 표기법을 현실 발음에 맞게 조정하여 발음 정보로 제시했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예에 대한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즉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점에 대한 파이낸셜 뉴스의 지적이 어떤 부분에 기인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3. 4장을 살펴보면 기존 문화 사전 분석을 바탕으로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사전의 기본 방향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은 언어 사전이면서 백과사전의 요소를 더한 복합적 사전의 형식을 제시하였고, 사전의 기술 언어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되 모국어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에 제시된 결혼이민자 국적 분포만 살펴봐도 중국 44%, 베트남 26%, 일본 8%로 다양한데, 모

국어로 보충을 한다면 몇 개국의 언어까지 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논문의 가장 중심 내용으로 생각되는 새로운 문화 사전의 내용 기술 순서가 “표제항 - 발음정보 - 정의 정보(정의정보 1, 정의정보 2) - 시가정보 - 용례정보 - 참고 정보”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전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전에서는 ‘출산’이 어떠한 문화적 맥락에서 설명될 것이고, 그것이 다른 문화 사전들의 설명과 어떠한 점에서 다를 것인지 구체적인 실례를 샘플로 제시하여 보여주신다면 논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 글은 새로운 문화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기존 문화 사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문화 사전 편찬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